장편소설

녀가수

정기종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차 례

제1장
낯선 녀인

1

림현순이 그 미지의 녀인을 알게 된것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였다. 도저히 믿을수 없는 그런 일이 중국방문공연길에서 벌어졌다. 후에 가서도 현순은 그 낯선 녀인이 수십년이나 그런 상봉의 기회를 노려오지 않았을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가끔 하군 하였다. 그처럼 그것은 믿기 어려운 우연중의 우연이였던것이다.

그때 그는 《베이징반점》이라는 호화현판이 걸린 호텔의 435호실에 들어있었다. 지난해에 왔을 때에도 이곳 3층 어느 방엔가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때엔 민속무용조곡 《계절의 노래》 공연차로 왔었지만 지금은 전설무용극 《봉선화》의 공연을 위해 와있다. 중국측에서 아시아민족예술축전에 우리가 전설무용극을 가지고 참가해줄것을 정식 초청했던것이다.

림현순은 전설무용극의 형상지도를 맡고있는 강사로서 작품의 녀주인공역을 맡고있는 신정미와 한방에 들어있었다.

베이징반점은 □자모양의 고색창연한 건물이다. 밖에서 보면 극장이나 옛궁전을 상기시키나 건물내부는 현대적으로 꾸린 전형적인 중국식 호텔로서 □자모양건물의 가운데 빈 공지는 유리지붕을 씌우고 그안에 갖가지 열대식물과 고급식탁들을 조화롭게 배치했는데 무도장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무대까지 갖추어놓았다. 밤늦도록 그곳에서는 춤과 음악이 그칠줄 몰랐다.

지난해 여름에 왔을 때 이 □자형 호텔의 현대식 뒤쪽채에는 국제의회동맹년차총회에 온 대표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국제적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답게 유리지붕아래의 유흥장에서 조용히 고전음악을 들

으며 음료를 마시는것이 전부였었다. 그들은 조선의 무용수들을 만날때에도 두팔을 쩍 벌리며 아릿다운 그 모습에 황홀해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쳐들며 찬탄과 환영의 뜻을 보내군 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정이 달랐다. 수많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떠들썩 웃으며 달려들어 기념수표를 요구하는가 하면 사진을 찍자고 혹은 춤을 추자고 잡아끄는것이였다. 그들이 청하는 유흥장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건물벽체를 따라 오르내리는 원형유리승강대도 멎을줄 몰랐고 샴팡술의 병마개들도 끝없이 튕겨오르며 포물선을 그었고 몸이 둥싯한 녀인들과 회초리처럼 하느적거리는 처녀들에게 초점을 맞춘 갖가지 현란한 조명불빛도 술에 취한듯 정신없이 껌벅거렸다.

방의 뒤쪽 창가에서 그곳을 내려다보느라면 어지럼증에 머리가 휘돌아가는듯싶었다.

두툼한 창가림까지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쪽의 환락의 세계와 그들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였다.

첫 공연을 앞두고 현순은 신정미와 같이 《봉선화》의 녀주인공 봉선이의 형상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있었다. 시간을 아껴야 했다. 외국에서 진행하는 첫 공연이였으므로 하나의 춤가락, 얼굴표정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더우기 조국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을 외국에 보냈는데 유흥장에 정신을 판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별안간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현순은 미간을 찡기였다.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배우들중의 누군가가 쓸데없이 전화질을 한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아닐세라 무대에서 봉선이의 애인 억쇠역을 맡은 조인규였다.

《무슨 일이예요?》 현순이 물었다.

《강사동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조인규가 별스레 갑자르며 떠듬거리는 말이였다. 《저기 뒤쪽의 유흥장에서 지금 어떤 녀인이 계속 우리를 살피고있습니다.》

조인규는 무용가답게 키가 늘씬하고 곱게 생긴 젊은이이다. 주역을 맡고있는 그가 지금껏 뒤쪽의 유흥장에 눈을 팔고있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한창나이 젊은이들일수록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 법이니… 현순은 나직이 말했다.

《인규동무, 쓸데 없는데 눈팔지 마세요. 그러다 머슴총각 억쇠의 눈이 흐려지면 어찌겠어요.》

《아, 강사동지.》조인규가 급해했다. 《어쨌든 뒤쪽창문을 좀 내다보십시오. 선인장화분곁의 식탁에 앉아있는 녀인인데 정말 이상합니다.》

《인규동무, 내가 몇번이나 말했어요. 공연을 앞두고는 절대 잡념을 버려야 한다구요!》

현순이의 그 말이 조금 랭랭하게 울렸던지 그는 《예, 강사동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는 창밖의 녀인에게서 눈을 뗄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얼마후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가 방안에 들어섰다.

《강사동지, 잠간만 저길 좀 내다보십시오. 정말 이상합니다.》

현순은 언짢아하는 표정으로 그를 스쳐보았다. 혹시 신정미와 무엇을 약속한것은 아닐가? 이들이 무대우의 애인관계를 여기 호텔방에까지 끌고 오는것이라면?…

《강사동지.》 조인규가 계속했다. 《저 녀인이 계속 강사동지를 따라다니다가 지금도 살피고있는데… 누군지 보십시오. 혹시 아는 사이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사람이 분명한데…》

옆에서 듣고있던 신정미가 코웃음쳤다.

《베이징에 와서 아는 사람을 만나요?》

조인규가 대꾸했다.

《그럴수도 있지 뭐. 아니면 우릴 감시하는지 알게 뭐야!》

《그럼 우리한테 정보원이 붙었다는 말이예요? 아이참, 어처구니도 없지!》

《동문 좀 가만있소!》

조인규의 성난 표정이 현순이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다.

《우릴 살핀다구요?》

창가로 다가가 창가림을 들치였다. 조인규가 선인장화분이라 한것은 사실 석류나무화분이였다. 그옆의 원형식탁에 홀로 앉아 이쪽을 지켜보고있는 녀인이 곧 눈에 띄였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중년부인이였는데 첫눈에도 그 녀자가 이상야릇한 매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아까 우리가 호텔에 들어설 때…》하고 조인규가 속삭이였다.

《강사동지와 마주치자 입을 딱 벌리고있던게 생각 안 납니까?… 생각 안 난다구요? 아, 4층에까지 따라와 어정거렸는데요. 그때부터 계

속 우리쪽만 살피고있단 말입니다.》

현순은 머리를 저었다. 그 녀인은 그들을 살피고있는것이 아니라 무심히 눈을 들어 갖가지 불빛이 언뜩거리는 허공을 견주고있을뿐이였다. 미친듯 히히닥거리며 서로 껴안고 돌아가는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한자리에 앉아 남모르는 상념에 잠겨있었다.

현순은 창가림을 놓고 자기자리로 돌아갔다.

《인규동무, 내 이번에 전설무용극을 창조하면서 고전작품들을 더러 읽어봤는데 이런 옛시가 있더군요.

거문고소리 자지러질 때
마음 또한 자지러지누나

충고하는데 애당초 저런덴 귀기울이지 마세요, 눈길도 돌리지 말고.》

조인규는 물고기모양 입만 벙긋거리고있었다. 무용지도를 전문하는 림현순이 대단한 독서가라는것은 이미 알고있었지만 옛시까지 꺼들줄은 생각지 못했을것이다.

신정미가 그의 어눌해진 모양을 두고 키득거렸다. 그러자 그는 처녀쪽을 흘끔 치떠보고나서 중얼거렸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가서 머슴총각의 감정표현이나 잘 연구하세요.》

《예, 예. 그러지요.》

다음날 아침 식당으로 들어서던 현순은 앞쪽의 가운데식탁에 홀로 앉아 기다란 저가락을 입에 물고있는 그 녀인을 보았다.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현순이만을 지켜보는데 어쩐지 섬찍한 느낌이 들었다. 그처럼 그 녀인의 눈빛은 류달랐다.

현순은 갖가지 료리들이 쟁반들에 무드기 담겨져있는 료리대로 걸어가 남새빵과 닭알부침 그리고 우유고뿌만을 골라들고 돌아섰다. 그때까지도 녀인의 눈빛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 배우들이 손짓하여 부르는 식탁을 지나 맨뒤쪽의 조인규에게로 갈 때까지도 지꿎은 시선은 비수처럼 현순의 잔등에 박혀있었다.

자리에 앉자 숨을 활 내뿜고 여전히 자기를 견주고있는 그 녀인을 언짢게 마주보았다. 그제서야 녀인은 눈길을 떨구었다.

《강사동지.》 조인규가 놀란듯 말했다. 《왜 이렇게 식사를 조금 합니까. 어디 말쨴게 아닙니까?》

《아-니, 그저 기름진 중국료리들이 구미에 맞지 않아서…》

빵을 들고 조금씩 뜯으며 이상한 녀인을 살펴보았다.

《인규동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녀인이 어째 계속 나만 볼가요?》

조인규가 머리를 홱 돌렸다.

《누구라구요? 아, 저 녀자!》 그는 소고기볶음을 입에 쓸어넣고나서 히쭉 웃었다. 《강사동지, 그런데 속쓰지 마십시오. 이런 옛시가 있지요. 거문고소리 자지러질 때… 생각나시지요?》

《됐어요.》

우유를 한모금 마시고나서 현순은 또 눈길을 돌렸다.

《어쨌든 저 녀자는 우리를 살피고있어요. 왜 그럴가. 무얼 노리고?》

조인규가 낮게 수군거렸다.

《강사동질 노리는게 아닙니까? 랍치해가려구요.》

《또 쓸데없는 소리!》

그때 그 녀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곧추 현순이를 향해 마주오는데 눈길은 허공을 찌르고있는듯 했다.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걸음새, 축을 곧추 세우고 어깨를 올린 자세로 호흡을 받쳐서 걷고있다. 무용수들만이 그렇게 걷는다. 호흡으로 걷고 률동적으로 걷는다. 그러면 저 녀자도 무용가인가?… 춤출 나이는 퍼그나 지났는데… 혹시 내가 젊었을 때 어느 외국공연길에서 만난 일이라도 있는게 아닐가?… 림현순은 눈앞으로 다가오는 녀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면바로 다가오던 그 녀인은 현순의 앞을 지나 문쪽으로 곧추 걸어갔다. 한무리의 외국관광객들이 떠들썩하며 밀려드는통에 그 녀자의 모습은 곧 가리워지고말았다.

전설무용극 《봉선화》의 첫 공연은 요란한 박수갈채와 환호속에 끝났다. 무대막이 몇번이나 오르내리고 그때마다 배우들은 손에 든 꽃다발을 흔들며 답례를 보냈다.

현순은 끝까지 남아있는 관객들속에서 얼핏 이상한 그 녀인을 알아보았다. 막은 완전히 내려지고 조명등의 불빛마저 서서히 꺼져가고있었으나 그 녀자는 선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있다가 머리를 수긋한채

천천히 몸을 돌려 걸어나갔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끝난것이 아니였다. 공연성과를 축하하는 연회에까지 참가하고 늦게야 호텔로 돌아왔을 때였다. 차에서 내려 울긋불긋한 축등들이 칠색무지개빛으로 어룽거리는 현관에 들어서던 현순은 급기야 걸음을 멈추고 굳어져버렸다. 호텔수위와 무슨 말을 주고받던 그 녀인이 앞을 막아서며 인사를 했던것이다.

류행복진렬장의 마네킨이 허리굽혀 인사를 했어도 그처럼 놀라지는 않았을것이다. 아래로 감기(조선춤가락)동작을 하는듯 두손을 맞잡고 무릎의 굴신이 유표하게 공손히 인사하고나서 그 녀자는 말했다.

《림현순선생이지요?》

《?!》

더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이름까지 다 알고?… 현순은 구원을 청하듯 앞서가는 처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속에 끼여있던 조인규가 무슨 기미를 채고 천천히 다가왔다.

《실례입니다만 한가지 청이 있어서…》하고 그 녀인이 계속하였다. 《전 미국에 사는 고진아예요. 잠간만 저를 만나주셨으면 해서… 제발 거절 말아주셔요. 그러시지요?》

《헌데 무슨 용건인지?…》

《그걸 한마디로 설명할순 없어요. 우선 약속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시겠다는…》

《지금 이렇게 만나고있지 않나요.》

《참 그렇군요.》 녀인은 한숨을 지었다. 《그런데 여기서야 어떻게… 저기 보석매장앞의 휴계장이 제일 조용하지요.》

《좋아요.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겠어요.》

《고마와요, 림선생. 정말 친절하시군요.》

녀인은 처음으로 생긋 웃었다. 애처롭게 보이는 미소였는데 현순은 그 미소뒤에 바르르 떠는 눈물이 숨어있는듯 느껴졌다.

승강기앞에서 기다리고있던 조인규가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강사동지, 그 녀자가 뭐라고 합니까?》

현순은 어깨를 으쓱하며 재빨리 말했다.

《마침 잘 만났어요. 이제 나랑 같이 그 녀자를 만나보자요.》

2

그리하여 그들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고진아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 녀인은 처음부터 림현순의 옆에 앉은 조인규를 자꾸 의심스럽게 곁눈질하군 했다.

《일없어요.》하고 현순이 말했다. 《우리 〈봉선화〉에 출연하는 배우예요. 억쇠!》

《참 옳군요.》 고진아가 재빨리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공연을 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릴가요?… 정말 감동적이였어요. 가슴아픈 눈물의 사랑… 무희들도 하나같이 예쁘구요. 참, 그 이야긴 이북의 **김정일**령도자님께서 들려주신거라지요?》

《예.》 이렇게 먼저 대답한것은 조인규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57년에 들려주신 이야기를 각색했다구요.》

《봤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예요. 〈에스메랄드〉나 〈백조의 호수〉 같은 바레트만 부러워했던 저로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더군요. 어쩌믄 조선춤가락으로 그처럼 가슴아픈 사랑의 얘길 극적으로 형상해낼수 있었는지… 훌륭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현순은 유럽가극의 화려한 서곡과 같은 서두의 인사말을 숨가쁘게 늘어놓고있는 고진아를 아무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그것은 이제 터놓을 보다 심각한 화제를 위한 준비호흡과도 같은것이였다.

이제 겨우 40대에 들어선듯싶은 녀인, 희맑은 살결과 부드럽고 애교있는 목소리는 젊고 생신해보이게 했어도 숨길수 없는 눈가의 잔주름은 녀인의 나이를 가늠할수 없게 하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 녀자가 미소를 지을 때에도 치째진듯 한 두눈만은 웃지 않는것이였다. 어쩐지 이 고진아라는 녀인이 살가운 매력과 더불어 헐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하고 고진아가 계속했다. 《림현순선생은 무대에 출연하지 않더군요. 아무리 눈밝혀봤어도 말이지요.》

이번에도 조인규가 현순을 대신했다.

《우리 피바다가극단의 무용강사 아닙니까. 전문배우들의 형상지도를 맡고있지요.》

《강사?》

《예, 체육부문에서 말하는 감독과 같은거지요.》

《아, 감독!… 그렇군요. 그러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우리 강사동지도 이전엔 이름난 배우였답니다. 한때엔 유명한 무용 〈고난의 행군〉에서 신호나팔수역을 했구요. 그담 〈사과풍년〉, 〈돈돌라리〉, 〈쟁강춤〉의 주인공을 하면서 20대에 벌써 공훈배우칭호를 받았지요.》

《예ㅡ》

현순은 면구스럽기 그지없었다. 낯선 동포녀성에게 자기 소개나 시키려고 그를 끌고온것은 아니였다. 슬그머니 그의 옷소매를 끄당기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럼 말해보세요. 절 만나자는 용건이 무엇인지?》

고진아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나 한동안 말없이 두손을 깍지끼고 주무럭거렸다. 마침내 머리를 들었을 때 그 녀자의 두눈에는 어느새 물기가 어려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 이름은 고진아, 나이는 쉰셋이예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유언도 있구 해서 동포들을 위한 가무단을 하나 무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말이 아니예요. 왜냐면요 다들 부르스나 록큰롤풍에 맞추는데 우린 뒤떨어진 옛곡조에 맞추고 있으니… 망해버릴밖에요. 그래서 여기 온거지요. 중국에 사는 동포들속에서나마 호흡을 맞출가 해서요. 한때 우리 어머니도 중국 동북지방에까지 순방하며 공연했다질 않아요. 오래전, 반세기나 흘러간 먼 옛적에 말이지요. 참, 이야기가 빗나가네요. 내가 말하자는건 그게 아니구… 정말 미안해요, 잠간만!…》

고진아는 서두르며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였다.

《여기 있는 사진들을 봐주세요.》

봉투속에는 누렇게 퇴색한 사진 두장이 들어있었다. 한장은 교회당 비슷한 건물앞에서 여럿이 찍은것이고 다른 한장은 젊은 녀자의 독사진이였다.

《우리 어머니사진이예요.》 고진아가 먼저 독사진을 내놓으며 하는 말이였다. 《배우였지요. 성악, 화술, 무용도 했다나봐요. 나중

엔 영화에 많이 출연했구요, 박수미라고… 그런 이름 들어본적 있어요?… 아, 모를수도 있어요. 사실 이남에선 한때 너무나 소문이 짱짱했던 어머니였어요, 악평도 있었지만… 그리고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뜨셨구요. 오래전에 남편도 빼앗겼다고 할가… 가엾게도 홀로 살다가 그만 눈을 감았어요. 정말 불쌍한, 비참한 한생이였어요. 나중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이 딸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저려나군 해요.》

쓰라린 회상이 고진아로 하여금 눈물을 머금게 한것 같았다. 손수건끝을 깨물고있는 그 녀자의 수그린 머리에 한두오리의 흰 머리칼이 섞여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어머닌》하고 그 녀자는 계속했다. 《눈을 감으면서 제게 보낼 편지를 쓰셨어요. 유언처럼 말이지요. 거기서 어머닌 이 딸에게 꼭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하시지 않았겠어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를!… 왜 그랬을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난 리해할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늦게나마 알게 되는것 같아요. 림종을 앞두고 무엇이 제일 그리운지…》

현순이는 물론 조인규도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무용을 전문해온 그들이 남의 인생사에 즐겨 파고드는 작가나 기자들처럼 뜻밖에도 한 인간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펴내게 된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것이 분명치 않다. 현순은 말없이 녀인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녀인은 목구멍 가득히 끓어오르던 오열을 소리없이 삼켰다.

《사실 우리 어머니의 불행은 아버지탓만이 아니였어요. 보다는 한 녀자때문이라고 할가… 그래요. 아주 무서운 아니, 뭐라 할가… 아주 지독한 그런 녀자때문이였어요.》

그 녀자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두 사람은 사진속의 녀인을 들여다보며 잠자코 기다리고있었다. 잠시후 고진아가 두번째 사진을 내밀었다.

《여기 있어요. 그네들 말이지요. 우리 어머니를 비명에 횡사하게 한 그 사람들, 그 무서운 녀자도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알만한 사람을 찾을수 있을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있을수 없었다. 현순은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무

심히 사진을 스쳐보았다. 퇴색한 사진속엔 10여명의 남녀배우들이 찍혀있었다. 전이 넓은 모자를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장을 짚고있는 사나이, 검은색두루마기를 입고있는 녀자, 끄리치마를 입고있는 젊은 녀배우도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당의 첨탑을 배경으로 비좁게 붙어섰는데 마치도 영리별을 앞두고 한시나마 꼭 붙어있으려 한듯싶었다. 그 사람들속에서 유표하게 눈에 띄는 두 녀자— 양장을 한 녀자와 끄리치마를 입고있는 녀배우가 갑자기 림현순의 눈길을 끌었다. 두 녀자가 다 자기가 입고있는 옷처럼 서로 다른 특이한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였다. 양장을 한 녀자는 지금 그들의 눈앞에 앉아있는 고진아의 어머니였고 끄리치마의 주인은… 에그머니! 별안간 현순은 학질을 만난듯 으시시 몸을 떨었다. 낯익은 그 모습, 이 세상 가장 가깝고 귀중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때를 기다리고있은것처럼 고진아가 뜨거운 숨결을 그의 귀전에 퍼부었다.

《그 녀자예요. 내가 말한 그 무서운 녀자, 지독한 녀자!》

《?…》

믿어지지 않는 일이였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가. 무엇때문에 이 녀자는 멀리 흘러간 옛시절의 묵은 흔적을 파헤치며 저주를 퍼붓고있는것인가?…

《그런데》하고 현순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이 사진들에서 누구를 찾아달라는 요구이세요?》

《예.》 고진아는 여전히 현순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었다. 《림선생,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봐주세요. 알만한분이 또 있을거예요. 어서 보세요!》

현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속은 어수선했고 사진을 더듬는 손끝마저 경련이 이는듯싶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을 눈밝혀 읽고있던 고진아가 사진속의 한 남배우를 찍으며 계속했다.

《바로 이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일 뒤쪽에 서계신 이분… 보신적 없으세요? 어머, 못 보셨어요?… 한번 더 자세히 보시지요?》

이번에도 현순은 머리를 저었다. 사진속의 그 남배우도 실은 그가 잘 아는, 너무도 인연깊은 사람이였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싶지 않았다. 고진아가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고서는 대답할수가 없었다.

《유감이군요.》 고진아의 목소리는 불에 그슬린듯 했다. 《그럼 마

저 얘기하지요. 우리 아버진 바리톤가수였어요. 전쟁때 어머니를 버리고 이북에 들어갔는데 그다음은 전혀 모르고있는거예요. 어머니가 남긴 유언에 꼭 아버지를 찾아보라구 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림선생의 도움을 받자고 한거예요. 아버지소식이라도 알아볼가 해서… 아직 살아계시기나 한지…》

다시 괴로운 침묵이 흘렀다. 때마침 조인규가 현순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스쳐보며 언짢아하는 투로 말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 대사관을 찾아갈걸 그랬습니다.》

《대사관?》 고진아가 그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북대사관 말이지요?》

《그러믄요.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요.》

《그러니 당국을 찾아가라. … 다시말해서 공권력을 찾아가라 그 말씀이시지요. 아 아니, 그건 부질없는 일, 거기선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자 조인규는 흥분하여 공화국의 동포애적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림현순은 그 녀자가 그런 말엔 귀도 기울이지 않고있는것을 보았다. 이윽고 다시 현순에게로 돌려진 그 녀자의 눈빛이 이상해졌다. 한순간 현순은 등골이 오싹해나는것을 느꼈다. 그 녀자의 가느다란 눈섭이 우로 들리고 깊고 차디찬 눈속에서 얄궂은 불신의 빛이 펀뜩이고있었던것이다. 무엇인가 결심한듯 그 녀자는 낮고도 빠르게 속삭이였다.

《세상엔 모색이 같은 사람들도 많은 법이지요. 그렇지만 전 첫눈에 선생님을 알아봤어요. 어릴 때부터 사진에서 눈에 익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빼물었으니까요. 신통히도 어머니의 모색 그대로군요. 그리구 난 림현순이라는 이름도 어릴적부터 잘 알고있어요. 우리 어머닐 통해서 옛시절의 기막힌 사연을 죄다 들었으니까요. 그러니 숨김없이 말해주세요.》

고진아는 사진속의 끄리치마를 입은 녀배우를 손끝으로 짚었는데 마치 범죄자라도 고발하는듯 했다.

《림선생 어머니지요? 이름은 김은영.》

《?!…》

현순은 몸을 옹송그렸다. 한생 자랑으로 삼아온 어머니의 이름이 처

음 이렇게 그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는 그 녀자의 속심이 두려웠다. 무엇인가 알고싶지 않은 어머니의 비밀을, 비밀의 과거를 듣게 될가봐 무서워졌다.

숨막히는 침묵…

어데선가 남녀들의 웃음소리며 자지러진 음악이 고조에 이르고있었다. 그것은 림현순이나 조인규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세계에서 울려오는 소리, 다시말하여 엄청난 정열과 부를 탕진하는 소리였다.

《어떠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고진아는 사정이 없었다. 《거기선 나의 아버지도 잘 알거예요. 바리톤가수 고종우!… 머리를 젓지 마세요. 절대 모를수 없어요. 같이 살았겠는데.》

《뭐라구요?》

비로소 현순은 그 녀자에게 경멸의 눈빛을 던졌다. 이제야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그 녀자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명백해졌다.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불현듯 야살스러운 그 녀자의 뺨을 후려갈기고싶은 격렬한 충동을 누르기 힘들었다.

《다시 말해보세요. 이자 뭐라구 했지요?》

현순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자 그 녀자도 발딱 일어섰다.

《난 사실.》하고 그 녀자는 가늘게 부르짖었다. 《조용히 아버지 소식이나 묻자구 했는데 거기선 너무하군요. 죄다 도리질을 하구 진실을 가무리구… 그렇다고 당신 어머니의 더러운 과거가 감춰질것 같애요? 천만에!… 난 평생 당신 어머니를 증오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선 남편을 앗아가고 나에게선 아버지를 빼앗아간 녀자, 난 그 녀자가 제 명을 다 못살고 고통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었으면 해서 밤낮 기도했어요. 그래요. 백번천번 저주했어요, 백번천번을요!》

명치끝이 뜨끔해났다. 목구멍에선 금시 고함소리가 터져나올것 같았다. 뺏아가다니, 남의 남편을, 남의 아버지를 뺏아갔다구?…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누가 그것을 증명하겠는가?!… 반세기전에 찍은 이 낡은 사진 한장을 가지고?…

조인규도 자리에서 일어나있었다. 녀인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의 미묘한 감정을 제나름대로 해석한것 같았다. 낯선 녀인이 자기네 림

현순강사를 터무니없이 모욕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녀인에게 눈총을 쏘며 거칠게 쏘아붙였다.

《부인은 뭘 말하자는겁니까. 그 무슨 복수를 말하자는건 아니겠지요?》

《?…》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젊은 총각의 성난 표정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고진아가 드디여 눈길을 떨구었다. 어느새 바르르 입술이 떨리고있다. 이윽고 전혀 뜻밖의 일로 퍼릿해진 그 입술우에 한방울 눈물이 떨어져내리는것을 현순은 보았다. 그것을 지켜보느라니 분노로 끓어번지던 마음이 서서히 갈앉는것을 느꼈다.

《내가 지나쳤나봐요.》 고진아가 눈물로 속삭이는 말이였다. 《용서하세요.》

이 세상 모든 녀성들이 눈물에는 약해진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녀성들이 저도 모르게 그것을 무기로 삼기도 한다. 눈물은 그들의 마음속 슬픔과 고통을 씻어주는가 하면 사랑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며 가혹한 벌과 치욕으로부터 보호하고 용서를 받게 해준다.

현순은 눈시울을 떨며 생각하였다. 고진아, 불행한 녀자. 물론 곡해도 있을수 있다. 아직은 다 알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세대가 걸어온 지난날의 곡절많은 인생행로엔 무슨 일인들 없었겠는가!…

《좋아요.》 현순이 말했다. 《아직은 대답하기 어렵지만 꼭 알려주겠어요. 약속해요.》

《고마와요. 정말!…》

고진아는 눈물을 씻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집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찍힌 명함장을 꺼내였다.

《이렇게 나올줄 알았어요. 같은 동포로서, 같은 녀성으로서 꼭 도와주리라고 믿었어요. 그럼 이 주소로 편지해주세요. 전화로 알려도 좋구요.》

《그렇게 하지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을 잡았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먼저 현순이 조인규와 같이 자리를 떴다. 아무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승강기에 오르고 이어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각기 들어갔다. 호실에서 기다리고있던 신정미가 《이제 오세요?》하고 반겨맞으며 묻

는듯 한 시선을 주었지만 현순은 화장거울앞의 걸상에 앉으며 여전히 입을 다물고있었다.

뒤쪽의 유흥장에서는 광란하는 전자악기의 흐느낌소리가 소란했다. 외국의 관광객들이 미친듯 울고 웃으며 떠들어대고있는것이였다.

3

고진아의 일이 한시도 림현순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베이징에서 상해, 청도, 장춘과 단동에 이르는 공연 전기간은 물론 조국으로 돌아오는 렬차에서도 극장에 갖가지 대소도구들과 의상짐을 부리우고 집으로 갈 때에도 어머니의 지난 세월의 그림자가 줄곧 그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칭칭 얽어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집에 들어서니 마침 사회과학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는 남편이 반겨맞아주었다. 인정깊고 다심한 남편 로한식, 고고학계의 권위있는 박사이면서 문학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흔히 남자들은 가정세말사에 파묻히면 큰일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를 보면 그런것만 같지도 않다. 생활의 진미를 모르는 사람이 큰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그는 안해가 귀국하는 날자를 알고 미리 집에 들어와 준비를 하고있은것 같았다. 작은 앞치마를 입고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웃지 않을수 없었다.

외국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의례 있군 하는 인사말들이 먼저 있었다. 그새 앓지는 않았는가, 갔던 일은 잘됐는가, 집에서는 어떻게 지냈는가, 어머니의 건강과 대학을 졸업하는 맏이며 속도전청년돌격대에 나간 둘째에 대한 례사로운 질문과 대답…

어느덧 80고령에 이르고있는 어머니는 오늘도 로병예술선전활동을 나갔는데 좀 늦어질것 같다고 한다. 로한식은 옷도 갈아입을념을 않고 부엌으로 나가려는 안해를 붙들었다.

《오늘은 내가 차린 음식이나 맛보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요. 안색이 좋지 않구만.》

《아이참, 그저 피곤해보이겠지요.》
《그런가? 어쨌든 가서 손이나 씻소.》
현순은 벽면의 절반이나 채우고있는 거울앞에 나섰다. 내 안색이 어떻다는걸가?… 여전히 고진아며 고종우, 박수미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있을뿐… 하여 현순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박수미라는 녀자를 아세요?》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는 물음이였다.
《박수미?》 로한식은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음악무용대학에 있는 당신 동무 말이요?》
손을 내저으며 현순이 말했다.
《아 아니, 남조선에서 한때 우리 어머니랑 같이 뭘했다는 배우 말이예요. 그런 이름 들어본 일이 있어요?》
비로소 로한식은 희끄무레해진 눈빛으로 안해를 여겨보았다.
《갑자기 그런건 왜 묻소?》
《글쎄 들어본적이 있나 말이예요.》
《있소. 어머니한테서… 아마 사진도 있을거요.》
《그래요?!…》
웬일인지 심장이 아플 정도로 뛰노는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현순은 어머니의 옛 사진들을 한번도 흥미를 가지고 들여다본 일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의 친딸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거의나 하지 않았다. 딸이 그것을 싫어하기때문이였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외로운 생활과 무서운 고독을 낱낱이 살피며 자라온 현순이여서 옛시절의 회상이 어머니에게는 고통밖에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 그런 이야기까지 저이에게 했을가. 친딸에게도 저어한 이야기를 사위한테 들려준 까닭은 무엇일가?…
열려진 부엌문앞에서 남편이 물었다.
《그런데 박수미라는 배우에 대해선 왜 갑자기 관심하는거요. 중국에 가서 그 녀자를 만나보기라도 했소?》
《만나봤어요.》
남편은 마치 어두운 거울속을 들여다보듯 그를 지켜보았다. 드디여 소리없는 미소가 그의 둥실한 얼굴에 번져져갔다.
《참 당신두… 그 박수미라는 녀배우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하오. 아

주 비참하게 말이요.》
현순은 굳어져버렸다. 그것은 고진아가 하던 말과 같았다. 그런데 저이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가. 이 세상 그 어떤 녀인도 자기의 인생사에 대해서는 다 밝히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웬일인지 고진아를 만났을 때처럼 께름직하고 뜨아한 생각에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박수미의 딸을 만났어요.》하고 현순은 몸을 떨며 말했다. 《고진아라구 하더군요.》
《뭐? 그게 정말이요?》
《…》
현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이마에 엇비듬하게 지나간 굵은 주름살이 경련적으로 꿈지락거리는것을 지켜볼뿐이였다.
그들은 어머니가 방에 들어선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어머니는 전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그린듯 서있었다. 남편이 《어머니 오셨소.》라고 귀띔했어야 현순은 머리를 홱 돌렸다.
어머니는, 80살을 눈앞에 둔 고령의 어머니는 아직도 해말쑥하고 정갈하였다. 금시 무대에 나서려는 배우처럼 전실벽에 드리운 휘장을 잡고 호흡을 받쳐 듣고있다가 조용히 묻는것이였다.
《누굴 만났다구?…》
그리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현순은 흠칫하였다. 그리고는 손끝으로 눈시울을 어루쓸며 구원을 청하듯 남편을 돌아보았다.
사실 그는 오랜 세월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의 과거사를 당장 파고들려 하진 않았었다. 천천히 기회를 보아가며 어머니로 하여금 흘러간 세월의 발자취를 더듬게 하려 했을뿐…
현순은 자기에게로 향해진 어머니의 눈빛을 마주볼수가 없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적막에 귀안에서 벌떼 우는 소리만 붕붕거릴뿐이였다. …

제 2 장

두 처녀

1

은영이 처음 수미를 알게 된것은 60여년전의 일이다. 그때 13살나던 은영은 전국녀중생들의 성악콩클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갔었다. 이제 겨우 시골보통학교에 다니고있는 은영이를 누구도 추천하지 않았고 불러주지 않았지만 리채옥이라는 음악교원이 기어이 데려가겠다고 우겼던것이였다. 사실 보통학교에 다니는 13살난 소녀를 전국녀중생들의 성악콩클에 끌고간다는것은 무리였다. 아닐세라 서울에서는 쌍태머리를 땋고 자주색저고리에 까만 목세루치마를 입고있는 죄꼬만 계집애를 야멸찬 웃음속에 맞아주었다. 당시 중학생이라면 한창나이처녀들이였다. 서울리화녀중, 함흥영생녀중, 원산루씨녀중과 부산, 목포, 광주 등에서 뽑혀온 처녀들, 도자기에 그려진 선녀들처럼 말가니 다듬어지고 뽀얗게 분칠한 신식처녀들이 시골티가 력연한 은영이를 보고 혀를 차며 종알거렸다.

《저 애도 콩클에 왔다는거니?》

《응, 우리와 겨룬다나 봐.》

《어마나, 저런 코흘리개가 말야?》

《무대에 나서면 울고말거야. 잉?!》

《그럼 울보경연이 되게?》

《울보경연? 에구마! 그것참 멋있다야 얘.》

그러나 그 녀학생들도 은영이를 데리고 온 리채옥선생의 한마디 말에는 움츠러들지 않을수 없었다.

《학생들, 입만 뾰족했으면 새소리도 내겠군요!》

한때 일본에서 무사시노음악학원을 나왔고 피아니스트로 연주생

활도 한바있는 리채옥이였다. 새까만 옷차림에 동그란 백테안경을 끼고있는 그 녀자의 모습은 마음을 하늘에 얹고 사는 수녀같은데가 있었다. 리채옥은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먼저 그네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놓고 은영이를 손잡아이끌었다. 콩클은 리화녀전의 음악회랑에서 시작되고있었다.

얼마후 은영은 무대옆의 현수막뒤에 몸을 숨기고 차례대로 무대에 나서는 멋쟁이녀학생들을 훔쳐보고있었다. 새까만 쎄라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처녀들이 도랑화장을 진하게 하고 조명등이 눈을 때리는 무대로 나가군 했다. 류행가나 조선민요 또는 일본노래를 부르는 녀학생들도 간혹 있었지만 태반은 《그리운 산골짝》, 《안니로리》, 《로렐라이》와 같은 세계명곡을 준비했었다. 자기의 음색과 창법, 음역에는 관계없이 세계명곡을 불러야만 1류가수로서의 전망을 론하는것이 당시의 류행이였던것이다.

나비넥타이를 맨 남자소개자가 나서서 어느 학교의 녀중생 아무개가 무슨 노래를 부르겠다고 소개하군 했다. 그러면 미리 준비된 피아노반주가 울리고 숨을 할딱거리는 처녀가 구두발소리도 조자맞게 무대로 나선다. 여기서는 박수도 꽃다발도 없다. 심사석에 앉아있는 여러 극장의 성악전문가들, 지휘자들, 리화녀전의 음악교원들이 나직이 수군거릴뿐이였다. 그리하여 소개자가 다시 나설 때까지 무대에는 물속같은 정적이 깃들군 했다.

은영은 거의나 숨을 쉬는것 같지 않았다. 속이 떨리고 현수막을 잡고있는 손마저 경련이 이는듯 했다. 지어 그는 자기를 소개하는 목소리도 가려듣지 못하고있었다.

《여러 심사원선생들!》 소개자가 신파극에서처럼 이상한 목소리로 웨치고있었다. 《이번에는 옛적부터 북관의 6진중에서 요새지로 알려진 회령에서 온 김은영양이 나오겠습니다. 당년 13살의 은영양은 보통학교 재학중으로서 물론 녀중생은 아닙니다. 우리 성악콩클에서는 아직 전례가 없는 일이라 놀라실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예술계를 풍미할 인기가수의 출연을 보시게 될는지. … 물론 햇비둘기 재를 못 넘는다지만 머리쉼도 하실겸 적당히 들어주십시오. 준비해온 곡목은 〈오, 나의 태양〉.》

심사석에서 웃음소리가 울렸다. 소개자의 재담같은 말솜씨에 웃었는

지 아니면 13살 소녀가 《오, 나의 태양》을 부른다는것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그랬는지… 은영은 얼어붙은것처럼 한자리에 굳어져있었다.

누군가 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차례가 왔다.》 리채옥선생이였다. 《겁먹지 말고 그저 고향의 강물우에 떠오르던 태양만을 생각해라. 알겠지?》

채옥선생에게 떠밀려 무대에로 나서자 먼저 휘황한 조명등빛이 애어린 소녀의 눈을 때렸다. 두다리가 휘청거리고 눈과 귀가 먼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 채옥선생이 자기의 손을 꼭 잡고있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주저앉고말았을런지도 모른다.

채옥선생자신이 피아노반주를 맡아주었다.

드디여 귀에 익은 피아노음악이 가슴을 쳤다. 두만강의 푸른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검푸른 물결우에 일렁이는 시뻘건 불길, 태양이 솟으며 드넓은 강물을 불태우고있었다. 밀려오고 밀려가며 꿈틀거리는 불길, 그속에서 나래치며 꼑꼑 울부짖는 물새들, 알수 없는 기쁨에 겨워 울부짖는 그 물새들을 쫓아 모래터에 작은 발자국을 찍으며 달려가는 소녀, 그것은 바로 은영이 자기였다.

오 밝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이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고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은영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늙은이들은 장죽을 탁탁 두드리며 기가 찬듯 혀를 차군 했다.

《저 쬐꼬만게 어떻게 저리 고운 소릴 내우?》

《게다가 또 얼마나 쟁쟁하오. 하늘을 찌르겠다니까!》

《아마 저 애 몸뚱이에 쇠로 만든 소리통이 있나부지요?》

《에미 배속에서 나올 때도 온 동네를 다 깨웠겠수다. 그렇지요, 은영이 에미?》

그러면 어머니는 골살을 찌프리며 투덜거리군 했다.

《에구, 저 망할놈의 계집애. 장구 깨진 무당년처럼 소리만 질러대니 저게 이제 뭐가 될고?》

그래도 아버지만은 속궁냥이 따로 있은것 같다. 리채옥선생의 말을 귀담아듣고 가산을 팔아서라도 은영이를 공부시키려 애썼던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이 무대에까지 나서게 되였다. 두만강류역 회령의 작은 물새가 구름너머로 날개를 펼치며 해솟는 지평선을 향해 목청껏 소리를 뽑고있는것이다.

나의 몸엔 사랑의 별
오 나의 태양 비친다
오 나의 나의 태양 찬란하게 비친다

드디여 노래가 끝났다. 은영은 인사할념도 못하고 그린듯 서있었다. 자기의 작은 가슴을 물결치듯 울리던 피아노소리의 잔향만을 귀담아 듣고있었다. 자기가 불빛이 휘황한 경연무대에 나와섰다는것도 까맣게 잊고있었다. 납덩이같이 무거운 정적에 징— 고막이 울렸다. 왜 이리도 조용할가?… 모든것이 어둠속에 묻혀버린듯 했다. 불이 꺼졌는가, 아니 금빛으로 일렁이던 물결이 사라져버리고 기슭을 치던 물소리마저 잦아버린것일가. … 정말 어인 일인가. 모든것이 죽어있었다. 피아노앞에 앉은 리채옥선생도 숨이 멎어버린듯 했다.

바로 그때 은영이또래의 한 처녀애가 무대에로 타박타박 걸어나왔다. 몸에 꼭 맞게 지은 봄외투를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었는데 웃고있는 그 두눈이 파랗게 보였다.

《축하해.》

나비같은 그 처녀애가 은영이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심사석에서 박수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졌다. 무대밑의 사람들도 그제야 숨을 쉬기 시작한것 같았다.

《자, 인젠 나가자.》 처녀애가 말했다. 《넌 참 노래를 잘 불렀어. 심사원선생들이 깜짝 놀랐지 뭐야. 정말 기막혀!》

리채옥선생이 달려와 은영이를 꼭 껴안은것은 그 순간이였다. 이번에도 은영이는 채옥선생의 손에 이끌려 무대에서 나갔다. 꽃다발을 준 처녀애도 그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내 이름은 수미야, 박수미. 지금 국도극장의 막간가수야. 나두 노랠 부르지만 너보단 썩 못해. 넌 정말 드문 애야.》

수미는 은영이와 나이도 같았다.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곱고 나이에 비해 빼여난 매력을 가지고있어 막간가수로 뽑혔던것이다. 당시 많은 극장들에서는 영사기값이 너무 비싸서 한대만으로 영화를 돌리고있었으므로 필림을 바꿔 끼우는 시간마다 관중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막간가수를 두어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러한 막간가수출신으로 지금 한창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리란영이라는 가수가 있다는것도 은영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였다.

《리철사장선생이》 하고 수미는 말하였다. 《나에게 이 꽃다발을 주라고 하겠지. 너한테 홀딱 반했지 뭐야. 그 선생이… 참, 그 선생은 〈오케〉레코드사를 내왔는데 이제 널 쓰겠다구 할거야. 레코드에 노래를 취입하는 가수로 키우려고 말이지. 어때, 좋지?… 넌 정말 운이 좋아. 곱게 생긴데다가 노래까지 명창이니… 세상에 날릴거야.》

그때 수미는 벌써 세상물정이 환한 처녀애였다.

《네가 부럽구나. 그래두 질투하진 않아, 정말이야. 은영이와 수미, 우린 벌써 친했지?… 우리 딱친구가 되자, 응? 난 정말 네가 맘에 들어.》

그때 심사석에 내려갔던 리채옥선생이 돌아와 무작정 은영이를 꽉 껴안아주었다. 정신없이 은영의 어깨를 더듬는 그 녀자의 두눈엔 초물같이 진한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성공했다는 의미였다. 벽촌의 소녀가 자기의 노래로 심사원들을 감동시켰던것이다.

얼마후 수미가 말하던 리철사장이란 사람이 찾아오고 또 다른 흥행사들이 꼬리를 물었다. 콩클에서 1등을 한 은영이를 취재하겠다고 찾아오는 기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무엇때문인지 리채옥은 그들의 청을 다 뿌리치고 은영이를 고향으로 끌고 돌아갔다. 기차에 오를 때 그들을 바래준것은 수미와 흥행사 리철사장뿐이였다.

《우리 또 만나자, 응?》 수미가 울먹이며 하는 말이였다. 《넌 정말 정이 드는 애야. 난 너랑 같이 있구파.》

《이제 또 만나게 돼.》 리채옥선생이 말했다. 《은영인 먼저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담 꼭 무대에 나설거야.》

은영이도 머리를 끄덕이였다.

《잊지 않겠어. 수미, 다시 만나자. 꼭!》

그날 기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도 수미는 한자리에 서서 손을 저어주고있었다. 그리하여 은영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수미의 모습이 아릿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2

내가 두번째로 수미를 만난것은 그때부터 거의 10년세월이 흘러간 뒤였다. 그게 아마 해방되기 전해였으니까… 그래, 1944년 가을이였지. 그때 난 중국동북의 봉천에 가있었는데… 참, 지금의 심양을 그땐 봉천이라구 했단다. 난 거기 선린녀중에서 음악교원을 했구나. 왜 중국에까지 갔는지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그럴만 한 사정이 있었지. 서울리화녀전에 다니다가 학비를 댈수 없어 중퇴했는데 마침 박정화라는 동창생이 부모를 따라 거기 봉천에 가있다가 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겠니. 《빨리 봉천으로 오라. 여기서 음악을 가르칠 녀교원이 없어 애를 먹고있는데 적임자만 나서면 보수도 후하게 주겠다는구나.》하고 말이지. 그래서 국경을 넘어 봉천에까지 갔던거야.

미리 말해두지만 선린녀중에는 일본인녀학생들과 중국인녀학생들이 절대다수였구 조선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수업은 일본말루 하구… 그래도 보수가 후해서 빨리 돈을 벌어 리화녀전을 마저 다닐 생각으로 쉬지 않고 수업을 했지. 인기도 있었단다. 일본군장교들과 만주국의 관리들도 나를 보면 깍듯이 인사를 하지 않겠니. 학생들이 집에 가서 자기네 녀선생을 무척 자랑했던 모양이지. 봉천시의 다른 중학교들에서도 나를 데려가려구 무던히도 유혹하더구나. 내 속생각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벌써 많은 흥행사들이 내게 눈독을 들이고 끄여가려 했지만 그 모든걸 거절해왔다는걸 그네들이 어떻게 알수 있었겠니. 그때만 해도 난 공부를 마저 하고서 세계적인 가수가 될 생각뿐이였어. 아버지나 채옥선생도 그걸 바랐구…

×

제2차세계대전의 총포성이 대륙을 뒤흔들던 때였다. 그러나 은영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굉음도 대수롭지 않았다. 거리를 질주하는 일본군의 포차들이며 신문과 방송들에서 목터지게 부르짖는 태평양상의 무서운 해전들과 일본군의 《장렬》한 전몰에 대한 소식에도 아예 귀를 막고있었다. 처녀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세계명곡들만이 할머니의 옛말에서 나오는 골짜기의 외딴집 불빛처럼 껌벅껌벅 눈짓하며 불러줄뿐이였다. 처녀는 그 불빛을 가슴가득히 마시며 꿈을 꾸고있었다.

바로 그때 박수미와 다시 만났다.

가을이 시작될무렵이였다. 은영은 《오케》레코드사의 순회대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명짜한 흥행사 리철사장이 설립한 《오케》레코드사, 녀가수 리란영으로 하여 더욱 이름을 날린 그들의 공연을 은영은 서울리화녀전을 다닐 때 한번 보았었다. 그러나 그들이 멀고 먼 동북에까지 찾아왔다는것이 더없이 놀랍고 기뻤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약 200개의 크고작은 상설극장이 있었는데 이 극장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지역 즉 령남지방(경상남북도), 호남지방(전라남북도), 서선지구(평안남북도와 황해도), 북선지구(함경남북도)로 흥행지역을 구분하였다. 이 지역마다 전문흥행사로 불리우는 중간업자들이 있어서 1937년 10월이후 일제《총독부》가 외국영화수입을 금지시킴에 따라 극장무대들에는 영화보다도 악극, 연극, 창극들이 위주가 되여 공연되였다. 그리하여 《오케》레코드사를 비롯한 《빅타》, 《프리톨》, 《콜럼비아》 등의 이름을 단 레코드사들이 1940년대부터는 동북지방의 룡정과 연길, 훈춘, 목단강을 비롯하여 베이징과 상해에까지 동포들을 찾아 순회공연을 시작하였다.

《오케》레코드사도 《오케그랜드쇼단》이라는 이름으로 동북각지를 돌다가 봉천에까지 이른것이였다.

은영이 도착했을 때 순회대는 탄광지구의 펑퍼짐한 둔덕아래에 대형천막을 치고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잔뜩 흐려지기 시작했다.

먹장구름이 몰려들고 하늘가 한끝에서 번개불이 펑끗거리며 우뢰질을 했다. 시꺼먼 먼지타래가 하늘중천으로 날아오르는데 어느새 굵다란 비방울이 먼지 오른 풀잎들을 짓뭉개기 시작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린근의 조선사람들은 죄다 모여오는듯 했다. 중국사람들도 많았다. 때아닌 우뢰질에 주먹질을 하며 험한 욕설을 퍼붓고있는 사람도 있었다. 변덕스러운 하늘에 저주를 퍼붓는것 같았다.

매표가 시작될무렵에야 비가 그쳤다. 천막안에서는 바이올린이며 기타, 클라리네트 등 악기들이 조음을 하고있었다. 은영은 저도 모르게 무대로 정해진 천막의 뒤쪽으로 끌려갔다. 진정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무심히 들을수 없는 관현악의 울림이였다. 비록 악기편성은 설피여 보잘나위 없어도 그래도 그곳에서는 관현악이 울리고있는것이다. 그리고 모든 음악가들이 그러하듯 은영이 역시 악기들이 조음하는것을 듣느라면 짜릿한 흥분에 몸이 떨리는것을 느끼군 했다. 그것은 이제 듣게 될 음악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희망이기도 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있는데 갑자기 천막을 들치고 나서던 녀자가 은영을 보더니 못박힌듯 멎어섰다.

《어머!—》

은영이도 굳어졌다. 박수미였던것이다. 약간 치째진듯 한 파아란 두눈으로 불같이 지지며 마주보는 녀자, 10년전 그날의 나비같던 모습은 거의나 남아있지 않았지만 은영은 대뜸 알아보았다. 《수미!》하는 부르짖음이 어느새 터져나오려 했다.

그러나 수미는 은영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녀자가 멎어선것은 전혀 다른 리유에서였다. 파란 빛이 도는 눈빛으로 재빨리 은영이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수미는 감탄하듯 말하였다.

《어쩌믄!… 곱기두 해라.》

《?…》

은영은 입을 다물었다. 얼싸안을듯 내밀려던 두팔이 아프게 가드라들었다.

《아씬 왜 왔어요?》

수미가 묻는 말이였다. 《혹시… 우리 쇼단(공연단체)에 들어오자는건 아닐테지요?》

《…》

수미는 또다시 그의 아래우를 재빨리 훑었다. 그 눈빛에는 가시처럼 찌르는데가 있었다.

《내 이름은 수미예요, 박수미.》

이렇게 무심히 뇌까리고나서 그 녀자는 은영의 저고리를 만져보았다.

《이 옷은 어데서 지었어요?… 수수하지만 잘 어울려.》

그새 수미는 괴팍스러운 녀자처럼 변해있었다. 순수하고 정겹던 그 시절의 맵시나던 소녀애가 더는 아니였다. 은영은 의아쩍은 미소와 함께 추위를 타는것처럼 어깨를 옹송그렸다. 그러자 수미는 그의 두눈을 들여다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것이였다.

《불행할거야. 너무 곱게 생겼어요. 그런데 옷입은걸 봐선…》

그 녀자의 모든 관심은 은영의 옷차림에만 쏠려있는듯 했다. 애써 가난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는지도 모른다. 천박한 녀자들일수록 고운 녀자를 상대할 때면 자기보다 못한 점을 발견해낼 때까지 마음놓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는 법이니까. …

그날 은영은 조선치마저고리에 색이 바랜 회색코트를 입고 갔었다. 그와 마주선 수미는 살갗까지 비치는 타이쯔(발레무용복)를 입은 우에 랭기를 막느라고 부인용두루마기를 걸치고있었다. 무대에서라면 몰라도 야외에서는 보기가 좀 거북스러운 차림이였다. 하지만 수미는 그런데엔 전혀 개의치 않는듯 했다.

《여기 사는지 오래 됐어요?》 수미가 물었다.

《아니요. 이제 겨우…》

은영은 미처 말끝을 맺을수 없었다.

《결혼했어요?》

《?!…》

《필요없어요. 결혼이란 멍에를 지는거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 쇼단에 들어올 생각이면 내가 말해주겠어. 사장한테…》

《사장님은 나도 알아요.》

《그—래요?!》

다음순간 수미는 은영이 입고있는 치마를 들어올렸다.

《어머! 다리도 참!… 이렇게 매출하구 미끈하다구야! 꼭 대리석으로 깎아낸것 같군요. …》

순간 은영은 파랗게 질리며 휘파람소리같이 흐느끼였다. 수미의 손목을 뿌리치며 가늘게 부르짖었다.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수미가 암상스럽게 깔깔거리는것이였다.

《맘에 들어요. 얌전데긴줄 알았는데 매섭기란!…》

이윽고 웃음을 그치며 수미는 속삭이듯 말했다.

《예쁜 아가씨, 나랑 같이 있지 않겠어요?》

은영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 아니다. 이런 수미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어인 일인지 쓸쓸한 느낌에 목이 잠기는듯 했다. 그러자 수미는 코웃음쳤다.

《내가 공연하는걸 보면 맘이 변할거야.》

이번에도 수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은영의 아래우를 훑어보고 머리를 젓더니 천막안으로 쑥 들어가버렸다. 은영은 마치 꿈을 꾸고난것만 같았다. 여기서 수미를 만난것은 분명 꿈에서 있은 일만 같았다.

사람들이 천막안으로 쓸어들고있었다. 젊은이, 늙은이, 아낙네들, 엄마잔등에 업혀 칭얼대는 아이들도 있었다.

잠시 한자리에 박혀있던 은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공연에 대한 흥미도 시들해져서 서두르고싶지 않았다. 가슴을 허비는 아쉬움과 까닭모를 슬픔에 잠겨 앞자리를 놓칠가봐 부스대는 사람들의 뒤를 마지못해 시진하게 따라서고있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돌연 무시무시한 소음이 귀청을 두드렸다. 말발굽소리였다. 머리를 홱 돌린 은영은 말탄 일본군들이 무섭게 빠른 구보로 달려오고있는것을 보았다. 코구멍을 푸룩거리며 두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오는 말들의 편자를 친 발굽이 금시 사람들을 짓뭉개버릴듯 덮쳐들고있었다. 잠시후 한개 소대쯤 되는 일본군이 천막을 친 등성이밑을 빙 둘러쌌다. 뒤늦게 달려온 황부루가 앞발을 높이 들고 곤두섰다. 말탄 헌병장교가 옆구리에 찬 군도를 절컥거리며 무어라고 웨쳤는데 누렇게 뜬 얼굴이 잔뜩 이지러져있었다. 은영은 그 헌병장교의 찢어지는듯 한 어성으로써 무서운 일이 벌어지리라는것을 예감하였다.

《몽땅 끌어냇. 빨리 빨리!》

그러자 사방에서 아우성이 터졌다. 채찍소리가 아츠럽게 허공을 찢

으며 울부짖었다. 왜놈들이 구경군들은 물론 순회대의 배우들까지 한곳에 끌어내기 시작한것이였다. 은영은 누군가를 따라 허둥지둥 내달렸다. 천만다행으로 《오케》레코드사의 배우들속에 우연히 끼여들어 무서운 채찍세례는 피할수 있었다.

방금 비가 퍼부어진 뒤여서 매캐한 먼지냄새와 말들의 비릿한 땀내로 속이 메슥메슥해졌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구경군들한테 달려드는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얼마후에야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왜놈들이 말꼬리에 비끄러맨 남녀 두사람을 끌어온것이였다. 나이 지숙한 녀인과 몸이 강마른 젊은이였다.

왁짝하니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실로 처참한 광경이였다.

바줄에 묶여온 녀인과 청년은 조선사람들이였는데 입에는 헝겊을 틀어막고있었다. 갈기갈기 찢어진 옷소매와 진흙으로 매닥질이 된 맨발에 말라 엉켜있는 피덩이들이 먼저 눈에 띄였다. 특히 녀인의 헝클어진 머리에 가득 붙어있는 짚검불이며 드러난 목덜미에 엇비듬히 가로질러간 칼자리가 은영을 몸서리치게 했다. 청년의 모습은 더더욱 참혹했다. 피투성이얼굴에서 한쪽귀가 불에 그슬린 나무잎처럼 배배 꼬여있는것이 보였다. 그 청년이 무어라고 소리치는듯 했으나 입에 자갈이 물려있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가까스로 새여나오고있었다. 손우의 녀인이 그 청년에게 번뜩이는 눈빛을 던졌다. 모지름쓰는 청년을 나무라는 눈빛 같았다. 그러자 청년은 시꺼먼 얼굴을 이지러뜨리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윽고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군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한순간 은영은 몸을 떨며 비틀거렸다. 녀인의 비수같은 눈길이 자기를 쏘아보고있는것이였다. 뒤쪽에 서있던 사람이 붙들어주어서야 제대로 몸을 가눌수 있었다. 알고보니 녀인은 은영을 겨누어본것이 아니였다. 그저 그렇게 느껴졌을뿐이였다. 말 못하는 녀인의 눈길은 이미 다른 사람들께로 옮겨져있었다.

일본군헌병장교가 두사람에게로 말을 몰아가며 사납게 소리쳤다.

《이것들은 대일본제국을 반대해나선 공비들이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 제국을 반대하는 놈들은 다 이렇게 된다!》

헌병장교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자주빛의 칼집속에 든 군도를 빼

들었다. 다음순간 그자는 말꼬리에 비끄러맨 녀인과 청년의 눈앞에 서리찬 칼날을 번뜩이였다. 군중속에서 비명소리가 파도쳤다. 그러나 칼날은 두사람을 묶고있는 바줄을 뭉청 잘라버렸을뿐이였다. 네댓명의 병졸들이 말에서 뛰여내려 녀인과 청년을 둔덕쪽으로 끌어갔다.

은영의 뒤쪽에서 누군가 부득부득 이를 갈며 말했다.

《저 악독한 왜놈들을 그저!…》

헌병장교의 군도끝이 다시 허공을 찔렀다.

《1등병 오노데라, 1등병 이마니시 앞으로!—》

웅성거리던 군중이 잠잠해졌다. 놈들은 녀인과 청년을 바줄로 두손과 허리를 묶어놓고 바닥에 꿇어앉혀놓았다.

《짐승같은 놈들!》 뒤쪽의 사나이가 여전히 이를 갈며 부르짖었다.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끌어왔는지 누가 알겠수. 말도 못하게 하는걸 보지비!》

그 사람은 놈들이 무슨 꿍꿍이짓을 하려는지 알고있는것 같았다.

《저것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수. 저 왜놈의 새끼들!…》

《쉬—》 누군가 옆에서 주의를 주고있었다. 《놈들이 망할 때가 돼오니 더 지랄발광을 하는거라우. 조심하시우. 너무 표나지 않게.》

《놈들이 왜 저들을 여기 끌어왔겠수?》 분노에 찬 뒤사람의 목소리는 계속되였다. 《구경군들이 모였을 때 총살하자는기 아이요?》

《쉬— 조심하란데…》

바람이 차졌다. 마음이 얼어들었다. 두 병졸이 총창을 꼬나들고 사형수들의 앞으로 나섰다. 그때까지도 은영은 이제 놈들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것인지 알수 없었다. 뒤사람이 말하듯 총살할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면서 어느새 후들거리는 손으로 귀를 막고있었다.

헌병장교가 갈개는 말우에서 고삐를 힘껏 당기며 군중을 향해 찢어지는듯 한 소리를 질렀다.

《이것들은 대일본제국이 망한다고 선전하던 놈들이다. 폭동을 선동했단 말이다. 다들 똑바루 들으라.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대일본제국이다. 그따위 선동질이나 해서 제국을 무너뜨릴것 같은가!… 그렇지만 태평양전쟁이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는것만큼 제국은 불온분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공비들과 그에 동조하

는자 할것없이 현장에서 즉결 처단한다, 알겠는가?… 오늘 그것을 여기서 실지로 보여주겠다.》
그자는 총창을 꼬나들고있는 병졸들을 향해 군도를 휘둘렀다.
《찔러라!—》
그리하여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두 병졸이 짐승의 울부짖음소리를 지르며 비틀거렸다. 앞으로 나가고있는것이였다.
순간 은영은 머리칼이 곤두서고 등골로 짱!— 하면서 전률이 스쳐가는것을 느꼈다. 금시 심장이 멎어버리는듯 했다. 어쩌자는거야, 정말 어쩌자구 저것들이?… 왜놈병졸들이 앞으로 내뻗친 총창이 파드드 떨리고있는것까지 보였다. 다음순간 은영은 몸서리치는 정경에 얼어붙고말았다. 놈들이 땅바닥에 꿇어앉힌 두사람의 가슴팍에, 배허벅에 총창을 박고있는것을 분간해본것이였다.
눈앞이 새까매졌다. 마비된듯 정적속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난 후 왜놈병졸들이 피에 젖은 총창을 도로 뽑으며 앞으로 쓰러지는 두사람을 발길로 걷어차는 모양이 마지막으로 눈에 비껴들면서 은영은 모로 비스듬히 무너져버리고말았다. 심장이 터지고 그속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나오는것을 아슴푸레 느꼈다. 총창에 찔린것은 바로 은영이 자신인것만 같았다.
째지는듯 한 비명과 무서운 흐느낌소리가 끓어번졌지만 은영은 알지 못했다. 누군가 그를 붙들어주면서 울고있는것도 몰랐다. 찬바람을 헉헉 들이마시며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난것이 아니였다. 헌병장교가 소리치고있었다.
《인제는 공연을 해도 된다. 당장 여기서 시작하라, 알겠는가?…》
왜놈병졸들이 순회대의 배우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악사도 있고 가수며 무용수, 지휘자와 막간희극배우도 있었다. 군중속에서 그들을 골라내기는 어렵지 않았으므로 즉시 열댓명이 헌병장교앞으로 끌려나갔다.
《알겠는가?!》
헌병장교가 누렇게 뜬 얼굴을 말대가리앞으로 쑥 내밀며 소리치고 있었다.
《당장 공연을 시작하라! 그러되 남방전선에서 피흘리는 황군용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공비들의 시체를 밟고 노래하고 춤추란 말이다, 알겠는가?!…》

누구도 대답을 못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여서 배우들은 얼이 빠진 모양으로 입을 항 벌리고있을뿐이였다.

바람이 세차졌다. 싸늘한 바람이 피비린내를 몰아왔다. 그것은 죽음과 무시무시한 공포를 자아내는 냄새였다. 모든 사람들이 흐느껴 울듯이 허덕이였다. 이제 다시금 끔찍한 도살이 벌어지리라는것을 그들은 느끼고있는것이였다.

침묵 또 침묵… 사람들은 물속에 잠겨버린듯 했다.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이 얼어붙었다.

헌병장교의 씨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끝내 참지 못하고 그자는 말잔등에서 뛰여내렸다. 곧장 키가 큰 사람앞으로 다가갔다. 하얀 장갑을 낀 그자의 손이 키다리배우의 면상을 후려쳤다. 코피가 쏟아져나왔다. 피를 본 야수는 더 잔혹해진다고 한다. 그자가 칼집에 꽂아놓았던 군도를 다시 빼여들었다. 시퍼런 칼끝을 남자배우의 울대뼈에 들이대면서 그자가 짖어대기 시작했다.

《공연을 시작하란 말이다. 못 들었어?… 저 공비들의 시체를 밟고 서서 노래춤을 벌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 하겠어— 못하겠어?!… 말해봐라, 말해봐, 말해봐라— 아!—》

그러나 키다리배우는 망연자실하여 입도 벌리지 못하고있었다. 자기의 목을 찔러대는 시퍼런 칼끝만을 내려다볼뿐 숨도 쉬는것 같지 않았다.

헌병장교의 손에 쥐여있는 군도의 시퍼런 날이 푸들거리는통에 키 큰 배우의 목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자 그의 옆에 서있던 녀자가 째지는 소리를 질렀다. 수미였다. 헌병장교의 눈길이 그쪽으로 옮겨졌다. 수미의 아래우를 재빨리 훑고나서 그자가 씨벌이였다.

《음— 네년이 먼저 할테냐?》

수미는 그만 기겁하여 뒤걸음쳤다. 헌병장교의 칼날이 이번엔 수미의 목으로 겨누어졌다. 숨넘어가는 비명!… 사람의 소리라고는 믿을수 없는 새되고 아츠러운 비명이였다.

《그래, 할테냐 안할테냐?》 헌병장교도 독이 올라 부르짖고있었다. 《네년을 알몸뚱이로 만들테다. 알몸뚱이로 춤추게 할테다!》

소리도 없는 칼날이 획 반원을 그리자 수미가 걸치고있던 두루마기가 몇쪼각으로 너덜거렸다. 수미 역시 키다리배우처럼 얼이 빠졌다.

어망결에 두팔로 헤쳐진 가슴앞섶을 가리려 했다. 그러나 손으로는 칼날을 막을수 없는것이다.

헌병장교는 분명 자기의 칼쓰는 재주를 시위하려는듯 했다. 그자가 또 칼날을 번뜩이자 수미의 타이쯔가 밑으로 쭉 째졌다. 젖가슴에서 새빨간 피방울들이 가느다란 실오리처럼 줄지어 돋아났다. 《악!—》하는 외마디울부짖음에 운집한 전체 군중이 치를 떨었다.

은영은 헌병장교의 성긴 눈섭이 푸들거리는것을 벅찬 공포속에 바라보았다. 이제 그자가 다시한번 군도를 휘두르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끔찍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자, 말해봐.》 헌병장교가 독을 쓰며 고아댔다. 《할테냐, 안할테냐? 말하지 않겠어?》

바로 그때였다.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은영이 헌병장교앞으로 나섰다.

《저… 장교님.》 너무도 속이 떨려 일본말발음이 엉너리로 번져지고있었다. 《장교님, 제— 제가 공연을 하— 하도록 해보겠어요.》

헌병장교의 누렇게 뜬 얼굴이 험악하게 실룩거렸다.

《뭐 네가?… 네년은 누구야?》

《예, 선린녀중에서 음악교원을 하는…》

《선린? 선린이란 말이야?》

《예.》

헌병장교도 선린녀중이 일본인녀학생들이 기본인 학교라는것을 알고있는것 같았다. 은영을 쏘아보던 시퍼런 두눈이 사뭇 껌벅거렸다.

《좋다, 당장 공연을 하게 하라!》

헌병장교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군도를 칼집에 꽂은 후 다시 말잔등에 뛰여올랐다. 사무라이로 악명을 떨친 사이고 다까모리를 그대로 빼여문 놈이였다.

말에 오른 그자는 군중을 에워싼 기병들에게 칼끝같은 시선을 던졌다. 그것 역시 소리없는 구령, 살륙을 의미하는 웨침이였다.

은영은 말탄 왜놈기병들이 일시에 칼자루를 틀어잡는것을 보았다. 헌병장교의 눈짓에 따라 배우이건 구경군이건 누구든 거역하거나 달아나면 칼탕을 치려는 자세였다. 이제 은영이 어떻게 왜놈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가에 따라 그들의 생사가 결정될 판이였다.

은영은 한절반 정신이 나간것 같은 배우들을 둘러보았다. 아직 그

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저 수미와 배우들이 참변을 당하는것을 잠시나마 막아보려 했을뿐이였다. 흉곽이 아프게 조여들다못해 불에 덴듯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헌병장교의 독오른 메밀눈이 차겁게 번뜩이고 하얀 장갑을 낀 손이 군도를 틀어잡고있는것을 보면서 갑자기 몸을 돌렸다.

《뭐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왔다. 그러나 은영은 아무 대답없이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두다리가 휘청거리고 혀가 말라들었다. 수백명의 군중이 몸을 떨며 량쪽으로 쭉 갈라졌다. 어떤 녀인은 은영이를 막으려는듯 한손을 쑥 내밀었는데 그만 허공을 그러쥐며 비틀거렸다. 헌병장교가 칼집에서 칼을 쭉 뽑아드는 소리가 들렸다. 은영이가 사람들틈을 비집고 달아나버리려 한다고 여긴것 같았다. 그 순간 은영은 몸을 돌려 말우의 헌병장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장교님, 제가 먼저 노래를 해도 되겠지요?》

《?…》

헌병장교의 볼따구니가 푸들푸들 떨리는것이 알렸다. 한순간 망설이는듯싶더니 드디여 결심한듯 사납게 으름장을 놓았다.

《좋다. 그런데 저 시체를 밟고 해야 한다, 알겠는가?》

이번에도 은영은 대답대신 둔덕아래쪽으로 걸음을 떼였다. 피흘리며 쓰러진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다. 질척질척한 땅우에 머리를 틀어박고있는 그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절규하는듯 했다. 속이 뒤집히고 두다리가 휘청거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눈을 감고싶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부릅뜬채 굳어져버린 사형수들의 눈이 놓아주지 않았다.

《네가 우리 시체를 밟으며 노랠 하겠다구? 우릴 모욕하겠다구? 조국해방을 위해 싸우다 쓰러진 우리를 짓밟겠다는거야? 더러운 년! 왜놈의 앞잡이같은 년!》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고있었다. 그 통절한 웨침소리를 은영은 분명히 듣고있었다. 전체 군중도 그렇게 웨치고있었다. 이제 은영은 미치지 않으면 여기서 칼탕을 맞고 죽던가 하는 두길뿐이였다. 내가 왜 여기에 나섰던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인가?… 은영은 무엇때문에 자기가 한 처녀의 몸으로 이 도살장에 나섰는지 도저히 알수 없었다. 그는 조용하고 착하고 깨끗한 처녀로 알려져있었다. 은영이를 아

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아무말없이 무슨 일이나 시키는대로 깐깐히, 깨끗이 끝내군 하였다. 마음속엔 불덩이가 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엷은 입가에 피여나는 소리없는 미소로 감추어져있었다. 은영은 수다스럽게 지절거리거나 떠들썩 다투는것을 질색하였다. 인생의 모든것, 기쁨과 슬픔은 물론 희망과 고뇌도 노래로써 터치게 되리라고 믿고있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피비린 살륙의 마당에 뛰여든것이다. 인제는 돌아설 길도 없다. 운명의 낭떠러지우에 나섰으니 무슨 짓이든 해야만 했다. 하여 그는 마음속으로 피흘리며 쓰러진 사람들께 거듭거듭 용서를 빌었다.

《용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또 숱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해야 해요. 그래서… 난 당신들을 위해 노래를 부를가 해요. 당신들의 죽음을, 령혼을 위로해서… 그러니 무슨 노랠 부르면 될가요, 예?!…》

왜놈들은 물론 전체 군중이 숨을 죽이고 은영이를 쳐다보고있었다.

드디여 은영은 머리를 높이 들었다. 두사람의 주검이 바로 몇발자국앞에 있었다. 죽을지언정 차마 참혹한 그 주검들을 밟고 설수는 없다. 그러니 빨리 왜놈장교가 고함치기 전에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은영은 여전히 군도를 틀어잡고있는 왜놈장교에게로 재빨리 몸을 돌렸다.

괴괴한 정적, 군중도 왜놈들도 은영이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숨을 죽였다. 은영은 무엇인가 말을 할것처럼 입을 벌리고는 급기야 헉—헉 찬바람을 가득 들이쉬였다. 다음순간 어두워지는 하늘을 우러르며 세찬 바람결에 머리칼을 흩날렸다.

탄광지구의 하늘은 석탄먼지로 얼룩이 져있는듯 거무스레하고 음침했다. 태양은 서산너머로 잠겨버린지 오래였다.

오 밝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노래가 시작되였다. 은영이 제일 사랑하는 노래, 리채옥선생이 배워주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좋아한 노래, 13살 어린 나이에 고향인 회령을 떠나 서울에서 진행된 전국녀중생들의 성악콩클에 참가하여 불렀던 노래, 그것으로 사람들을 놀래우고 촉망되는 미래의 녀가수로 지목받았던 노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말했었다.

《은영아, 너는 우리 고향의 자랑이구 기쁨이다. 잊지 말아라. 우린 밝은 세상을 바라고 산다. 그 밝은 해빛을 그리며 노랠 하거라.》

폭풍이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그때 13살 소녀였던 은영은 그 밝은 세상이 무엇인지 다는 알지 못했으나 모든 고향사람들이 귀기울이며 듣군 하던 그 노래를 끓어오르는 사랑과 희망을 담아 처음 서보는 극장무대에서 불렀었다. 심사석에 앉아있던 나비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일치하게 말한것처럼 그 어린 나이에 류다른 감정세계에 잠겨 특이한 소리색갈과 형상으로 노래했던것이다.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고
하늘의 밝은 해는 비친다

어느새 악사들이 손에 들고있던 악기로 반주를 하고있는것도 그는 알지 못했다. 마음속의 태양만을 보고있었고 그 밝은 해빛을 가슴 가득 공기처럼 빨아들이고있었다.

나의 몸엔 사랑의 별
오 나의 태양 비친다
오 나의 나의 태양 찬란하게 비친다

은영은 이렇듯 목메여 흐느끼며 노래부른적이 없었다. 환희와 랑만에 찬 이 노래를 눈물속에 심장을 터쳐 노래하리라고 생각해본적도 없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구름장을 뚫고 부채살처럼 해빛을 뿌리는 태양, 나의 태양을 불러보고있었다. 눈물이 가랑가랑한 눈으로 하늘을 향해 두손을 쳐들며 나의 태양을 찾고있었다.

사람들은 숨소리 하나 없이 듣고있다가 저도 모르는새에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왜놈들까지 그 처절하고 목메이는 눈물의 호소에 넋을 잃은듯 했다. 살기에 차있던 놈들이 말고삐를 꽉 잡고 입을 비틀고있다. 헌병장교까지도 놀란듯, 혼미해진듯 누렇게 뜬 얼굴을 찡기며 군도를

쥔 손을 떨고있다.

《오케》레코드사의 유명한 녀가수 리란영과 고복수가 나와서 은영의 량쪽에 붙어섰다.

폭풍이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은영은 쓰러진 사람들의 피나는 절규를 대신하고싶었다. 지금껏 노래가사의 폭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던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듯 했다.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고
하늘의 밝은 해는 비친다

이렇게 공연이 시작되였다. 아직은 은영이 혼자였지만 상처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주기에는 그 노래가 너무도 뜨겁고 숭엄하였다. 오 태양, 나의 태양은 어데 있는가?!… 은영의 노래는 계속되였다. 드디여 피가 즐벅한 땅을 밟고있는 은영의 곁에 순회대의 배우들이 차례로 나와섰다. 리철사장과 박시춘작곡가도 나왔다. 노래의 후렴에서는 그들모두가 따라 불렀다.

나의 몸엔 사랑의 별
오 나의 태양 비친다
오 나의 나의 태양 찬란하게 비친다

그때 왜놈기마병이 채찍소리도 요란히 말을 달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뭐라고 보고하자 헌병장교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군도를 칼집에 꽂아넣었다.

《기병소대 날 따랏!》

커다란 두눈을 머룩거리며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말들이 푸루룩거리며 앞발을 높이 들었다. 말들이 투레질하며 네굽을 놓기 시작하자 시꺼먼 흙먼지가 일고 이어 소란스러운 말발굽소리도 아츠러운 채찍소리도 차츰 멀어져갔다.

갑자기 물속과 같은 정적이 깃들었다. 사람들은 귀가 먹먹한 그 정적에서 헤여나려고 헛되이 모지름썼다. 맨처음 입을 열고 새되게 부르짖은것은 바로 칼날에 베여진 타이쯔속에서 피가 말라붙고있는 젖가슴을 손으로 가리고있던 수미였다.

《은영이, 네가 은영이지? 네가 날 살렸구나!》 수미가 두팔을 벌리며 은영을 와락 부둥켜안았다. 《아깐 왜 몰라봤을가, 내가 눈이 멀었지. 은영이, 내 사랑!》

은영은 미처 정신을 차릴새가 없었다. 어느새 그들에게로 군중이 왁 몰려들었다.

《잘했소, 아가씨.》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오?》

《선린녀중에 있다구 했지야?》

《아씨만 아니였더믄 큰일 날번 했구마!》

은영이 무슨 큰일을 했단 말인지?… 사람들이 눈물속에 어루쓸고 목멘 소리로 치하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키다리배우와 《오케》레코드사의 리철사장도 은영을 얼싸안았다. 하지만 은영은 머리를 흔들며 무엇인가를 찾고있었다. 그들의 눈앞엔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왜놈들에게 무참하게 학살된 두 남녀의 시체가 있었다. 은영의 눈길이 거기에 멎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은영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굽혀 치마가 말려올라간 녀인의 허벅지를 가리워주었다.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은영은 참혹한 주검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네들의 주검앞에서 과연 내가 한 일이 옳았을가. 내 노래가 그네들을 모독하지 않고 혼을 위로하였을가?…

날이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멀고먼 하늘가 한끝에서 무엇인가 번쩍이였다. 소리도 없는 번개, 이제 한바탕 폭우를 쏟을 차비인가?…

사람들이 떨쳐나 희생된 두사람을 정히 싸서 어데론가 떠메고 갔다. 아무도 그들이 어데서 살았고 어데서 왔는지 알지 못했어도 겉옷을 벗어 씌우고 맨발에 고무신이며 미투리일망정 벗어 신기더니 자기네 누이와 오빠처럼 조심스럽게 맞들고 가는것이였다. 그것을 지켜보면

서 은영은 죽은 사람들과 이 낯모를 탄광지구 사람들에 대한 사무치는 련민의 정에 눈굽이 저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쓰라린 아픔과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눈물이 핑— 어리는것을 느꼈다. 사람은 슬프거나 기뻐서만 우는것이 아니다. 아픔에 겨워, 그것을 참기 어려워 우는것만도 아니다. 경건한 마음도 눈물로 흐른다.

낯모를 사람들,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이 은영이를 울게 하였다. 사무치는 감사의 념과 더불어 이름할수 없는 숙연한 마음이 눈물로 되여 하염없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것이였다.

수미도 그를 붙안고 울고있었다.

《울지 마, 은영이. 난 정말 못 견디겠어. 울지 마!》

그들은 서로 꽉 부둥켜안은채 정신없이 소리쳐 울기 시작했다. 《오케》레코드사를 이름떨치게 한 유명한 녀가수 리란영이 눈물속에 노래를 시작한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사공의 배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시악씨 아롱젖은 옷자락
리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설음

수많은 간데라불들이 그들을 비쳐주고있었다. 사방에서 번쩍거리는 전지불들도 둔덕우에 나선 리란영이며 고복수, 장세정, 백년설 등 가수들의 눈물어린 두볼을 따뜻이 더듬었다. 리란영의 남편이며 악단의 지휘자인 김해송의 얼굴도 온통 눈물에 젖어있었다. 방금 처참한 일을 겪은 후여서 만장이 소리내여 흐느끼고있었다. 간데라불들이 사람들의 머리우를, 눈물의 바다를 쉬임없이 노저었다.

은영은 처음 이렇게 목놓아우는듯 했다. 아픔과 슬픔에 겨워 끝없이 울고만싶었다. 리화녀전을 다니면서 흥행악단의 가수들을 천하게 아류로 취급하는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였지만 지금은 이국땅에까지 찾아와 동포들을 울리고있는 그들과 함께 울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또 있다. 목놓아 울지 않으면 안되는 리유가 또 있다.

어이하여 우리에게는 눈물의 노래밖엔 없단 말인가. 희망과 랑만의 노래는 왜 없는것인가?!… 은영은 눈물과 비탄의 노래밖에 없는 동포

들의 설음과 아픔이 가슴에 사무쳐와 울고 또 울었다.

버럭산너머 먼곳에서 이따금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울려왔다. 비구름이 랭기를 뿜으며 밤하늘을 덮고있었다. 찢어진 구름장사이로 하나, 둘 별빛이 가물거리고는 곧 사라졌다.

3

시꺼먼 밤하늘에서 비가 처지기 시작했다. 쇠테를 두른 마차바퀴가 찌국거리며 포석을 울렸다. 순회대가 려관에 이르렀을 때엔 대줄기같은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있었다.

리철사장과 순회대의 전체 배우들이 은영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리철사장이 직접 나서서 은영이를 리란영이 들어있는 방에서 하루밤 묵으라고 했다. 사장을 따라가는데 한 남자가수가 따라왔다. 리철사장이 그를 가리키며 소개했다.

《서로 알고 지내오. 이분은 고복수, 〈타향살이〉 노래로 유명한 가수이구 그담…》

리란영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랑을 담아 소개했다. 그리고 그들 리란영과 고복수에게는 은영양이 어릴 때 벌써 전국녀중생들의 성악콩클에서 1등을 했다는것, 그때 벌써 자기가 은영양을 점찍어놓고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알고보니 고복수는 리란영이 가요계에 나타나기 전에 벌써 《타향살이》로 일약 명성을 떨친 가수였으나 지금은 란영이를 아무런 사심없이 앞자리에 내세우고있었다.

피기까지 가셔진 새하얀 얼굴에 병색이 짙은 리란영은 너무도 끔찍한 일을 겪고난 후여서 녹초가 되여버린듯 했다. 12살 어린 나이에 막간가수로 무대에 나섰던 리란영, 16살때엔 리철사장을 만나 그의 소개로 작곡가 손목인이 그녀에게 맞는 노래를 작곡한 《목포의 눈물》로 일약 명성을 떨치였다. 그리하여 옥례라는 본명대신 란영이라는 예명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느덧 10년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그새 명성은 얻었지만 많은 류행가수들처럼 생활의 세파에 부대끼며

지쳐버리고 노그라지고있는것이 력연하였다.

고복수가 리란영의 방에 찾아온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는 새로운 창법, 특이한 소리색갈과 풍만한 음역으로 노래하는 쏘프라노가수인 은영이를 만나보고싶었던것이다. 흥행악단의 류행가수들과는 다른 음악세대의 출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것 같았다.

그들 고복수와 리란영은 은영이 어떤 운명의 연출로 여기 봉천에까지 왔는지 무척 알고싶어했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가 시작되던 찰나 문이 벌컥 열렸다.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던 수미가 문앞에 버티고있었다.

《아, 란영언니, 미안해요. 이 아씬 내가 데리구 가겠어요.》

리란영은 말없이 고복수에게 묻는듯 한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고복수도 수미의 파리한 눈길앞에서 허둥거렸다.

수미가 방으로 들어서며 은영이앞에 무릎꿇고 앉았다. 그 녀자한테서 소독수냄새가 확 풍겼다.

《나랑 같이 가, 여기 옆방이야.》

은영이도 수미와 같이 하루밤을 보내고싶었다. 지나온 10년세월 어떤 운명의 길을 걸었는지 무척 알고싶었다.

《언니.》 수미가 또 말했다. 《그래두 되지요, 반대없겠지요?》

리란영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수미가 바라는 일을 누가 막는다던! 그렇지만 은영이생각은 어떨지…》

《가겠어요.》

은영이가 말했다.

《사실 난 수미씨와 오래전에 만났댔는데… 같이 있고싶어요.》

수미가 웃으며 그를 잡아끌었다.

《어서 가요. 은영이, 란영언니나 고선생은 좀 갑갑해.》

수미는 거의나 어거지로 은영을 복도로 끌어내며 그들이 듣는것도 꺼림없이 주절거렸다.

《란영언닌 자기의 잘난 님한테서 버림받을가봐 늘 우는 소리뿐이구 고복수오빤 보살펴줄 녀인이 없어 밤낮 속을 앓구있지. 정말 따분하기란!…》

그는 여기서 제멋대로 살아가는것 같았다. 난삽한 성미그대로 자기방의 미닫이문도 와락 밀어제꼈다. 마치 오라를 지워 끌어온 죄인처

럼 은영이를 방에 밀어넣으며 또 중얼거렸다.

《우리 쇼단지휘자이구 작곡가인 김해송이 알지? 아, 거 백년설이 불러서 유명해진 〈고향설〉 노래의 작곡가. 그가 바로 란영언니 남편되는 사람이지 뭐. 헌데 녀자편력에서도 유명한 엎어말이야. 내게두 지분거리더니 요샌 김은희란 새로 온 녀자를 엎어말이하구있어.》

어느새 수미는 10년전 그날처럼 다정해지고 삽삽해져서 꺼리낌없이 너나들이로 넘어가고있었다.

남포등이 가물거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소리가 소연했다. 수미가 술과 안주를 내놓았다. 은영이 머리를 흔들자 가만히 눈여겨보는데 그 눈빛이 쓸쓸했다.

《두고봐. 꼭 나처럼 될거야.》

은영은 그가 권하는 방석우에 앉으며 추운듯 몸을 옹송그렸다. 무엇인가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차례지지 않는 것이였다.

술은 녀자들에게 먼저 눈물을 가져다준다. 수미는 서너잔 술에 벌써 눈물을 짜며 설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난 말이지, 영화배우를 꿈꿨드랬어. 은영이가 고향에 내려간 후 난 일본에 건너가 도꾜와 오—사까, 고베를 돌아다니며 단역에도 출연해봤던거야. 〈이즈의 무희〉라는 일본영화를 본적이 있어? 못봤을거야. 거기선 꽤 괜찮은 역을 했더랬지.… 그런데 영화감독이란 녀석이 날 기어이 스토립퍼(라체배우)로 쓰겠다는거야. 내 눈매랑 몸매가 스토립댄서 (라체무용수)를 찜쪄먹는다나. 그래 난 생각해봤어. 벗으라믄 뭐 못 벗을게 뭐야. 하지만 열번, 스무번 홀딱 벗은들 뭘해? 그저 그뿐인걸. 주역 하나 받지 못하구 몸매자랑이나 하구 침대에서 딩굴기나 하는 그게 무슨 배우야?… 관중이 지루해할사 하믄 한장면 끼여넣는 노리개이지. 세상에 날려보자구 했는데 고작 스토립퍼야?… 리철사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믄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몰라. 밤낮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또 이게 무슨 꼴이람. 이것봐, 이걸, 이걸!…》

갑자기 수미는 가슴 앞섶을 헤치며 새되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 쪽발이장교놈이. 원숭이같은 왜놈의 새끼가 이 꼴루 만들어놨어!》

젖가슴을 스쳐간 칼자리에는 아직도 피가 말라붙어있었다. 엿물같이 누런 약까지 발라놓아 보기에도 으쓸하였다.

은영이 그의 옷섶을 여미여주었다. 무어라고 할말도 없었다. 수미가 이를 갈며 왜놈들을 저주하는 소리를 끝까지 듣고만 있었다. 자기의 흥분과 충동을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은영이였다. 소리치며 저주하느니 칼을 들고 나서는것이 그에겐 더 어울리는것이였다. 하기에 은영은 분노와 치욕에 떨고있는 수미를 달래지도 않았고 제지하지도 않았다. 그저 숯불처럼 타오른 격정이 가라앉기만 기다리고있었다.

오래지 않아 수미는 이글거리던 가슴속 불을 껐다. 그러나 이윽토록 수미의 치째진 눈에는 슬픔과 오욕이 가물거리고있었다.

《난 팔자가 사나와. 남보다 일찍 무대에 섰지 뭐야. 은영이와 만났을 그땐 어린 막간가수, 저 란영언니처럼 말이지. 헌데 몇해사이에 무대에 서는 법이랑 관객의 분위기를 읽는 법이랑 배우고나니까 성대가 변하기 시작했어. 마침 삼천리가극단이라는데서 연극을 하라겠지. 아니, 그 얘긴 그만두자구. 이놈의 세상에선 아무것두 안돼. 녀자들이 갈길은 하나뿐이야. …》

남포등빛에 비쳐진 수미의 얼굴은 시뻐둥하고 어쩐지 퍼런빛이 돌지경으로 창백하였다.

《그런데 은영인 어찌 된거지? 그 고운 얼굴에 그 고운 목소리를 가지구 여기서 왜놈계집들한테 〈사께와 나미다까〉(일본류행가〈술은 눈물인가〉)나 불러줘?》

《난 세계명곡만 배워줘.》

《갈구 같은거야!》

밖에서는 비가 그칠줄을 몰랐다. 처마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은영의 마음속에도 주룩주룩 떨어지며 차디찬 물보라를 날리는듯싶었다. 복도에서 웬 술 취한 손님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꽥꽥 목청을 돋구며 소리를 뽑아대는것이 들렸다.

서산에 해가 저물도다
헤이리이 산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노라니 은영은 숨이 탁탁 막히는것을 어

쩔수 없었다. 끊임없는 비소리와 수미의 푸념에 넌덜머리가 났다. 예쁘고 요염한가 하면 암상스러워보이기도 하는 이 수미가 과연 전날 나비갈던 처녀애가 옳은가 하는 의혹심에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수미가 또 술잔을 기울이고나서 한숨을 내쉬였다.

《내 말만 지껄였구나, 미안해. 이젠 은영이 얘길 해봐. 그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구 그때 은영이를 데리고 왔던 그 녀선생에 대해서랑. 참, 그 녀선생이름이 뭐랬더라?》

《리채옥.》

《오― 참 좋은 선생이였어, 그렇지?》

《…》

은영은 갑자기 혀가 말라드는것을 느꼈다.

《왜 그래? 그 선생이 지금 어데 계시지?》

《모르겠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은영은 잠시 입을 다물고 흐느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새겨진 고향이 아니였다. 두만강류역의 고향 회령땅. 그 어디에 씨앗을 묻어도 알알이 열매로 맺힌다는 옥토, 인심도 후하고 미인들이 많아서 예로부터 회령새애기라 하면 살림살이를 빼여나게 잘하고 마음씨 후덕하며 결곡한것으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리채옥선생도 교양이 있고 미모도 갖춘 녀성이여서 불우한 운명의 바오래기를 목에 걸지 않을수 없었다.

언제든 잊을수 없는 그날의 끔찍한 사연이 떠올랐다. 세마리의 사나운 세빠드들이 달려들던 팔을천너머의 서의봉기슭, 야밤의 그 둔덕길에서 채옥선생에게 달려든 개들은 이발을 드러내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녀선생의 두루마기와 치마자락을 찢어발기고 손등과 목덜미를 물어뜯었었다.

《우리 고향인 회령에 언제부터인지 왜놈별장이 하나 생겼어.》하고 은영은 으시시 몸을 떨며 이야기했다. 《무슨 광업주식회사 사장이란 놈이 경치 좋고 토질과 물이 좋은 우리 고장에 벽돌양옥을 세웠던거야. 으리으리한 집이였어, 피아노도 있구. 왜놈주인이 채옥선생의 피아노솜씨에 반해서 자주 청하군 했지. 나도 따라다녔구. 그런

데 하루는 그놈이 무슨 구실을 붙여 나를 먼저 보내는게 아니겠어. 그렇지만 난 멀리 가지 않구 선생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채옥선생이 막 울면서 뛰쳐나오는거야. 옷이 찢겨지구 말이 아니였어. 그런데… 글쎄 그 왜놈이… 개들까지 풀어서…》
숨이 차올라 더 말을 이을수 없었다. 그처럼 무시무시하던 그 밤의 일을 생각만 해도 오싹 소름이 끼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왜놈이》하고 수미가 다우쳐물었다. 《채옥선생을 더럽히려고 했단 말이지, 응?》
《그랬던거야, 채옥선생이 뿌리치고나오니 개들까지 풀었구.》
《죽일 놈의 왜놈새끼들!》 수미가 이발을 사려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마침 우리 아버지가 장대기를 휘둘러서 개들을 쫓았어. 아버진 우리가 늦어진다고 걱정해서 따라왔던거야.》
《…》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달아올랐던 흥분의 물결이 갈앉기를 기다려 은영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채옥선생이 아니였더면 난 그냥 묻혀버렸을거야. 그 선생이 아버지한테 날 유명한 가수로 키우자고 말하군 했지. 아버지도 그 선생을 전적으로 믿었구… 그러던 선생이 개한테 뜯기워 병신이 될줄이야… 일본에서도 한다하는 피아니스트였다던데 무슨 일로 고향에 내려왔댔는지는 나도 잘 몰라. 개한테 뜯기워 손병신이 되여 다신 피아노를 탈수 없이 됐어. 얼마후엔 두만강건너 중국룡정인가 하는데로 가버렸구. 외삼촌이 선생을 오라구 불렀다던지…》
은영은 그후 왜놈별장이 불에 타버린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거기에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던것이다.
《더러운 세상이야.》 수미가 씹어뱉듯 말하였다. 《죄다 망치구말아, 이놈의 세상에선… 흥행단이란건 또 뭐야. 여기서두 갈구 같은거야. 아무데서나 배우들이란 그저 구경거리나 노리개지!》
누비돗자리밑에서 빈대들이 욱실거렸다. 구질구질 내리는 비소리와 우수수 나무가지를 흔드는 바람소리가 소연해지고 파리똥이 가득 점찍혀있는 남포등까지 거물거물해졌다.
수미는 또 잔을 기울였다.

《그래 은영인 선생도 없이 어떻게 공불 했어?》
《함흥영생녀중을 다녔지. 그건 채옥선생이 도운거구. 그담 리화녀전을 다니다가…》
《리화녀전? 그러니 서울에서?》
《응, 학비를 댈수 없어 여기까지 왔구.》
《그－래?!…》
더이상 말을 이을 필요가 없었다. 수미가 비스듬히 모로 쓰러졌다. 버들잎같은 몸에 술이 지나쳤던것 같다.
비소리가 세차졌다. 고달픈 순회대의 잠자리를 적셔주는 비소리, 처음으로 은영은 자기의 꿈도 이처럼 짓이겨지지 않을가 하는 불안과 공포에 몸이 떨리는것을 느꼈다. 수미와 《오케》레코드사의 일이 남의 일같지 않았다. 은영이 자기가 걸어가야 할 수난의 길이 바로 오늘 여기서 명백하게 암시되지 않았던가!… 그러나 리화녀전을 마저 수료하고나면,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가수로 등장하기만 하면 달리되지 않을가. 그때엔 모든것이 달라지지 않을가?…
아버지가 바로 그것을 바랐고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바쳤다. 아버지 김학송은 청진부두와 정어리공장에서 일하다가 두만강건너 룡정에서 중학을 나온 후 회령지구 미국선교사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쳤는가하면 교회당합창단의 지휘자, 신흥학교의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교원, 품팔이군, 소작농… 못해본 일이 없었다.
강직한가 하면 산만하고 다채롭기도 했던 아버지, 남달리 굵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천부적인 음악적재능도 가진 아버지였지만 알수 없는 일에 몰두하며 자주 두만강을 건너다녔고 광부와 탄부, 배몰이군, 철도로동자, 린근의 작인들, 행상군, 목사, 청부업자, 지어 순사들과도 꺼리낌없이 사귀고 밀려다녔다. 어찌 보면 소란스러운 아버지였지만 은영이만은 엄하게 키웠다. 사실말이지 그 아버지가 채옥선생에 앞서 은영이에게 음악의 넋을 키워주었다. 철부지 어린것을 채찍으로 후려치며 악보를 익히게 했고 일본에서 류학하고 온 보통학교의 녀교원 리채옥에게 부탁하여 피아노기초와 성악창법을 가르치게 했다. 온 식구가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형편이였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녀중생들의 성악콩클에 보내려고 가산을 팔아 려비까지 장만해준 아버지였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었다.

《꽉새가 새끼들에게 어떻게 나는 재간을 배워주는지 아느냐? 벼랑턱에 끌어다놓고 밑으로 떨궈버린단다. 자, 날아라! 하고 말이지. 날개를 펴고 날면 꽉새가 되는거고 그냥 떨어지면 죽고마는거야.》

아버지는 바로 그렇게 딸을 키웠다. 하여 은영이도 이상하게 자랐다. 채찍을 맞으면서도 어린 은영은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 신음소리도 없이 아픔과 설음을 씹어삼키군 했다.

《지독한 년이야.》하고 언젠가 아버지는 말했다. 《한번 우는걸 못보겠거던.》

그 말에 어머니는 혀를 찼다.

《우는 꿩이 먼저 채운다 했수다. 차라리 그게 낫지비. 계집애 입싼것 어따 쓰겠수.》

《그래두 울 때 가선 울어야지!》

아마도 독한 마음이 은영이에게도 있은것 같다. 그래서 전국경연에도 입을 잔뜩 오무리고 말 한마디없이 올라갔을것이다.

그 시절 아버지의 머리속엔 딸의 장래가 손금처럼 명백히 그려져있었던것 같다. 또한 은영이 가야 할 앞길에 미리 하나하나의 리정표들을 세워보고있은것인지도 모른다. 집살림엔 낯도 돌리지 않던 아버지, 때로는 술에 빠지고 때로는 도박에 미쳐돌아가는가 하면 알수 없는 사람들과 수군거리며 밤낮 떠돌아다니던 아버지였다. 언제 한번 딸의 머리를 쓸어주는 일도 없이 엄한 눈길로 지켜보기만 하던 아버지, 그러던 아버지가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왜놈별장에 불을 지른것도, 벼랑굽이바위에서 순사놈을 때려눕힌것도 아버지라고 한다. 그때부터 순사들이 뻔질나게 집에 뛰여들어 장독을 부시고 김치움까지 뒤지군 했다. 그것은 은영이가 자기의 성악적재능을 밑천으로 리화녀전 음악과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였다.

지금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가. 은영이 중국동북의 봉천에 와있는것을 아시면 뭐라고 하실가. 깜짝 놀라실가, 노하실가, 아니면 어처구니없어하거나 치하하실가?… 은영은 그때 집에 편지로만 알리고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국경을 넘어왔던것이다. …

잠들수 없었다. 귀뚜라미가 씨룩거리고 천정우에서는 쥐새끼들이 신명이 나서 숨래잡이를 벌리고있는것 같았다. 날카로운 발톱들이 천정의 도배지를 찌르며 찍찍거리는가 하면 부리나케 달아나고 또 투다

닥닥 맞붙어 돌아가는것이 알렸다. 비소리는 또 왜 그처럼 끝없이, 음산하게 구질거리는지…
잠든줄 알았던 수미가 가릉거리며 일어나앉았다.
《안되겠어, 못 참겠어.》
《왜, 어디 아파서 그래?》
《취하여라. 이놈의 세상에선 취해야만 해.》 수미가 신음소리처럼 부르짖었다. 《살아도 한세상, 죽어도 한세상… 취하여라!》
수미는 또 술병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자 은영은 속이 메슥메슥해나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그리고… 찌르는듯 한 아픔이 등골을 타고 스쳐가는것을 느끼며 다시 눈을 감고말았다.
무서운 밤이였다. 낮에 있었던 일만 생각해도 심장이 찢어지는데 그처럼 사랑스럽던 수미가 이런 꼴이 된것이 슬프고 무서웠다. 두눈이 약간 치째진 이 녀자, 남다른 매력도 가진 수미가 어떻게 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수미는 어느덧 마음까지 치째져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어째서 애젊은 나이에, 세상에 날려보려던 그가 파멸의 독을 마시기 시작한것일가?…
《한 남자가 배워주었어.》 수미가 하는 말이였다. 《내가 사랑했던 한 남자… 나를 배반했지. 그러면서 이걸 배워주겠지. 살기 편하라구, 자기를 잊으라구…》
《?…》
《빌어먹을!》 수미가 또 부르짖었다. 《난 사랑하구싶어. 사랑과 예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였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응? 모두가 나를 배반하구있어. 예술이 배반하구 사랑이 날 배반하구 … 그럼 난 어쩌라는거야, 어쩌라는거야?!》
수미는 방바닥의 돗자리를 허비며 몸부림쳐 울기 시작했다. 은영은 그저 놀라서 굳어져있을뿐이였다. 은영이에겐 아직 사랑하는 남자도 없을뿐아니라 배반이라는 말도 알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진저리나는 시간이 얼마간 흘렀다. 수미가 머리를 들었다. 은영이를 쳐다보는 수미의 치째진 눈은 풀어져있었다. 그러나 말소리만은 또렷했다.
《난 배우야.》하고 수미는 낮고도 빠르게 말했다. 《유명한 배우, 세상에 날리는 배우가 되고싶었어. 어디 말해봐. 그럼 안되는가? 응?!》

《아니, 그거야 좋은 일이지. 나도 가수를… 이름난 가수가 될 꿈을 꾸고있는걸.》
은영의 대답에 수미는 갑작스레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철부지! 바보!…》
《왜?》
《어떻게 이름난 가수가 된다는거지? 고작 란영언니처럼 눈물이나 짜는 류행가수 아니면 나처럼 되구말아. 술주정뱅이 나처럼!》
《?!》
은영은 몸서리치며 그에게서 조금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미는 은영이를 놓아주지 않았다. 은영의 두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수미는 속삭이기 시작했다.
《내가 미친 년으로 보일테지, 안 그래?… 두고보라니까. 가인박명이라구 은영이도 꼭 이렇게 돼.》
《아니, 안돼. 그래선 안돼.》 은영이 그를 붙안고 마구 흔들었다. 《제발 술을 끊어. 수민 재능있는 배우가 아냐? 이제 바라던대로 세상에 날릴거야, 정말이야.》
《허튼소리, 나는 물론 은영이도 안돼. 절대로 안돼!》
가르릉거리는 그 가는 목소리에는 유리장을 긁는듯 한 소음이 들어있었다. 은영은 그를 붙안고 막 울고싶었다. 어떻게 해야 이 수미를 도울수 있단 말인가?… 그럴 힘이 은영이에게는 없었다. 나른해지는 수미를 흔들어댈뿐 다른 방도는 없었다. 그것이 더더욱 그를 슬프게 하고 몸부림치게 했다.

4

밤새 궁싯거리다가 겨우 쪽잠에 들었던 은영은 밖에서 울려온 이상한 소음에 놀라며 눈을 떴다. 투덕거리는 발자국소리들이 복도를 뛰여다니고있었다. 거친 말소리가 누군가를 욱박지르고 신음소리도 들려왔다.
은영이가 자리를 차고 미닫이문으로 다가서는데 가릉가릉 코를 골

던 수미가 벌떡 뛰쳐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 ?…》

역시 수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불속에서 나오더니 은영이를 밀치며 미닫이문을 열었다. 밖을 내다보던 그 녀자가 소스라치는것이 알렸다.

《저런! 피를 토하구있어!》 수미가 속삭이듯 부르짖는 소리였다. 《누굴가… 어데서 봤을가?… 아니 어쩌믄!》

다음순간 수미는 문을 쭉 밀며 속치마바람으로 달려나갔다. 그 녀자로서는 능히 그럴수도 있었다. 아니면 무슨 큰 변이 났는지?… 속내의바람이여서 한쪽에 비켜서있던 은영은 활 열려진 미닫이문을 도로 닫으며 머리만 밖으로 조금 내밀었다.

순간 복도에 뿌려진 피자욱이 먼저 눈에 띄였다. 사람들이 하얀 와이샤쯔를 입은 한사람을 둘쳐업고 복도 맨끝에 난 출입문으로 나가고 있었다. 속치마바람의 수미가 벌써 팔을 늘어뜨린 그 사람을 부축하고있었다.

《마부! 마부가 어데 있어요?》

수미가 소리치고있다. 연송 소리치면서 피를 토한 사람과 한방에 들어있은것 같은 남자손님들과 함께 문밖으로 나가고있다. 일이 심상치 않았다. 은영은 재빨리 옷을 주어입고 그들을 뒤따라 나갔다. 바삐 서두르면서도 수미의 부인용두루마기를 들고나가는것을 잊지 않았다. 속치마바람인 수미에게 그것을 걸쳐주어야 했다.

앙상하고 성깃성깃한 나무가지사이로 파르스름한 새벽안개가 흘러내리고있었다. 비는 멎은지 오랜듯 하다. 씻은듯이 맑게 개인 검푸른 하늘에서 뭇별들이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고있었다. 날이 밝고있는것이였다.

피를 토하던 사람은 마차우에 누워있었다. 괴롭게 숨을 몰아쉬는 그 사람의 제일 가까이에 서있는것은 수미였다. 하염없이 그 사람을 들여다보며 속치마의 하얀 끈만이 드리운 상처입은 가슴에 두손을 꽉 눌러대고있었다.

잠결에 불리워나온 마부가 투덜거리며 말을 끌어왔다. 누군가 환자의 옷을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누런 모직양복이였다. 보통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넥타이도 있고 번쩍거리는 고급가죽장화도 있었다. 얼핏 보기엔 일본인청년같았다. 종군기자이거나 대륙에 불려온 기술자일수도 있다. 그런데 수미는 무엇때문에 그렇듯 가슴을 움켜쥐고있는것인지?… 수미는 은영이가 내미는 검은색두루마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재빨리 속삭이였다.

《어때, 미남자지?》

《 ?…》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피를 토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이 무슨 망녕된 소리람!… 그러나 수미는 은영이의 놀라는 눈길에도 아랑곳 않고 줄곧 한가지 생각에만 옴해있는듯 했다.

《어제 밤에》하고 수미는 닭의 살이 돋아난 앞가슴을 어루쓸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이 미남자를 병원에서 봤어. 내가 치료받으러 갔을 때 말이지.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할수 없이 도중에 내렸다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야. 고문을 받은게 틀림없어. 왜놈들이 그랬을거야, 그 쪽발이놈들이!》

《그럼 일본사람이 아니구?》

은영의 놀란 소리에 수미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조선청년인데 뭐. 어제 밤 우정 말해봤어.》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마차우에 번듯이 누워있던 그 젊은이가 들은것 같았다. 검푸른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두 녀자를 바라보는데 송아지처럼 머룩머룩하고 상냥한 눈빛이였다. 순하고 착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점잖은 청년이라는것이 알렸다. 체격도 그쯘했다. 그는 수미의 드러내놓은 앞가슴에 가닿던 눈길을 서둘러 은영이에게로 옮겼다. 무엇때문인지 은영이에게 입술을 찌긋하였다. 그가 무엇을 말하자고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이국땅에서 만난 동포처녀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려 한것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보세요.》 수미가 그의 턱밑에 얼굴을 가져갔다. 《내가 생각나시지요? 어제 밤 병원에서 내가 인사하지 않았어요.》

청년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나 눈길은 여전히 은영이에게로 향했다. 아마도 거의나 벌거벗고있는듯 한 수미를 마주 보기가 저어되였던 모양이다.

바로 이 젊은이가 박수미와 김은영 두 녀자의 한생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 운명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그때 은영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수도 없었다. …

리철사장을 비롯한 여러 순회대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나왔을 때엔 벌써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고있었다. 그들이 좀더 일찍 나왔어도 피를 토하던 그 젊은이의 이름은 즉시 밝혀졌으련만…

마차가 려관정문을 나서자 수미가 손을 들며 무엇인가 웨치려 했다. 그러나 그만 손을 든채 굳어져버렸다. 무엇을 웨칠수 있으랴. 은영은 파랗게 질려있는 수미의 얼굴을, 가늘게 떨리는 입술을 가만히 여겨보았다. 사랑을 찾는 녀자, 예술에서 성공을 꿈꾸었으나 희망을 잃고있는 녀자, 웬일인지 갑자기 수미가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파랗게 불타던 그 녀자의 두눈에 고이고있는 한방울 눈물이 자기의 가슴에 얼음쪼각처럼 떨어져 내리는것을 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내가 찾던 사람이였어.》 하고 수미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처음 보는 순간에 벌써 알았지 뭐야. 바로 이 남자다,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하고말이야. 의젓하고 대범한 미남자… 그런 사람을 여태 찾고찾았는데…》

비온 뒤끝이여서 새벽의 대기는 오싹하리만큼 신선한 기운에 차있었다. 사방에서 닭들이 홰를 치며 울어대였다.

리철사장이 희끗희끗한 머리를 손으로 빗으며 다가왔다.

《수미양, 누구 아는 사람이여?》

《예.》 수미는 머리도 돌리지 않고 무심히 뇌까렸다.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지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 녀자의 무례한 대답에 은영은 거북했지만 흥행사로 산전수전 다 겪은 리철은 대수롭지 않게 코웃음치며 돌아섰다.

《옷이나 입소그려, 사람들이 보는데.》

수미는 부지중 소스라치듯 몸을 떨었다. 별안간 조롱받는 자기의 처지가 뼈저리게 느껴진것인지도 모른다. 은영은 그 녀자의 좁은 어깨에 두루마기를 걸쳐주었다.

어느덧 마차는 저 멀리 언틀먼틀한 언덕을 굴러내리고있었다. 대도로쪽으로 가달진 그 언덕길을 내리면 이 일대에서 제일 큰 건물인 일본동양척식회사소속의 은행을 지나게 되고 그다음은 병원이 있다. 수미는 마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

고있었다. …

《오케》순회대는 그날로 봉천역에서 밤차를 타고 신의주를 향해 떠나게 되였다. 은영이 역두에 나가 그들을 바래주었다.

리철은 물론 작곡가 박시춘, 지휘자 김해송, 이름난 가수 남인수, 녀가수인 리란영, 고복수, 리란영의 남동생이고 《락화류수》의 작곡가이며 연주가인 리봉룡 등이 눈물어린 작별의 인사말들을 남겼다. 그것은 가요계에서 차츰 조락해가는 전 세대의 류행가수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후대에 보내는 애수에 찬 희망과 기대이기도 하였다.

수미만이 지친듯 무심하였다.

《잘있어.》 하고 그 녀자는 맥없이 말했다. 《그리구… 내가 한 말을 잊지 마.》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것인지 그 녀자는 밝히지 않았다. 은영이는 쓸쓸해지는 마음을 누르며 애써 밝게 웃어보였다.

《잘 가, 부디 마음을 굳게 먹구…》

다음순간 은영은 수미가 자기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있다는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수미는 피발이 선 눈으로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바로 그 하늘에서는 시꺼먼 유리에 이슬이 돋는듯 별들이 껌벅이고있었다. 그것들은 수미의 두눈처럼 파리한 빛을 발하며 멀리 기약할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로 자꾸만 눈짓하는것이였다.

은영은 수미의 공허한 눈길과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조여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불행한 수미, 래일의 희망을 잃고있는 녀자, 그는 지금 무엇을 생각할가. 새벽에 보았던 그 젊은이를 그려보고있는것일가?…

아닐세라 수미는 갑자기 은영이의 두눈을 들여다보며 숨찬 목소리로 가늘게 속삭이였다.

《난 아까 병원에 가봤어. 피를 토하던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길래 혹시나 해서… 그런데 벌써 끌어갔다질 않겠어, 헌병들이. … 왜 그랬을가, 어데로, 뭣때문에 그를 끌어갔을가?…》

《 ?!…》

은영이의 눈을 들여다보는 수미의 얼굴은 퍼릿한 빛이 돌 지경으로 창백하였다. 자기의 인생을 두손으로 부여잡고 목터지게 사랑을 웨치

려 하나 목구멍이 칵 막혀 모지름쓰는듯 했다.

그때 발차를 알리는 긴 호각소리가 울렸다. 둥글모자를 쓴 중국인 남자역원이 뭐라고 소리쳤다. 누군가가 수미를 잡아끌었다. 수미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저절로 승강대에 올라섰다. 먼저 차에 올라선 사람들이 은영이에게 손을 들어 인사말을 급히 웨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수미만은 암울해진 눈빛으로 시꺼먼 하늘끝만 바라보고있었다.

기적소리가 울리고 기차가 칙칙 거센 증기발을 내쏘았다. 찬바람이 텅 빈 홈을 휩쓸었다. 때이른 가랑잎이며 휴지쪼각들이 어지러이 날렸다. 차바퀴들이 용을 쓰며 레루우를 굴러갔다. 후끈하고 텁텁한 증기발이 련속 은영의 얼굴에 들씌워졌다.

어느덧 기차는 뿌잇한 외등 저쪽으로, 끝없는 어둠속으로 멀어져갔다. 조만간 은영이도 가지 않으면 안될 그 길, 미지의 세계에로 아득히 뻗어간 두줄기 철길, 기차는 목메인 기적소리를 울리며 무덤굴처럼 시꺼멓고 으쓸한 그 어둠의 길로 숨가삐 달려가고있었다. …

5

그해 10월이였다.

웬 젊은이가 은영이를 찾아왔다. 쥐색코트를 걸치고 중절모까지 썼는데 피기 하나없이 창백하고 강마른 청년이였다.

《아버님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은영씨,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겠습니다.》

《 ?…》

은영은 미심쩍어하는 눈빛으로 그를 스쳐보았다. 한생 어둠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분명하였다. 그를 똑바로 마주 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그의 우묵한 눈확에서 반디불처럼 타는 두눈이 내다볼 때엔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헌데 당신은…》

《예, 전 림호라고 합니다. 일이 있어 왔던 길에 아버님부탁을 받고 들렸습니다.》

어쩐지 의심만 더해졌다.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것은 사실이지만 종적없이 사라진 아버지가 서울청년에게 무엇을 부탁할수는 없지 않는가!

《저… 우리 아버질 어떻게 아시고…》

《그럴만한 일이 있습니다.》 청년은 벌써 은영이 미심쩍게 여긴다는것을 눈치챈것 같았다. 《은영씨 아버진 지금 서울에 와계십니다. 벌써 두달전 일인데 아직 모르고있었습니까?… 참 그런줄 모르구… 여기 편지에 다 적혀있을겁니다.》

편지를 꺼내는 림호의 왼손에 험한 상처자리가 나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손등에서 팔목까지 찍어낸 칼자리, 흔히 일본 야꾸자패들이 그런 흠집을 갖고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얼어드는듯 했다. 은영의 눈길이 흉한 상처흠집에 가닿자 림호는 미간을 찡기며 낮게 말했다.

《편지를 읽고 빨리 준비하십시오. 우린 밤차로 떠나야 합니다.》

《그럼 림호씨와 같이?》

《같이 가야 합니다. 아버님이 부탁했는걸요.》

《 ?…》

아버지의 분부라면 언제한번 마다해본 일이 없는 은영이였다. 편지를 받아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맙시사! 이런 사람과 같이 가야만 한단 말인가?… 틀림없이 무덤속에서 나온 사람이야. 그런 냄새가 나!… 은영은 편지를 읽을 생각도 못했다. 이런 사람과 같이 먼길을 갈바엔 도깨비한테 홀려가는 편이 훨씬 나을것이다.

《그럼》 하고 림호가 말했다. 《세시간후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중절모를 약간 들었다 놓으며 돌아서는 순간 은영은 짧게 깎은 그의 머리를, 깎았다기보다 이제 겨우 끄트머리를 내밀고있는 머리칼을 띄여보았다. 다시금 가슴이 서늘해지는것을 느꼈다. 언제한번 해빛을 받아본적이 없는것 같은 되박머리에 금시 새 머리칼이 돋고있는것이였다. 파아란 정맥이 툭툭 불거져있는 이마, 우묵하게 패운 눈확, 생각만 해도 으쓸해지는 무서운 암흑세계에서 온 사람이 분명하였다.

그가 멀리 사라졌을 때에야 은영은 편지를 읽었다.

은영이 보아라.

당장 서울로 돌아오너라.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림호라는 청년인데 친오빠처럼 믿어도 된다.

우리 온 가족은 지금 서울에 와있다. 김제식선생이 너를 부른다. 가정교사로 받겠다 하니 리화녀전도 계속 다닐수 있을것 같다. 시국이 어수선하니 지체말고 곧 떠나도록 해라.

소화19년 10월 3일 아버지 씀.

그것이 전부였다. 은영은 몇번이고 편지를 읽고읽으며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서울로 돌아갈수 있다는것 그리고 리화녀전을 계속 다닐수 있다는 생각에 림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있었다.

한밤중의 봉천역은 어물시장처럼 소란스러웠다. 무개화차에서 쏟아져내린 일본군병졸들이 대렬을 짓느라고 야단이였다. 총가목이 부딪치는 소리와 구령소리, 군화발자국소리가 어지럽게 울리고 째지는듯 한 호각소리에 나들문을 나선 려객들속에서 바스라지게 울어대는 어린애의 목갈린 소리까지 섞이였다. 그 모든 소음을 짓누르며 음울하게 울부짖는 기적소리에 외롭게 밤을 지키던 전등불들이 불안스럽게 껌벅이였다.

란장판이였다. 남들보다 먼저 홈에 나선 사람들은 갖가지 보짐이며 고리짝들, 트렁크들을 량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방금 들어선 렬차에 기여오르느라고 법석이였다. 억양이 센 중국말의 회오리속에 일본말, 조선말, 백계로씨야인들의 혀를 굴리는 소리까지 한데 어울려 국제시장에 들어선듯 하였다. 밤차인데다 완행이여서 하바닥인생들이 대부분이였다.

은영은 림호가 잡아끄는대로 붐비는 사람들속을 비집고 들어갔다. 림호는 한손에 은영이의 자그마한 가죽트렁크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그 녀자의 팔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있었다.

두달전 은영이 《오케》레코드사순회대를 떠나보낼 때만 하여도 이렇게 붐비지는 않았다. 두달새에 무엇인가 달라진것이 많았다. 아버지가 편지에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한것이 우연치 않았다. 사람들에게 떠박질리우고 밀치우며 저 역시 남들을 밀어내고 쥐여당기며 차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럴 때엔 모두가 한본새로 되기마련이다. 비

로소 자리잡고 앉자 림호는 말하였다.
《창가는 위험합니다. 나와 자릴 바꿉시다.》
은영은 말없이 시키는대로 했다. 지금까지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했을뿐이였다. 림호 역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꺼내지 않았다. 기차가 떠난 후에야 은영은 꼭 묻고싶었던 말을 꺼냈다.
《저… 김제식선생이란 어떤분이세요?》
《김규식선생의 동생되는분입니다.》
《 ?…》
은영은 다시 한동안 입술만 깨물고있었다. 하지만 또 힘들게 입을 열지 않을수 없었다.
《김규식이란분은요?》
그때에야 림호는 은영이 음악의 세계만을 방황하는 순진한 처녀라는것을 상기한것 같았다.
《상해림시정부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상해가 아니라 중경에 있는데 그 정부각료들중의 한사람입니다. 김구, 김규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보면 김규식이라는 이름도 낯설지 않았다. 김규식, 김제식… 괜히 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가보면 알게 될것을…
그때부터 그들은 오래도록 침묵을 지키며 제 생각에만 묻혀있었다. 레루이음짬을 타고 넘는 단조로운 덜컹소리, 소란스러운 손님들의 객담과 싱갱이질, 승무경관의 짐검사… 침묵이 얼마나 고달픈것인가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가싶었다. 낯모르는 손님이라면 아무 상관도 없으련만 아버지가 친오빠처럼 믿으라고 한 동행자를 옆에 두고 입다물기 경기라도 하듯이 장시간을 보낸다는것은 힘겨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어떤 우연한 일만 아니라면 그들은 끝까지 곁을 주지 않고 길고긴 려정을 무료하게 갔을런지도 모른다. 기차가 두번째 역에 머물렀다가 떠날 때였다. 새로 오른 손님들이 자리를 찾으며 지나가는데 승마복바지를 입고 코밑수염을 기른 사람이 림호를 눈여겨보면서 지나쳤으나 웬일인지 다시 돌따서 다가왔다.
《이게 누구요?!》 그 코수염쟁이가 조끼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며 반갑게 말했다. 《정말 오래간만이요. 난 당신이 감옥에서 잘못되

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 한경세형사님! 난 당신이 고등계주임으로 승급한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요?…》

《여전하군.》

《무슨 말씀인지?…》

《재치있게 롱을 하는 솜씨 말이요. 림호라는 사람은 살아있고 내가 제일 믿던 변절자가 대신 죽었다 그 말이겠지?》

두사람은 비양과 조롱의 입씨름을 시작했다. 이미전부터 그렇게 하는데 습관되여있은듯 했다.

《다행이요. 당신같이 총명한 사람이 죽어서야 안되지, 응?》

《고맙습니다.》

한경세가 담배를 권했으나 림호는 사양했다. 한경세는 소리없이 싸늘하게 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래 감옥밥을 몇년 먹었소?》

《덕분에 한 3년쯤…》

괴이한 상봉이였다. 림호는 자리도 권하지 않았다. 한경세도 응당 그러리라고 여긴듯 걸상모서리에 불편하게 몸을 기대고 마주 서있었다. 손에 든 담배를 연송 손가락으로 두드리는것이 심사가 불편한것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끝없이 담배재를 터는 습관이 있는것 같다. 한모금 빨고 열번나마 재를 터는 그의 손가락 아니, 그 두번째 손가락끝이 뭉청 잘려버린것이 눈에 띄였다. 손톱이 빠져있는 그 손가락이 웬일인지 징글스럽고 스산한 느낌을 주었다.

한경세의 날카로운 눈빛 역시 마치 자석에라도 끌린듯 은영이를 겯주고있었다. 몇번이고 곁눈질해보더니 매우 친절하게 중절모를 벗어들었다.

《아가씨, 곁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은영이 자리를 좁히려 했으나 림호가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형사님이야 어떻게》하고 림호는 깍듯이 례의를 차려 말했다. 《이런 비좁은 자리에 앉아 가시겠습니까! 1등칸으로 가시던 길이겠는데…》

한경세의 눈빛에서 독이 풍겼다. 한순간 말없이 쏘아보더니 또 한

번 싸늘하게 웃었다. 소리없는 그 웃음, 코밑수염이 쫑긋거리는 그 살가운 웃음에 은영은 몸서리치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어느새 자리를 좁혀 옆으로 비켜앉았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예쁜 아가씨.》

다시금 중절모를 잡았다 놓으며 한경세는 그들사이에 비집고 앉았다. 한동안 무시무시한 침묵이 흘렀다. 맞은편에 앉은 중국인늙은이가 대통에 꾹꾹 다진 독한 써레기에 불을 달더니 싯누런 연기를 무심코 앞으로 뿜어대였다. 조선말을 모르는 늙은이여서 맞은편에서 주고받는 말엔 애당초 귀도 기울이지 않고있었다. 한경세가 은영이에게 날아오는 담배연기를 손으로 휘저으며 친절을 표시했다. 그럴수록 은영은 몸을 사리며 비좁은 구석쪽으로 자꾸만 파고들었다.

림호가 참다못해 가래끓는 소리를 내였다.

《이렇게 형사님을 만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 역시.》 한경세가 받았다. 《그런데 이쪽엔 왜 왔소? 누구와 선을 맺으러 온건 아니요?》

《아니, 아가씨를 서울로 데려가려구…》

《아, 이 아가씨?!…》

한경세의 눈길이 은영이의 얼굴을, 상큼한 목과 가슴노리를 슬쩍 더듬었다. 은영은 짜릿한 전률이 온몸을 불로 지지는것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슴을 더듬고 옷을 벗기는것처럼 느껴지는것이였다. 그자가 여전히 코수염을 비다듬으며 지꿏게, 로골적인 굶주린 눈길로 살피는데엔 견딜수 없었다. 어망결에 가느다란 흐느낌소리가 새여나왔다.

림호가 불안해하며 말을 걸었다.

《그런데 형사님은 왜 여기로 오셨는가요? 혹시 나를 묶어가려고 온건 아닌가요?》

한경세가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그자는 대답대신 례의 그 싸늘한 웃음을 떠올릴뿐이였다. 불안스러운 침묵, 차바퀴소리가 커졌다. 은영은 가슴을 조이며 제발 림호가 형사를 더이상 건드리지 않기를 빌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날것만 같았다. 조선인 두 남녀를 총창으로 찔러죽이던 헌병장교의 사납게 이지러진 낯짝이 눈앞에서 언

듯거렸다. 시꺼먼 차창밖으로는 허연 증기발이 언듯거리고…
《요즘 말이요.》 마침내 한경세가 림호의 귀에 대고 하는 말이였다. 《일본사람들속에서는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감옥에 쓸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늘어나고있소. 데모현장에서 기관총으로 쭉 밀어버리는게 낫다고 말이요. 감옥에 걷어넣으니 얼마나 불편한가! 법률상으로는 사형을 구형하기가 힘들어 공밥만 먹이지, 그러는새면 당신같은 풋내기까지 편편하게 살아남아서 제법 주의자냄새를 피우게 되거던, 그렇지 않소?》
《부끄럽군요. 나한테서도 주의자냄새가 난다니. …》
밤이 깊었다. 차칸엔 담배연기가 꽉 차있었다. 천정에 매단 전등이 거물거물해졌다. 왁자하니 떠들던 사람들도 지쳐버려 저저마끔 구겨박히며 잠을 청하고있었다. 그러자 한경세와 림호도 목소리를 낮추었다.
《주의하라구. 다시 내 손에 걸려들면…》
《알고있습니다. 형사님솜씨를!》
한경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간 은영은 그자가 수갑이나 족쇄를 꺼낼듯이 생각되여 저도 모르게 따라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나 림호가 먼저 일어나며 형사와 마주섰다. 그들은 마치 작별을 아쉬워하는 친구들처럼 가까이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은영은 가까스로 그들이 하는 말을 가려들었다.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하라구.》
《예, 형사님.》
《그럼 잘 가시오.》
《고맙습니다.》
마주보는 눈빛은 서리발치듯 날카롭고 싸늘했다. 다시 만나는 그날엔 추호도 용서치 않는 피비린 격투가 벌어질것이다. 한경세는 나타나던 때처럼 소리없이 사라졌다.
기적소리가 울렸다. 가을밤의 광야를 질주하는 증기기관차의 목갈린 절규, 무엇을 절규하는것일가. 은영은 몸이 떨려 견딜수 없었다. 목소리까지 떨리고있다.
《그 형사가 림호씨를 따르게 아닐가요?》
《아니, 그럴수 없습니다.》
《왜요?》

《형사가 따라다닐만 한 인물이 못되니까요. 방금 그자가 하는 말을 못 들었습니까. 시위나 하구 고함이나 지른게 고작이였지요. 그래서 주의자냄새를 피운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 ?…》

그의 말을 들으며 은영은 얼마전에 있은 끔찍한 학살을 또 상기하였다. 왜놈들이 말꼬리에 비끄러매여 끌어다 학살했던 녀인과 청년,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가. 형사가 말하던 법률상의 사형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였던것이다. 혹시 그들은 총을 들고 싸운 사람들은 아니였을가?… 왜놈들의 법에는 살인자만을 사형한다고 씌여있다고 한다. 그래서 3. 1인민봉기때 놈들은 시위자들은 법에 걸어 사형을 구형할수 없으므로 감옥이 아니라 바로 시위가 벌어지는 길바닥에서, 법정의 밖에서 칼로 찌르고 총을 란사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던것이다. 그러한 살륙의 내막을 언젠가 아버지가 손님과 말하는것을 들은 일이 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은것이 분명한 림호는 무엇을 하였을가. 아버지와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였고?…

많은것을 묻고싶었다. 첫인상에 무덤굴속에서 나온것 같던 이 침울한 사람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싶었다. 인제는 그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것이 안타까왔다. 감옥에는 왜 갇혔으며 변절자요 뭐요 한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를 알고싶었다. 그러나 림호는 중절모를 눈가장자리에까지 푹 내리고 잠을 청하고있었다. 아니면 어둡고 무서운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고있는것인지도 모른다.

아마 이 사람은 모질고 드셀것이다. 지금은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있으나 격하기만 하면 칼날처럼 서리찰것이다. 이런 사람을 아버지는 친오빠처럼 믿으라고 하였으니 과연 아버지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가?…

불현듯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사실 아버지는 도박이나 술에 미쳐 돌아갈 그런 사람은 아니였다. 술판에 불리워가서 륙자배기를 건드러지게 넘기는 활량이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매일 밤 남포등밑에서 밤을 밝히며 책을 읽고 글을 쓰는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은영이조차 아버지가 무얼 쓰시는지 알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랴. 그저 장사밑천을 불어먹고는 또 도강증을 얻으려 경찰들에게 빌붙는줄로만 알았을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때문에

두만강을 건느군 했을가. 혹시 아버지도 이들 주의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있은것은 아닐가?…
처음으로 은영의 머리속에 갈마든 생각이였다. 스물두해째 살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다는것이 놀랍기만 했다.
여전히 기차는 캄캄한 어둠속을 꿰지르며 숨가삐 달리고있었다. 도중역들에서 멎어서는 일도 많지 않았다. 통화역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중충하게 솟아있는 험준한 산발들이 덮치듯 가까이 마주 왔다. 인제는 자주 깊은 산협을 꿰지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게 또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자지러지는 총소리와 함께 말탄 사람들이 창밖에서 언듯거렸다. 급작스레 커지는 고함소리, 총소리, 말투레질소리에 차안의 사람들이 잠에서 깨여나 웅성거렸다. 레루를 긁어대는 아츠러운 쇠소리와 더불어 세찬 증기발이 창밖으로 날아갔다. 기차가 멎고있는것이였다.
《내다보지 마시오!》 은영이 허리를 펴고 창가로 다가서려는것을 림호가 몸으로 막았다. 《위험합니다.》
《무슨 일일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차가 멎자 말탄 사람의 낯짝이 창유리에 비쳐졌다. 빤빤머리에 하얀 녀자수건을 목에 두른 사나이였다. 차안의 동정을 살피며 히물히물 웃고있는데 창유리에 바싹 붙어 얼굴이 납작해졌으므로 오싹해질 정도로 괴이하고 흉물스럽게 보이였다. 은영은 소스라치며 림호의 잔등뒤에 머리를 박았다. 왜놈헌병장교가 군도를 빼들고 위협할 때에도 이처럼 기겁하여 틀어박지는 않았다. 사실 그때에는 무고한 수미와 사람들을 지켜보려는 용기도 있었다. 하지만 끓는 물에 튀겨낸 돼지같이 허여멀쑥하고 납작해진 그 사나이의 음흉하게 웃고있는 징그러운 낯짝에는 몸서리치지 않을수 없었다. 녀자들은 칼부림을 하는 군경보다도 흉측스러운 저런자들을 더 무서워하는것이다.
림호가 낮게 속삭이였다.
《무서워 마십시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피로써 막아주고 지켜주리라는 마음이 그의 굳센 목소리에서 울리고있었다.
탕!— 총소리가 울렸다. 바로 창밖의 흉물스러운 사나이가 너털웃

음을 터뜨리며 공중에 대고 쏘아대는것이였다. 탕— 탕!—
저도 모르게 혀를 깨무는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림호가 그의 손을 꾹 잡아주었다. 은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오직 뼈마디가 앙상한 림호의 잔등에만 매달려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어데선가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가 나고 고함소리며 총소리가 뒤따랐다. 하지만 소란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기적소리가 울리고 다시 기차는 칙— 칙— 세차게 증기발을 뿜으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허리를 펴고 어떤 사람은 창밖을 살펴보기도 했다. 말탄 사람들의 시꺼먼 형태가 구름속을 떠가듯 멀리 어둠속으로 사라지는것이 보였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왁작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이 뭐라구 하지요?》 아직도 속이 떨려 흐느끼듯 하며 은영이 물었다. 《무슨 일이 또 있는게 아니예요?》
림호는 중국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토비들이라구 합니다. 요새 토비들이 자주 출몰한다구요.》
《토비들?!》
《기차에서 무슨 짐을 내리는가 봅니다. 헌데 왜놈들은 그러는줄 뻔히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다지 않습니까.》
《예?!…》
놀라와하는 은영의 표정에 림호는 주를 달았다.
《왜놈들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 토비들까지 써먹게 됐으니…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은영이만은 알지 못하고있다. 도대체 왜놈들이 언제, 어떻게 망한다는것일가. 비적소탕을 한다고 떠들면서도 《공비》들은 즉석에서 총창으로 찔러죽이고 토비들은 눈감아준다 하니 이것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가?…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은영이 음악만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새에 세상은 많이도 변해가고있는것이였다.
《은영씨.》 림호가 머리를 돌려 보고있었다. 《지금까진 너무 결을 주지 않아 묻지 못했는데 은영씬 왜 여기로 왔습니까? 이 먼데까지…》
《돈을 벌려구요. 그다음 리화녀전을 마저 다니고싶었어요.》

림호는 의아해하며 서울에서도 돈을 벌기 위한 길은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고 했다. 자기가 알건대 10년전에 창설되였으나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는 경성교향악단에서도 재능있는 가수를 물색중이고 여러 극단, 흥행단들도 김은영이라면 대환영일것이라고.

《그럴수 있겠지요.》 은영은 가느다랗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난 아직 노래부를줄 몰라요. 이건 채옥선생이… 참 그런 고마운분이 있었어요. 그 선생이 한 말이지만… 나도 그렇게 느끼는걸요.》

《노래부를줄 모른다구요?》

《예,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예술을 하리라고 자진해왔는데… 왜 이럴가요, 난 아직 성악가로서의 나자신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로 나 김은영을!…》

《놀랍습니다. 그리구… 그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건 왜요?》

《누구든 자기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현명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

그것 역시 좋은 말이다. 누구의 말인지는 몰라도 의미깊은 말임에는 틀림없다. 자기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현명해진다!… 은영은 생각에 잠겼다. 어인 일인지 문득 《오케》레코드사와 수미가 상기되였다. 바로 그네들도 은영이 자기를 알도록 도와주지 않았던가! 그들의 고달픈 순방, 술에라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수미의 불행, 그네들을 보면서 은영은 자기의 꿈이 얼마나 순진했는가를 통절하게 느꼈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영은 지금도 리화녀전에만 모든 기대를 걸고있으니… 어리석지 않은가, 이 처녀는?!…

《은영씬 꿈꾸는듯 한 눈을 가지고있습니다.》 림호가 하는 말이였다. 《그 눈은 지금도 웃고있군요.》

그가 이 말을 침울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첨기어린 속된 말로 들렸을지도 모른다.

《웃고있다구요? 실은 나자신을 비웃고있었는데요.》

림호는 머리를 기웃하였다. 은영이 덧붙였다.

《정말이예요.》

《꿈을 꾸십시오. 꿈마저 잃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림호의 얼굴은 백살을 넘어 산 도사와 같은 표정이였다. 《그런데

난… 자살할 생각까지 했댔습니다.》
《?…》
《아까 한경세형사와 하던 말이 생각나십니까. 변절자를 두고 하던 말… 한때 나는 독서회사건에 관여한 청년들을 밀고했다는 루명을 쓰게 됐는데… 억울하지만 해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룡정에서 있은 일이지요. 나는 변절자로 몰려 동지들의 손에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막부득이해서 자살할 결심까지 했던건데… 그때 마침》 하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바로 은영씨 아버님이…》
《예?!》
《그렇습니다. 부친님이 도와주었습니다. 진짜변절자를 밝혀냈지요.》
《아버지가?!》
차바퀴소리가 쿵쿵 흉벽을 때렸다. 비로소 모든것이 리해되였다. 고향을 떠나 쉴새없이 두만강을 넘나들던 아버지, 소득이 없는 장사 그리고 교회합창단의 지휘자,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교원으로부터 소작농으로 돌아앉는 등 종잡기 어렵던 변동과 가산을 팔며 미쳐돌아가던 도박… 그리고 종적없이 자취를 감추었던 아버지가 지금은 일가식솔을 거느리고 서울에까지 올라온 사연이… 그래서 아버진 이 사람을 친오빠처럼 믿어도 된다고 하셨구나!… 옥에서 나온 이 침울하고 감때사나운 사람을…
《마저 말해주세요.》 은영은 말라드는 입술을 감빨며 낮게 그리고 재빨리 속삭이였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구요?》
림호의 우묵한 눈확속에서 불빛이 흔들렸다.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아직 그 이상은… 더 묻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고… 참 은영씨, 한가지 부탁하고싶은데… 어련하겠소만 절대 꿈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늘 꿈을 꾸며 사십시오.》
《?!…》
고무적인 그 말의 의미를 새겨보며 은영은 머리를 수그렸다.
다음날 새벽 기차는 단동역에 들어섰다. 압록강의 북쪽기슭이다. 강을 가로 지른 철다리를 넘어서면 신의주… 수난의 조국땅이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창밖으로 눈길을 옮겼다. 이제 거기서는 무슨 일이 우릴 기다리고있을가?…

날이 밝을무렵이였다. 희미한 새벽이 창유리에 파르스름하게 스며들고있었다. …

6

김제식은 김규식선생의 녀동생이였다. 미국에서 공부한 녀성으로서 은영의 음악적재능을 믿고 6살난 외동딸 김미리에게 피아노와 성악수강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던것이다. 김규식이 중경에 있는 림시정부요인이여서 그의 녀동생인 김제식은 늘 경찰의 감시속에 들어있었다. 그때문에 안주인에게 은영의 도움이 더 절실했는지도 모른다.
그 집에서 서대문동의 리화녀전은 언덕 하나를 넘으면 된다. 은영은 단 한번도 전차를 타는 일이 없이 언덕을 넘어 걸어다니군 하였다. 전차를 타고 다니는것이 돈 한푼도 아껴쓰는 그에겐 어울리지 않는 사치였던것이다. 하여 그날도 수업을 마치자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고있었다.
봄이였다. 1945년의 봄, 이제 얼마후이면 세계가 피로써 찾은 평화의 도래에 목메여 울게 될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사람들은 왜놈들이 망할 날이 눈앞에 오고있다는것을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광포해진 놈들의 피비린 만행에서, 신문마다 일본군장병들의 전몰에 대한 소식이 날을 따라 늘어나는데서, 고성기의 목쉰 군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렬차수송과 《기름 한방울이 피 한방울!》이라고 써붙인 구호에서, 피마주기름과 송탄유를 짜내며 집집의 쌀독까지 긁어가는 가혹한 수탈에서 그리고 거리를 행진해가는 일본군의 대렬속에 끼여있는 나어린 소년병들의 처량한 모습에서 매일같이 실감하고있었다.
봄, 은영의 마음속에도 화창한 봄이 오고있었다. 아직 다는 알수 없었지만 봄이 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리하여 처녀는 마음속의 선률과 리듬에 맞추어 률동적으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언덕길을 오르며 고르롭게 호흡하였다. 따스한 볕을, 대기를, 해묵은 풀냄새를 마셨다. 가슴가득히 봄을 마시고있었다.

그런데 돌연 누군가 처녀의 선률과 리듬을 헝클어놓았다. 마주오던 웬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살펴보는것이였다.

은영은 어느때든 거리에서 사람들을 여겨보는 법이 없다. 자기가 목적한것외에는 모든것을 무심히 대하였다. 하여 그날도 은영은 그까짓 누가 살피건 말건 아랑곳 않고 가볍게 걸음만 다그쳤다. 가수는 무대를 타는 사람이다. 걸음새에도 음악이 있다. 걸음새의 선률과 리듬이 곧 처녀의 몸과 마음의 률동이다.

그러나 등뒤에 박히는 따가운 시선을 그저 외면할수가 없었다. 아니, 무엇인가 처녀의 기억을 파헤치는 느낌이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홱 돌아섰다. 웬 낯모를 사람이 버긋이 웃고있었다. 후리후리한 키에 국방색모직양복을 입고 가죽장화를 신고있는 사람이다. 은영이를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이는데 어느새 얼굴이 붉어져있다. 원, 실없는 사람, 어처구니도 없지… 다시 돌따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처녀의 걸음을 또 멈추게 한다. 누구더라, 어데서 봤더라?… 천천히 머리를 돌린다. 아, 그 사람!… 그 사람이 분명했다.

반갑게 마주갔다. 그 사람도 급히 다가왔다.

《기억나십니까?》 그가 먼저 묻는 말이였다. 《그때 봉천서… 그게 무슨 려관이던지…》

《예, 기억나구말구요.》 은영은 무랍없이 섬약하고 하얀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참, 그때 거기선… 피를 토하구… 그리구나선 병원에 실려갔더랬지요. 그렇지요?》

피를 토하고 병원에 실려간게 그리도 유쾌한 일이였던가!…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역시 그 사람은 녀자들이 얼핏 스쳐보기만 해도 반할 미남자였다. 어글어글한 눈에 부끄럼타는 웃음이 반디불처럼 아물거리는데 그것도 그의 온화하고 의젓한 풍격에 없어서는 안될 남다른 색채였다. 그들은 등판에서 뻗은 작은 길을 내려갔다. 사실 은영은 등판을 넘어가야 했으나 저도 모르게 그의 걸음을 따라섰던것이다. 언덕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해묵은 나무잎들과 흙에서 풍기는 알싸한 냄새를 실어왔다. 로송들이 넓게 가지를 편 등판우에서는 새들이 소생하는 계절답게 열심히 재재거렸다. 길섶의 풀숲에서 제일 먼저 망울을 터친 할미꽃이 연보라빛의 꽃잎을 갸웃이 숙이고 수집게 미

소하고있었다. 야들야들한 그 꽃잎을 가벼운 바람이 어루쓸었다. 다가오는 봄이 따뜻한 볕을 안고 숨쉬는것이였다.

《제 이름은 고종우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였다. 《죽다가 살아난 몸이지요.》

그는 일본 동양음악대학출신으로서 지난해 일본청년성악콩클에서 1등을 한 바리톤가수였다. 대학을 졸업하자 종군예술인으로서 남방전선에 끌려가던중 병을 만나 쓰러졌었다고 한다. 조선사람인것으로 하여 엄살을 부린다고 무섭게 매질을 당하기도 했는데 피를 토하기 시작해서야 고향에 돌아가 치료받을수 있게 허가를 받았다. 은영이 봉천의 이름없는 려관에서 그를 우연히 본것은 바로 고향인 서울로 돌아가던 도중 병이 악화되여 렬차에서 내렸을 때의 일이였다.

그새 고종우는 병색이 가셔지고 몸이 좋아졌다. 그의 청에 못이겨 은영은 어느 한 음식점에 들리기로 했다.

언덕밑의 길거리에는 술집, 료리집과 각종 잡화상, 리발소며 가게방에 양복점, 양화점들이 좌우편으로 추녀를 맞대고 들어앉았는데 어느 2층벽돌양옥의 지붕우에 매단 확성기에서는 일본인 녀가수 세끼 다네꼬의 목쉰 노래소리가 봄날의 대기를 휘젓고있었다.

가도가도 끝없는 진창길을
허기진 배를 안고 행군하는데
철갑모엔 비방울만 내리치누나
…

《종군가수의 노래지요.》 고종우가 침울하게 하는 말이였다. 《은영씬 저 노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별로… 후지아라 요시에가 늘 부르던 노래군요. 그자신이 작곡했다는 말도 있던데요.》

고종우는 놀랍다는듯 쳐다보고는 곧 눈길을 내려깔았다. 무엇때문인지 인상적인 짙은 눈섭이 흠칫거렸다.

《옳습니다. 남자가수가 부르던 노래를 지금은 녀가수가 받아물었군요. 은영씨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난 저 녀가수를 잘 압니다. 와다나베 하마꼬와 같이 일본가요계에선 유명한 인물이지요. 둘다 데이고

꾸레코드사에서 애상적인 노래를 취입한것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남방전선의 일본군장병들에게 필사항전을 웨치느라고 목이 다 쉬였습니다. 망해가는 제국의 신음소리같은게… 무서운 일이지요.》

그는 마지막 《무서운 일이지요.》라는 말을 바리톤가수답게 목을 누르고 웅글게 발음했다.

사각모를 쓴 대학생 둘이 하늘색치마를 땅에 끄는 술취한 녀인을 껴안다싶이 하고 료리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나어린 일본인 기생이 문앞에까지 나와 바래주다가 고종우를 보고 허리가 부러질 지경으로 인사했다. 안으로 청하는것이였다. 은영이 묻는듯 한 눈빛을 던지자 고종우는 미간을 찡그렸다.

《다른데로 갑시다. 난 저안에서 울리는 일본노래만 들어도 구역질이 납니다.》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더 할 이야기가 없어진듯 했다. 벌써 은영은 자기가 그를 어떻게 따라나서게 됐는지 의아쩍게 여겨졌다. 반갑게 인사하고 헤여졌더라면 아릿한 마음의 여지라도 남겼을것을… 그처럼 온화하고 점잖은 미남자와 같이 걷는데도 무엇인가 불편해지는 것은 무엇때문일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무슨 말이든 해야만 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은영이 물었다.

《이제 소환장이 오면 어떻게 할가 생각을 했습니다.》

《소환장?》

《예, 남방전선 아니면 관동군으로 끌어갈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은줄 알기만 하면… 그래서…》

《그래서요?》

《망설이고있습니다.》

은영은 자근자근 입술을 깨물었다. 의젓하나 결단은 없는것 같다.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가. 채찍질을 하며 홍달구었으리라. 그를 도와야만 했다, 끌어간다는데!…

끌어간다.… 은영은 많은 녀자들이 끌어간다는 소리를 제일 무서워한다는것을 생각하였다. 녀자들에게 있어서 끌어간다는것은 곧 정신대(위안부)를 의미했던것이다.

《달아나세요.》 은영이 가만히 속삭이였다. 《놈들이 끌어가기

전에 말이지요!》
《어데로 말입니까?》
《아무데건, 멀리 외딴 섬에라도 가야지요.》
《?!…》
은영이를 바라보는 그의 두눈에 경탄의 빛이 어렸다. 처음 보는듯 새삼스럽게, 그것도 대번에 심장을 틀어잡는 매혹적인 녀성을 발견하고 감동에 겨워 진심으로 찬미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고있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이상하군요, 그렇게 수월히 말하는것이.》
《무서우세요?》
《아－니, 그저 너무도 단순하고 또 뭐랄가.…》 그는 웃었다. 《고맙습니다, 은영씨.》
《뭣때문에요?》
《갈길을 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심했단 말이지요?》
고종우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남방전선으로 끌려간다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은영이 암시해준 그 길밖에 없었던것이다.
《이제 보니》 하고 고종우는 은근한 목소리로 여전히 은영을 여겨보며 말했다. 《은영씬 참 놀라운데가 있군요. 수미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수미? 그를 만났어요?》
《예, 그녀야 무대에 나서고있지 않습니까. 늘 자기를 소개하고있지요, 무대에서랑 신문에서랑.》
그들이 자주 만나고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수미는 은영이를 알은체도 하지 않았었다.
은영은 언젠가 멋쟁이청년의 팔을 끼고 가던 수미가 눈앞에 마주친 자기를 못본체 하고 오연해서 걸어가던 일을 생각했다. 사랑의 욕구로 하여 미칠지경이던 그 녀자가 드디여 녀자들을 홀치는데서 유명했다는 배비장이라도 만난줄 알았는데!… 그 멋쟁이를 버리고 인제는 고종우 이 사람을 찾아낸 모양이다. 찾아냈으나 은영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은영은 소리없이 웃어버렸다.
그들은 마침 《송도신선로》라는 간판이 눈길을 잡아끄는 료리집으

로 들어가기로 했다.

고종우가 활기를 띠고 은영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언제 졸업하는가, 부모님은 계신가, 아버님은 무슨 일을 보시는가 하는것들이였다. 아버지가 품팔이군이라는 말에 그는 깜짝 놀라는것 같았다. 명성이 자자한 리화녀전, 그것도 이제 곧 대학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말도 있는 녀자들의 최고학당에서 품팔이군의 딸이 공부한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자연히 화제는 은영의 일신상에로 옮겨지게 되였다. 김제식선생과 그의 6살난 외동딸, 지어는 그 집앞에 홍란파선생댁이 있어 자주 은영을 찾는다는것으로부터 많은 식솔을 거느린 아버지가 은영이를 김제식선생의 양딸처럼 맡겨버렸다는것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번져져갔다.

사실 고종우는 양주업과 메리야스전문의 기업을 하는 아버지의 덕에 일본 동양음악대학까지 나올수 있었다. 그러나 한때 청년성악콩클에서 1등을 한 그였으나 조선사람이라는것으로 하여 죽음의 전선에 내던져지고있다. 하여 그는 은영의 미모와 성악적재능도 무참히 짓밟히지 않을가 하고 근심했다. 드물게 보는 미남자였지만 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박하고 진실한, 가식이 없는 사람이였다.

헤여질 때 그는 은영의 손을 잡고 잠시 머뭇거렸다. 뜻하지 않던 그 순간의 지체로 하여 대뜸 얼굴이 붉어지는것 같았다. 고종우는 차마 처녀의 얼굴을 마주볼념을 못하고 팔소매에 묻은 실밥을 뜯는척 했다. 그 모양을 보고 은영은 웃었다.

《건강하세요, 종우씨.》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며칠후 은영은 그가 보내준 편지를 받았다.

《은영씨, 고맙습니다. 은영씨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깊이 생각한 끝에 은영씨가 암시해준 곳으로 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안녕히!

고종우》

다시 며칠후엔 수미가 찾아왔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오래 기다린것 같았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래도 옷차림만은 선명하

고 경쾌했다. 아니, 육감적이였다. 때이른감은 있지만 젖가슴에까지 패워들어간 새까만 도레스를 속에 입고 그우에는 역시 검은색 부인용코트를 대충 걸치고있는것이 누구든 청하기만 하면 아무때건 그것을 벗어던질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암시하는듯 했다. 그 녀자는 바로 고종우를 만났던 그 언덕길밑에 서있었다.

《수미!》

은영은 반가와 부르짖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수미는 두눈을 가늘게 좁혀뜨고 바라볼뿐이였다.

《난 은영씨를 기다렸어.》 수미가 처음 한 말이였다. 《며칠전 여기서 고종우씨를 만났지?》

《?…》

은영은 파랗게 질려있는 그 녀자의 어수선하고 서먹서먹해진 얼굴을 경계하듯 지켜보았다. 무엇때문일가. 표정도 감정도 말투도 달라졌다. 어째서 수미는 이렇게 되여가는걸가?… 확실히 수미의 생활에서는 무엇인가 종잡기 어려운 변화가 또 있는것만 같았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배우들이 매번 갈아입는 무대의상처럼 새로 나타날 때마다 수미는 전혀 알수 없는 인상으로 낯선 사람처럼 변모되군 하는것이다.

메마른 날씨였다. 한달째나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쳤다. 별에 그슬린 햇풀들이 누렇게 시들고있었다.

수미가 또 물었다.

《은영씬 알고있을테지,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 녀자가 따지고드는듯 말끄러미 쳐다보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깔깔한 경련이 은영의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가만히 가로 치찢어진 수미의 두눈을 면바로 마주보기만 했다. 그러자 수미는 풀이 죽은것처럼 중얼거렸다.

《난 알아. 은영씬 조용하고 부드러워보이지만 칼날같은데도 있다는걸. 그렇지만 나한테까지 숨길 필요야 있겠어? 그러지 말고 제발 말해줘. 그가 어데 있어요?》

그 녀자가 마지막으로 《어데 있어요?》라고 한 그 한마디엔 은영이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랑을 찾아 헤매는 한 녀성으로서의 필사적

인 애원도 들어있었다.

《수미, 내 이제 다 말해줄게.》

비로소 은영은 그의 팔을 끼였다. 수미가 고종우를 두고 자기를 의심한다는것이 놀랍고 쓰거웠지만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은영은 바싹 마른 잔디풀우로 그 녀자를 끌어다 앉혔다. 이윽고 고종우를 만나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하나의 세부도 빼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죄다 말해주었다.

수미의 두눈에 핑 눈물이 어리였다. 은영의 담담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울리는 따뜻한 정이 그 녀자를 감동시킨것 같았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더니 갑자기 두손을 맞잡고 마구 비벼대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 나를 찾겠지.》하고 그 녀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하는것이였다. 《고종우씨가 어데 갔는가구 따지고드는거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른다니까 〈네년이 왜 몰라. 늘 붙어다니지 않았는가!〉하면서 〈제국의 몽둥이맛을 봐야 정신이 들겠는가!〉하질 않겠어. 그래서 난 이 속옷을 막 헤치면서 젖가슴에 난 칼자리를 보여주었지. 〈봐라, 이걸 봐! 일본군헌병장교가 벌써 제국의 칼맛을 보여주었다!…〉했더니 그것들은 무슨 소린지 몰라 어리뻥해있다가 〈이 쌍년같은기… 돼먹지 않게 여기가 어딘줄 알구 막 벗구 지랄이여? 썩 사라져!〉하면서 쫓아내질 않겠어. 쪽발이 왜놈의 개종자들! 어서 콱 망해뿌리지 않구.》

한바탕 욕지거리를 뱉고나서 수미는 또 두눈에 눈물을 가득 담았다.

《난 아무것도 바라는게 없어. 예술과 사랑, 그저 그것뿐!… 그런데 왜 다들 날 버릴가. 고종우씨도 그래. 왜 나한텐 한마디 말도 없이 갔을가?… 내가 그렇게 미덥지 못한 녀자일가. 어디 말해봐요. 은영씨, 어째서 다들 날 버릴가, 응?!》

《누구도 수미씰 버리지 않아.》

은영이의 말에 그 녀자는 팔을 홱 내저었다.

《모르는 소리! 모두가 날 버리고있어. 정말이야. 난 그걸 참을수 없어, 견딜수 없어!》

그 녀자는 은영이가 만류하기도 전에 벌떡 일어섰다.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 그렇게 보고있는줄 알아. 난 그게 싫어,

정녕 싫어!》

《성내지 마. 그저 동무로서, 친구로서 근심할뿐이야. 난 정말 수미씨가 잘되기만…》

은영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두고봐. 은영씬 나보담 더 비참하게 될거야.》

《뭐?》 은영이 물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비참해졌으면 좋겠어?》

눈물이 끓고있던 수미의 눈이 싸늘하게 식었다.

《내가 이미 말했지?… 예인들의 운명이란 다 비참하다구. 그 길밖에 없는걸 어쩌겠어.》하고나서 수미는 낮게 속삭이였다. 《난 가끔 은영씨가 밉살스러워, 뭔가 믿고있는… 래일을 믿고있는 은영이가!》

수미는 또 한번 맞잡은 손을 비틀어대더니 휑하니 돌따서 가버렸다.

은영은 그가 멀리 사라지도록 한자리에 굳어진채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무엇이 수미로 하여금 나를 질시하게 한것일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혹시 고종우씨때문에?… 한데 그는 또 무엇때문에 수미에겐 한마디도 없이 사라져버린것일가?… 은영은 표표해서 가버린 수미의 일로 하여 마음이 어수선했지만 그 까닭을 아무리 해도 알수 없었다.

수미는 이후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제3장
저기 바다로 가자

1

흔히 말하기를 녀자들은 첫사랑의 추억을 한생의 보물처럼 간직하며 무덤에까지 가지고간다고들 한다. 그러나 은영은 그 말을 의아쩍게 여기며 반신반의하군 했다. 누가 그렇게 말했을가. 첫사랑의 추억을 안고 무덤에 가본 녀자의 말일가, 아니면 세상만사에 도통한듯이 으시대며 인생철학을 풀기 좋아하는 어느 작가의 말일가?!…

×

드디여 일제가 패망했다. 기쁨의 눈물과 목메인 환호속에 날과 달들이 흘러갔다. 그러나 기쁨과 환희도 한순간 어느덧 해방후의 서울은 정치적혼란의 파도속에 휘말려들어갔다.

먼저 패망한 일본총독으로부터 정권이양교섭문제로 국내의 지도자들속에서 론난이 분분하다고 하더니 송진우가 암살되였다. 려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전국적범위에서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미군의 상륙과 더불어 군정이 선포되고 정치세력들간에 좌와 우가 명백히 갈라지는가 하면 리승만에 이어 중경의 림시정부요인들이 돌아오면서 정치운동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미군정의 정치적탄압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당에 들고 강령을 부르짖고 반탁과 찬탁을 목터지게 웨치고 시위를 벌리고 돌멩이를 날리다못해 총을 란사하였다. 우익청년에 의한 송진우의 암살로부터 시작된 정치테

로의 어수선한 총소리가 밤과 낮을 가림없이 골목길에서, 강기슭에서, 송림속의 언덕에서 때없이 벌어지고있었다.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정치투쟁의 열풍속에 몸을 내던지고 정신없이 돌아치던 때였다. 정치적혼란과 무질서가 회오리바람처럼 해방후의 서울의 거리를 휩쓸며 날과 달들이 흘러갔다. 그무렵 리화녀대를 졸업한 은영은 서울교향악단 독창가수겸 한성중학교 음악교원으로 있으면서 아무런 정치적편중이 없이 좌익과 우익예술단체들에서 주최하여 공연하는 여러 가극의 녀주인공역들도 맡고있었다.

숱한 식솔이 이제는 은영의 어깨에 얹혀있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종적을 감추고 어른으로 자란 남동생 일한은 인천항에 나가 밤낮으로 하역작업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여서 결국 앓고있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 할머니까지 모두 은영의 손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은영은 그 어떤 일감이든 가림없이 떠안아야만 했다. 은영은 좌익이요, 우익이요 하는것들과 전혀 무관하였다. 수업을 끝내는 즉시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면 그 어데건 달려갔다.

그러한 속에서도 은영은 바야흐로 인기의 절정에 오르고있었다. 처녀가 꿈꾸던 인생의 새 활무대가 열리는듯싶었다. 요란한 박수갈채와 꽃다발, 찬탄의 목소리들이 은영을 구름처럼 싸고돌았다. 출발이 너무도 성공적이여서 신문기자들도 기대되는 명가수의 탄생을 알리기에 저저마끔 경쟁적으로 펜을 달리고있었다.

《오늘 우리는 국도극장무대에서 가극 〈카르멘〉의 주인공역을 수행한 미인가수 김은영양의 매혹적인 노래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관중의 환호소리를 들었다. 교향악단의 독창가수이면서도 어제는 뮤지컬화(음악극형식으로 한)〈춘향전〉의 주인공역과 가극 〈파우스트〉중의 마르가리따역, 〈리고레또〉중의 질다의 역을 맡아 우리 가요계를 풍미하기 시작한이래 은영양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이한 소리색갈과 새로운 노래형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틀어잡았다. 한때 〈목포의 눈물〉로 고복수를 뛰여넘어 지금까지 최고의 히트 넘버로 꼽히던 리란영을 훨씬 릉가하는 빅 히트였다. 이제 미스 김은 명실상부한 〈노래의 녀왕〉으로 군림하게 될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다. …》

영어의 자투리말들이 범람하던 때였다. 신문과 간판, 일상용어에서

도 한두마디쯤 끼워넣지 못하면 무식한것으로 인정될 지경이였다. 그러한 때여서 기자들도 히트 넘버, 빅 히트(야구용어에서 따온 말로서 성공한 사람, 크게 성공했다는 뜻을 의미함.)요 하는 말들이 찬사의 도수를 높여준다고 여겼던것이다.

그러건말건 은영은 거의나 신문을 읽지 않았다. 그럴새도 없었다. 폭풍같은 박수갈채만으로도 충분했으므로 자신에 대한 찬사는 다른 사람들이 읽게 내버려두는것이 더 좋았다.

공연이 끝나면 한성중학교의 힘깔이나 쓰는 남학생들이 은영을 공주님처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호위하여가군 했다. 수염이 난 중학생들도 있던 때여서 그들 자발적인 호위대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다. 혹시 그들이 자기네 녀선생이며 이름떨치는 녀가수를 마음속으로 사모하고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도 은영은 공연이 끝난 후 열성적인 중학생호위대에 에워싸여 새로 정한 태평로쪽의 하숙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덕수궁의 울담과 잇대여진 고물상들의 크고작은 집들가운데 하숙집이 있다. 밤이 깊어 행인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저 멀리 서울부청앞 광장에서 왼쪽 세종로에로 이어진 길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전차들의 종소리도 뜨음해졌다. 바로 그때 검은 그림자가 그들의 앞을 막아나섰다.

《은영씨지요?》

《예?…》

은영은 소스라치며 얼어붙고말았다. 학생들이 제때에 은영이의 앞으로 나서며 바자를 쳤다. 그들중 누군가 으름장을 놓았다.

《비켜서시오, 골통을 박살내기 전에…》

앞을 막아선것은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푹 눌러쓴 사나이였는데 그쯤한 위협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난 은영씨를 좀 만나야겠소.》

《지금은 안되오.》

《지금 만나야 해!》

그가 돌연히 반말로 나오자 학생들은 분격하였다. 모가 난 말들이 오고가고 드디여 불끈 부르쥔 주먹이 날아들려고 했다.

은영은 두손을 가슴에 모아쥐고 꼼짝도 하지 않고있었다. 금시 주먹질이 시작된다 해도 그것은 그 녀자가 상관할 일이 아니였다. 한밤

중에 처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라면 응당 봉변을 당해도 무방하였다. 그런데 그 사나이는 어느새 제일 큰 학생의 팔목을 비틀어놓고 두번째로 날아드는 주먹을 가볍게 막았다.

《소란을 피워선 안돼.》 억눌린 소리로 그가 말했다. 《저기서 경찰이 지켜보고있어. 경찰들이 오면 내게 불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데선가 꼭 들어본 일이 있는 목소리였다. 낮고도 저력있는 그 목소리에 학생들이 주춤하였다. 그러나 벌써 뚜걱거리는 미국제 군화발소리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사나이가 재빨리 말했다.

《은영씨, 그렇게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예? 누구신데…》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가왔던것이다. 그자의 손에 들린 전지불이 사람들의 얼굴을 재빨리 더듬었다.

《뭣들이야. 왜 쌈질이야?》

다음순간 전지불은 은영의 얼굴에 찍혔다.

《우린 론쟁을 했어요.》 은영이 숨을 돌리며 힘들게 말했다. 《질다의 형상문제를 놓고 말이예요.》

《질다가 뭐야?》

《어머! 가극의 주인공 모르세요? 요즘 공연하는 〈리고레또〉를 보시지 못한가부지요?》

《음— 요새 소문이 자자한 그 가극말인가요?》

《예, 제가 그 주인공역을 맡고있어요.》

《그러니 아씨가 김 뭐라든가…》

《예, 김은영이예요.》

《아!…》

경찰의 전지불은 은영의 얼굴에서 상큼한 목으로, 다시 불룩한 젖가슴으로 내리며 손더듬하듯 떨더니 저도 무안한듯 돌연 다른 사람들에게로 휘딱 번져졌다. 학생들을 하나씩 찍어가던 전지불이 드디여 중절모 쓴 사나이에게서 멎었다. 그야말로 일행에 끼운 색다른 사람이라고 여긴것 같았다.

《넌 뭐야, 증명서!》

모든 사람이 일시에 숨을 죽였다. 그에게 주먹찜질을 하려 했던 학생들까지 일시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객기를 부려보려다가 경찰의 눈

을 피하는 사람을 고발한셈이였던것이다. 그 순간 은영은 전지불에 비쳐진 낯익은 모습에 다시금 몸을 떨었다. 이런 일도 있담. 어쩌면 이렇게 만나다니!…

《증명서!》 경찰이 사나이의 눈에 불빛을 쏘며 다시 소리쳤다.

《뭘 꾸물거리는거야?》

《예, 여기 있습니다.》

사나이가 코트 안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는것과 동시에 은영은 급히 경찰의 전지불을 막아나섰다.

《이분은 나의 약혼자예요. 매일 공연이 끝나면 나를 데려다주지요.》 하면서 은영은 수집은듯 할끗 눈짓했다. 《래일 국도극장으로 오세요. 제가 좋은 좌석을 따로 마련해드리겠어요.》

옥양목저고리를 팽팽히 조여입은 은영의 봉긋하니 부풀은 앞가슴이 경찰의 눈앞에서 가쁘게 오르내렸다. 거기에 견주어진 전지불도 흐느끼듯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아가씨, 구경을 갔으면 좋겠지만…》 경찰은 더듬거렸다. 《정말 시간이 어—없습니다. 요즘 빨갱이들이 얼마나 날치는지…》

《그래도 시간을 내서 꼭 오세요. 아무때건… 절 찾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 안녕히 가십시오.》

경찰은 최경례를 붙이며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아직도 새하얀 저고리에 오연하게 솟아올라있던 미인가수의 등실한 젖가슴이 따갑게 눈을 지지고있는 모양이였다.

은영이 사나이의 팔을 끼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수고했어요. 학생들, 고마와요.》

웬일인지 학생들은 입이 얼어붙은듯 했다. 자기네 녀선생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는것을 처음 알게 되였던것이다. 두사람이 어둠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한자리에서 눈을 슴벅거리며 서있었다.

《림호씨,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절 찾아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어머! 또 아버지 심부름을요?》

《예.》

《그런데 아버진 왜 한번도 오시지 않을가?…》

《아버진 시간이 없습니다. 은영씨도 잘 아시면서…》

《몰라요, 전혀!》 하고 은영은 팔을 끼고있던 그를 조금 밀어내며 재빨리 말했다. 《아버진 무슨 비밀사업을 하시지요?》

《비밀사업이라… 그렇게 말할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버님은 밖에 나다닐수 없습니다.》

《그러니 숨어계셔요?》

《원 은영씨두, 마치 애들처럼 말하는군요.》

처음으로 림호는 소리내여 웃었다. 쇠소리가 약간 섞인 그 웃음에서는 사내다운 용기와 의지가 느껴지는것은 물론 누구나 따라웃지 않을수 없는 솔직하고 천진스러운 그 무엇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덕수궁의 울담을 따라 걷고있었다. 밤을 지키는 외등이 잠에 취해 뿌예진 빛으로 나란히 붙어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비쳐주었다. 고물상들이 사는 주택지구여서 토방우에 웅크리고있던 개들이 두귀를 쫑긋 세우고 허리를 펴며 금시라도 달려들 태세로 괜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어서 말해주셔요.》 은영이 독촉했다. 《아버진 왜 해방된 오늘에도 숨어계셔야 하는지?》

림호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 김학송은 지금 조직의 지시에 따라 변성명하고 지하투쟁을 한다고 한다. 오래전 동북에서 벌써 **김일성**장군님유격대의 지하공작원과 연줄이 맺어져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공작상필요에 의하여 서울에 옮겨온 이후 지금은 또 미국놈들과 그 졸개들의 민족분렬의 음모를 파탄시키는 투쟁에 한몸 바치고있다는것이였다.

《**김일성**장군님?!》 하고 은영은 숨이 막힌듯 속삭이였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그분을 만나보셨어요?》

《예?… 아니, 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림호는 아버지가 해방전에 장군님유격대의 지하공작원과 연줄을 맺었다는것을 다시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국광복회에 대해서도 은영이가 알아듣도록 자세히 설명하였다. 아직은 이 모든것이 비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된다는것을 몇번이고 강조하면서 그 이상은 더 묻지 말라고 하였다.

《참 전에도 그렇게 말하더니…》 은영은 섭섭해했다. 《오늘도 그

이상은 묻지 말라!》

《그래야 합니다. 이건 아버지를 위해서도, 은영씨를 위해서도 필요한것입니다. 사실 은영씨 아버님은 얼마전까지 저와 같이 대구에 가있었지요.》 림호가 사위를 둘러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난 기자로, 아버님은 행상군으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을 맡고있습니다. 여전히 변성명을 하고 말이지요. 참, 동생들인 일한이와 차한이가 인천부두에서 하역로동자로 일하고있다는건 알고있지요? 아주 믿음직한 청년들로 자랐습니다. 로동자들과 청년들속에서도 인기가 대단하구요. 그런데…》

림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은영의 표정을 곁눈질했다.

《아버님은 늘 은영씨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은영씨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은영은 걸음을 멈추었다.

《림호씨한테 나를 부탁했다구요?》

《뭐 달리 생각할건 없습니다. 이제는 은영씨도 세상형편에 눈을 떠야 한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지금까진 오직 공부만 시켜왔지만 일단 무대에 나선 이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요.》

은영은 입술을 자근자근 깨물며 다시 걸음을 떼였다. 사실 지금껏 은영은 회오리같이 휩쓰는 정치열풍에도 무관하였다. 오직 예술, 자기의 예술만을 생각했고 성공을 갈망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나요?》

은영의 물음에 림호는 다시 소리내여 웃었다.

《원 성미두… 은영씨야 물론 노래를 불러야지요, 노래를!》

《그럼 내가 뭐 노랠 부르지 않구 무당처럼 굿을 하는줄 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하더니…》

은영은 그가 또 새삼스럽게 자기를 눈여겨보고있는것을 알았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처녀일가? 굳센 아래턱과 감때사나운 눈빛을 가진 림호의 눈에 비쳐진 이 처녀는?…

《이제부터》하고 림호가 나직이 말했다. 《우리 일을 좀 도와야겠습니다. 무대를 통해서 할수도 있고 믿음직한 학생들을 골라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있는 좌우익간의 대립과 미

국놈들의 음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려운형, 허헌, 김원봉, 백남운 등이 《민전》(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의 략칭)을 중심으로 뭉쳐 모스크바결정을 지지하는 대중투쟁을 벌리게 된다는것, 여기서 예술인들이 한몫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투쟁에서 림호는 선전사업을 맡았으므로 은영이 무대를 통해서나 학교를 통하여 도와주기를 바랐다. 선전물을 뿌리거나 연설을 하는 등의 위험한 일에는 절대 나서지 말라,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노래 한곡을 불러도 사람들에게 미국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도록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부르기 바랄뿐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런데 지금》하고 그는 계속하였다. 《우익에 속해있는 예인들중 어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짓을 하고있습니다. … 가만, 마저 들어주십시오. 지금 김해송과 리란영을 비롯하여 남인수, 장세정, 홍청자, 김은희 같은 예인들이 KPK악단 이라는걸 만들어놓고 매일 미군만 전문 상대하는 환영공연을 벌리고있는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뿐만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놈들을 〈해방자〉라고 선전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있습니다. 가능한 이들도 돌려세워야 합니다.》

은영은 잠자코 듣고있었다.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새겨보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웬일인지 많은것이 생소하고 석연치 않았다. 자꾸만 그를 처음 만나던 때의 일들이 눈앞에 얼른거리군 했다. 그때엔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던 사람이였다. 매골같이 여위고 우묵한 눈확에서는 사람들을 선뜩하게 하는 빛이 내뿜고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사람이 몇해사이에 이처럼 달라질수도 있단 말인가?…

《예, 그래야지요. 알겠어요.》

은영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자기가 무엇을 알겠다고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드디여 헤여질 때가 되였다. 은영의 하숙집이 바로 코앞이였다.

《이젠 다 왔어요.》

《난 이제 곧 떠납니다.》 림호가 말했다. 《공작상임무로 대구, 광주쪽에 가끔 다니게 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할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한 말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떠난다구요?》

《예, 그럼… 다시 만납시다.》

그는 따뜻하고 정깊은 인사말을 기다리지 않는것 같았다. 곧장 돌따서서 가버리려고 했다.

그때였다. 돌연히 밤의 고요를 깨치는 호각소리와 어지러운 군화발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려왔다. 웬 사나이가 시꺼먼 골목길에 뛰여들어 그들쪽으로 마주 달려오고 멀리서 경찰들이 뒤따르고있는것이 보였다. 순간 은영은 림호를 집모퉁이로 무작정 잡아끌었다.

《안되겠어요. 자, 빨리!》

개들이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무어라고 소리치며 골목길을 앞뒤로 조여들고있었다. 은영이 다급해하며 불같이 속삭이였다.

《들어가자요. 이 집이 내가 들어있는 하숙집이예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고마운 안주인이 대문을 걸지 않았다. 안에서 빗장을 지르자 한결 안도의 숨이 나갔다.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대며 토방우에 올라서자 먼저 림호의 신발을 벗겨 널마루밑에 밀어넣었다. 웃방의 문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버긋이 열고 그를 잡아끌었다. 이후에 벌어질 일은 생각지도 않았다.

미닫이문을 사이에 둔 아래방에서 주인댁이 부시럭거리며 잠내나는 목소리로 이제 오느냐고 물었다.

《예, 저녁은 먹고 왔어요. 어서 쉬세요.》

그다음 두사람은 어둠속에서 마주선채 까딱하지 못하였다. 림호의 키가 천정에 닿았다. 허리를 굽히며 그는 아직 밖에서 벌어지는 소동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은영은 너무도 뜻밖의 엄청난 일을 당하여 몸을 떨고있을뿐이였다.

마침내 은영이 먼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목구멍이 타들고 가슴이 조여들다못해 뻐근한 아픔에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림호는 방안을 휘둘러보고있었다. 고리짝들이 한구석에 놓여있는 작고 알뜰한 방이였으나 한 녀가수의 안온한 보금자리로서는 너무도 빈약하고 조촐하게 느껴질것이다. 은영은 어둠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모든것을 샅샅이 살피는것을 보았다.

《조용해지면 난 가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였다. 에그머니! 주인댁에서 듣고있는데 조심도 않고!… 아닐세라 아래방에서 또 물었다.

《아씨, 손님이 온게 아닌디?》

《아니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럼 불이라도 켜야제, 원.》

《아, 아니 일없어요. 그냥 자겠어요.》

그리고는 혀를 깨물지 않을수 없었다. 그냥 자겠다고?… 얼결에 한 그 말을 도로 삼킬수만 있다면!… 그러나 때는 늦었다. 전라도태생인 성칼사나운 주인집 과부댁이 무어라고 게두덜거리기 시작했다. 혀아래소리였으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녀자인줄 몰랐다고 욕하는것이 알렸다.

이렇게 된바엔!… 더는 숨길것이 없게 되자 오히려 은영은 차츰 진정되고있는 자신을 느꼈다.

《앉으세요.》

《아니, 난… 가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지금 나갔다간 위험해요. 그거야 림호씨가 더잘 아실텐데요.》

《?!…》

밖의 소동이 멀어져갔다. 그러나 여기서 나가는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함은 은영이도 잘 아는것이다. 하는수없이 인제는 둘이서 밤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아마도 두사람이 꼭같은 생각을 했을것이다. 림호가 자리에 앉으며 나직이 물었다.

《나를 믿습니까?》

《믿어야지요.》 은영은 자기의 목소리가 옳은가고 의심했다. 《믿을수밖에요.》

잠시 어둠속에서 그들은 눈길을 내려깔고있었다. 기나긴 이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막다른 지경에 끌려들었는가?… 은영은 자기의 한채밖에 없는 엷은 이불과 담요를 내렸다.

《쉬세요.》

《아니, 난… 일없습니다. 난 습관이…》

《쉬세요, 어서!》

싱갱이질이 시작되자 주인댁의 푸념이 또 시작되였다. 딸 하나를 두고 혼자 사는 과부여서 처음 하숙을 정할 때 벌써 남자들을 끌어들이면 내쫓는다고 오금을 박았던것이다.

《오지랖 넓게 돌아친다 했는디… 새빠지게 남정네들이 드나들믄 동네사람들 뭐라 하겠나 말이여. 과부댁네가 군서방질을 한닥하는 뒤소릴 워찌 막는당겨?》

두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잠시후엔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잠자리를 가운데 놓고 서로 돌아앉고말았다. 귀전에서 모기가 폭격기소리처럼 앙칼지게 울며 돌아갔지만 까딱하지 않았다. 차라리 모기한테 뜯기는편이 진저리나는 주인댁의 푸념보다는 나을것이다.

귀뚜라미가 씨르륵거리며 깊어가는 밤과 아늑한 잠자리의 꿈을 끊임없이 꼬드기고있었다.

고요… 숨소리도 저어하는 밤의 고요, 세살문창호지에 푸릿한 달빛이 스며들고있었다. 베토벤의 피아노쏘나타 《월광》의 선률이 그 달빛에 실려 흘러들고있다. 귀족가문의 처녀를 사랑했으나 비천한 신분때문에 실련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베토벤, 그러나 그의 《월광》은 밝고 강렬한 내심의 격정을 안고있지만 저 달빛은 아려하고 처량하다. 어인 일인가. 오늘 나는 무슨 일을 저지르고있는것인가?… 은영이 처녀로 숙성할 때부터 아버지는 남자들과의 쓸데없는 교제를 삼가하라고 엄하게 훈계하군 했다. 그러면 쓸데없는 교제는 어떤것이고 필요한 교제는 또 어떤것이란 말인가?!… 이밤에 미치지 않으면 졸도해버리든 무슨 일이 있을것만 같았다. 뒤쪽의 사내는 죽은 사람처럼 기척도 없이 웅크리고있으니 누가 이런 고통을 강요했단 말인가, 누가?!…

웬일인지 가슴이 저려나기 시작했다. 은영은 자기의 숨소리에조차 겁을 먹으며 흐느끼듯 허덕이며 치마자락만 잡아뜯고있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모든것—야릇한 욕망과 따사로운 꿈, 무서운 기대가 한순간에 덮치듯 밀려드는것만 같았다. 이를 어쩐담, 어쩐담?!…

마침내 눈을 꼭 감고 두팔로 무릎을 감싸안았다. 자기의 겁에 질린 마음을 부둥켜안은것인지도 모른다. 귀뚜라미가 승이 나서 씨룩거린다. 무엇인가 줄곧 하소하고 귀띔하며 속살거린다. 일없어, 걱정마! 일없어, 걱정마!…

마침내 림호가 아스라하게 높은 하늘가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낮고도 웅글게 속삭이였다.

《편히 쉬십시오. 은영씨, 래일 또 수업을 하고 공연도 해야겠는데…》

《…》

그린듯 앉아 듣고만 있다. 무슨 말이든 좋다. 말도 없이 등을 돌려 대고있을바엔 물에 빠져버리는것이 나을것이다.

《난 일없습니다.》 그가 계속하는 말이였다. 《감옥에서 숱한 낮과 밤을 지내보았으니까요. 이렇게 앉아 열흘밤이라도 잘수 있습니다.》

감옥! 감옥이란 곧 어둠과 고통을 의미한다. 모진 고통을 이겨온 사나이, 그는 억센 사람이다. 그것만은 틀림없다. 그러한 사람이기에 그리도 가까이 손을 내밀면 잡힐수 있는 거리를 두고도 은근히 녀자의 마음을 흔들어보려 하지 않고 사소한 감정의 표현도 삼가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은영이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게 하였다. 드디여 가슴속에 꽉 들어찼던 숨을 천천히 내뿜었다. 될대로 되라지, 그를 믿을수밖에… 믿는다는것은 좋은 일이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란 흔치도 않다.

《좋아요.》하고 은영은 남의 소리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릴 펴드리겠어요. 잠간!…》

엷은 이불은 자기쪽으로 끌어오고 사내에겐 담요를 밀어주었다.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달빛이 스러져가기 시작했다. 귀뚜라미들도 더이상 꼬드길 멋이 없어져 마지막으로 힘없이 씨룩거렸다. 대신 아래방에서 코고는 소리가 고르로운 리듬처럼 조자맞게 울려오기 시작했다. 그 코고는 소리는 다른 의미로 딴 생각말고 잠이나 자라고 꼬드기고있었다. 모든것이 망각의 세계로, 꿈의 나락으로 불러주고있는것이다.

차츰 따사로운 물결이 흘러들었다. 마음속에 흘러들며 쉽없이 철썩이고있는 부드러운 물결… 회령천의 모래불과 오산덕기슭의 백살구꽃… 백살구꽃은 처녀처럼 피여나고 그 열매는 도련님처럼 달린다고 했었다. 그것들이 눈앞에 삼삼하다. 그리고 백살구씨를 엿에 졸여서 만든 행인당, 쌀과 함께 갈아서 쑨 행인죽… 어디 그뿐이랴. 철쭉꽃, 도라지꽃, 찔레꽃과 할미꽃… 그 섬약하고 아련한 꽃에 왜 할미라는 이름을 붙여놓은것인지?… 등뒤에서는 림호가 코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정말 잠들었을가?… 의지가 굳센 사람, 죽을 고생을 다 겪어본 사람이 어느새 굳잠에 곯아떨어진것 같다. 어떻게 자나 보고싶었다. 그러나 돌아볼수가 없다. 외간남자가 자는 모양을 몰래 살펴보는 처

녀가 있다면 그건 벌써… 에그머니! 코고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드렁드렁 울리고있다. 저러다 주인댁이 잠을 깨면 또 뭐라겠는가?…

그러나 아래방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다. 밤은 밑창없이 깊어만 가고… 그리하여 은영의 가슴도 차차 그 울림에 맞추어 고요히, 고르롭게 숨쉬기 시작했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가 은영이를 믿고 편안히 코를 골며 자고있는 이상 은영이 역시 그를 전적으로 믿어야만 했다.

…

언제 어떻게 잠들었는지 알수 없다. 새벽의 파르스름한 미광이 문창호지에 스며들무렵 은영은 흠칫 놀라며 눈을 떴다.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누가 무엇때문에 그를 깨웠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곧 모든것이 상기되였다. 그를 깨운것은 비상한 일이 벌어졌던 간밤의 아릿한 기억이였다.

잠자리를 더듬으니 지난밤 은영이 밀어주었던 담요는 그 자리에 개여놓은채로 있었다.

림호는 한장의 쪽지를 남기고 갔다.

《은영씨, 믿어주어 고맙습니다. 언제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림호.》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안 우두커니 서있었다. 문창호지로 스며들고있는 창백한 대기가 처녀의 가슴에도 산뜻하게 흘러들었다.

문을 열었다. 토방우에 널려있는 담배꽁초들이 먼저 눈에 띄였다. 발로 비벼끈것들이였다. 그러니 그는 밤새 한잠도 자지 않았던것이다. 가슴이 저려들었다. 알수 없는 서글픔, 그것은 아쉬움이였을가?… 무엇인가 영영 사라져버린듯 한 아쉬움… 찬양하고싶은 사내였다. 진정 고마운 사람, 별안간 혈육처럼 가까와진 친근한 벗이였다!…

가슴가득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림호가 갔을 골목길에서 점도록 눈을 떼지 않고있었다. 덧문을 댄 어느 집 홰대에서 수닭이 목을 빼들고 울어대였다. 새날이 밝고있는것이였다. 새날, 은영이 처음으로 애잔한 꿈속에서 밤을 보내고 맞는 새날, 새 아침이였다. …

2

바쁜 나날이 흘렀다.

은영은 황금정에 있는 우미관으로 가고있었다. 오늘도 거기서는 《조선프랑스협회》가 주최한 베르디의 가극 《동백꽃아가씨》공연이 있게 된다. 주인공 비올레따의 역은 물론 은영이 맡고있다.

처녀는 천천히 걷고있었다. 자기가 부를 아리아를 곱씹어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도로를 질주하는 미군찦차에서 휘파람을 불어대건말건 한손으로는 길바닥에 끌리는 꼬리치마를 잡고 다른 손에는 악보가 적힌 종이를 들고 곁눈 한번 팔지 않았다. 지어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던 젊은이들중 누군가 곁에 바싹 다가선것도 모르고 딱딱한 포장길을 찍어가는 구두발소리를 노래의 장단삼아 걷고있었다. 속으로 부르던 노래가 차츰 입밖으로 흘러나오는것도 알지 못했다.

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이 기쁨을
내 이제껏 알지 못했으매

지금 은영은 모든것을 잊고있었다. 아니, 잊으려 하고있다. 삯빨래로 허리를 펼새 없는 어머니와 운신을 못하는 할머니, 어린 동생들이 그가 한푼이라도 가져다주기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돈을 벌어야 했고 그를 위해서는 노래를 불러야 했다, 사랑의 노래를…

내 심장속에 고동치는 사랑은
괴롭고 즐거운 눈물과 웃음

찌는듯 하던 여름날의 더위도 한물 진 초가을이였다. 해가 기울면서 시서늘한 바람이 귀밑머리를 간지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은영은 소스라치며 머리를 돌렸다. 우뢰같은 함성이 아니, 벼락치는듯 한 고함소리가 터졌던것이다.

《재청이요, 재청!－》
뒤따르던 젊은 패들이 일시에 고아대고있다. 길을 오가던 사람들이 웃음을 머금고 바라보고있다. 어쩌나! 속으로 련습한다는것이 그만 소리내여 부른것 같다.
《재청이요. 한번만 더 불러주－》
《질다아가씨, 딱 한번만 더!》
이런 때엔 웃음이상 더 좋은 처방은 없다. 은영은 그들모두에게 나긋한 미소를 선물했다.
《미안해요. 공연시간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게 좋겠구만, 응?!》
《가자구, 동백꽃아가씨를 따라서!》
한무리나 되는 젊은이들이 은영이를 둘러싸고 인도를 메워갔다. 인제는 은영이를 대신하여 젊은이들이 꽥꽥 노래를 뽑아본다.

내 온몸에 맥박치는
괴롭고도 즐거운 사랑이여

비올레따의 아리아를 어느새 많은 젊은이들이 외웠던것이다. 은영은 웃고있었다. 행복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사람이 불행만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삶을 누려갈수 있으랴. 배곯는 동생들때문에 눈물짓다가도 이럴 때엔 마음이 거뿐해진다.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지 못하는것때문에 가슴이 쓰리다가도 이럴 때엔 이름할수 없는 긍지감에 눈굽이 젖어든다.
예술이란 단순히 아름다운것만이 아니다. 예술은 열렬한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랑을 심어주고 싹틔워주고 키워주는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더더욱 아름다운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은영이로 하여금 보름째 밀리고있는 임금지불과 하숙집에서 기다리고있는 생트집, 일가식솔의 눈물겨운 곤궁을 잊게 하는것이였다.
우미관이 가까와졌다. 대도로 오른쪽의 교동국민학교와 왼쪽의 청년그리스도회관건물가운데를 지나간다. 그런데 여기서도 좌우익간의 치렬한 싸움은 계속되고있다. 길좌우의 전주대며 건물의 바람벽

마다 수많은 광고들이 엇가로 마구 붙여져있는것이다. 비에 젖고 바람에 찢겨져 너덜거리고있는 종이장우에 새로운 선전물들이 또 나타나있다. 덧붙이고 또 덧붙이다보니 제대로 읽을수 없는것들도 많다.

공산당타도를 웨치는 구호와 《림정요인환국을 열렬 환영!》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쓴 선전화는 이미 퇴색된지 오랜것들이다. 새로 좌우합작을 부르짖는 김규식박사의 호소문, 려운형이 《인민당》으로부터 새로운 《사회로동당》을 결성했다는 광고, 미군정에서 낸 《38도선의 무허가월경 금지》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좌익계 6개 신문의 정간에 대한 포고도 있다. 그런데 저건 또 무어람?…

《한국부녀동맹은 건국사업에 동참할 녀성들을 부른다!》

저 구호는 우익계의 부녀동맹이 써붙인것이다.

《모든 녀성들은 민주녀성동맹에 뭉치자!》

저것은 또 좌익녀성동맹의 구호이고…

지금은 좌우익이 목이 쉬도록 연설하던 끝에 글로써 웨치고 글로써 싸우는것만 같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리승만박사 〈단독정부〉수립을 제창》, 하지중장의 명령 제00호 《반미활동을 하는자들을 적발, 처형할데 대하여》 등 모두가 붉은색, 검은색이 되여 웨치고있다. 모든것이 좌 아니면 우가 되여 피투성이싸움에 나서는 세월이였다. 그러나 노래에는 좌와 우가 없다. 노래에는 색도 없다. 은영이는 이렇게 믿고있었다. 하여 처녀는 지금 좌와 우, 붉은색과 검은색이 암투를 벌리는 격전장의 한복판을 꿰질러가며 노래를 부르고있다. 흥분에 달뜬 젊은이들이 그 녀자를 에워싸고 시위행진이라도 하듯 비올레따의 애절한 사랑을 갈린 목청으로 웨치고있다.

오늘도 날은 밝고 지지만
언제나 즐거우면 무엇을 또 바라랴

돌연 걸음을 멈추었다. 수많은 구경군들이 둘러선 가운데 우미관앞에서 사람들이 패싸움을 벌리고있는것이였다. 그저 무심히 스쳐볼 싸움이 아니였다. 피가 랑자한 사람들이 닥치는대로 손에 들고 두들겨패는가 하면 서로 쥐여박고 물어뜯으며 목터지게 웨치고있다.

《깡패들은 물러가라!》

《좌익무리를 타도하자!―》
《이 리승만의 앞잡이들아! 너희들은 지금 인민을 배반하고있다!》
《개수작말아, 우린 진정한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다.》
《〈민전〉의 주위에 뭉쳐야 해. 미국은 〈해방자〉가 아니야!》
《빨갱이들 정치선전은 금지됐다.》
《빨갱이들을 쳐죽이자!―》
경찰은 다 어데로 사라졌는가?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다. 은영이 사람들속에 뛰여들려 하자 그를 에워싸고있던 젊은이들이 한사코 막아나섰다. 지금 좌익단체에서 우미관에 오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정치선전을 하던중 우익깡패들의 습격을 받았다는것이다. 비올레따가 참견할 일은 못되니 멀찍이 물러나라고 잡아끌었다.
바로 그때 몸이 강마르고 키가 훤칠한 사람이 정문계단우에 나서며 손에 들고있던 단장을 쳐들어 허공을 찔렀다.
《여러분, 조용하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는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머리우에 높이 쳐든 단장은 장검마냥 위엄이 있었다. 중늙은이였다. 두루마기를 입고 양말대님까지 한 전형적인 조선옷차림이였는데 희슥해진 머리와 근엄한 눈빛으로 미루어 학식있고 강직한분이라는것이 알렸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그가 단장을 내려 바닥의 포석을 두드리며 말하였다. 《정국이 좌우로 갈라져 쟁투를 벌리고있고 미쏘공위가 파탄되면서 나라가 분렬될 위기에 닥친 이때 행동통일을 도모하며 국운을 바로잡아야 할 젊은이들이 이게 뭡니까. 일제통치하에서 흘린 피와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동포형제들끼리 또 피를 흘리며 싸우다니, 지난해에 있은 송진우선생에 대한 테로를 상기해보시오. 대관절 무엇때문입니까, 그게 누구한테 필요한것인지 알기나 합니까?… 말해보시오, 여러분은 무슨 원한이 사무쳐서 이 격투를 벌리고있습니까. 무엇때문에, 누굴 위해서?!》
은영의 뒤에 서있던 젊은이가 옆사람에게 묻는 말소리가 들렸다.
《저분은 누군가?》
《리극로선생 아닌가! 해방전 〈총독부〉가 법적 끓던 조선어학회사건을 몰라?》
《오!―》

《리극로선생?!…》 은영은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도 언젠가 허헌이라는분과 함께 은영이 출연한 가극 《리고레또》를 구경한적이 있다. 은영은 이것만은 똑똑히 기억하고있었다. 공연이 끝났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박수를 치던분…

《왜 말이 없습니까?》 리극로가 눈빛을 번뜩이였다. 《그러니 아무런 뜻도 주장도 없이 싸운단 말입니까?》

《선생님!》 한 젊은이가 소리쳐 물었다. 《선생님은 공산당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려운형선생이나 리승만박사를 지지합니까?》

《난 국민의 의사를 지지하오.》

《국민의 의사란 무업니까?》

《바로 임자같은 사람들이 바라는거요.》

리극로가 단장으로 바닥을 딱딱 소리내여 찍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하는 말마디들을 사람들의 가슴에 쪼아박는듯싶었다.

《젊은이들도 진정한 독립을 바라겠지?…》 그가 계속하는 말이였다. 《그럼 독립이란 무엇인가. 제멋대로 뿔뿔이 사는것인가 아니면 힘센자를 등에 업고 눈치를 보며 사는것인가?… 여러분도 그런건 바라지 않을것입니다. 외세가 없는 나라, 민주의 나라를 바랄것이요. 그러니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하자고 하는지 잘 가려보시오. 무턱대고 싸우는건 미욱한짓입니다. 그러면 정치간상배들의 리용물이 된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피를 뿌리며 싸우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속에서 누군가 또 탁한 목청을 돋구어 물었다.

《빨갱이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기승을 부리는데 그래 가만 보고만 있어야 옳습니까?》

리극로가 짚고있는 단장이 후들거렸다.

《북의 지령이라니? 북이란게 뭡니까? 사람이름은 아닐거고… 방향을 의미하는 말이겠는데?》

사람들이 웃었다. 그러나 리극로의 표정은 근엄하였다.

《북의 지령이 아니라 이북민중의 뜻이겠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있을것입니다. 북의 민중을 지도하고계시는분이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남의 지도자들중에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운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진실로 민중의 자유, 해방을 위해

싸운 사람이 누군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애국자라고 떠들어대고있습니다. 저저마끔 자기만을 믿으라고 소리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난 누가 저를 믿어달라구 아무리 소리친대도 믿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오랜 세월 피흘리며 싸워오신 우리의 영명하신 김장군님밖에는!… 그래서 그분께서 하자고 하시는 일은 다 옳은것이라고 믿고있는것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해 **김일성**장군님 환영대회를 열고 매일같이 역에 달려나가군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군중이 일시에 화답하였다.

《옳습니다!》

《보름씩이나 나갔습니다!》

《온 서울장안이 다 떨쳐나섰지요.》

《그것 보시오. 그래도 북의 지령이 어떻소 하겠습니까? 북과 남의 민중이 한마음한뜻이 되면 좋은것이지 나쁠게 뭐가 있습니까!》

떠들썩한 군중속에서 누군가 《빨갱이선전이다!》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여 머리를 돌려 소리친자를 찾는데 리극로는 반대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날더러 빨갱이라!… 그러니 절간의 주지도 빨갱이라 해야겠군! 붉은 가사를 입으니까.》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리극로가 단장을 휘둘러 주의를 환기시켰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번 공설운동장에서 려운형선생이 나라와 민중을 령도하실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고 연설하신 일을 기억하실것입니다. 온 나라 민중이 그분께 의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날더러 빨갱이선전이라고? 나쁜놈들의 선전에 귀기울이지 마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고 옳고 그름을 가려보아야 합니다.》

이윽고 리극로는 지금 김규식선생과 려운형선생이 좌우합작을 위해 로심초사하고있는데 자기는 그에 동참할것이라면서 청년들이 대세에 어긋나게 분렬되여 싸우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것이라고, 결국은 독립이 아니라 외세에 먹히우고마는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뼈저린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뭉쳐야 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새 나라를 세우자면 남들이 틈을 노릴새없이 땅땅 뭉쳐야 합니다!…》

리극로가 떠나갈무렵엔 극장앞이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좌우로 갈라져 싸우던 청년들과 가던 길을 멈춘 사람들외에도 시간을 맞추어온 관람객들이 련이어 밀려들었던것이다.

강파롭게 생긴 한 젊은이가 리극로선생을 모시고 가는것을 보면서 부지중 은영은 림호를 생각하였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을가, 그는 왜 한번도 구경을 오지 않을가, 아직 한번도 그는 나의 노래를 들어본적이 없지 않는가!…

림호는 끝내 보이지 않았지만 리극로선생이 떠나자 때를 기다리고 있은듯 불현듯 낯익은 모습이 달려들었다.

《미스 김!》

이렇게 부르며 달려든것은 바로 수미였다. 드물게 나타나지만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기군 한다는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오늘은 《미스 김》으로 부르고있으니 달라진 정치풍토에 맞게 일상적으로 쓰는 말도 새로 바꾸고있는셈이다.

《마침 만났어, 아주 때마침!》

그 녀자가 이렇듯 반가와하는데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날의 애수에 차있던 수미는 또 어데로 갔는가?…

《미스 김, 좋은 소식이 있어.》 수미의 두눈이 찌긋해졌다. 《어디 맞혀봐요.》

《글쎄…》

은영이의 표정을 스쳐보며 수미는 깔깔 웃어댔다.

《래일 부민관에서 명가수들의 독창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동백꽃아가씨를 초청한다나, 바로 은영씰 말이지. 어머! 왜 그렇게 봐?》

《초청? 명가수무대에?》

《암, 그렇구말구. 이제야 미스 김을 빼놓고 명가수무대가 이루어질수 없지 않아!》

수미는 진정 기쁨에 넘친것 같았다. 이어 그는 초청자가 KPK악단의 설립자 김해송과 리란영부부라고 했다.

《이름난 가수들만 초청한거지 뭐.》 수미가 의미있게 눈웃음치며 계속하는 말이였다. 《은영씨는 물론이구 김천애, 김혜란, 다 고전음

악을 하는 쏘프라노가수들이지… 테놀가수론 김우군이 있구… 여기에 류행가수들인 남인수와 리란영… 당대의 명가수들은 다 뽑은거지 뭐야. 게다가 한회분 공연에 3백원을 지불한다니… 아유! 나도 성악을 전공했더면!…》

아직 극장앞엔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리극로선생이 틀어쥐였던 군중이 이번엔 은영이와 수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은영은 그를 끌고 무대뒤쪽으로 갔다. 그러나 독창무대초청에 대해 더 론할새가 없었다. 마침 은영을 찾고있던 연출가가 그들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던것이다. 당황망조한 기색이였다.

《은영씨, 이걸 어쩌믄 좋소. 제르몬이 병원에 실려갔구려.》

제르몬이란 동백꽃아가씨 비올레따의 애인 알프레드의 아버지를 말한다. 창부인 비올레따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독한 압력을 가하는 제르몬, 가극에서는 제3의 주역이다. 바로 그 제르몬역을 맡은 배우가 실려갔다고 한다. 알고보니 방금전에 있은 우익깡패들의 습격때 그속에 끼워있다가 심한 부상을 당했던것이다.

은영은 온몸의 기운이 바람처럼 새여버리는것을 느꼈다. 구경표는 다 팔렸는데 공연이 파탄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그것은 곧 은영이와 일가식솔에 엄중한 타격이 아닐수 없다. 앓고계신 어머니의 병구완도 더는 바랄수 없게 된다.

알프레드의 역을 맡은 테놀가수 강상일이까지 후주른해서 나왔다. 그들은 은영이에게서 그 어떤 기적을 바라는듯 한 표정이였다. 은영은 그만 두눈을 감고말았다. 아무것도 보고싶지 않았다. 막 소리쳐 울고싶기만 했다. 그런줄도 모르고 은영은 젊은 패들에게 에워싸여 노래하며 왔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정말 미칠 지경이였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조용히 《은영씨!》하고 불렀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은영은 눈을 뜨고 머리를 돌렸다. 다음순간 《고종우씨가?》하고 가늘게 부르짖었다.

《은영씨,》 고종우가 어줍어하며 말했다. 《제가 그 역을 맡으면 안될가요?》

《예?!》 숨이 막히는듯 했다. 《그게 정말이세요?》

《예, 일본에서 한때 그 역을 맡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것이다. 바리톤가수 고종우, 은영은 어느새 그한테 와

락 매달렸다. 고종우가 면구스러워하는것도, 수미가 창백해진 얼굴로 고종우를 향해 뭐라고 낮고도 빠르게 말하는것도 알지 못했다.

《어마나, 고종우씨!》 은영은 흐느끼듯 했다. 《그새 어디 가 숨어계셨어요?》

《예, 제주도에… 저야 고씨가 아닙니까. 고씨조상이 나온 삼성혈에 숨어있은셈이지요.》

길게 말할새가 없었다. 연출가가 은영이를 떼여놓으며 흥분에 갈린 목소리로 수선을 떨었다.

《갑시다. 종우씨,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다니… 종우씨노래를 나도 들은적이 있지요. 일본에 순회공연을 갔을 때… 아, 내가 〈빅타〉레코드사 문예부장을 할 때 말이지요.》

고종우는 순진한 그 성미답게 우쭐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대로 해내겠는지…》

《아, 바리톤가수가 아닙니까!》 연출가가 떠들었다. 《일본에서라구 제르몬을 쏠로몬으로 바꾸진 않았을거구… 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연출가와 강상일이 은영이도 잡아끌었다. 뜻하지 않던 일로 파랗게 질린 수미가 발을 구르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시간이 급했던것이다. 반가운 상봉극은 뒤로 미룰수 있어도 사랑의 비극은 분초를 다투고있었다. …

고종우는 멋들어진 바리톤가수였다. 단 한번의 관통훈련도 없이 출연했지만 병원에 실려간 가수보다도 더 훌륭하게 제르몬역을 수행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거의 모든 종목들에서 은영이와 함께 출연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신문들에서도 고종우를 그 누구와도 바꿀수 없는 은영이의 상대역이라는 의미에서 《은영양의 콤비 고종우》라고 쓰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였다. 그들의 이 관계는 이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을 두고 계속되게 된다.

3

그날 수미는 명가수들의 독창무대에 은영이를 초청하는 일을 자기가 맡고 찾아왔었다. 혼자서 오고싶었으나 제주도에서 방금 돌아온 고

종우 (해방후에는 제주극장에서 간청하여 눌러있었다고 한다.)가 은영씨의 출연을 꼭 보고싶다 하여 함께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 녀자의 경우에는 가극무대에 고종우와 은영이가 함께 출연하는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였으리라. 아마도 처음부터 수미가 예감하고있던 무서운 일이 시작된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영은 그 녀자가 무대에 나선 두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바라보고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은영이기에 김해송부부의 초청에도 선뜻 응했다. 김해송의 KPK악단이 전문 미군만 상대하여 공연하고있었다는것도 생각지 않았다. 바야흐로 인기의 절정에 오르는 은영이였다. 아버지와 림호의 부탁도 까맣게 잊고있었다. 그리하여 자기가 헤여날길 없는 미궁속으로 한걸음 발을 내짚고있다는것도 알수 없었다.

서울 광화문거리의 부민관에서 열린 명가수들의 독창무대는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많은 신문들이 이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는데 그중의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20년대부터 우리 가요계를 풍미해온 인기가수 리란영은 코소리의 매력과 간드러지는듯 애련한 창법을 바탕으로 일면 섹스리하게 노래를 불러 파란많던 지나간 세월의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역시 관중을 기쁘게 한것은 신인가수 김은영양의 출연이였다. 미스 김이 부른 노래들 〈봉선화〉와 〈찌꼴새〉에서 그녀는 특이한 음색과 창법으로 새로운 음악세계를 열어보였다고 말할수 있다. 은영양은 목소리로만 노래하는것이 아니다. 조화로운 률동과 웃음을 담은 두눈으로도 노래하고있다. 그녀가 6청을 받고나서 관중에게 감사의 정을 담아 인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는 일약 가요계의 스타(별)로 부상한 어엿한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신문은 소개를 맡은 박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기사의 마감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끝맺었다.

《공연을 조직한 김플레이보이(김해송)는 오늘까지 미국식 뮤직스타일(음악형식)을 기본으로 한 레파토리로 미군만 전문상대해 그들

로부터 대환영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그때문에 민중의 랭대도 없지 않았으므로 이번 무대를 빌어 그는 대중의 량해도 얻을 겸 미군과의 교제도 이어갈 타산이였음을 고백하였다. 9월의 이 무대가 바로 미군상륙일을 기념하여 진행된것이라며 그는 대만족을 표시하였다. …》

김해송만이 아니라 은영이도 만족해했다. 명가수들만 선발된 무대에서 역시 인기의 절정에 올랐던것이다. 문돌쩌귀에서 불이 일 지경이였다. 신문기자들이 쉴새없이 드나들고 사진기의 섬광도 쉴새없이 번쩍이였다. 대학생들, 관리들, 상인들과 문예인들, 무직청년들까지 찾아들었다. 꽃송이는 물론 쪽지편지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은영이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는듯싶었다. 그러나 신문을 읽고 격노한 사람들도 있다는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있었다. 찌는듯 하던 무더위가 계속되더니 돌연 서쪽으로부터 비구름이 몰려오며 우뢰질을 하기 시작했다. 장마비가 시작된것이였다. 그날은 비가 종일 그치지 않고 구질구질 내렸다.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에서 나와 하숙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고종우가 앞을 막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바래드릴가요?… 비가 옵니다.》

은영은 대수롭지 않게 잘라 말했다.

《괜찮아요. 학생들이 기다리는걸요.》

《학생들은 없습니다.》 고종우가 어줍어하며 계속했다. 《학생들대신에 웬 사람이 아까부터 기다리고있습니다. 어쩐지 그가 미타해서…》

은영은 그의 점잖은 태도며 세련된 옷차림을 재빨리 여겨보았다. 그는 지금도 제르몬역을 맡고있다. 언제 보나 단정하고 례절바른, 흠잡을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늦은 밤에 길동무가 되여주겠다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저어되였다. 그 누군가의 눈길이 자기의 동요하는 표정을, 혼란된 마음을 빤히 들여다보는것만 같았다.

《고맙지만…》하고 은영은 머리를 숙이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하였다. 《전 오늘 어데 들릴데가 있어요.》

다시금 깍듯이 목례를 하고 은영은 재빨리 그의 앞을 지나갔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도 기다린다던 사람도 없었다. 비소리만 소연했다. 음산한 날씨였다. 은영은 우산을 펴들고 천천히 걸음

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쩐지 마음이 쓸쓸해졌다. 이렇게 쓸쓸해보기는 처음인것 같다. 누가 기다렸을가. 혹시 전날처럼 림호가 찾아온것은 아닐가? 그런데 그는 지금 어데서 무엇을 하고있을가?…

극장뒤쪽의 어둑시그레한 곳에서 나서는데 먼곳의 외등이 키가 늘씬한 젊은이를 비쳐주었다. 그 젊은이는 웬 녀자와 마주서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쌍태머리로 미루어 처녀같았다. 저들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단 말인가?… 가슴에 파고드는 아쉬운 마음을 누르며 그들을 향해 천천히 마주갔다. 그러자 젊은이가 머리를 홱 돌려 보는것이 알렸다.

《일한이!》 뜨거운 속삭임에 목이 메였다. 《일한이로구나!…》

일한이가 마주 달려왔다. 은영이도 달려갔다. 달려가서는 우뚝 멎어섰다. 어쩌믄!… 그새 이렇게도 의젓해지다니. 한창나이 젊은이들은 여름철의 백양나무처럼 날을 따라 쑥쑥 자라며 자기의 모습을 달리하는것만 같았다.

《누님, 오래간만에 보는구만요.》

몇달새 목소리도 더 굵어졌다.

《같이 온건 누구지?》

은영이는 뒤쪽에서 발끝으로 땅바닥을 끄적거리고있는 처녀를 눈짓했다.

일한이가 고개를 돌리며 처녀를 불렀다.

《정애씨, 어서 와 인사를 해야지. 우리 누님이요.》

은영은 가까이 다가와 나부시 인사하는 처녀를 눈여겨 살폈다. 어둠속에서도 처녀가 귀염상스럽게 생겼다는것을 알아볼수 있었다.

《정애라구?》

《예, 한정애.》

《그런데》하고 은영은 웃으며 일한이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같이 왔을적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저…》 일한이가 히죽이 웃으며 말했다. 《차한이가 하도 조르길래 같이 왔어요.》

《차한이가?》

《정애씬 차한이와 친한 동무인데…》

《?!…》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형님인 일한이를 뛰여넘어 동생이 벌써 녀동무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사실 정애씬》하고 일한이 계속했다. 《목소리가 고와서 서울방송공사에서도 쓰겠다구 했는데 본인은 꼭 누님처럼 가수가 되겠다고 한다지 않아요. 그러니 누님이 좀 도와줘요.》

목소리만 고와서 가수가 되는것은 아니다.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청음을 비롯한 예민한 감각과 호흡 그리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소리로 내뿜는 표현력과 성량, 창법도 가져야만 한다. 은영은 다시금 처녀의 모습을 재빨리 훑었다. 처녀는, 한정애라고 부르는 이 처녀는 소박하고도 애련한 모습이다. 저고리밑에 확연히 부풀어오르고있는 봉긋한 가슴에도 불구하고 아직 18살은 넘기지 않았을것 같다. 그런데 일한이는 올해 23살, 그의 동생 차한이는 21살… 어야나, 벌써!… 은영은 새삼스럽게 자기의 나이도 상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25살이 되였다는것, 어느덧 과년한 처녀로 불리우게 되였음을 깨닫고 어마지두 놀라는 마음이였다. 여적 한번도 결혼이요, 가정이요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던 은영이였다.

《그래서》 은영이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동생의 부탁을 가지고 왔다는거지? 언제 한번 꿈쩍도 하지 않던 일한이가…》

《아니, 정애씨 일은 겸사겸사해서 같이 온거구. 누님, 아버지가 누님을 부르셔요.》

《아버지가?… 아니, 지금 어데 계시게?》

《나랑 같이 가면 알게 돼요.》 웬일인지 일한이는 늙은이처럼 한숨을 내그었다. 《아버지가 오시겠다는걸 내가 대신 왔지 뭐. 아버진 몹시 앓구계셔요.》

《?…》

일한이는 비물이 줄줄 흐르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겼다. 은영이 우산을 씌우려 하자 그는 그것을 빼앗다십이하고 높이 들었다.

《누님, 가면서 얘기해요.》

은영은 우산밑에 들어섰으나 정애는 한사코 뒤에 떨어졌다.

《얘기하세요. 전 천천히…》

일한이도 처녀가 뒤따르는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였다.

《내버려둬요.》

일한이 그처럼 무심히, 대수롭지 않게 뇌까린것은 어린 처녀를 무시해서가 아니였다. 보다 중요한 화제가 있다는것을 암시하는듯 킁킁 코김을 불며 서둘러 아버지병세에 대한 말부터 꺼냈다.

은영은 허전한 생각이 시꺼먼 그림자처럼 가슴에 드리우는것을 느꼈다. 동생들이 이렇게 자라도록 자기는 명가수의 꿈속에만 머물러있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노래만을 생각했고 음악만을 사랑했다. 어릴 때부터 진정 마음속으로 사랑하고있었다면 아버지와 그리고…

별안간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맞아줄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목마르게 갈구해온 은영이였다. 하지만 언제든 아버지는 딸의 응석을 받아주지 않았고 매질도 서슴지 않았으니 그것이 어린 마음에도 한없이 서글프고 괴로와 눈물을 머금군 했다.

지금 그 아버지병세가 심하다 하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차올랐다. 혹시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딸을 만나보려 부른것은 아닐가 하는 생각에 무엇인가 심장에 사무쳐오는것이 있었다. 하여 은영은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듯 떠듬거리며 아버지가 왜 급히 찾는가고 물었다.

《아버진 누님을 꼭 만나야 한다구 했어요.》 일한이가 목이 잠긴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가보면 알게 될거예요.》

은영은 동생의 말이 올곧잖게 들리였으나 입을 다물고말았다.

늦은 길손들이 바삐 서둘며 정류소로, 골목길로 가고있었다. 그러나 그들만은 작은 녀자우산밑에서 서로 언짢아지는 마음을 숨기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여름밤의 시쁘둥한 하늘은 끊임없이 비를 뿌렸다. 하건만 불밝은 호텔창문에서는 축음기소리가 야지러지게 흘러나왔다. 미군고위장교전용의 고급호텔이였다. 껌벅거리는 불빛에 어울려 간드러진 웃음소리도 새여나왔다. 비바람에 떨어지는 나무잎사귀들이 그 불빛과 웃음에 쫓기듯 포석우로 굴다가 물에 젖어들군 하였다.

갑자기 일한이 머리를 홱 돌렸다. 뒤쪽에서 미군트럭들이 물보라를 일구며 달려왔던것이다. 풍을 친 차들이 련속 꼬리를 물었다. 스리쿼타에 탄 미군병정들이 뭐라고 꽥꽥 소리지르고 하모니카를 불어대였다. 마치 적의 아성을 돌파하고 미친듯이 기뻐날뛰는것과 같았다.

일한의 눈길이 그쪽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마지막트럭이 멀어져가

자 은영을 쳐다보며 침울하게 물었다.
《누님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 뜻하지 않던 물음에 은영은 혼란되였다. 《그런 문젠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알아야 해.》 별안간 일한의 눈빛이 감때사납게 번뜩이였다. 깍듯이 굴던 말투도 몰풍스러워졌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해방자요, 벗이요 하는데 이 땅을 강점한 침략자들이라는걸 알아야 해!》
은영은 잠시 무엇인가 상기하고 조용히 시진하게 웃었다.
《림호씨도 그러더니…》
일한이가 힐난하는 어조로 재빨리 받았다.
《그런데 누님은 림호형의 말을 귀등으로 들었지.》
《?…》
일한이 왜 성이 났는지 알수 없었다. 름름하게 자란 동생의 격해진 마음을 풀어주어야 했다. 그런데 은영은 아직 그에게 해야 할 적당한 말을 찾을수 없었다. 하여 은영은 갑자기 생각난듯 화제를 돌렸다.
《참 내가 이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저 처녀말이지… 한정애! 내 오레미가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했어.》
《오레미?》
《그런데 일한인 아직 사귀고있는 처녀가 없는게지?》
일한은 뜻밖인듯 흥흥 코김을 불고나서 몇걸음 사이를 두고 뒤따라오는 처녀를 피끗 돌아보았다.
《저런 처녀말예요?》
《때가 되지 않았을가?》
《그럴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난 누님일이 더 걱정이군요.》
《넌 어른이 다 됐구나.》
《그런줄 여태 몰랐어요?》
《몰랐다 모르고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걸음이 떠지고있었다. 그러나 둘 다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갑자기 은영이 깜짝 놀라며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어쩌나! 그만 반대쪽으로 왔구나.》
《아니, 바로 왔어요.》
《뭐?》

《우린 역으로 가야 해요. 누님한테 미리 말해준다는게 그만… 이제 마지막통근차가 있어요.》

일한이가 걸음을 빨리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동생 차한이와 같이 인천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것도 아버지의 공작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일임을 암시하고나서 이렇게 계속했다.

《아버진 인천지구 지하조직을 책임지구있어요.》

《그게 어떤 조직인데?》

《이제 다 알게 돼요.》 일한이는 우정 걸음을 늦추며 말머리를 돌렸다. 《누님은 아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했지요?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에… 솔직히 누님은 지금 너무 천진하다구 할가… 이렇게 말한다구 성내지 말아요. 그렇지만 누님은 미국놈들이 왜 이 땅을 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는지 알아야 해요. 놈들은 며칠전 인천에서만도 저들의 무기, 탄약을 부리는 작업을 거부했다고 해서 경찰을 내몰아 부두로동자 6명을 총으로 쏘아죽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님은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 날을 기념하여 노래를 불렀지요, 부민관에서.》

《뭐라구? 이자 미군… 뭐라구?》

은영이로서는 드물게 보는 날카로운 반응이였다.

《여기에 다 있는데 뭐.》 일한이 주머니에서 마구 구겨진 신문을 꺼내들었다. 《이 신문에 난걸 누님은 보지 못했어요?》

《아니야!》 은영은 부르짖었다. 《우린 명가수들의 무대에 초청받고 출연했던거야. 거기엔 미국사람들이 없었다. 난 하나도 보지 못했어, 전연!》

그러자 일한이 그를 붙들고 낮고도 준절하게 속삭이였다.

《그러기에 알아야 한다는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해요. 지금 누님은 롱락되고있어요.》

《롱락?》

《그래요. 이 신문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기나 해요? 앓고계시는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당장 누나한테 달려오려고 했겠어요!》

《?…》

화끈 달아올랐던 은영이의 얼굴을 비바람이 후려쳤다. 휘청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들려다 말고 우두커니 서버렸다. 무섭게 성난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세찬 비줄기가 곱게 빗은 머리에, 창백해진 볼과 목에 줄곧 휘뿌려졌다. 일한이 우산을 들어주었으나 그것을 뿌리치며 얼굴을 싸쥐고말았다. 미군강점 1돐기념이라는 말이 앙칼진 채찍소리처럼 귀전에 메아리쳤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입으로 쓸어드는 비물을 씹어삼키며 그는 몸부림쳤다. 그런 줄도 모르고 얼마나 만족해했던가. 인기의 절정?!… 그 절정이 이렇듯 아찔한 낭떠러지였단 말인가?!…

대합실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신문의 글줄을 자자구구 더듬어보았다. 눈이 바로 서지 않았다. 격노한 아버지의 얼굴만이 희뿌예진 망막속에 나타나군 하였다.

언젠가 아버지를 공포에 질려 바라보던 일도 떠올랐다. 그것은 15살의 은영이가 함흥영생녀중을 중도에서 그만두었을 때였다. 사실은 제때에 학비를 대지 못하는것때문에 수업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고말았었다.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이나 돕자고 했던것이다. 채옥선생을 구원하고 일본인 광업주식회사 사장의 별장에 불을 지른 아버지가 두만강 건너 어데론가 사라졌을 때의 일이였다.

한밤중에 어머니가 은영이를 깨워 두만강기슭으로 끌고갔다. 영문을 알수 없었던 은영이는 물결소리만 어수선하게 울리는 밤의 강물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엄마, 왜 그래요. 우린 지금 어데루 가나요?》

《나두 모르겠다, 무슨 도깨비감투끈인지.》 어머니는 딸의 손목을 꽉 잡고 허우적거렸다. 《계집애가 무슨 큰일을 치겠다구 그리두 노발대발하는지, 원!》

《누가요, 누가 노발대발하나요?》

《가보믄 알게 아니냐. 지절대긴…》

남정들처럼 담찬데다가 일손이 걸싸고 입심도 센 어머니였다. 그런데 그날만은 웬일인지 자꾸만 발을 걸채이며 허둥거리는것이 놀라왔다.

어머니는 딸을 칼벼랑으로 끌고갔다. 바로 거기서 집을 나간 아버지가 딸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비린내 섞인 바람이 옷자락을 날리며 윙윙거렸다. 별빛 하나 없는 하늘로부터 밤의 서늘한 기운이 흘러왔다. 희끗희끗 갈기를 날리는 물

결우에서는 이따금 시퍼런 린광이 펀뜻거리며 은영이의 마음을 옥죄이였다. 그러나 더더욱 무서웠던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어깨에는 망태기를 지였는데 어데론가 먼길을 가던 걸음인듯싶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딸을 보고도 말 한마디 없었다.

《애를 데려왔수다.》 어머니가 말했다. 《귀밑에 피도 안 마른걸 어쩔랴구 그러시우?》

아버지는 아무말없이 은영이를 벼랑끝으로 잡아끌었다. 겁에 질린 은영이가 혀를 깨물고 뒤따르던 어머니는 목쉰 소리로 부르짖었다.

《어이구! 이게 무슨 망녕이요?》

아버지는 먼저 매몰스럽게 번뜩이는 눈빛으로 어머니의 울부짖음소리를 눌러버렸다.

《잠자쿠 있소, 떠들지 말구!》

은영은 벅찬 공포로 하여 숨조차 쉬는것 같지 않았다. 발밑에서는 거센 물결이 바위벽을 치며 철썩이였다. 멀리 밤하늘에서 소리도 없는 시퍼런 번개가 꿈틀거린것은 그 순간이였다.

《얘야.》 드디여 아버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꽉새가 제 새끼들에게 어떻게 나는 법을 배워주는지 내 이미 말했지?… 바로 이런 벼랑우에서 새끼들을 떨구어버린다. 하나하나 밀쳐서 떨구며 자, 하늘을 향해 날아라! 하고 웨친단 말이다. 그 새끼들이 날개를 퍼득거리며 하늘을 날면 꽉새가 되는거구 날개를 펴지 못하면 떨어져 죽고마는거야.》

아버지는 무시무시하게 끓고있는 벼랑밑의 물결속으로 딸을 밀쳐 떨어뜨릴듯 한 기상이였다. 가슴이 졸아들다못해 마비되여버린 은영이는 그저 밑창없는 낭떠러지밑으로 굴러내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뿐이였다.

그런데 별안간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듯 무섭게 굴던 아버지가 오돌오돌 떨고있는 딸을 꽉 껴안았던것이다.

《은영아, 얘야.》 아버지의 목소리도 달라진듯 하였다.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은 이것밖에 없구나. 날아야 한다, 하늘높이 날아야 한다. 집안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너 하나만은 내세우고싶었는데 학비가 없다구 다 집어팽개치구 돌아오다니 그게 될 말이냐. 어떻게 해서든 공불 해야 한다. 네 재간을 그저 두엄더미속에 처박아버릴순 없어. 이

제 꼭 좋은 세상이 온다. 네가 좋아하는 노래에서처럼 하늘의 밝은 태양이 비칠 그날은 꼭 온다. 이걸 잊지 말아라.》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아마 그무렵에 림호가 말하던 조국광복회 회원과 연줄이 맺어져있은것 같다. 그러나 어린 딸에게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다. 가슴에 꽉 껴안고 이상한 목소리로 노래의 한구절을 속삭일뿐이였다.

오 밝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이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실로 사연깊은 노래였다. 은영이는 아버지의 구두솔같이 껄껄한 수염이 자기의 여린 볼따구니살을 찌르는 감촉을 느끼며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애야, 너도 불러라.》 아버지가 속삭이였다. 《밝은 해님 어서 뜨라고 소리쳐 불러봐!》

밤의 두만강은 소연하고 무시무시했지만 어린 은영의 마음은 후더웠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마시고있는것이 꿈만 같았다. 어느덧 두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리하여 저 멀리 이어진 강물우에서 불끈 불덩어리가 솟아오르는 모양을 생생히 그려보면서 아버지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고
하늘의 밝은 해는 비친다

뒤쪽에서는 어느새 바위턱에 퍼더버리고 주저앉은 어머니가 탄식조로 넉두리를 하고있었다.

《짧은 밤에 만경타령이라더니 원, 이 에미 간이 뒤집히게 해놓구선 생뚱같이 타령은 무슨 타령이요?》

그날의 일이 문득 떠오른것은 무엇때문일가. 그때부터 은영은 거의나 아버지와 떨어져있었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아줄가? 오늘은 이 딸을 어떻게 벌하려 하실가?… 분노한 아버지, 무섭게 변모

된 아버지의 얼굴만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통근차를 타고 갈 사람들이, 공무원들과 철도로동자들, 학생들이 은영이를 두고 저들끼리 뭐라고 수군거렸지만 줄곧 한가지 생각에만 묻혀있었다. 기차에 올라 자리잡고 앉은 후에도 어두운 창밖만을 응시하며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

×

아버지는 부두로동자들이 들어있는 합바집에서 여러 사람과 마주앉아 무엇인가 토론하고있었다. 남포등의 불빛에 비쳐진 아버지는 그새 퍽그나 늙고 병약해진 모습이였다. 볕에 그을고 고된 로동과 병고로 검누른 얼굴에 뼈만 앙상하였다. 방금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돌봐주는 문제를 토의하던중이였다. 담배연기가 꽉 차있어 숨이 막혔다.
《아버지.》 은영이가 조용히 불렀다. 《제가, 은영이가 왔어요.》
그때에야 아버지는 문앞에 서있는 딸을 알아보았다. 누덕누덕해진 누비돗자리우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일시에 머리를 돌리는 로동자들에게 말했다.
《이제야 왔구만. 내 딸일세.》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수인사를 했는데 다들 별나라에서 온 선녀라도 맞는듯 했다. 눈이 부신듯 가늘게 좁혀뜨고 바라보는가 하면 침을 꿀꺽 삼키는 사람도 있었다. 저마끔 한마디씩 한것은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김아배 따님이라구요?》
《아이고매, 이런 희한한 일두 있수?》
《극장에서 노랠 부른다던 그 딸이지로?!》
《참 선녀같고마!》
아버지는 한바탕 기침소리만 터쳤다. 금시 숨이 넘어가는듯 괴롭게 이어지는 기침이였다.
은영은 아버지앞으로 다가갔다. 심한 기침때문에 이지러진 아버지의 컴컴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병세는 좀 어떠세요. 예?…》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다. 아직 기침이 멎지 않았던것이다. 사람들

이 자리를 뜨려 하자 그것도 손을 저으며 막았다. 은영이에게는 어지러운 누비돗자리 한구석을 가리켰다. 앉으라는 손짓이였다.

이제 곧 노성이 터질것이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이지만 가림없이 무섭게 다불러댈것이다. 은영은 아버지의 무릎에 어푸러지듯 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딸이 구실도 못하구…》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바람새는 소리를 질렀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게 다냐?!》

드디여 아버지의 기침이 멎었다.

천둥이 터질 때가 왔다.

은영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돌연 아버지의 메마르고 딱딱한 손이 은영의 머리에 얹어졌다.

《은영아, 보구싶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다름아닌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주고있었다. 《그래서 널 오라구 했다. 한번 보구싶어서…》

믿어지지 않는 일이였다. 아버지의 껄껄한 손이 볼에 닿는 순간 은영은 불현듯 눈물이 왈칵 솟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버지, 제가 그만… 앓고계신 아버지한테 한번 와보지두 못하구…》

《됐다, 그런 소린 말아. 아버진 오히려 네게 미안하구나. 숱한 식솔이 네게 얹혀있으니 말이다.》

아버지의 거치른 손이 은영의 눈물을 닦아주고있었다.

《내 걱정은 말아. 여기엔 좋은 사람들이 많다.

네 동생들도 곁에 있구… 일한이 그새 얼마나 의젓해졌는지 너도 봤지? 지금 밤일을 나간 차한이도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키만 큰게 아니라 마음도 커졌지. 그 애들이 지금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위험한 일도 다 맡아하고있다. 이제 시간을 내서 네가 공연하는것두 꼭 보게 하겠다, 이 사람들이랑 다! 이분들은 아직 네가 노래하는걸 한번도 보지 못했구나.》

곁에서 지켜보고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비쳤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그날엔 꼭 꽃다발을 안고 구경을 가겠다고 했다.

《이런분들을 위해 노랠 해야 한다.》 아버지가 계속했다. 《난 늘 네가 만사람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였으면 했구나. 그건 지금도 같다. 그래서 걱정도 크구… 잊지 말아라. 돈이나 칭발린 소리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돼.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가려보지 못하는 법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서도 버림을 받는다. 사람들이 네게 침을 뱉게 돼. 난 네가 그렇게 될가봐 걱정이다.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네 동생들까지 저 이북에서처럼 모두가 평등하게 살게 될 새날을 위해 싸우는데 집안의 자랑이던 맏딸이 눈이 어두워있다는게 말이 안되지, 응?!… 오랜 세월 집을 떠나 살아온 너를 내가 잘 돌보지 못했구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좋은 사람을 붙여 널 돕자구 하는데… 명심해 듣거라. 이제부턴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민중이 따라부르며 힘을 얻는 그런 노래를 말이다. 이걸 말해주고싶었다, 한번 보고싶기도 하구. 그래서 부른거야.》

아버지는 신문에 난 기사를 꼬집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나직한 말속에 모든것이 다 들어있었다.

《예. 아버지, 알겠어요.》하고 은영은 눈물로 속삭이였다. 《아버지 바라시는대로 꼭 하겠어요.》

《난 사실》하고 아버지가 계속했다. 《널 북에 보낼가 하고도 생각해보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에 말이다.》

《예?!》

은영은 누렇게 뜬 아버지의 얼굴이 실룩거리는것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에?!… 벅찬 격정에 목구멍에서 금시 신음소리가 새여나올것 같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엇비듬히 이마를 파고 지나간 주름살을 좁히며 조용히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모두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날은 꼭 온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미국놈들을 반대해서 목숨걸고 싸우는게 아니겠니. 너도 그날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장군님을 떳떳하게 만나뵈올수 있는거야.》

떡살이 배긴 아버지의 두툼한 손이 은영이의 잔등을 다독이였다. 그처럼 바라고바라던 아버지의 애무에 은영은 불시로 눈시울을 떨며 허덕이기 시작했다. 가슴을 메우고 목구멍으로 거침없이 괴여오르는 뜨거운 오열을 씹어삼키며 한마디말도 잇지 못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아버지의 그 말에 은영은 세게 머리를 저었다.

《안예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랑 같이 여기서 자겠어요.》

《아니, 여긴 네가 있을만 한데가 못된다. 언제 놈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은영이를 바래주려는것이였다. 딸의 손을 꼭 잡고 비에 젖은 우산까지 들어주었다. 하는수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밖에 나섰을 때였다.
《얘 은영아, 넌 림호군을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물었다.
《예?》
뜻밖의 물음에 놀라는 딸의 얼굴을 스쳐보며 아버지는 소리없이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좋은 젊은이다, 담차구 인정깊구. 난 너희들이…》 잠시 아버지는 적당한 표현을 고르는듯 했다. 《서로 뜻이 통했으면 한다. 내가 제일 믿구 아끼는 사람이다.》
《?!…》
은영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저려드는 손끝으로 옷자락만 허벼대고있을뿐이였다.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리고… 자기가 림호와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도 상상해본 일이 없다는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딸이 숨소리도 죽이며 바재이고있는것을 스쳐보고나서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구질거리며 내리는 비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다시금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틀후에 림호군이 서울로 돌아온다. 네가 마중하거라. 네 도움이 없이는 나다닐수 없게 되였다. 사방에 사진이 나붙어있더구나. 만날 장소와 시간은 이제 일한이가 알려줄게다.》
아버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뒤따라 나와있던 일한이에게 머리를 돌리며 말했다.
《누나를 바래주거라.》
하고싶은 말이 많았으련만 아버지는 기다리고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있는것 같았다. 그리하여 은영은 눈물이 핑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끝에 허리를 깊숙이 꺾으며 절을 하였다.
《아버지, 부디 몸을 잘 돌보세요.》
쓰리게 가슴을 파고드는 허전함, 무엇인가 정겹고 오래 새겨질 뜨거운 인사말을 남기고싶었는데 이처럼 례사로운 말이 되고말았다. 지

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가. 속담에도 자식을 떼고 돌아서는 부모의 마음 발자국마다 피가 고인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늑한 산골짝 작은 집에
아련히 등잔불 흐를 때
…

돌아오는 길에서 은영은 계속 이 노래의 가연한 선률을 마음속으로 곱씹고있었다. 너무도 오랜 세월 집을 떠나 홀로 살아온 은영이였다. 바로 그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련히 등잔불 어리는 집에서 단 하루밤이라도 부모님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마음, 그처럼 그리운 고향집에서라면 인생에 대해서, 그 머나먼 인생길의 반려로 될 미더운 사람에 대해서도 조용히 속삭일것만 같은 마음…

그 산골짝에 황혼질 때
밤마다 그리는 나의 집
희미한 그 불빛 정다웁게
외로운 내 발길 비치네

이밤따라 그 노래만을 계속하고싶은 마음이였다. 어인 일일가?… 아릿하고 어수선해지는 처녀의 마음이 애잔한 이 노래의 선률을 고요히 불러온것은 아닌지?…

4

가수로서의 명성은 얻기 시작했으나 꿈은 희미해지고있었다. 박수갈채와 꽃다발, 끊임없이 번쩍이는 사진기의 섬광만이 꿈을 이루는것은 아니였다. 꿈이란 곧 래일이였고 사랑이였다. 그런데 요란한 박수갈채와 화려한 꽃다발이 찬사와 감격의 인사일수는 있으되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님을 오늘 은영은 처음으로 깨닫고있는듯 했다.

진정한 사랑은 우뢰소리로 웨치거나 칠색무지개처럼 아롱다롱 채색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속에 고요히 간직되여 쇠물처럼 끓고있으므로 소리쳐 알릴 필요도 없거니와 화려하게 채색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은영은 강기슭의 모래불에 몸을 뉘이고 머리를 뒤로 젖힌채 저 멀리 하늘가를 점도록 바라보고있었다. 불그레한 저녁노을이 소리없이 밀려드는 구름장들을 물들이고있었다. 밤에는 비가 올것 같았다. 멀리 마포나루를 떠난 나루배도 구름이 비낀 물결을 휘젓고있었다.

오늘은 극장에서의 공연도 물려있지 않아 은영은 한성중학교의 수영선수들이 훈련하는 여기 한강기슭에 끌려나왔다. 력사교원 한광수가 이제 있게 될 전국중학생들의 수영경기에 나갈 학생들을 훈련주고있는데 은영이도 함께 가자고 잡아끌었었다. 공연도 없는데 강가에 나가 푹 쉬는게 어떤가, 은영선생은 요즘 너무 무리한것 같은데 심신을 좀 쉬여야겠다고, 그런데 마음의 휴식에는 자연이상 더 좋은것이 없다면서 원하신다면 조개구이도 조직하겠노라고 끄드겼던것이다.

그의 제의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였는지 모른다. 바로 은영은 오늘 여기 마포나루근방에서 대구에서 돌아오는 림호를 만나 서울시내를 거쳐 인천으로 빠져나가게 도와야 했던것이다.

여의도를 마주하고있는 마포나루는 서울시내에서 제일 한적한 강기슭이다. 그런데 림호씨는 왜 여기로 오게 되였을가. 대구에서 떠났으면 기차를 타고 올텐데?… 은영은 머리를 쥐여짰지만 도저히 그 까닭을 알수 없었다. 사실 이곳은 강폭이 좁고 물이 깊어 수영선수들의 훈련에나 안성맞춤인 곳이다. 배놀이하는 련인들에게도 그저그만이겠지만 림호는 수영이나 배놀이때문에 여기로 달려올 사람이 아닌것이다.

그때 물속에 들어가있던 력사교원 한광수가 청을 돋구어 웨쳐대였다.

《은영선생도 들어오십시오. 헤염칠줄 모르면 우리가 도와드릴테니!》

익살군인 한광수는 한시도 롱질을 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것 같다.

《뭘 부끄러워 그러시오. 수건으로 앞을 대충 가리고 들어오시라구요!》

학생들도 덩달아 소리쳤다.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물이 깊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선생님! 물에 빠지면 우리가 건져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구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성중학교는 남자중학교여서 녀학생들은 물론 녀교원들도 없다. 음악교원인 은영이만이 유일한 녀성이다. 수염난 중학생들도 있는 학교여서 은영이는 공주처럼 떠받들리우고있으나 불편한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강철교가 있는 상류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헤염을 치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줄수 있다. 두만강류역에서 나서자란 은영이였다.
《아, 은영선생!》 한광수가 또 소리쳤다. 《어데로 도망치려구 그러시오? 예?!》
은영은 그를 돌아보며 소리내여 웃었다.
《잠간 기다리세요. 내가 이제 수영솜씨를 보여드리지요.》
강가의 모래불에 작은 풀숲이 있었다. 애어린 버드나무가지들이 암팡지게 모여앉아 합지박모양의 숲을 이룬 그곳을 등지고 은영은 옷을 벗었다. 어느덧 구름장틈새로 퍼져내린 시뻘건 저녁노을이 수영복만을 입고있는 처녀의 윤기나는 몸에서 아롱아롱 반사광을 뿌렸다. 따스한 모래불이 발밑에서 부서지고 흐트러지며 기분좋게 샤르륵거렸다. 옥같이 희고 갈걍갈걍한 처녀의 몸을 간지르며 흘러내리는 강물은 또 얼마나 따스하고 부드럽고 유정한것이랴!… 은영은 맵시나게 헤엄쳐나갔다. 물결우에 튕겨오른 물방울들이 해질녘의 노을빛에 금빛은빛의 구슬마냥 부서져나가고있다.
은영이를 지켜보고있던 한광수와 학생들이 왁자하니 탄성을 질렀다. 그러건말건 은영은 계속 헤염쳐나갔다. 비록 마포나루의 강폭이 다른데보다 비교적 좁은편이긴 하지만 능란한 수영선수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단숨에 헤여건널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은영이에게는 어린시절 회령천과 두만강에서 헤염치던 경험이 있었다.
차츰 겁에 질린 목소리들이 조약돌처럼 날아오기 시작했다.
《은영선생, 이젠 돌아서요!…》
《선생님, 위험합니다.》
《거긴 물살이 셉니다. 선생님, 제발!…》

은영은 그들쪽으로 팔을 내저으며 뒤집힌 소리로 웨쳤다.
《걱정마세요!—》
사실 가수들은 아무리 급한 대목에서도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소리를 뒤집어내는것을 잊지 않는것이다.
《걱정말구 약속한 조개구이나 준비하세요!》
바로 그때 얼핏 은영의 눈에 비쳐드는것이 있었다. 자기가 옷을 벗어놓은 그 버들숲가에 웬 사람의 모습이 언뜻거린것이다. 그것도 도적처럼 몰래 기여나오는듯 했다.
한강기슭을 따라 뻗어간 철길우에서 저 멀리 서빙고역으로 달리는 기차가 기적소리를 꽥 질렀다. 그 소리까지도 처녀가 벗어놓은 옷을 훔쳐가는 놈이 있다고 청을 돋구어 경고해주는듯싶었다.
은영은 재빨리 몸을 돌렸다. 춤추듯 조자맞게 헤엄치던 경쾌한 률동이 급한 박절로 바뀌였다. 머리우에서 물보라가 사방으로 휘뿌려졌다. 어떤 되지 못한 놈팽이가 옷을 걷어가는 날에는 야단이 아닐수 없다.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고싶지만 목이 잠기고 호흡이 딸려 아무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어느새 여기까지 헤염쳐왔는가. 이렇게 멀리?… 멀리서 지켜보던 한광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소리쳤다.
《은영선생, 왜 그러시오. 발에 쥐가 일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답할수가 없다. 그럴새가 없기도 했다. 마침내 발밑에 땅이 닫는 감촉이 왔다. 그래도 계속 헤염쳐나간다. 차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숨을 헐떡이며 속도를 늦추었다. 강가에 벗어놓은 옷이 그대로 있는것이 보였다. 어찌된 일일가, 분명 버들숲에서 벌벌 기여나오던 사람의 모습을 본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은 불안했다. 모래불에 오르자마자 옷을 개여놓은 곳으로 달려갔다.
모든것이 제대로였다. 은영은 옷가지들을 손에 들고 버들숲속으로 눈길을 옮겼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속에서 낮게 부르짖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은영씨.》
귀에 익은 목소리, 분명 그것은 림호의 목소리였다. 그가 작은 버들숲속에 웅크리고있는것도 비로소 발견했다.
《지금 경찰들이》 하고 그가 계속했다. 《철길주변을 뒤지고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올겁니다. 내가… 그만 피치 못할 일때문에 뒤따

르는 형사놈을 까구 달리는 기차에서 뛰여내렸는데…》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인기척이 났던것이다. 그제서야 은영은 가까이 오는 력사교원 한광수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있던 옷가지들을 림호가 숨은 버들가지우에 던지다싶이 했다.
한광수가 급히 물었다.
《은영선생,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아니…》
《조심하세요. 저기 경찰들이 오는데…》
《?!…》
그는 무엇때문에 조심하라고 한것인가. 혹시 버들숲에 숨은 림호를 본것이나 아닐가?… 그러나 그보다도 둔덕을 따라 내려서는 경찰들이 먼저 은영을 얼어붙게 하였다. 미국제 스리쿼타가 강뚝을 따라 달리며 경찰들을 부리우고있었던것이다. 은영은 서둘러 자기의 옷가지들을 버들숲우에 펴려고 했다. 그러자 림호가 낮게 부르짖었다.
《그러지 마시오. 오히려 눈에 띌수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한광수가 소리쳤다.
《은영선생, 경찰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고 그 어떤 껄끄럼한것이 목구멍을 꽉 메웠다. 당황망조해하는 그의 표정을 보고 한광수가 낮게 부르짖었다.
《은영선생, 빨리 나를 쫓아버리세요. 이 망나니를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비로소 머리속에 번쩍이는 생각이 있었다. 아 아, 고마운 한선생!… 은영은 손에 들고있던 옷가지들을 비자루처럼 휘두르며 벌써 뒤걸음치기 시작한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물러가요. 썩 물러가지 못하겠어요? 이 망나니같은게!…》
한광수가 달아나기 시작했다. 자기를 마주오는 경찰과 거의 맞부딪칠듯 하면서 무어라고 게두덜거리는것이 알렸다.
은영이 역시 빽—빽 소리치며 그를 쫓아갔다.
경찰 한사람이 한광수의 덜미를 움켜잡았다.
《무슨 일이야?》
《아, 난 사실… 뭐 어쩌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예요!》 은영이 부르짖었다. 《덜돼먹은 사람. 이 사람을 혼내주셔요, 혼맹이 쑥 나가게!》
한광수의 덜미를 잡은 경찰이 은영이의 벌거벗다싶이 한 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가까스로 신음소리를 삼켰다.
《아—아가씨,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가씨한테 달려들어 어째보려구 하드란 말이지요?》
《예, 그래요. 바로 그랬어요.》
부끄러운 생각도 없었다. 그저 경찰의 눈을 피할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을것 같았다.
어느새 다른 두명의 경찰도 히물거리며 다가왔다. 그들의 음란한 눈길이 자기의 몸에 불살같이 박히는것을 느끼며 은영은 옷가지들로 드러난데를 황급히 감싸보았다. 그러나 이쪽을 가리면 아래가 드러나고 거기를 감싸면 또 웃쪽이 드러나군 했다.
《어머— 내가 어쩜 이런 꼴루!…》
눈길을 허둥거리고 달아오른 얼굴을 외로 돌리며 천천히 뒤걸음쳐갔다. 다음순간엔 급기야 몸을 돌려 림호가 숨은 작은 버들숲가로 황황히 달려갔다. 감질이 난 사나이들의 흐뭇한 너털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뒤늦게야 경찰들은 한광수를 달구기 시작했다. 물속에 들어가있던 학생들도 모조리 끌어내여 따져묻는것이 보였다. 경찰들은 웃쪽의 물가에서 시간을 끌며 지싯지싯 몸을 씻고 옷을 입는 은영이를 자꾸 곁눈질하긴 했지만 누구도 가까이 올념은 못했다.
어느덧 노을빛마저 스러져가고 수면우에는 밤의 장막이 내려덮이기 시작하였다. 강건너 여의도기슭에 키높이 자란 뽀뿌라나무들도 철탑처럼 뾰족하게 대공을 찌르고있는것이 어슴푸레해졌다.
경찰들이 사라지자 림호가 덤불속에서 나왔다.
《은영씨, 고맙습니다.》
《림호씨, 정말 오래간만…》 은영은 입을 벌리며 호흡이 절박해진듯 다급히 공기를 빨아들였다. 《어마나! 피가… 어찌다 이렇게?》
그의 바지무릎이 찢겨지고 피가 말라붙은것이 보였다. 아마 달리는 렬차에서 뛰여내릴 때 심하게 다친것 같았다.
《괜찮습니다.》 림호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런데 은영씬 나를 마중하기 위해 나왔지요? 말해주십시오. 혹시 우연히 여기

나와있은건 아니겠지요?》
은영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어요.》
둔덕아래에서 한광수가 학생들을 먼저 떠나보내는것이 보였다. 그는 가지 않았다. 두사람이 서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오는데 그의 손엔 대두병이 쥐여있었다. 경찰들에게 쥐여박히며 모욕을 받던 그였지만 벙글서 웃고있었다.
《은영선생, 조개구이를 하자고 나와서는 이 어진 총각을 개망나니로 몰아대다니요. 너무하군요. 에— 그런들 어찌겠어요. 조개구이 대신 이 술병이라도 건사해주어요. 쓸데가 있겠는데…》
그는 애써 림호쪽을 외면하며 다시금 소리없이 웃고나서 날렵한 동작으로 둔덕우로 뛰여올라갔다. 지꿎은 익살군으로만 알았던 한광수, 그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처럼 헌신적으로 나와주는것일가?… 이제 반세기이상이나 지난 뒤 그가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로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는것을, 그리하여 목메인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되리라는것을 그때 은영은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은영은 그가 넘겨준 술병을 기울여 으깨여진 림호의 무릎상처를 정히 씻어주었다.
《남은것은 마시세요.》
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였다.
《난 술을…》
《마시세요.》 은영은 고집했다. 《오늘은 내가 시키는대로 하세요. 그래야만 해요.》
바람이 불었다. 비구름이 어느새 하늘 전폭을 뒤덮고 땅을 짓눌렀다. 은영은 다리를 저는 림호를 부축하였다. 《일없어요. 날 안으세요. 그리고 누가 보거든 술취한 사람처럼 행세해야 해요.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비방울이 처지기 시작했다. 서둘러야 했다. 전차를 탈가, 아니면 역으로 가야 할가?… 아직은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것까지 림

호에게 묻고싶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는 모든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때문이였다.

《지리산유격대에》하고 림호가 한다리를 질질 끌며 힘들게 말했다. 《은영씨같이 곱게 생긴 녀성대장이 있습니다.》

《지리산유격대?》

《예, 지리산을 비롯한 여러곳들에서 유격대들이 조직되여 미국놈들을 반대하는 싸움을 시작했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고보십시오. 대구를 비롯한 경향각지에서도 이제 대중적인 항쟁이 시작됩니다. 조만간에!… 미국놈들이 이 땅을 강점하고 나라의 분렬을 꾀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오랜 세월 일본놈들때문에 나라를 빼기고 수모만을 받아온 우리 민족이 또 미국놈들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다니… 안되지요. 절대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목구멍에서 금시 고함소리가 터져나올듯 흥분에 들뜬것이 알렸다.

《참, 말이 빗나갔군요.》 그가 계속했다. 《지리산의 그 녀성유격대장 말입니다. 노래 또한 명창이여서 그녀를 볼 때마다 난 은영씨를 생각했군요.》

《어떤 나를요?》

《노래부르는 은영씨를.》

《어데서요?… 물론 부민관이나 우미관은 아닐테지요?》

《장소가 문제로 되는건 아니지요.》

《나도 알아요. 림호씨가 바라는건 그 녀성유격대장처럼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랠 부르는 은영이겠지요.》

림호는 놀라는듯 했다. 신음소리같이 흐느끼며 은영의 얼굴을 눈밝혀 들여다보았다.

《그새 은영씨도 무척 달라졌군요.》

《그게 나쁘세요?》

《아니, 기쁩니다. 이런 은영씨를 보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

그들은 단층집들이 빼곡이 들어찬 골목길을 걷고있었다. 여기서 마포역은 멀지 않다. 역에서도 단속이 심하겠지만 번화가에서보다는 나

을것이다. 점차 비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상한 거동을 보고 개들이 극성스럽게 짖어댔지만 개의치 않고 서로 껴안다싶이 하고 갔다. 비에 젖어도 좋았다. 어떤 즐거움이, 이름할수 없는 따사로움이 은영의 온몸을 덥혀주고있었다.

역에서는 마침 저녁통근차를 탈 사람들이 나들문으로 나가고있었다. 얼마전 일한이와 같이 타고가던 그 통근차였다. 은영은 서둘러 차표 두장을 사들고 나들문쪽을 살폈다. 아닐세라 수염난 남자역원뒤에 경찰이 지켜서서 눈앞을 지나는 남자들모두를 멈춰세우고 도끼눈으로 살피는것이 보였다. 그 경찰이 렬차에서 형사를 까고 뛰여내린 림호를 찾고있다는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아마 그자의 손엔 림호에 대한 용모파기를 적은 종이장이 쥐여져있을런지도 모른다.

은영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가 결연히 경찰에게로 다가갔다.

《이보세요, 절 좀 도와주시겠어요?》

경찰은 비에 젖은 은영의 얼굴을 무심히 보다가 태도를 달리했다.

《무슨 일입니까, 아가씨?》

《저기 고주망태가 된 우리 주인을 좀… 더는 끌고가지 못하겠어요.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졌지 뭐예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난 공무집행중이 돼놔서…》

《아이, 뭘 그러세요. 인젠 손님들도 다 지나갔는데.》 은영은 경찰의 손을 잡고 널바자쪽으로 끌었다. 《보세요, 이 지경이 됐지 뭐예요.》

그래도 경찰은 전지불로 림호의 얼굴을 살피는것을 잊지 않았다. 게슴츠레해진 림호가 한손으로 눈을 가리며 술병을 내밀었다.

《왜 그－래? 여기 수－술이 있잖아!》

《짜식!》 경찰이 역한 술내를 손으로 저으며 두덜거렸다. 《미인 아가씨한테 이따위 사내라니…》

《정말 미워죽겠어.》 은영이 재빨리 받았다. 《차라리 경찰서에나 끌고갔을걸.》

《아 아, 이런것들은 시끄러워요!》

경찰은 은영이를 도와 림호를 질질 끌며 나들문으로 나갔다. 벌써 통근차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벅적대며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정말 고마왔어요. 하마트면 차를 놓칠번 했어요.》

경찰은 은영이 깍듯이 머리숙여 인사하자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젓다가 불현듯 두눈을 좁혔다.

《아, 이제야 생각나는군. 틀림없이 어데선가 봤다 했더니…》

은영은 혀가 굳어져버렸다. 고주망태역을 하던 림호도 움쭉하며 굳어지는것이 알렸다. 경찰이 젖은 손을 바지가랭이에 비비적거리는것까지 숨죽여 지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포승줄이라도 꺼내는줄 알았던것이다.

《아가씨, 광고에 났지요?… 광고에요!》 경찰이 떠들었다. 《참, 그게 무슨 광고이던지?…》

비로소 새파랗게 질리던 은영의 입술이 가느다란 미소로 떨렸다.

《생각나세요? 그럼 됐어요. 한번 꼭 찾아오세요.》

《그럼 안녕히!》

그들은 경찰의 인사를 받으며 차에 올랐다. 비로소 숨이 나갔다. 잠시후 은영은 경찰에게 손을 흔들며 상긋 웃어보이기까지 하였다.

×

인천에 내렸을 때엔 비바람이 세찼다. 어느새 그들은 흠뻑 젖어버렸다. 행인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부두쪽에서 음산하게 철썩이는 파도소리만이 소란스러웠다. 온통 어둠이 뒤덮고있는 한산한 골목길을 두사람은 걷고있었다.

은영은 아버지와 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싶었지만 림호는 머리를 저었다. 그는 어느 점포의 문을 두드렸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소리없이 문이 열리고 주인이 머리를 내미는것이 보였다. 림호가 뭐라고 나직이 말하자 다시 문이 닫겼다. 은영은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안면있는 점포주인에게 잠시나마 쉬고가자고 부탁하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것 같다. 림호는 여전히 아무말없이 힘겹게 다리를 끌며 은영에게로 돌아섰다.

《조금만 더 갑시다.》

발밑에서는 진창이 저벅거렸다.

《지금 어데로 가고있어요, 우린요?》

은영의 물음에 림호는 가까스로 신음소리를 삼켰다.

《힘들지요? 마치 지옥으로 가는것 같지 않습니까?》
《지옥?…》 은영은 한숨을 내그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다던데요.》
《아니, 다 왔습니다.》
제발 빨리 끝났으면!… 더는 비내리는 진창길을 걷고싶지 않았다. 옷을 말리고 한잠 자고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림호를 끌다싶이 부축하다보니 인제는 걸음걸이도 비틀거릴 지경이였다. 밤새껏 걸은것만 같다.
림호는 골목길이 끝나는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 2층입니다.》
어둠속에서도 낡은 목조건물이라는것이 알렸다.
림호의 묻는듯 한 시선에 은영은 《좋아요.》하고 시진하게 말했다. 림호를 부축하여 2층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려관인가, 아니면 림호가 말하던 지옥의 호텔인가?… 그 어데건 상관할바가 아니다. 널마루가 삐걱거렸다. 림호가 열쇠로 문을 열 때에야 피끗 머리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전에 림호가 거처하던 집에 온것이다. 에그머니! 어쩌믄 우린 늘 이렇게 깊은 밤에만 만나야 하는걸가. 우리의 상봉은 늘 이렇게 비밀로 되여야만 하는것일가?… 비좁고 곰팡이내가 코를 찌르는 방이였다. 거기에 석유냄새까지 섞여 이마살을 찡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림호가 방등밑의 성냥을 그어 불을 켰다. 생각보다는 깨끗했다. 구석쪽에 낡은 군용모포가 개여져있고 앉은뱅이책상이 방가운데 있을뿐 반반했다. 앉은뱅이책상우에 두툼한 책들이 되는대로 놓여있어 그가 밤마다 여기서 글을 쓰고 공부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아마도 이 방은 림호의 아지트인듯 했다. 구석쪽에 세면기가 하나 있을뿐 독신자의 어수선한 생활에 붙어다녀야 할 그릇따위도 눈에 띄지 않았다.
림호가 젖은 웃옷을 벗어 벽에 박아놓은 못에 걸었다. 거기에는 림호의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있었다.
《은영씨도 벗으십시오.》하고 말하던 림호가 그만 굳어졌다. 《참 이걸 어쩐다?!》
은영의 치마자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있었다.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 처녀가 갈아입을 옷이 없는것이다.

림호가 벽에 걸린 옷가지들을 벗겼다. 그리고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것저것 살피며 망설이고있었다. 은영은 눈길을 돌렸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뻔하였다. 은영이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려 하나 적당한것이 없어 그럴것이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참을수없이 오한이 나고있다. 그런데도 림호는 계속 망설이고만 있다. 바보! 아무려면 뭐라나, 몸이 떨려서 죽을 지경인데!… 마침내 림호가 움켜쥐고있던 옷과 구석쪽의 세면기를 은영의 발앞에 놓았다.

《변변치 않지만 갈아입으십시오.》

림호는 상한 다리를 힘겹게 움직이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등불이 너울거렸다. 은영은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힘들게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데로 가는가. 멀찍이 달아나려는것인가?… 삐걱거리는 널마루의 신음소리, 마지못해 움직이는듯 한 발자국소리, 드디여 한숨 돌리느라고 멎어서는것 같았다. 그다음은 알수 없다. 옷을 짜는것인지…

비로소 은영은 웃옷을 벗어 림호의것과 나란히 못에 걸었다. 속옷은 눅눅했어도 갈아입지 않았다. 치마자락을 손으로 훑으며 허리를 굽히다가 그만 놀라운것을 발견했다. 앉은뱅이책상우에 책들과 함께 신문에서 오려낸 사진들이 끼워있었던것이다. 동그랗게 오려낸것이 있는가 하면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다. 모두가 은영이를 찍은 사진들이였다. 은영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여겨보았다. 이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였을가?… 림호의 눈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애써보았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든 사진은 어느것일가?… 모두가 노래를 부르는 은영의 모습들이다. 멀리서 찍은것도 있고 가까이에서 코구멍이 들여다보이게 밑에서 우로 올려찍은것도 있다. 이것일가. 이 사진이 제일 우에 있었으니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을가?…

그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저… 성냥을 두고 나와서…》

림호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성냥을 가지고나가 전번처럼 밖에서 담배와 함께 밤을 새우려는것인가?… 은영은 말없이 문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가만히 숨을 죽였다.

정적… 림호의 숨소리까지 가려들을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 무서워 들어오지 못하는걸가?… 문은 걸려있지 않다. 림호는 저절로

문을 열고 나갔지만 은영의 허락없이는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세요.》 은영은 조용히 웃었다. 아니, 웃으려 했다. 《난 모르겠어요, 어데다 두었는지…》
그래도 쭈밋거린다. 은영이 문을 활 열었다. 순간 밤바람이 휙 쓸어들며 등불을 꺼버렸다.
《어마나!…》 은영이의 가벼운 부르짖음, 림호가 눈먼 사람처럼 사방을 더듬으며 들어와 어둠속에서 꾸무적거린다.
《익크!》 이번엔 림호의 억눌린 목소리, 등잔을 엎지른것 같다. 석유냄새가 코를 찌른다. 《제길, 이게 어디 숨어있는지…》
림호의 목소리같지 않다. 늙은이의 목소리이다. 사람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그처럼 변할수도 있는가?… 마침내 성냥을 찾아쥔 그가 불을 켜려고 했다. 은영이 또 가늘게 부르짖었다.
《가만, 켜지 마세요! 그러다 불이 당기면 어쩔려구.》
림호는 굳어졌다. 끈끈한 어둠이 그들을 휘감았다.
기괴한 정적… 둘 다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순간이 1년맞잡이로 길어보였다. 참다못해 림호가 또 움직이였다. 자칫하면 사방에 기름칠을 할수 있다.
《조심하세요.》 은영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쪽으로… 내 손을 잡고 이리 오세요.》
림호가 등잔을 엎지른 곳을 피해 넘어왔다. 조심하세요, 조심!… 그러나 비좁은 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조심하는것으로 된단 말인가?… 인제는 더 물러날데도 없다. 두사람은 손을 맞잡은채로 마주 서있었다. 림호가 그 손을 놓아주지 않고있다. 꼭 잡아쥐고 장승처럼 버티고있다. 풀무처럼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폭풍쳐왔다. 은영은 누군가 목을 조여대는것처럼 허덕이였다. 무엇인가 상상할수없이 무서운것이 오고있었다. 크고 격하고 엄청난것이 급작스레, 소리없이 들이닥치고있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것만 같았다. 그러나 몸은 이미 얼어붙어있었다. 높아가는 숨결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사랑에도 용기는 필요하다.
《은영씨.》 림호가 갈린 소리를 짜냈다. 《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영씨,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은영은 허덕이다못해 그냥 노그라지고 꺼져버리는것을 느꼈다.
《아! 림호씨, 난…》 불같은 속삭임에 목이 메였다. 《난 정말 뭐라구 해야 할지…》
《말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 난…》 은영은 숨이 막혀 죽을것만 같았다. 《난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난…》
《자 어서, 은영씨!》
림호가 그의 어깨를 그러쥐며 속삭이더니 별안간 경련이 이는듯 손바닥을 오그리였다.
《아니, 이거?… 아직도 젖은 옷을 입고있군요. 그러다 감기에라도 걸리면 어쩔려구…》
은영은 사시나무떨듯 하고있었다.
《어쩌믄 조—좋을가요?…》
은영은 자기의 목소리조차 가려듣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터친 가는 속삭임이였는지도 모른다.
《뭘 말입니까?》 림호의 물음.
《이 옷을…》
무서운 흐느낌소리… 림호도 떨고있었다. 말도 못하고 온몸을 부르르 떨기만 했다. 정녕 사랑을 나누는 속삭임이야말로 얼마나 단순한것일가. 이들이 나눈 말마디들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유치한 말들로 여겨질것이다.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련인들이 말로써 다 하지 못하는것을 불같은 입김이 전해주고있지 않는가!… 하여 먼저 림호가 속삭이였다.
《안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인두같이 달아오른 림호의 손이 더듬더듬 움직이고있다. 은영의 어깨에, 목에, 가슴에 와닿는 그 손은 활활 타는 불덩어리 그대로였다. 누가 먼저 신음했는지 알지 못했다. 림호가 그랬는지 은영이 그랬는지… 신음하고 흐느끼며 은영은 몸부림쳤다. 그를 떠밀치고 뿌리치는가 하면 더욱더 힘껏 매달리고 끄당기며 모지름썼다. 모든것이 활활 불타고있었다.
부두쪽에서 긴 배고동소리가 울려왔다. 어느 먼바다에로의 항행을 알리는 소리일가. 웅글고 깊고 후더운 소리, 이제 한척의 배가 파

도를 헤가르며 대양을 넘어갈것이다. 은영이 타고있는 한척의 배도 사랑의 바다에 출발을 고하였다. 멀고먼 항로를 가야만 하는 배… 어데까지 가야 하는지는 알수가 없다. 그러나 가고 또 갈것이다. 그 길에서 사나운 파도가 길길이 날뛰며 배전을 들부신다 해도 언제든 바다를 탓하진 않으리라. 바다는 한시도 잠들줄 모르기에!…

5

현순아, 내 언젠가 노래에는 색이 없다고 말한적이 있지?… 차츰 알게 되였지만 노래도 역시 붉은색과 하늘색 그리고 요염하고 유혹적인 황색 또한 어둡고 침침한 색으로 갈라볼수 있는거야. 노래란 결국 소리로만 울리는게 아니더구나. 음색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소리의 색갈을 두고 하는 말이고 내가 말하는건 사람들이 듣고 감수하는 감정의 색조라고 할가… 그래서 어떤 노래는 사람들에게 힘과 랑만을 주지만 어떤 노래는 애수와 절망의 눈물을 안겨주지. 나는 뒤늦게야 그걸 깨닫고 좌익계의 예술단체들에서 주최하는 무대에만 나섰단다. 미국놈들과 나라를 분렬시키려고 꾀하는 매국노들을 반대하여 일떠서도록 사람들을 고무하고 추동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려고 말이지. 바로 아버지와 림호씨 그리고 일한이와 차한이 두 동생들이… 아니 아니,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구나. 바로 현순이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 삼촌들이라구 해야 하는걸. 그들이 박수갈채와 꽃다발에 눈이 멀어있던 나를 의로운 그 길로 이끌어주었던거야.

현순아, 그때 내가 《카르멘》이요 《뜨라비아따》요 하는 가극무대를 떠나 처음 출연한것이 바로 좌익에서 조직한 《춘향전》이였어. 물론 후에는 적극적인 무대물들을 내놓았지만 처음엔 《춘향전》으로 시작했던거야. 민족의 얼을 살린다고 시작했는데 아직 그밖엔 무대에 내놓을 작품이 없으니 그것만도 다행한 일이라고 봐야지. 내가 주인공을 하고 리도령역은 강상일, 변학도역은 너도 잘 아는 고종우 그분이 맡았는데 그것때문에 좀 난처한 일이 생겼단다. 고종우란 사람을

어떻게 믿을수 있는가 하고 극성스레 반대해나서는 사람이 있었던거야. 그게 바로 좌익계의 음악가동맹(우익에서도 그런 조직을 무었길래 갈라서 부르군 했단다.) 부위원장을 하던 오학성이라는 사람이였지. 칼날같은 사람이였단다. 강마른 몸에 턱이 뾰족하구 눈이 작은 사람이였는데 좀 비뚤어진 성미라 할가, 편협하다구 할가… 한때 지휘봉도 들긴 했지만 그 성격엔 음악지휘가 잘 어울리지 않는것 같더구나. 너도 잘 알겠지만 지휘란 팔을 흔들며 박자나 쳐주는게 아니지 않니. 종이에 그려진 악보를 그대로 옮기는것도 아니야. 오선지에 그려져있는 하나의 악보를 놓고도 자기 식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게 바로 지휘인데 오학성이란 그 사람은 차라리 연설을 하고 시위대렬의 앞장에서 구호를 웨치는게 더 좋았을거라구 난 생각하군 했어. 그가 고종우동무를 왜 그리 미워했는지 그때 나는 다 알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된것은 퍼그나 오랜 세월이 흘러간 다음이였지만 그때 고종우가 《춘향전》의 변학도역을 맡아하는것까지 반대해나서니 나도 그가 바로 보이지 않더구나. 다른 사람들도 머리를 기웃거렸구… 그렇지만 처음에는 나도 그를 대단히 고맙게 여긴 일이 있었어. 차한이가 부탁한 한정애란 처녀를 바로 그 사람이 극장에 넣도록 힘써주었으니까.

참, 얼마전까지 인민배우가 되여 이름을 날리던 한정애도 인젠 늙었더구나. 무정세월이라더니… 한정애는 지금도 나를 만나면 지난날을 회상하며 눈물짓군 한단다.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어. 언제든 잊지 못할 가슴아픈 눈물의 사연말이지… 가만, 이야기가 빗나가누나.

그때 오학성이라는 사람이 피대를 돋구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

《고종우씨는 믿을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 조직에 박힌 스파이인지 어떻게 안단 말이요. 기업가인 아버지를 등대고 떵떵거리며 살 사람이 아닌가 말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란 사람이 미국놈들의 턱밑에 붙어서 군수품조달을 맡고있는거야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좀 야박스레 꼬집는다 하겠지만 고종우씨한테 붙어다니는 수미씨는… 사실 수미씨는 고종우씨와 정식 혼약도 없으면서

그 사람의 정부처럼 붙어있는데 그건 그렇다치구 그녀가 지금 김해송의 KPK악단에서 매일같이 미국놈들의 털난 귀구멍에 간지러운 소개문따위나 불어넣어주며 해죽거리고있으니… 참을수 있는가 말이요?… 그런 박수미와 한짝인 고종우씨를 난 절대 믿을수 없습니다. 분명코 그는 저쪽편이란 말이요!》

그는(오학성이란 사람말이다.) 참 별난 사람이였어. 자기는 보잘것없는 관현악단이 아니라 세상을 지휘하고싶다고 말하군 했는데 롱으로 하는 말은 아니였던것 같애. 그의 본심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을 지휘하고싶었던게야. 사람들을 다스리는데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은 한때 일본에서 고학을 하고 서울과 동북지방에도 떠돌아다녔다는데, 흥!… 제가 뭐 유명한 혁명가나 되는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꼬집군 했지.

난 고종우란 사람을 끝까지 두둔했어. 그는 좋은 사람이였다. 그때도 그랬구 그후에도 늘 점잖구 의젓했어. 진짜 예술가였지. 음악을 사랑하구 생활을 사랑하구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실했어. 그래서 나만 아니라 우리 좌익계음악가동맹위원장인 리근우와 작곡가 안기영(그분은 그후 인차 북에 들어왔단다.) 그리구 강상일동무랑 다 그를 좋은 사람이라구 우겼던거야. 우리가 뭐 지하투쟁을 하는가, 노래로 사람들을 고무하고 깨우치는데 기업가인 아버지면 어떻구 수미는 또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고 몰아주었지. 그리고 난 수미씨도 우리 좌익계로 돌려세울수 있다고 장담했어. 이를 갈며 일본놈들을 미워하던 수미씨가 지금 미국놈들의 본심을 몰라서 김해송파에 붙어있는거라구 생각했던거야.

그리구 또 중요한건 고종우만 한 바리톤가수를 어데 가서 구한단 말인가. 그가 좌익계로 찾아온 이상 뭣때문에 쫓아버려야 한단 말이냐.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정치적식견이 아직 소학생정도밖에 안되였단다. 그래서 좌와 우가 피를 물고 싸우던 그때 고종우씨가 왜 우리쪽에 기울어졌는지 알지 못하구있었어, 알려구도 안했구…

남조선에서 10월인민항쟁이 터지던 때였단다. 림호씨가 아니, 너의 아버지가 말하던 그런 투쟁이 대구를 비롯한 경향각지에서 일어났던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단다. 서울에서도

매일같이 무서운 소문들이 돌아가군 했어. 누가 암살되고 누가 폭탄을 던졌다느니, 누가 또 미국놈들의 총에 맞았다느니 하면서… 정말 무서운 때였구나. 그런데도 난 여전히 제일에만 바쁘군 했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공연을 하고 공연비를 제때에 주지 않는다고 경영주를 찾아가 다투고… 그러는새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왔구나, 평생 잊을수 없는 무서운 겨울이…

6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솜털같이 흰 눈송이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내렸다.

은영은 급히 교재들을 챙기고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는 교무주임에게로 다가갔다. 교무주임이 머리를 들고 안경을 벗으며 놀란듯 말했다.

《아 은영선생,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까?》

《저… 지금 가려구 합니다.》

《어서 가보시오, 어서!》

한성중학교에서 단 하나뿐인 녀교원이고 유명짜한 배우여서 교직원들모두가 은영이를 자랑으로 삼았다. 무엇이든 도우려 애썼고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극장으로, 초대받은 모임장소로 등을 떠밀어보내는 것이였다. 하여 교무주임은 은영이가 어데로 가려 하는가고 묻지도 않았다.

은영이 복도로 나서는데 마주오던 력사교원 한광수가 우습강스럽게 입을 딱 벌리며 멎어섰다.

《아 춘향아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뭘 말예요?》

《아 글쎄 오늘은 더 예뻐졌으니 말입니다. 혹시 리도령역을 하는 사람과 진짜 백년가약을 맺으러 가는건 아닌가요?》

유쾌한 익살군 한광수는 한시도 롱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것 같

다. 은영은 웃으며 가만히 속삭이듯 말했다.

《혼자만 알고계셔요.》

《아니, 그럼 난 어쩌라는겁니까? 이 늙은 총각 한광수는?》

《걱정마세요, 이제 향단이를 붙여줄테니.》

《아, 향단이야 방자 그녀석이 벌써 눈독을 들이고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혼맹이 나게 떼여버린다니까요.》

은영은 이미 현관문으로 걸어가고있었다. 얼마전 자기와 림호를 말없이 도와준 그를 남달리 생각하고 고맙게 그리고 매우 놀랍게 여겼지만 오늘은 그의 재담도 들어줄새가 없다. 그가 입을 벌린채로 굳어져버린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리없이 웃으며 곧추 걷기만 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무수한 눈송이들이 새까만 외투를 입고 하얀 목도리를 두른 처녀의 머리우에 쏟아져내렸다. 가지마다 함뿍 눈을 들쓰고있는 비슬나무우듬지에서 까치가 깍깍거렸다. 푸시시 흩어져내리는 눈가루, 벌써 발목까지 눈에 잠긴다. 머리우에, 어깨우에 내려앉으며 끊임없이 소곤거리는 눈송이들, 발밑의 폭신한 느낌… 좋은 날이다. 며칠째 지독한 추위가 살을 에이더니 별안간 날이 풀리고 눈이 내리는것이다. 대자연이 오늘 기쁜 날을 맞는 은영이를 위해 미리 준비하였던 선물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있는것은 아닌지?…

한달전 동생들인 일한이와 차한이가 인천부두로동자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은영의 노래를 들으러 왔었다. 아버지가 약속대로 그들을 보낸것이다. 낯익은 사람도 있었다. 은영이를 보고 혀를 차며 《선녀갈고마!》하고 부르짖던 그 사람이였다. 공연이 끝나자 그들은 은영이의 목소리가 꾀꼴새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은영은 그들이 무엇인가 아쉬워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 까닭을 뒤에 남았던 일한이가 암시해주었다.

《누님, 내가 좋은 노래악보를 가져왔어요. 때가 되면 우리 로동자들한테 불러줘요. 우리 로동자들은 이런 노래를 제일 좋아하거던.》

그것은 《산업건국의 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 《밭갈이노래》 등의 악보들이였다. 북반부에서 불리우는 노래라고 했다. 하여 은영은 그 악보들을 정신없이 들여다보았다. 모두가 밝고 씩씩하고 아

름답고 유순한 랑만에 넘친 노래들이였다.

노래는 그 시대의 사상감정을, 인민의 감정과 지향을 담는다. 하기에 시대와 인민의 처지에 따라 노래가 달라지군 한다. 은영은 그 몇편의 노래만 보아도 북반부의 밝은 현실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는것이였다. 작곡가들의 이름도 낯익고 정다왔다. 리면상선생, 은영은 그를 직접 만나본 일이 없지만 해방전 《빅타》, 《콜럼비아》, 《프리톨》 레코드사에서 취입한 그의 노래들을 통하여 그를 잘 알고있었다. 한때엔 서글픈 색조가 진하던 그의 노래들이 지금은 이렇듯 희열과 랑만에 넘쳐있는것이다.

누이의 얼굴을 엿보던 일한이가 조용히 공화국북반부의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희망의 등대를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치를 펴시는 북반부사회라고 하는데 어느새 일한은 림호와 같이 틀지고 의미깊게 말하는 젊은이로 숙성해있었다. 어깨가 넓어지고 울대뼈가 툭 불거졌는데 적동색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떠오를 때면 옛시절의 아버지 그대로였다. 목소리는 바리톤가수 고종우와 비슷하였다. 웅글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 진정 동생들도 천성적으로 훌륭한 성대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일한이도 차한이도 부두에서 짐군노릇을 한다. 아버지와 같이 밤낮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성악가수같은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그 모든 꿈을 누이가 다 떠안고 성공하기를 바라고있을뿐이다. 그날 은영은 마지막통근차가 떠날 때까지 동생들과 같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일한이는 자꾸만 북의 사회제도에 대하여, 그에 대조되는 남쪽의 정치풍토로 화제를 끌었다. 려운형선생에 대한 우익반동들의 암살사건과 유엔에 조선문제가 상정된 이후의 복잡한 정세… 이남 전지역에서 타오르고있는 항쟁의 불길… 동생의 말을 들으며 은영은 야릇한 불안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림호를 만날 때마다 느끼군 하던 불안과 공포를 다시금 느끼는것이였다.

《쉬— 누가 들을라.》하고 은영은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일한아, 난 너희들 일이 겁나는구나. 그러다가 혹시…》

일한이는 어른스럽게 빙그레 웃었고 둘째동생 차한이는 누나의 기분을 눅쳐주려고 우스개소리를 하였다.

《누나, 나 빨리 장가들구파.》
《뭐, 벌써?》
《흥, 지금 내가 몇살인지 알아?》
《아니, 너 형도 있는데 벌써부터…》
《그러니 야단아니가!》 차한이가 야살스럽게 소리쳤다. 《누나두 안 가, 형두 안 가, 그럼 난 언제 간다는거야?》
그리하여 은영은 일한이와 함께 소리내여 웃고말았다.
《알만 해. 한정애가 자꾸 꼬드기는 모양이구나.》
차한이가 황급히 중얼거렸다.
《난 요새 정애씨를 만나본적이 없는데 뭐. 누나한테 맡기지 않았어?》
《나한테 맡겼다구?》
《됐어요.》 차한이는 히물거렸다. 《그건 그렇구… 어제 아버지가 뭐랬는지 알아? 당장 누나의 머릴 얹어주겠대. 아는 사람들한텐 정식부부라고 선포했어두 결혼식이야 못했지? 아버진 그게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
은영은 말없이 머리를 수그렸다. 림호가 변성명하고 지하공작을 하는 형편에서 결혼식은 미국놈들을 내쫓은 다음에 해도 된다고 우기고 있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른것 같다.
《그냥 그대론 지날수 없다는거야.》하고 차한은 계속했다. 《림호형한테 말하는걸 들었어. 세상에 내놓구 요란스럽게 식을 하진 못하지만 우리들끼리 간단히 모여앉자구 말이야. 어때 누나, 누나한텐 제일 반가운 소식이지?》
《아이, 이 애가 참?!…》
발차를 알리는 기적소리가 울렸다. 동생들이 급히 차에 올랐다.
《누님, 잘 있어요!》 일한이가 소리쳤다.
《누나, 좋은 꿈만 꿔!》 차한이도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리하여 그날이 왔다. 아버지가 《간단히 모여앉자.》고 은영이를 부른것이다. 전날 은영이 비를 맞으며 들렸던 림호의 그 2층방에서 소박한 식이 있게 된다고, 가족들도 다 참가하지 못하는 비밀의식을 섭섭해하지 말라고 림호는 말했다. 이제 곧 좋은 날이 온다고, 그날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우리들이니 리해하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

에 무엇을 리해하고 말것이 있단 말인가. 또 무엇을 더 바랄게 있단 말인가! 멀고먼 사랑의 바다길에 오른 한척의 배가 목적한 항로를 끝까지 가기만 한다면야!…

눈발이 굵어졌다. 하염없이 퍼붓고있다. 모든것이 사르륵거리는 눈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건물도 사람들도 달리는 차들도 눈의 세계, 꿈의 세계로 잠겨드는듯 했다. 그 미지의 세계에서 은영은 노래부를것이다. 림호와 같이 둘이서 약속해둔 노래, 남반부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그 노래를 부를것이다.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이 노래를 고르며 림호는 말했다.
《나는 파도, 은영씨 당신은 파도우에 나는 갈매기!…》

흰 물새 훨훨 파도우에 넘나들고
아득한 수평선엔 흰 돛이 아름다운
저기 저 바다로 우리 가자

아득한 수평선은 바로 희망의 기슭이라고 림호는 말했다. 희망의 기슭, 흰 돛이 아름다운 바다!… 그들은 이렇게 소박한, 진실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할것이다.

어느덧 외투자락이 길우에 쌓인 눈우를 스친다. 그래도 눈발은 그치지 않는다. 따스한 눈, 축복의 눈. 은영은 걸음을 빨리하였다. 역쪽에서 새된 기적소리가 처녀를 소리쳐부르고있었다.

인천역에 내렸을 때엔 어스름이 깃들고있었다. 은영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중나온 사람이 있을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야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 세찬 눈발때문에 바다도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역구내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2층집에서 기다리고있을지도 모른다. 은영은 그들, 아버지와 림호가 경찰들의 감시속에 있는 역에까지 나오기 힘들것이라는 생

각을 하였다. 그리고 은영이야 그렇게 멀리서 오는 신부도 아니지 않는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부두에로 가는 길을 애써 기억에서 더듬으며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정신없이 달려오는 사람을 보았다. 차한이였다. 금시 앞으로, 눈속에 구겨박힐것처럼 어푸러지듯 달려오고있다.

《누나!—》

은영이 기뻐서 마주 달려갔다.

《차한아!》

《누나!—》

별안간 은영은 멎어섰다.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온 차한의 얼굴이 온통 눈물에 젖어있는것을 본것이다. 무엇인가 불꼬치처럼 심장을 뜨끔하니 찌르는것이 있었다.

《차한아.》 대번에 목이 꽉 메였다. 은영은 가까스로 숨을 돌렸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누나, 아버지랑 형이랑… 림호형두…》

《뭐라구, 아버지랑 다 어쨌다구?》

《놈들이 끌어갔어요.》

《뭐?…》

사위가 흐릿해졌다. 아니, 이 애가 무슨 소릴?… 놈들이 왜 그들을 끌어간단 말인가?… 동생을 붙안고 눈물에 젖은 두눈을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다시 말해봐. 이자 뭐라구 했지?》

《누나, 이 일을 어쩌믄 좋아요, 응?!》

차한이가 몸부림치는것을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다. 끌어간다?… 왜놈들도 끌어가더니… 순간 모든것이 갑자기 리해되는듯싶었다. 거리의 담벽과 전주대마다에 나붙었던 미군정의 포고와 림호, 일한이가 줄곧 강조하던 미국놈들에 대한 말이 떠올랐다. 차한이를 흔들어대며 몇번이고 숨차게 물었다. 그제서야 경찰놈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몽둥이로 후려치고 수갑을 채운 다음 차에 실어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누군가 갑자기 은영의 머리를 호되게 후려친듯 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퍼붓는 눈발이 뱅글거리며 곤두박질을 했다.

딛고선 땅이 거꾸로 돌았다.

《누나—》 차한이가 붙들며 소리쳐 울었다. 《누나!— 이 일을 어쩌믄 좋아요, 예?!》

다음순간 은영은 차한이 오던 길로 달려갔다. 무엇때문에 어데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다. 미친 녀자처럼 소리도 안나는 웨침에 목을 비틀고 팔을 내저으며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에 어푸러지기도 하면서 줄곧 허우적거렸다. 일한아, 아버지, 림호씨!… 이게 정말이란 말예요? 예?!…

차한이도 뒤따르며 《누나, 누나!—》하고 목터지게 부르짖었다.

드디여 잊을수 없는 그 2층집에 이르렀다. 낡은 목조건물이였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렸다. 그들속을 헤집고 계단의 널마루를 쾅쾅 밟고 올랐다. 전날의 그 방이였다. 문은 열려진채로 있고 방안엔 낡은 옷가지들과 책들이 널려져있었다. 군화발자국들이 책뚜껑에, 낡은 신문들에도 어지럽게 찍혀져있다. 그중엔 가위로 정히 오려낸 은영의 사진도 있었다.

은영은 눈과 흙으로 짓이겨진 그 사진을 들어 팔소매로 닦았다. 림호가 날마다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을 은영이의 사진… 그리고 이것은 일한이 쓰고다니던 허름한 모자, 저것은 아버지의 물주리, 상을 차리던 사기그릇과 병들이 깨여져 딩굴고 벽지까지도 찢어져있다.

비로소 두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두팔을 벌려 방바닥에 널린것들을 끌어안으며 몸부림쳐 울기 시작했다. 바다가 통채로 들리는듯 했다. 거센 파도가 배전을 들부시며 아우성친다. 저기 저 바다, 아득한 수평선 흰 돛이 아름다운 바다는 어데로 갔는가?!

계단의 널마루가 삐걱거렸다. 2층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방안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다. 로동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로동자들이 울고있는 차한이를 붙안고 은영이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러나 은영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누군가 말없이 잡아일으킬 때까지 그냥 방바닥만 허비고있었다. …

7

나라의 정치정세가 극저온상태에 이르던 시절이였다. 중국대륙에서 내전이 폭발하고 1947년 3월 12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미국회에서 《트루맨독트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대쏘봉쇄정책을 선언한 그때부터 랭전의 빙하가 세계를 휩쓸고 조선반도의 정치정세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피비린 암투와 암살,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 저항하는 인민들에 대한 대중적학살만행. 드디여 남반부의 전지역에서 미군철수와 리승만의 매국행위를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이 벌어졌다. 따라서 애국과 매국간의 싸움도 절정에 이르렀다. 적들의 류혈적인 학살만행이 거듭될수록 인민의 분노도 화산같이 터져올라 제주도 4.3봉기, 려수군인폭동, 대구인민항쟁이 련이어 폭발하고 지리산, 태백산인민유격대들이 산발을 넘나들며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이러한 투쟁의 불길속에 은영의 아버지와 두 남동생도 뛰여들어 싸웠던것이다.

체포된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림호는 어디에 끌려갔는지 종적조차 알수 없었다. 오히려 경찰은 은영이를 호출하여 둘째동생 차한이가 어데로 도망쳤는지 대라고 닥달질이였다. 체포를 면한 차한이가 어데론가 사라져버린것이였다. 은영이조차 알지 못하는것을 대라고 강박을 하던 경찰들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뜻을 달리한다는 개인성명을 내라고, 그러지 않으면 감옥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을러메였다. 좌익계의 음악가동맹 일군들과 예술인들, 은영이를 사랑한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신문에서 떠들어서야 마지못해 경찰서의 철문을 열어주었다.

은영이를 하숙집에까지 데려다준것은 고종우였다. 전차를 타고 갈 때부터 덕수궁의 울담을 따라 걸을 때까지 노상 부축해주었다. 그

의 얼굴은 얻어맞은것처럼 퍼리끄레했다. 은영이가 몇번이고 혼자 갈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보라 했지만 끝까지 함께 걸었다. 함께 걸으며 은영이 겪은 일의 전말을 귀담아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가 우들우들 몸을 떨며 하는 말이였다. 《참, 기막힌 일두… 아버지와 동생, 약혼자까지 끌어가고도 모자라 은영씨까지 고문하면서 개인성명을 내라고 강요했으니… 왜놈들과 다른게 무업니까. 정말 해방이 된 오늘에도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은영은 허덕이였다. 《그놈들이 이제 아버지랑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해도…》

《너무 걱정마십시오. 일본놈들의 법에도 살인이 아니면 사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놈들보다 더한 놈들이예요. 그걸 이제야, 이처럼 뒤늦게야 알게 된게… 분하기 그지없군요.》

고종우는 은영의 약혼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묻지 않았다. 그처럼 진실하고 사심없는 사람이여서 은영은 하숙집뜨락에 이르기까지 그의 부축을 받았다.

그런데 하숙집에서는 또 다른 굴욕이 은영이를 기다리고있었다. 전라도출신 과부댁이 은영이와 고종우를 사무럽게 흘겨보더니 한바탕 야살을 쏘아댄것이였다.

《아이고메! 저것 좀 보겨. 싹수머리없이 외간남잘 또 끌어들이믄서 저 지랄이여, 지랄이!… 내 저 더러운 꼴 워찌 보구만 있을랑가? 칵 문드러지여!… 그리 잘방지게 놀다간 염병헌다, 이 가시내!》

쓰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격이였다. 은영은 억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을번 했다. 고종우가 제때에 부축하여 대문밖으로 끌어내였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리 될줄 모르구 그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어머닌 좋은분입니다.》

《아니, 그래선 안되지요.》 은영이 휘청거리며 중얼거렸다. 《날 극장까지만… 데려다주세요.》

다시 전차를 타고 우미관까지 가야만 했다. 은영은 더 이상 걸을 힘도, 말할 기운도 없었다.

《어쩌믄 좋아요. 난?… 정말이지 막 죽고싶어.》
고종우가 거의 껴안다싶이 했다.
《용기를 내시오. 마음까지 꺼지면 안됩니다.》
《필요없어요, 다!…》
살고싶지 않았다. 모든것이 귀찮고 허무하게만 여겨졌다. 고종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도중에 쓰러져버리고말았을것이다.
극장에서는 은영이의 불행에 대하여 알고있었으므로 군말없이 그 녀자가 쓰던 분장실을 열어주었다.
《인젠 됐어요. 종우씨, 고마워요.》
힘들게 말하고나서 은영은 쓰러졌다. 고종우가 극장수위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소리도 겨우 가려들었다. 물속에 잠겨드는듯 했다. 극심한 정신육체적타격에 노그라져버리고말았다. 다시 고종우가 은영이를 걸상에까지 끌어다주었다.
《빨리 물을 좀!》
고종우가 뒤쪽에 대고 소리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은영이를 안은채 그만 굳어져버렸다.
《흥, 이럴줄 알았어, 알았다니까!》
가늘고도 새된 소리였다. 누가 누구를 두고 쏘아붙이는 소리인지 은영은 알지 못했다. 그때 은영은 자기의 머리가 걸상뒤쪽으로 번져지는것만을 가까스로 의식했을뿐이였다.
《둘이서 이따위짓을 하자구 날 빼돌렸군요?》
《수미! 비렬하게 그러지 마오, 알지도 못하면서…》
고종우의 목소리가 먼산의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내가 모른다구? 이렇게 편히 눈을 뜨고 보는데도 모른다구요?》
《수미!》
《그럼 알아두세요. 난… 이런 녀자예요. 보세요!》
째는듯 한 목소리가 《보세요!》하고 소리친것과 동시에 차디찬 얼음물이 은영의 얼굴에 들부어졌다.
《여기 물을 가져왔어요. 은영씨, 어디 실컷 마셔봐요. 자, 물은 얼마든지 있으니 또 받아요!》
두번째 물벼락에 흐려지던 의식이 되살아났다.

《이건 무슨 추태요, 응?》 고종우의 분노에 찬 목소리.
《난 은영씨와 인연이 깊어요.》
되바라진 녀자의 목소리.
《은영씨가 바라는건 다 해줄테야!》
비로소 은영은 몽롱해진 의식속에서도 그것이 수미의 가시돋친 목소리라는것을 알았다.
수미가 야멸차게 계속했다.
《은영씰 정신들게 할테야, 정신이 들게!》
《미치지 않았소?》
《그래요. 난 미쳤어요. 미친 녀자!》
《나가오. 썩 나가지 못하겠소?》
《아니, 정신들게 할테야. 남의 약혼자를 홀려내는 나의 다정한 벗 은영씨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구야말겠어요!》
고종우가 악을 쓰는 수미를 끌어내는것 같았다.
《너절하오, 너절하고 비렬하고…》
《너절한건 누군데 날더러 소리치는거예요. 제 약혼녀를 버리고 여기서 무슨짓을 했는지 어디 말해봐요.》
《나가라, 어서 나가!》
《못 나간다. 이걸 놓지 못하겠어?!》
고종우, 박수미… 그들이 약혼을 했다고?!… 은영은 혼미해진 머리속에 기억을 더듬었다. 언젠가 고종우가 자기에게 수미씨가 무슨 주사를 맞는지 모르는가, 무슨 병이 있는가, 은영씨야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고 묻던 일을… 그때 은영은 모른다고 딱 잡아떼였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실은 근래에 와서 수미가 다량의 수면제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무턱대고 모른다고만 했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약혼하리라는것을 알았어도 그렇게 말했을가?… 그랬을것이다. 한 녀자로서 가까운 녀동무의 비밀을 들추어내는것처럼 비렬하고 추한 일은 없기때문이다. 마음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활에는 가끔 있는것이다. 그런데… 은영은 뒤로 젖혀진 머리를 들고 눈앞에서 언듯거리는 수미를 스쳐보며 힘들게 속삭이였다.
《종우씨.》

약한 목소리였지만 서로 힘내기를 하던 두사람, 고종우와 수미가 동시에 머리를 돌렸다.

《종우씨, 난 수미씨를…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 알아요. 그를 리해해주셔요.》

《아!―》 수미가 울부짖는 소리였다. 《이 더러운 위선자, 남의 약혼자를 가로채고도 그런 고운 목소리를 내다니… 아― 정녕 나를 미치게 할 작정이구나!―》

고종우가 사납게 달려들어 힘내기로 그 녀자를 끌어내갔다. 물을 떠가지고 왔던 극장수위가 어쩔바를 몰라 부스대다가 황황히 뒤따라나갔다. 은영은 이 모든것이 악몽과 같이 여겨졌다. 밖에서 고종우가 성급하게 말하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아버지와 동생이 끌려가구 약혼자까지… 체포됐단 말이요. 그런데 당신은… 무슨 녀자가 그리도 모질구 악한가 말이요. 그래두 은영씬 당신에 대해서 늘 좋게만 말해왔는데 그게 뭐요. 수치요, 수치!… 난 정말 수미씨가 이런 녀자인줄 몰랐소!…》

《거짓말, 누가 끌려갔다구요. 체포됐다구?… 그런 얼림수로 날 속여보려 하지만 그렇게는 안될걸!… 난 증오해요. 당신이나 저 은영이도 다 죽여버릴테야!》

《추태를 부리지 마오!》

《다치지 말아요. 난 은영이와 할 말이 있어요. 둘이서 따로 계산할게 있단 말예요!》

《안돼!》

《비키지 못하겠어요?》

또다시 밀고닥치는것이 알렸다. 아, 수미! 수미가 원한을 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은영이였다. 련이어지는 무서운 정신적타격에 비틀거리는 몸으로 한 남자, 종우씨에게서 도움을 받았을뿐인데 그것도 죄로 되여야 한단 말인가?…

은영은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쪽으로 걸어가려 했으나 두어걸음만에 비틀거리며 무너지듯 주저앉고말았다. 문을 걸고싶었는데… 귀아프고 역겨운 그들의 비천한 언쟁에 진저리가 났다. 그러나 몸을 일으킬 힘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 하여 방바닥에 두팔을 벌리

고 엎드린채 주단을 허비며 몸부림쳤다. 수미를 저주하기에는 이미 입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도 크고 쓰라린것이였다. 모든것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사라져버렸다. 밤낮없이 꿈꾸던 풍부한 미래, 푸른 바다가 저 멀리 아득한 공간으로 사라져버렸다. 남은것은 공허와 오뇌뿐…

극장수위가 다시 들어왔다. 방바닥에 엎드려있는 그 녀자를 건드리며 나직이 물었다.

《은영씨, 의사선생을 불러드릴가요?》

은영은 손을 내뻗치며 가까스로 중얼거렸다.

《아니, 일없어요. 대신… 저 문이나 걸어주셔요.》

혼자 있고싶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기만을 바랐다. 밖에서 문이 걸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여전히 엎드려있었다. 낡은 주단에서 곰팡이냄새와 세월을 두고 잠겨든 먼지냄새가 매캐했다. 비로소 모진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둠과 추위, 병약한 아버지는 이 추위속에 어떻게 하고계실가.… 그들도 이밤을 견디기 어려우리라.…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수미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있다. 다행히 악을 쓰며 야료를 부리는 소리는 아니다.

《은영씨, 잠간만! 내가 모르고 그랬던거야. 제발 문을 열어줘. 응?!… 나 꼭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은영은 귀를 틀어막고말았다. 야료를 부리건, 잘못을 빌건 그러한 추태에는 넌덜머리가 난다. 지금은 그따위 푸념이나 들어줄 한쪼각 마음의 여유도 없다. 그렇게 죽은듯 쓰러져 고통속에 늘어져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별안간 은영은 이상한 아픔이 온몸과 넋을 옥죄이는것을 느꼈다. 수미가 들부어준 찬물이 온몸을 얼음덩이로 굳어지게 한것일가?… 목구멍이 조여들다못해 얼음쪼각처럼 부서져버리고마는것만 같다. 캄캄한 어둠과 추위, 은영은 리해할수가 없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어찌하여 소박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이 학대받고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에 대하여 몸부림치며 소리쳐 묻고싶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두손을 앞으로 내뻗치며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모로 쓰러져버렸다.

은영이 다시 의식을 차린것은 누군가 소리쳐부르며 자꾸만 흔들어대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다. 은영은 극장 분장실바닥에 홀로 쓰러져있었다. 누가 나를 건드린것일가. 누가 꼬집는것 같았는데?… 한밤중이였다. 혹시 샐녘이였는지도 모른다. 일어나고싶지 않았다. 그대로 영영 잠들어버리고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 또 은밀하게 깨우는것을 느꼈다. 조용히, 다정하게 그리고 살틀하게 꼬무작거리며 무엇인가를 속삭이고있었다. 부드럽고도 야릇하게 은영이를 건드리고 긁어대는 감촉… 그것은 새 생명이 몸안에서 어머니를 부르는것이였다. 그렇다. 이 세상 가장 정겹고 살틀한 부름이 그 미묘한 움직임으로, 나긋한 꼬드김으로 전해져오는것이였다.

은영은 놀랐다. 전류와도 같은 감각이 가슴을 스쳐갔다. 배속에서 태동하는 삶의 호흡에 숨길을 딱 멈추었다. 태아가 생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귀를 강구었다.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꼼지락거리는 감각에 크나큰 기대와 함께 야릇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대와 불안만도 아니였다. 별안간 온몸을 짜릿하게 하는 환희의 선률, 따스한 봄과 눈보라 사나운 겨울 그리고 공포… 모든것이 뒤죽박죽이였다. 죽은듯 가만히 누워 꼼짝하지 않았다. 새 생명이 자기를 일으키며 안타깝게 부르는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다. 삶이 그를 부르고 사랑이 그를 부르고있었다. 삶이란 곧 사랑이다. 하거늘 사랑이, 큰 사랑이 느즈러진 은영이를 잡아일으켜주는것이다.

예술가는 무엇보다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랑을 환희와 기쁨속에 노래하고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 다 불태우는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귀띔했던가. 아버지가? 림호씨가?… 드디여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도 이것을 바라고있을것이다. 림호씨도 일한이와 차한이도 은영이가 절망에 빠져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모진 아픔에, 슬픔에 견디지 못할것이다.

은영은 천천히 옷매무시를 바로하고나서 거울앞에 마주섰다. 어둠속이여서 거울에는 시꺼먼 형체가 어렴풋했다. 하지만 자기

의 두눈을 들여다보려고 애쓴다. 자기의 두눈에서 빛이 꺼지지 않았는지 망연히 들여다본다. 차츰 거울속의 은영이가 눈뜨는것이 알린다. 아! 이것이 바로 나 은영이다. 죽지 않은 은영이다. 이제 날이 밝으면, 새날, 새아침의 태양이 솟아오르면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떠설 은영이의 모습이다. 그러면 눈부신 해빛을 마주하고 변함없이, 더 힘차게 삶의 노래를 부를것이다. 슬픔과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태여나 다가올 벅찬 생활과 사랑의 노래를 목메여부르게 될것이다!…

그는 거울앞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8

불행은 겹으로 온다고 한다. …

그날 은영은 좌익계의 음악가동맹이 들어있는 서라벌인쇄소의 2층 사무실에서 로천음악회를 열기 위한 사업토의에 참가하고있었다. 위원장 리근우와 부위원장 오학성을 비롯한 작곡가, 배우들 여럿이 앉아있었다.

로천음악회장소로는 파고다공원을 택하기로 했다. 그것은 김해송을 비롯한 우익계의 예술인들이 기광이 나서 《미국해방자》들에 대하여 선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판을 크게 벌리자는것이였다. 최근 우익계의 예인들은 시내 곳곳에 다음과 같은 색정적인 음악회광고까지 내다붙이고있었다.

KPK악단의 새 공연소식!

리란영, 남인수를 비롯한 명가수들 미국식스윙뮤직(브루스풍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 〈천리춘색〉이라는 쇼(구경거리)를 국도극장에서 엽니다.

자극적인 음악과 더불어 고혹적인 육체미를 자랑하는 무희들도 나와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쓰다듬어줄 〈천리춘색〉!

공연날자 ○○○○
시간 ○○○○
어서 오세요. 많이많이 참석해주세요.》

이들의 퇴페적인 음악회에 대응하여 대중을 투쟁에로 부르며 고무하는 대규모의 음악회가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었다.

인기가수들의 선발과 종목들을 먼저 토론하였다. 탄불을 때는 난로를 가운데 놓고 눈을 쓰리게 하는 담배내에 취하며 론쟁도 했다. 출연배우들로는 김은영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가극들과 콘첼트무대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던 고종우, 강상일, 조련, 김천애 등을 선발하였다.

소개자문제를 남기고는 모든것이 합의되였다. 사실 음악회의 소개자는 특별한 몫을 가지고있다. 특히 정치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서는 매 종목들에서 가수와 관중의 호흡을 맞추어야 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운이 남도록 공연의 분위기를 끌고나가야 한다. 결국 음악회의 소개자는 아름다운 목소리는 물론 예민한 감수성, 관객모두를 틀어잡는 미모와 률동, 림기응변의 언변도 소유해야 하는것이다.

《자, 의견을 들어봅시다.》 리근우가 말했다.

《소개할 사람이야 많지요.》 강상일의 말이였다. 《누구를 고르는가 하는게 문제지.》

은영은 잠시 생각한 끝에 결심하고 머리를 들었다.

《제 생각엔…》 이렇게 말하며 오학성에게 눈길을 던졌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박수미가 좋을것 같은데요. 관중이 그 녀를 좋아하지요.》

놀란것은 오학성만이 아니였다. 고종우와 강상일을 비롯하여 몇사람이 입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먼저 오학성이 몸을 움쭉거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질렀다.

《안되오. 절대 안되오!》

이미 예견하고있던바여서 은영은 고종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린 그녀도 돌려세워야 하지 않을가요? 한사람이라도 우리 편에 돌려세우면 좋지요 뭐. 어떠세요, 고종우씨?》

고종우는 눈길을 떨구며 웅글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와 수미와의 관계를 알고있었으므로 의아해했다. 반대의사를 표하려 한것 갈던 강상일조차 눈을 슴벅거리며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은영은 고종우가 수미로 하여 심한 불편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직감하였다.
《수미씬》하고 은영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맘이 고운 녀자예요. 여기 계신분들이 다 잘 아시는바이지만 난 그녀가 해방전 모욕받구 버림받으면서 좀 이지러졌다고 봤어요. 하지만… 도와주지 못했어요. 언젠가 어떤 훌륭한분이… 우익에 가붙는 예인들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을 잘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와서 난… 그렇게 못한게 정말 후회됩니다. 그런데 수미씬… 아직 어느편도 아니예요. 한때 왜놈들이라면 이를 북북 갈던 그녀가 미국놈들에 대해선 호감을 가지고 〈신사〉들이라고 춰올리고있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차차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그 말이 옳소.》 리근우가 말하였다. 《김해송이나 리란영이도 왜놈들을 죽어라 미워했더랬지. 헌데 지금은 눈이 멀어있거던. 우리가 제때에 바로잡아줘야 하는건데…》
좌익계의 음악가동맹 위원장이고 관록있는 음악가의 한사람인 그의 말에 모두가 찬동의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오학성의 얼굴이 퍼르딩딩해졌다.
《인젠 박수미까지 끌어들인다? 인젠 미국놈들의 침방울이 떨어진 그녀의 어지러운 치마폭에까지 매달려야 한다는거요?》
격한 성미인 강상일이 벌떡 일어섰다.
《부위원장은 우릴 모욕하고있소!》
《뭐요?》
《우리가 로천음악회를 여는 목적이 뭐겠소. 한사람이라도 더 각성시켜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막는 투쟁에 나서게 하자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부위원장은 무턱대고…》
《난 조직의 순결성을 지키자는거야!》
오학성이 그의 말을 가로채며 소리쳤다. 가늘게 좁혀진 그의 두눈이 사납게 편뜩이였다.

《그래 당신들은 우리 음악가동맹을 어데로 끌고가자는건가?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다 모아들여서 무슨 장마당같은걸 만들자는건가 말이요. 안돼! 거지자루 크다구 자루대루 다 채워줄가?》

《뭐, 거지자루? 그래, 우리 동맹이 거지자루란 말이요?》

금시 발톱을 세운 고양이마냥 달려드는 두사람을 리근우가 막아섰다.

《좀 진정들 하시오. 이게 뭐요, 예?》

《아니, 난 참을수 없소.》 오학성이 열띤 소리로 부르짖었다.

《참을수 없단 말이요. 밤낮 쑤왈거리는 이 놀음, 귀가 아프오. 차라리 이따위 놀음판에 끼우지 않는게 낫겠소!》

그는 눈의 흰자위를 번뜩이며 좌중을 흘겨보더니 결연히 문을 차고 나가버렸다. 찬바람이 휙 쓸어들며 사람들을 오싹하게 했다.

그가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것이 분명했다. 예견했던것처럼 그는 그길로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은영이가 그를 다시 만난것은 그로부터 2년세월이 지나간 뒤의 일이였다.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계속되였다. 그것을 깨야 했지만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은영은 고종우의 침통해진 표정을 살펴보며 가늘게 한숨을 내그었다.

《고종우씨, 말해보세요. 이자 부위원장이 말한것처럼 수미씨가 정녕 나쁜 녀자일가요?》

모든 사람이 고종우에게 눈길을 던졌다. 그러자 그는 입술을 찡기며 외면하였다. 그의 표정으로 미루어 여전히 수미를 거부하는 립장이 분명하였다. 그들사이에 무슨 일이 있은것일가?… 아마도 변함없이 점잖고 례절바르며 고정한 고종우는 지금 수미의 결박에서 헤여나지 못하여 모지름쓰고있는것 같다. 여기엔 은영의 탓도 얼마간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바로 그것때문에 일생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리근우위원장이 소란스럽게 한숨을 내뿜고나서 말했다.

《수미씬 타고난 명배우요. 그런데 너무 이질적이거던. 은영씨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여전히 고종우는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다시 침묵… 은영이가 여겨보니 강상일은 부위원장의 일로 하여 아직도 피가 나게 입술만 깨

물뿐이였다. 좌중의 분위기를 돌려세우려는듯 리근우가 은영의 건강에 대하여 이것저것 묻고나서 계속했다.

《우리가 잘 돕지 못해 미안하오.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은영씨 아버지랑 동생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알아보는중인데… 이제 행처가 밝혀지겠지. 재판이 벌어지면 도와나설 사람들이 많소. 그러니 은영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수미와 한정애가 들어섰다. 어쩌면!…방금 그녀때문에 격렬한 언쟁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일제히 놀란 눈빛을 그 녀자에게로 돌렸다.

그런데 수미의 모습이 이상하였다. 무엇인가 애써 찾고있던 검푸른 두눈이 정처없이 희번뜩이였다. 오연하고 매초롬하던 얼굴이 퍼렇게 이끼가 낀듯 하였다. 수미는 대번에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나서 은영이의 앞으로 바투 다가섰다.

은영은 오싹 소름이 끼치는것을 느꼈다. 무슨 일인가. 오늘도 또 무슨 언터구를 가지고 야료를 부리려는것인가?… 숨이 차서 헐썩이는 수미의 치찢어진 두눈을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뒤걸음쳤다. 어깨에 걸치고있던 외투가 미끄러져내렸다.

다음순간 어느새 수미가 와락 달려들며 은영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은영은 몸서리쳤다. 고통스러운 모대김에 이지러진 그 녀자의 괴이한 행동에 기겁하지 않을수 없었다. 방안의 모든 사람들도 흠칠하였다. 고종우가 뛰쳐일어나 거의나 기절할것 같은 은영이를 도우려 했다.

《은영씨!》 수미의 칼칼해진 목소리였다. 《난 무서워. 저기서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

이번엔 은영이가 금시 넘어질것 같은 수미를 와락 붙안았다.

《왜 그래요.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저기서…》 수미가 신음하였다. 《아버지를, 은영씨 아버지를…》

《뭐?》

두다리가 휘청거렸다. 아버지가 어찌됐단 말인가. 아버지가 어데 계

시기에?… 누군가 좀 자세히 말하라고 소리친것 같다. 그러자 수미는 뒤쪽에서 울고있는 한정애에게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자기를 대신하여 말해주라는 의미 같았다.

누군가 정애를 붙잡고 세게 흔들어댔다.

《어서 말해요. 무슨 일인지?》

한정애의 눈물에 젖은 두눈이 은영이를 더듬더니 무너지듯 휘청거리며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저기서 지금 사형수들을 끌고가고있어요. 미군찦차뒤에 바줄로 맨 사형수들을…》

《그래서?》

누가 먼저 소리쳤는지… 일시에 고함친것인지도 모른다.

《거기… 거기에 은영선생 아버님과 동생… 일한씨와 그담 또…》

귀가 멍－해졌다. 무수한 불꽃들이 눈앞에서 맴돌이쳤다. 은영은 사람들이 정애를 붙들고 다우쳐묻는 소리를 얼나간듯 듣고있다가 급기야 《아!－》 하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문을 차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사람들이, 특히 날파람있는 강상일이 제때에 붙잡지 않았더라면 2층계단에서 굴러떨어질번 하였다.

눈이 바로 서지 않았다. 그래도 허우적거리며 벌떼같이 웅성거리는 거리의 소음을 좇아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흐릿한 해빛이 눈이 녹아 번들거리는 포도에서 어룽거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밀려가고있었다. 그들이 보고있는것은 차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였다. 미군찦차꽁무니에 바줄로 맨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다섯인가 여섯인가 되여보였다. 아니, 일곱명의 사람들이였다. 그가운데서 맨처음 눈에 띈것은 일한이였다. 머리를 높이 들고 사방을 휘둘러보고있다. 시꺼먼 피자욱이 얼룩을 그린 그 얼굴… 다음순간 은영은 심장이 뚝 멎는듯 했다. 찦차의 속도를 미처 따르지 못해 비칠거리다가 쓰러지는 아버지를 보았던것이다. 아스팔트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아버지. 은영은 울부짖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입안에서만 꾸룩거린 신음소리에 불과했다. 팔을 내뻗치며 또 소리치려 했으나 목이 꽉 메여 아무 소리도 나가지 않았다.

길복판에서는 일한이가 아버지쪽에 머리를 돌리며 무어라고 소리치고있었다. 손목을 묶고있는 바줄을 힘껏 당기며 아버지를 도우려 하나 찦차의 속도에 그만 저자신도 나동그라졌다. 그통에 한바줄에 묶이운 여러 사람이 같이 넘어져 질질 끌려갔다. 차도에 피가 랑자했다. 길옆으로 따라가던 사람들이 째지는듯 비명을 질렀다. 그때에야 미군 찦차가 멎어서고 경찰 하나가 뛰여내려 바줄에 묶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

은영은 보았다. 수염이 시꺼먼 아버지의 험상궂게 된 모습이며 적들을 향하여 무어라고 웨치는 일한이… 아버지와 일곱사람모두의 목에는 나무표쪽이 걸려있었다. 매 사람들의 표쪽에 이름을 크게 쓰고 《빨갱이》들의 말로는 이렇게 된다고 쓴것 같았다. 아버지 김학송에 이어 김일한, 김철규, 박선봉, 리용수, 림호… 그 패쪽까지 눈에 띄였을 때 은영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

은영이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모두가 거기에 있었다. 그들모두가 사형수들로 끌려가고있다. 심장의 아픔이 너무도 커서 온몸의 살과 근육이 푸들푸들 떨렸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데리고 갔다. 어데로 무엇때문에 가는지도 알지 못했다. 웅성거리는 소음과 째지는듯 한 부르짖음이 귀청을 찢을뿐이였다. 누가 무엇때문에 부르짖는것인지? 사형수들을 끌고가던 찦차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상일이 어느 골목길로 은영이를 잡아끌고있었다. 은영은 죽은듯 끌려가다가도 발작적으로 머리를 돌려 아버지와 동생을 그리고 림호를 찾으며 정신없이 울부짖군 하였다.

뒤늦게야 어느 길섶의 제방뚝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이미 사형수들의 《죄상》이 렬거되고 그들을 한사람씩 끌고나가 나무말뚝에 묶고있었다. 림호의 목소리가 쩡쩡 울린것은 바로 그때였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를 흘려야 합니까? 일본놈들이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학살하더니 오늘은 미국놈들이 또 피비린 살륙을 벌리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을 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면서 조선의 완전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안될것입니다.》

바줄을 쥔 놈들이 달려들어 행패를 했으나 림호는 더 높이 머리를

추켜들며 웨치고있었다.

《여러분! 무서워 마십시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이 북사회처럼 나라의 주인이 되여 잘살기 위하여 힘껏 싸우십시오!》

먼저 말뚝에 매인 아버지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잘해, 림호군. 장하이!》

말뚝으로 끌려가며 림호는 노래를 불렀다. 아니,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피나는 호소였고 절규였다.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놈들이 헝겊으로 눈을 싸매고 입을 틀어막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웨치는것이였다.

《나의 갈매기, 어데 있소?!… 내 노래를 들어주—》

끝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몸부림치며 자기의 마지막당부를 드러내보일뿐이였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은영이 허우적거리며 앞으로 밀고나가려 했으나 한발자국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누군가 꽉 붙안고 놓아주지 않았고 수많은 군중이 앞을 막아서있었다.

《아버지— 안녕히!…》 이것은 동생 일한이의 작별인사였다. 거쉰 목소리가 그에 대답하였다.

《장하다, 내 아들아—》

《동지들!—》 이렇게 마감으로 소리친것은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그다음 은영은 아무것도 가려듣지 못하였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지도 못하였다. 사격구령이 내리고 일제사격의 총성이 칼끝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찢으며 울렸을 때에는 그만 실신하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의 물결이 파도치듯 그를 밀치며 흘러갈 때에야 별안간 눈을 뜨며 부르짖었다.

《어데 있어요, 아버진? 일한이는, 그리구 림호씨는?… 어데, 어데 있어요?》

리근우와 고종우 두사람이 은영이를 량쪽에서 붙들고있었다.

두사람중 누가 말했는지 놈들이 시신들을 차에 싣고 갔다고 했다. 이렇게 모든것이 끝난단 말인가, 이렇게?!… 다시 기신없이 허우적거

리며 줄줄이 찍혀있는 피자욱을 따라갔다. 자기를 붙들고있는 사람들을 사납게 뿌리치고 차들이 달리는 길복판에까지 나아갔다.

은영이때문에 달리는 전차가 멎어서고 화물자동차며 미군장교가 탄 찦차도 아츠럽게 바닥을 허비며 멎어섰다. 바로 그 차도에 참혹한 피자욱이 점점이 찍혀져있었다. 은영은 그 시뻘건 피자욱을 손으로 쓸며 정신없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버지!— 일한아!—》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동백꽃아가씨 아니요?》

《바로 그 녀가수요.》

《저런! 미인가수가 끔찍한 일을 당했구만.》

아니다. 이제 더는 동백꽃아가씨가 아니다. 질다아가씨도 아니고 카르멘도 꼰스딴찌나(쇼뻰의 가극 《리별의 곡》 녀주인공)도 아니다. 물론 춘향아씨도 아니다. 피가 줄줄 흐르는 심장에서 새로운 노래를 엮고있는 은영이일따름이다. 은영은 미친것 같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보이는것은 온통 피자욱뿐이였다. 하늘도 태양도 피빛으로 물들어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아스팔트를 더듬고있는 은영이때문에 숱한 차들이 길이 막혀 멎어서있었다. 자동차들이 겨끔내기로 경적을 울렸다. 미군장교가 탄 찦차에서 특히 앙칼진 소리가 신경질을 부렸다. 위협하는 소리, 악을 쓰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고 숨가쁘게 달려온 교통경찰이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사정없이 발길질도 하기 시작했다.

《야, 이년! 차길을 막으믄 어떻게 해? 일어나라, 일어나!… 어디 죽어봐야 알겠어?》

다음순간 은영이 뛰쳐일어났다. 통분한 마음이 피타는 증오로 바뀌였다. 아버지를, 동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자들을 눈앞에 보는것만 같았다. 하여 은영은 손바닥에 매닥질된 눈과 피의 덩어리를 경찰의 면상에 마구 휘뿌렸다.

《이 백정들아!—》난생처음 은영은 성대에 무리가 갈 념려도 않고 목터지게 울부짖었다. 《우리 아버질 내놔라! 내 동생을 살려내라— 아!—》

경찰이 미친듯 날뛰며 곤봉을 휘둘렀다. 은영은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쓰러졌다. 그러자 길가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일시에 왁 밀려들었다.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경찰에게 달려들어 뭇매질을 시작했다.

《이눔아, 이 아가씰 때려?》

《야, 네놈두 사람이여?》

《이름난 녀가수한테 무슨 행패질이야, 이놈아!》

《사람을 때리는게 경찰이야?》

《조겨라! 사정보지 말구 조겨라!―》

군중의 살벌한 폭발을 지켜보던 미군찊차가 뒤걸음쳤다. 공포에 질린 미군장교의 우거지상이 퍼릿한 배기가스에 가리워졌다. 미군장교는 뒤골목길로 달아나버렸다. 뒤늦게야 나타난 경찰들도 곤죽이 된 교통경찰을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은영이를 끌어내였다. 리근우, 강상일, 고종우와 한정애 그리고 수미… 그런데 넌 누구냐, 누구냐?… 희뿌예진 은영의 눈에 비쳐든것은 나어린 동생 유한이였다. 유한이뒤에는 미영이가 어푸러져있다.

아버지가 사내애들은 한자돌림으로, 계집애들은 영자돌림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미영이는 이제 겨우 6살이다. 그 애까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있단 말인가?…

그러나 은영이에게 매달려 울부짖은것은 유한이였다.

《누나, 아버지가 죽었어. 맏형님두…》

어린 동생은 맏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겼는지… 죽었다고 한다. 죽는다는게 무엇이냐?… 그것은 영영 가버렸다는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남동생을, 사랑하는 림호를 다시는 볼수 없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철없는 미영이까지 어푸러져서 중얼거린다.

《죽었어―》

《유한아, 미영아!―》 혀가 까드라드는것 같았다. 《아버진 살아계셔. 누구도 죽지 않았어.》

그러나 어린 동생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유한이가 울부짖었다.

《죽었어. 누나―아!―난… 다 봤어.》

미영이도 째지는듯 소리친다.

《나두 봤어!―》

그렇다. 부정할수 없는것이다. 비로소 은영은 머리를 뒤로 젖히며 목놓아울기 시작하였다. 하늘이 빙빙 돌아갔다. 이렇듯 참혹한 일이 자기에게 차례지리라고 상상이나 했던가!… 봉천에서 왜놈들이 말꼬리에 매여 끌어왔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와 동생, 림호의 모습우에 떠올랐다. 총창으로 찔러죽이던 그 끔찍한 참변… 그런데 나라가 해방된 오늘 《해방자》라고 떠들던 미국놈들이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다. 이 땅과 이 나라의 주인을 멀고먼 바다건너 남의 나라에서 기여든 놈들이 죽인것이다.

피에 젖은 태양, 피에 젖은 땅… 그 땅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어머니가 무릎걸음을 하며 오고있었다.

《은영아, 얘야!—》 어머니는 실성한듯 했다. 두팔을 뻗치며 딸의 이름만 정신없이 웨치고있었다. 《은영아—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이게 무슨 변이란 말이냐— 은영아!—》

은영이는 어린 동생 유한이를 껴안고 어머니에게로 벌벌 기여갔다.

《엄마!—》

《어머니!—》

어머니와 딸, 어린 동생들이 한덩어리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모여섰던 사람들도 눈물을 참을수 없어 고개를 돌리며 눈굽을 훔쳤다. 어떤 아낙네는 그들을 일으키려다가 저도 같이 껴안고 왕왕 소리쳐 울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울고있는 사람들속에서 곡하는 소리가 제일 높은것은 수미였다. 한정애는 길가의 가로수를 붙안고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그러나 은영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지고 추위에 얼어붙었던 포장도로까지 꺼져내리고있었다. 발을 딛고 설 땅이 은영이에게는 없었다. …

×

그날은 추위가 한물 진 일요일이였다.

수천명에 달하는 군중이 은영이의 눈앞에 운집해있었다. 서울시 한복판의 파고다공원이였다. 석탑을 중심으로 정자와 은행나무, 오동나무, 측백나무들이 들어선 공원 어느 구석에나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소개를 하고 들어오던 수미가 은영이를 꽉 껴안았다.
《은영씨, 내 마음까지 합쳐서 노랠 해줘요. 응?!》
그 녀자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은영이에게 모질게 굴던 수미가 무엇때문에 이처럼 절절한 목소리를 짜내는지 알려고도 안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그저 여느때와 다름없이 무대로 나설뿐이였다.
드디여 은영은 멎어섰다. 수천에 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머리숙여 인사하고 눈길을 들었다.
《여러분, 노래에 앞서 꼭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가수는 노래부르는 사람이지 연설하는 사람은 아니다. 커다란 호기심이 그들모두를 은영이 한사람에게 집중케 했다.
《바로 이틀전에…》 어느새 은영은 목이 잠기는것을 느끼며 젖은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저의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저와 일생을 약속한 사람이 무참하게 학살되였습니다.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본것은 길바닥이 온통 피로 젖어있는것뿐이였습니다. 그걸 보고서야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가슴아파서, 원통하고 분해서… 목터지게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눈물로 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천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래 조국통일을 바란것이 과연 죄로 되여야 한단 말입니까. 제 나라, 제 민족이 하나로 되여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싸운 사람을 학살하다니!… 무엇때문입니까, 예?!… 그때, 바로 그때… 난 보았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피에 젖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찾고 부르던 태양이… 우리모두가 바라던 밝은 태양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의 태양을 소리쳐 부르려고 합니다. 나의 태양아, 어서 오라고, 어서 새날을 밝혀달라고 노래하겠습니다.》
은영이 이럴줄은 몰랐으리라. 처음 리근우를 비롯한 동료들은 무엇때문에 은영이 곡목도 알리지 않고 나가겠다고 우겨대는지 의아해했었다. 그러나 지금 무대뒤쪽의 석탑에서 내다보는 그 사람들,

리근우며 강상일, 고종우, 한정애와 수미까지도 눈시울을 떨며 그를 지켜보고있다. 관중들도 숨을 죽였다. 그처럼 모진 아픔을 안고 나온 녀가수의 노래를 기다리며 하나같이 두눈을 슴벅거리고있었다.

지휘자가 멍하니 서있는통에 반주음악이 늦어졌다. 은영이 노래를 시작해서야 그들은 서둘러 따라섰다.

오 밝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이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은영이 13살 어린 나이에 전국녀중생들의 성악콩클에 나서서 처음 불렀던 노래였다. 봉천에서의 참변때에도 이 노래를 택했었다. 그런데 그 밝은 태양은 언제나 솟으려는것인가?!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고
하늘의 밝은 해는 비친다

은영은 지금 참혹하게 학살된 아버지와 남동생, 림호의 넋을 위로하여, 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싸운 그 념원을 위하여, 은영이자신과 지금 노래를 듣고있는 수천에 달하는 군중의 간절한 희망을 대변하여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나의 몸엔 사랑의 별
오 나의 태양 비친다
오 나의 나의 태양 찬란하게 비친다

그렇다. 은영은 사랑했고 그 결과 자기자신을 발견하였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받을수 있다. 아버지는 만사람의 사랑을 받는 딸을 원했다. 만사람이란 곧 대중을 말하며 인민을 말하는것이다. 지금 그 대중이, 만사람이 요란한 박수갈채로 은영이에게 사랑의 정을 보내고있다. …

만장이 재청을 소리질렀다. 은영은 그것을 준비해두었었다. 사랑하

는 사람과 함께 부르려던 노래였으나 오늘은 은영이혼자서 불러야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도 합쳐 노래부르기 시작했다.

흰 물새 훨훨 파도우에 넘나들고
아득한 수평선엔 흰 돛이 아름다운
저기 저 바다로 우리 가자

림호씨, 이 노래를 들어주세요. 흰 돛이 아름다운 저 바다로 우리 언제나 함께 가자고 한 그날의 약속을 되새기며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나의 사랑, 나의 파도… 그 파도우에 흰 물새가 넘나들며 노래하고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래를 펴고 파도우를 날고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랑만과 희열에 넘친 선률로 이어진 노래였지만 은영의 얼굴은 온통 눈물에 젖어있었다. 어느 소절부터 어떻게 울기 시작했는지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눈물의 노래가 아니다. 희망의 노래, 행복의 노래이다. 그것이 눈물에 녹아있을뿐이다. 은영은 희망의 바다, 아득한 수평선에서 태양이 빛나는 바다를 보며 노래하고있었다.

제4장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

1

그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나가 로병예술선동대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은영은 간소한 저녁식사가 끝난 후에야 다시 딸과 마주앉았다. 정전이 잦았으므로 석유등을 켜놓고 현순이가 베이징에서 가져온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밖에서는 진눈까비가 구질거렸다. 어깨우에 솜옷이며 외투를 걸치고 앉은 두 녀인, 백발의 로가수 김은영과 그의 딸 림현순은 자주 어깨를 오그리면서도 흘러간 옛시절의 자취를 더듬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제 어데까지 얘기했더라?…》

어머니가 기억을 더듬고있는 사이 현순은 잠자코 기다리고있었다. 사실 현순이는 그저 딸인것이 아니라 은영이의 가장 가까운 벗이기도 하였다. 현순이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리유가 없었다. 다만 흘러간 세월의 사말사들이 무용가인 현순이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것이라고 보았으므로 마음속에 묻어두었을뿐이다.

《너도 알겠지만…》 은영이 계속했다. 《사랑을 떠난 생활이란 없는거야. 마음속에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수가 있지. 그것을 잃으면 인생의 등불은 꺼진거구…》

어머니가 소리없이 웃었다. 어머니의 그 웃는 모습을 현순이는 눈한번 깜박이지 않고 지켜보고있었다. 새까만 눈동자속에서 경탄의 빛이 사물거리고있었다. 80고령에 이른 자기 어머니의 정갈한 자태와 미소를 짓는 아련한 모습엔 매혹되지 않을수 없는듯 했다.

《어머니, 그래서요?》

《그래서》하고 은영은 여전히 미소를 떠올린채 조용히 계속했다. 《난 언제나 수미를 불쌍하게 생각했지. 정말 불행한 녀자였어.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데 있겠니. 아니, 불행하다기보다 비참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가?… 참, 전쟁직전의 일인데… 내가 한정애와 같이 광주쪽에 갔던 일이 있었단다. 둘째동생 차한이가 종적없이 사라진 후에 말이지. 전라도지하조직에서 혁명적인 노래들을 보급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와서 내가 나섰는데 뜻밖에도 한정애가 저도 같이 가겠다고 떼를 쓰는거야. 나한테만 가만히 말하는데 차한씨가 가있는데로 저도 가보고싶다는게 아니겠니. 차한이가 있는데라구?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더니 글쎄 지리산유격대로 갔다는거야. 알고보니 아버지와 형이 체포되고 저도 죽는가, 사는가 하는판에 한정애만은 만났더구나. 그때 그런 말이 있었다는거야.

제 누이한테도 말하지 않은것을 어느새 처녀한테만은 대주었으니… 사랑이란 정말 얼마나 놀라운걸가?… 순결한 정과 절대적인 믿음이라 할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노엽게 생각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 차한이와 정을 나누는 그 어린 처녀가 더 사랑스럽게 여겨졌을뿐…

그런데 수미는… 정말 그 녀자야말로 목마르게 사랑을 바라면서 몸부림치고있었지만 생활은 그 반대로 되였으니 그건 무엇때문일가?… 물론 수미도 차츰 달라져갔던건 사실이지. 전쟁이 일어나던 그때였어. 수미도 참사랑에 눈뜨기 시작했는지 딴사람처럼 달라지기 시작하더구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 …》

김은영은 반쯤 눈을 감고있었다. 사람들이 자주 과거를 되살리는 리유는 아마도 거기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기 위함이 아닐가?…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워버릴수도 없다. 그래도 한사코 과거를 묻어버리지 못해 애쓰는자가 있다면 그것은 죄악에 찬 과거를 가지고있는자일뿐이리라.

은영은 이렇게 생각하고있었다.

2

1950년 6월 27일 새벽이였다. 은영은 한정애와 같이 한달동안이나 전남지역의 여러곳을 돌면서 선전공작과 노래보급을 하고 서울

로 돌아가고있었다. 전쟁이 일어난지 이틀째였으나 기차안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어데서 구해들인 낡은 《경향신문》호외를 돌려가며 벅적 떠들어댈뿐이였다. 26일자로 된 그 신문호외에는 《국군정예부대들 북상, 총반공격전 전개》라는 륙군본부 정훈국장의 담화가 실렸는데 그는 담화에서 《북한공산군의 침공을 격퇴하고 맹렬히 추격전을》벌리는데 《래일 아침이면 해주가 떨어질것》이라고 기세등등하여 호언하고있었다.

기차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룡산역의 맞은편 어느 대피선에 틀어박히고말았다. 서울에서 남으로 출발하는 렬차들부터 뽑는다고 했다. 서울쪽에서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둘러메고 남으로 피난을 가고있었다. 그런데도 대피선의 고성기에서는 방송원이 열띤 목소리로 《륙군본부의 발표》라면서 《옹진반도를 방어하고있던 제17련대는 반공격을 단행한지 하루만에 해주에 돌입하였습니다.》라고 불어대고있었다.

은영은 무엇인지 비상한 사변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38도선에서의 무장충돌에 대한 보도가 매일같이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싸움이 벌어지기는 처음이였다. 무엇보다먼저 어머니에게 맡기고 떠난 두살잡이 어린 딸이 걱정되였다. 거의 한달동안이나 그 젖먹이를 품에서 떼여놓고 멀리 광주지역을 돌았으니… 은영은 심장한끝을 콕콕 찌르는 아픔에 겨워 곁에 앉은 한정애를 돌아보았다. 그에게라도 마음속에 깃든 무서운 생각을 터놓지 않으면 견딜수 없을것 같았다. 그런데 한정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있었다. 렬차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도 처녀에게는 들려오지 않는듯 했다.

《정애.》은영이 나직이 불렀다. 《무슨 생각을 하지?》

처녀는 머리를 들고 은영이를 물끄러미 지켜보고는 조용히, 멋없이 웃었다. 피기까지 가셔진 얼굴은 어두웠고 가리마를 탄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있었다. 바싹 마른 입술을 추기며 처녀가 되물었다.

《예, 뭐라구요?》

정애의 두눈을, 고뇌에 시달리는 처녀의 두눈을 보면서 은영은 입안이 말라들고 머리속까지 저려드는것을 느꼈다.

《차한이를 생각해?》

처녀는 말없이 머리만 끄덕이였다.

《걱정하지 말아요.》은영이 속삭이였다. 《그 앤 꼭 살아있어. 어데선가 정애를 생각하며 싸우고있을거야.》

《…》

역시 처녀의 표정은 희망에 눈뜨는것도 아니고 절망적으로 부정하는것도 아니였다. 눈섭우에 그려진 가는 실주름이며 가무스레한 얼굴에 거밋하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처녀가 지금 밑창없는 공허에 잠겨 망연히 앉아있음을 말해주고있었다.

처녀의 얼굴은 흐릿하고 어수선했다. 그에게서 자기의 불안에 찬 마음을 위로받고싶었던 은영이였지만 오히려 처녀의 마음을 달래야 했다.

《우리 차한인 죽지 않아.》 하고 은영은 또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얼마나 날쌔구 역바르다구.》

그것이 정애에게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것을 보고서야 시진하게 한숨을 내긋고말았다.

그새 그들은 할수 있는껏 차한이를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었다. 이번 걸음에 기어이 차한이를 만나고싶고 하다못해 살아있다는 소식이라도 듣고싶었던 은영이와 한정애였다. 은영이에겐 그가 동생이였고 정애에게는 첫사랑이였다. 그러나 한달동안이나 애썼지만 헛물을 켜고말았다.

한달 , 광주지구 지하청년조직의 선전공작을 도와준 한달, 주로 공화국북반부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는 노래들인 《민주청년행진곡》, 《밭갈이노래》, 《구국투쟁가》등을 보급하면서 전남각지를 돌았었다. 공공장소에서는 가극의 아리아나 민요들을 부르며 모연공작을 위해 내려온것처럼 위장하였고 청년학생들의 모임에서는 선전공작에 앞서 노래보급을 하였다.

노래의 힘과 그 견인력을 새롭게 느낀 나날이였다. 광주지구 청년조직책임자 조동무는 그들이 내려와있은 한달기간에 수천명의 청년학생들이 새로 조직에 들었다며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그리고 그 노래들이 지리산빨찌산의 전투원들속에서까지 널리 불리워진다고 은밀히 귀띔하였다.

지리산빨찌산, 바로 거기엔 차한이도 있을것이다. 한정애가 떼를 쓰

다싶이 하면서 은영이를 따라나선것도 바로 그 리유에서였다. 그러나 차한의 소식은 끝내 알지 못했다.

5개 군에 걸쳐 펼쳐진 웅장한 지리산과 그 일대에는 도와 군의 지휘를 받는 여러개의 유격대들이 활동하고있었는데 놈들의 집중적인 《토벌》이 바야흐로 절정에 달하고있었다. 수많은 군경들이 5개의 군을 둘러싸고 일체 외부와의 련계를 차단하였다. 오솔길마저 차단되였고 유격대가족들이 살고있는 수많은 마을들이 불타버렸다. 지구당과 청년조직들에서도 은영이와 한정애가 지리산가까이 가는것을 한사코 반대하는 형편이였다.

한번은 목포의 바다가마을들에서 선전사업을 한 일이 있었다. 날이 밝을무렵이였다. 은영은 변함없는 일과로 정한 발성련습을 위해 한정애와 같이 바다가로 나갔었다. 어린시절 고향의 강기슭에서처럼 심호흡을 하고 준비운동을 한 끝에 기슭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맞받아 소리를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정애는 어펑바위우에서 멀리 수평선 한끝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정애!》하고 은영이 조용히 말했다. 《성대를 보존하기 위해 함수를 하고 찬바람을 막는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악가가 되려면 소음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며 훈련할줄도 알아야 해.》

그날 은영은 자기의 제자이기도 한 정애에게 선배로서, 강사로서 많은 교훈적인 말을 해주고싶었었다.

《난 어릴 때부터 강가에서 소리내는것을 제일 좋아했어. 정애도 한번 해봐. 물결치는 소리를 누르며 다음옥타브까지 차츰 음역을 넓히느라면 물결소리가 관현악반주처럼 들리는 법이야. 저 파도소릴 들어봐. 결코 한가지 소리로만 울려오는게 아니거던. 바위를 치는 세찬 소리는 전체 현들과 드람의 트레몰소리와 같구 물방울들이 부서지는 소리는 플류트의 울림소리이구 갈매기의 울음소린 또 트럼페트와 오보에소리나 같지. 그속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어떻게 울리나 한번 들어보라는거야.》

그러나 정애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은영이 먼저 소리를 뽑았어도 까딱하지 않고있다가 별안간 입술을 깨물며 흐느끼는것이였다.

《언니, 언닌 정말!…》 하고 처녀는 급기야 설분을 터뜨리며 부르짖

는것이였다. 《어쩌믄 그럴수 있어요. 여기 와서까지, 지리산이 멀지 않은 여기 와서까지 동생의 생사는 알려구도 않구… 정말 그렇게 매정한 언니였단 말이예요, 예?… 친동생인데두 그가 그립지도 않으세요?》

《뭐?》

다음순간 은영은 자기를 쏘아보는 처녀의 눈물어린 두눈에서 차디찬 적의를 느끼고 몸서리쳤다. 찬물을 들쓴듯 어깨를 옹크리고 얼이 나간것처럼 멍하니 굳어져있었다.

《난 가겠어요.》 정애가 또 부르짖었다. 《지리산으로 가서 차한씨를 꼭 찾구야말겠어요!》

그다음 처녀가 무슨 말을 또 했는지 은영은 듣지 못했다. 거센 파도소리가 모든것을 삼켜버리였다. 정애가 선바위쪽으로 울며 달려가는것을 보면서 천천히 무릎을 꿇고 무너져내리고말았다.

물론 처녀는 지리산으로 갈수 없었다. 수많은 군경들이 지리산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들을 차단하고 불법통행자들을 가차없이 총살하고있었던것이다. 곡성군의 한 청년조직책임자는 섬진강기슭에서 도처에 널린 참혹한 시체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었다.

《거기서 지리산으로 가겠닥 했담서야?… 워매! 정신이 쑥 빠진게 아닙사 거길 워찌 간다구 해여?!》

그때 은영은 처음으로 한마디 했었다.

《나도 가고싶어. 밤마다 차한이가 꿈에 보이구… 그렇지만 우린 노래로 싸우는 사람들이야. 우리 차한이가 정애에게서 바란것도 바로 그거구.》

《?!…》

그때에는 정애도 아무말없이 눈시울만 떨고있었다. …

며칠전에 있은 일이였다.

사실 그때 지리산빨찌산의 괴멸은 시간문제로 되고있었다. 그것은 은영이의 친동생이며 정애의 첫사랑인 차한이도 이름없는 어느 골짜기에서 피흘리며 쓰러져버리고만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때문에 지금도 한정애는 자기의 마음속에 시꺼먼 발톱을 박고있는 절망과 오뇌에 잠겨 허덕이였고 은영은 또 그대로 속절없이 가슴을 허비고있었다.

하지만 지리산빨찌산의 치렬한 싸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것

을, 이제 전쟁과 더불어 새롭게, 보다 큰 규모로 전개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해동안이나 준엄한 피의 력사를 새기게 되리라는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은영이와 한정애가 주고받는 이야기도 달리 되였으리라.

그들은 더 말을 이을수 없었다. 그들과는 반대로 렬차안의 많은 사람들은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공포로 떨고있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기차까지 멎어버려 어찌할바를 몰라 아우성이였다.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한밤중이 되면서 억수로 퍼부어지기 시작하였다. 역구내는 멎어선 차와 서울에서 남행렬차를 타지 못하고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로 가득찼다. 모두가 전쟁, 전쟁에 대한 말뿐이였다.

사람들이 어떤 역원을 붙들고 고아대고있었다.

《우리 차는 언제 떠나게 되나요, 예?!》

《도대체 서울을 눈앞에 두고 여기서 뭣하자는거야!》

《우린 빨리 서울로 들어가야겠는데 대피선에 밀어넣으니 어쩌라는거요?》

둥글모자를 쓴 역원이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강건너 룡산역에서 특별렬차가 떠났다는거예요. 리대통령이 탄 특별렬차라구 해요. 그러니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리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대통령이 어데로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극성스레 떠들었으나 어느새 역원은 그속을 빠져나가고 보이지 않았다. 고성기에서는 방금 해주로 돌입했다고 떠들던 방송원이 무슨 창동방어선에 대하여 말하고있었다.

《채참모총장이 직접 창동방어선에 나가 공산군의 남하를 저지시키고있다 합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진정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패주하고 누가 진격하고있다는것인지 도무지 가늠할수 없는 보도였다. 은영은 정애를 잡아끌며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따라 한강인도교로 향했다. 죽더라도 서울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될 사람들이 허둥거리며 그리로 몰려가고있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버렸다. 앞을 가려볼수 없는 어둠과 비줄기속을 뚫고 진창을 저벅거리며 달려갔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사람

들의 어깨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비줄기가 시퍼런 불광에 펀뜻거렸다. 서울시 룡산역을 마주한 북한강파출소에 이르렀을 때였다. 돌연 앞쪽에서 《비켜, 비켜!》 하는 웨침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두팔을 쩍 벌리고 인도교로 밀려가는 사람들을 막고있었다.

미군찔차가 굴러와 밀려드는 사람들을 막았다. 그 찔차의 발판에 올라선 헌병이 대령의 계급장을 달고있는 사나이에게 소리쳐 보고했다.

《대령님, 미국 군사고문단일행이 통과했습니다!》

대령이 보고를 듣고 손을 홱 내저었다.

《륙군참모총장의 차는 아직 안 보여?…》

그 다음말은 듣지 못했다. 승용차를 따라 저쪽 서울시내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보짐을 이고지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며 한강인도교를 가득 메우고있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물결을 맞받아 다리를 건는다는것은 상상할수도 없었다. 도중에 인파에 밀려 란간너머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발길에 채우며 깔려죽고말것이였다. 대줄기같이 퍼붓는 비발속에 비명과 욕지거리소리, 승용차의 경적소리며 째지는듯 한 호각소리가 한데 어울려 무시무시한 소음으로 덮치듯 밀려왔다.

은영은 멎어섰다. 다리입구쪽에 서있던 대령이 무어라고 소리치고 헌병들과 병졸들이 어둠속으로 뛰여가는것이 얼핏 눈에 띄였다. 승용차의 전조등빛이 눈을 때리고 헌병들의 웨침소리가 돌멩이처럼 날아다녔다.

《부대통령 리시영각하 통과!》

《대령님, 륙군참모총장 채병덕각하가 통과하고있습니다.》

창동방어선에 나가있다던 채참모총장이 한강다리를 건너 남으로 내빼고있는것이다. 미군찔차의 발판을 딛고 서서 피난민들사이로 차를 밀고나온 헌병이 그렇게 웨친것이다. 채병덕이 탄 차의 뒤로 10여대의 승용차가 따르고있었다. 보고를 받은 대령이 《알았다.》 하더니 뒤쪽의 경찰파출소를 향해 벽력같이 소리질렀다.

《점화!》

그다음 대령은 어느새 어둠속으로 몸을 날렸다.

점화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은영은 앞에서 허우적거리며 다리쪽으로 밀고나가려 애쓰던 사람의 쩍 벌어진 입과 그속으로 쓸어드는 비물을 놀라서 쳐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발밑의 땅이 부르르 떨

리며 굉음이 터졌다.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과 차들이 한데 어울려 밀물처럼 흘러오던 인도교가 번쩍! 하는 섬광에 허궁들리는것 같더니 삽시에 산산쪼각이 나서 날아올랐다. 그와 동시에 철교쪽에서 또 요란한 폭음이 터졌다. 화산과 같은 폭발에 퍼붓던 비줄기마저 시퍼런 창끝처럼 어둠속에 찍혔다. 귀뿌리를 스치는 파편들의 휘파람소리, 황갈색의 화염과 초연이 어둠을 휩쓰는 가운데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찢어진 차와 사람들이 재개비처럼 뿌리워 강물우에 떨어져내렸다. 다리복판에서부터 파출소에 이르는 구간에 늘어서있던 수십대의 자동차들도 물속에 곤두박히여 강물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후날 력사기록은 50여대의 차량과 천여명의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되였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극히 축소된 수자라는것을 목격자들은 잘 알고있었다.)

폭발의 굉음이 가라앉은 후에도 강의 량쪽에서는 땅울림과도 같은 소음이 한동안 계속되였다. 물속에서도 간혹 비명과 신음소리가 울려왔지만 그것은 극히 짧은 한순간에 불과했다.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대살륙의 참상이였다. 은영은 억이 막혀 굳어진채로 서있었다. 온몸을 뒤흔드는 땅울림이 령혼들의 울부짖음소리같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누가 이런 참경을 빚어냈는가, 누가?!… 무시무시한 폭발과 함께 벌어졌던 소란이 가라앉고 한강기슭은 죽은듯 한 고요에 묻히였다. 줄기차게 퍼붓는 비소리만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때에야 이쪽에서 멍하니 서서 굳어져버렸던 사람들이 진창을 짓이기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웬일이예요? 아— 이런 변이 어데 있단 말이예요?!—》

《어느 놈이야. 누가 다리를 폭파시켰어?》

《그놈을 잡아내라!—》

《살인자를 때려죽여라!》

그 소리에 기겁한듯 파출소뒤쪽에 멎어있던 승용차들이 부릉거리며 어둠속으로 달려갔다. 이미 다리를 건너 폭파를 지켜보고있던 미군사고문단과 부대통령, 채병덕륙군참모총장의 승용차들이였다.

은영은 가슴이 터질 지경이여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다. 얼굴에 줄

지어 흐르는 비줄기를 손으로 훔치며 멀리 사라져가는 승용차의 불빛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비물은 하염없이 눈으로, 입으로 쓸어들었다. 무서운 오한에 흐느끼고 몸을 떨며 허덕이였다. 이처럼 잔인무도한 놈들이 서울시내에서 무슨짓을 벌리고있을지 모를 일이였다. 두고온 어린것도 방금 쪼각쪼각 찢겨날리던 그 몸뚱이들처럼 무참히 도륙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수 있겠는가?…

정신없이 어둠속을 내달렸다. 강기슭에 이르자 무작정 사품치는 물속에 뛰여들었다.

《언니!ㅡ》 한정애가 부르짖으며 매달렸다. 《어쩌자구… 죽자구 그래요, 예?!》

때마침 웬 사나이가 달려들어 태를 쳐서야 정신을 차렸다. 기슭에 밀려나온 시체들과 형체를 알수 없는 잔해들을 바라보며 비로소 맥없이 울기 시작했다. 무엇때문에 울었는지 모른다. 그저 울수밖에 없는 미력한 존재에 대한 가슴저미는 아픔과 설음때문이였는지… 소리없이 울다가 벌떡 일어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시내로 들어가야만 했다. 마침 한정애가 그를 붙안으며 부르짖었다.

《저기 쪽배들이 떠오고있어요. 보세요, 저ㅡ길요!》

강건너 서울쪽에서 쪽배들이 떠오고있었다. 그토록 끔찍한 참변이 있었건만 미처 피난을 못한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강을 건느는것이였다. 은영은 정애가 이끄는대로 쪽배들을 마주 달려갔다. 기차에서 내린 손님들, 시내로 들어가려던 사람들모두가 그리로 몰려갔다. 거기서 서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버리고간 쪽배에 서로 다투며 기여올랐다. 은영이와 정애도 가까스로 그들속에 끼여들었다.

…

마침내 시내에 들어섰다. 정애와 갈라져 집으로 달리던 은영은 째지는듯 한 웨침소리에 주춤 멎어섰다. 그칠줄 모르는 비속에서 차를 달리며 부르짖고있는 웬 녀자의 목소리였다.

《국군장병들이여, 사랑하는 서울시민들이여!》

마이크가 달린 찝차우에서 비에 젖은 녀자가 웨치고있었다. 그 모습이 낯익게 느껴졌다. 자세히 보니 모윤숙이였다. 우익계에서도 가장 반동적이던 녀류시인 모윤숙이 륙군본부 정훈국의 찝차를 타고

다니며 목터지게 부르짖고있는것이였다.

《시민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이제 곧 미군이 옵니다. 우리의 우방 미국군대가 우리를 도와주러 옵니다. 절대 서울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국군장병들이여! 공산군을 막아 결사적으로 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울시민들이 그대들을 지켜보고있습니다!…》

퍼붓는 비줄기속을 헤치며 찦차는 멀어져갔지만 은영은 이윽토록 그쪽을 노리며 이를 사려물고있었다. 모윤숙, 미국놈들에게 넋마저 팔아버린 벌거벗은 시녀! 미군사고문단이 도망치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해버린줄 알기나 하느냐?…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통채로 물속에 처넣고 도망친줄 알기나 하는가 말이야?!…

새벽녘에야 비가 멎기 시작했다. 어데선가 땅크발동기들이 부릉거리고 요란한 총성이 대기를 찢었다. 새벽 5시였다. 인민군대의 서울해방 총공격이 시작된것이였다. 바로 그 시각 집에 들어선 은영은 어린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흐느끼고있었다. 두살잡이 어린 애기는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고있는지도 모르고 쌔근쌔근 자고있었다. 불안은 가셔졌다. 급기야 터진 전쟁이 방금 눈앞을 지나간것만 같았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은영이 여적 겪어본 일이 없는 무수한 시련이 폭풍치듯 밀려들고있다는것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있었다.

3

수미가 나타난것은 서울이 해방되여 5～6일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 은영은 서울시 중구 본정의 초입에 있는 시공관(극장)옆의 큰길가 공지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주민들을 모아놓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보급에 열중하고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직 은영은 그처럼 많은 학생을, 그처럼 열렬한 청중을 가져본 기억이 없다. 사람들이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따라불렀다. 초롱초롱한 눈들이 은영이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한구절한구절 따라부르며 눈물짓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그것은 가두의 대합창이였다. 기쁨에 겨워 울고웃으며 부르는 노래, 감격의 열풍이 거리를 휩쓸고있었다.

거리를 달리는 군용차들에서도 인민군병사들이 목소리를 합쳤다. 땅크들이 달리고 모터찌클에 올라앉은 병사들이 손저어주었다.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떨쳐나선 시민들도 꽃다발을 흔들며 이 노래를 불렀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어느덧 은영은 대합창을 부르는 군중의 한 일원일뿐이였다. 그저 박자를 쳐주기만 하면 되였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게 되였다. 6월의 해빛은 그처럼 밝고 눈부시였고 사람들의 얼굴 역시 기쁨에 넘쳐있었다. 온 서울시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한순간 은영은 빼곡이 들어찬 군중속을 비집고 나오는 수미를 보았다. 멀리서 손짓하며 무어라고 하는데 알아들을수 없었다. 이윽고 맨 앞줄에까지 나왔으나 수미는 사방을 둘러보고 얌전해졌다. 여기서 노래를 중지시킬수는 없다는것을 깨달은것 같았다. 수많은 군중을 쥐고 흔드는 은영을 놀란듯 바라보고있을뿐이였다. 그러나 군중을 쥐고 흔드는것은 결코 은영이가 아니라 노래라는것을 그 녀자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면 그저 은영이 그렇게 생각했을뿐인지… 그 녀자가 나타날 때마다 께름직한 그리고 불길한 일들이 생기군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수선했지만 은영은 노래보급을 계속하였다. 속으로는 은근히 수미가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그 녀자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생각

으로 군중의 맨앞줄에 손을 맞잡고 서있었다.

노래보급은 끝날줄 몰랐다. 마침 인민군대렬이 질서정연하게, 열병식을 하듯이 발을 구르며 힘차게 행진해오지 않았더라면 어두울 때까지 계속되였을것이다. 중대별로 두부모처럼 대형을 지어오는 보병대대였다. 그들이 우렁차게, 그것도 4성부대렬합창을 하며 행진해오는것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대도로에로 머리를 돌렸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했다. 인민군보병대렬이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대렬합창으로 부르며 거리를 행진해가고있었던것이다.

노래를 부르던 군중이, 지어 은영이까지 그 우렁찬 합창에 목을 빼들며 끌려가고있었다. 그처럼 장중하고 기백있는 합창을 언제 들어본적이 있었던가! 노래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가슴을 울려주었다. 이 노래야말로 정연하게, 격조높이, 희망을 안고 벅차게 대합창으로 불러야 할 태양의 송가라는것을 그 인민군보병전사들은 깨우쳐주고있었다.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대렬지휘관인 인민군소좌가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표시했다. 총을 어깨에 멘 전사들은 더더욱 힘차게,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연도에 밀려나온 사람들께 미소어린 눈빛을 던지군 하였다.

바로 그들이 만고의 빨찌산, 절세의 애국자 김장군님군대의 전사들이였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거리의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고 나중엔 모든 창문마다에 뽀마도를 바른 머리들이 내밀리였다. 사실 인민군대의 서울해방이후 지금까지 이곳 본정의 고급주택들에서는 언제한번 창문이 열려본적이 없었

으나 《부르죠아거리》로 불리우던 이 호화거리를 뒤흔든 인민군보병대렬의 힘찬 합창이 그들을 놀라게 하고 호기심 가득 머리를 내밀어 창밖을 내다보게 하였다. 그처럼 랑만적이고 잘 째인 합창을 들어본 일이 없었던것이다. 사람들의 코와 귀를 버인다고 악선전되여온 《빨갱이》들이 그렇듯 씩씩하고 조화로운 4성부대렬합창을 멋들어지게, 우렁차게 부르리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것이다. 그리고 그들,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또 얼마나 끌끌하고 잘 생겼는가!… 하나같이 미소짓고있는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였다.

은영은 아까부터 수미가 뒤따르며 소리쳐부르는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수미가 그를 붙들고 잡아끌어서야 뒤를 돌아보았다.

《어찌된거지? 이름난 독창가수가 군대합창에 끌려가다니…》수미는 무작정 인도로쪽으로 은영을 잡아끌었다. 《당장 은영씨를 데려오라는 분부예요.》

은영은 영문을 알수 없어 수미의 야굿게 웃는 모양을 지켜보기만 했다.

《어서 가요. 가면서 말해줄게.》

갑자기 수미는 깔깔 웃어대였다. 연도에 나와섰던 사람들이 마뜩지 않게 돌아볼 지경으로 소리높이 웃어대고는 난데없이 자기가 어제 한 인민군군관을 친했다고 뇌까리는것이였다.

《오락회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말예요. 얼마나 멋쟁이겠어. 왈쯔, 다쁘춤 못하는게 없어요. 나를 보더니 같이 추자고 하겠지. 그래 같이 췄지 뭐. 그랬더니 서울아씨들도 발을 잘 맞춘다나. 호호… 글쎄 인민군군관이 아주 의젓하더군요. 맘에 들더라니까. 별이 두갠가 세갠가… 그까짓건 세여보지도 않았어요. 참 미남이였어.》

은영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래 그 말을 하려구 날 찾았어요?》

《뭐? 그럼 내가 아직 말 안했단 말예요?》 수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 무슨 협주단인가 조직하는데 은영씨를 찾구있다는걸.》

《협주단?》

《그래, 북에서 나온 사람이 은영씨부터 찾겠지. 리근우위원장, 한기봉선생, 고종우씨와 조련, 강상일씨… 벌써 다 모였어요.》

《그럼 수미씨도?》

은영이 놀라와하자 수미는 두눈을 가늘게 치떴다.

《왜, 난 뭐 협주단에 들면 안된다는거예요?》

《아, 아니…》

《은영씨가 날 보증해줘요. 지금까지 날 돌려세우느라고 애쓴 은영씨가 말이지, 응?!》

은영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그게 진심이예요?》

《진심아니믄!… 정말이야. 이제야 때가 온게 아닐가. 내가 바라고 바라던 그런 때가 말예요.》

야지러진데가 있는 수미였지만 결코 교활하지는 않다는것을 은영은 알고있었다. 그리고 우익에 가붙어있던 그 녀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섰던것도 사실이다.

《좋아요.》 하고 은영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물었다. 《거기에 고종우씨도 와있다고 했지요?》

그러자 수미의 얼굴에 어떤 이상한 표정이 언뜻거렸다. 새초롬하게 쪼프린 그 녀자의 두눈에서 야릇은 경멸의 빛이 파르르 떨었다.

《그 량반이야 은영씨가 하자는대로만 하겠는데 뭐.》

그러나 그때 은영은 수미의 그 말을 스쳐버리고말았다. 협주단을 조직한다는 소식이 너무도 큰 충격을 주었기때문이였다. 그들은 붐비는 사람들속을 헤집고 달음질쳤다.

수미가 북에서 나온 사람이라 한것은 백영준이였다. 그가 부민관에서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에 들 배우들과 담화하고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진중한 사람이였는데 수미는 30을 넘기지 않았을 그 사람을 가리키며 《미남자이지?》하고 속삭이는것이였다. 그 녀자에게는 북에서 나온 사람들모두가 미남자로만 보이는듯싶었다.

극장객석에는 은영이가 잘 아는 많은 배우들이 앉아있었다. 주석단처럼 탁자와 걸상이 놓인 복수앞쪽에서 무엇인가 말하고있던 백영준이 뒤늦게 들어선 은영이를 눈여겨보며 옆에 앉은 사람(박진)에게 묻는듯 한 눈빛을 던졌다. 연극배우이며 연출가인 박진이 소문난 오페라가수 김은영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자 은영이와 나란히 서있던 수미가 재빨리 덧붙였다.

《오페라가수일뿐더러 유명한 콘서트가수이기도 하지요. 우리 가요계의 스타로 공인되여있잖아요?》

은영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오늘은 어찌된 일인가. 가극가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여 유명한 가요가수라고 못박는 수미의 말에 은영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박진은 조금 면구스러워했고 백영준은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음, 동무가 바로 김은영이였구만. 어서 자리잡고 앉으시오.》

백영준은 그들이 앉기를 기다려 하던 말을 계속했다.

《하던 얘길 계속합시다. 이제부터 인민군협주단은 전선위문공연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조직될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은 전선부대들과 동시에 후방에서의 공연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임을 맡게 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니,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도 많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한편의 시와 노래가 천만사람의 심장을 움직이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싸우는 전선과 후방을 고무하고 불러일으키는 사상정신적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동무들?… 협주단에 드는것은 군대에 입대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원성의 원칙에서 조직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오. 누구도 강요하진 않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예술인들이 일시에 소리쳤다.

《입대하겠습니다.》

《협주단에 들겠습니다.》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을라구요.》

《그래요, 나도 받아주세요!》

한 남자배우가 일어서며 소리쳐 물었다.

《군복도 내줍니까?》

《상부에 제기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일시에 질문의 소나기가 퍼부어졌다.

《별도 달아줍니까?》

《인민군대복장과 꼭 같습니까?》

《관현악은 3관편성을 합니까? 요란하게 꾸리겠지요?》
《나이는 상관없습니까? 난 마흔고개를 넘었는데요.》
《가정부인들은요, 예? 가정부인도 들수 있겠지요?》
백영준이 미처 대답할새없이 저들끼리 떠들어댔다. 모두가 잔치집에 온 손님들 모양으로 왁작하니 떠들고 웃어대고 론쟁을 했다. 백영준이 손을 들어 장내를 진정시키고나서 청을 돋구어 말했다.
《동무들, 우선 대렬을 짜야 합니다. 협주단은 명실공히 군대예술단체이니만큼 정연한 조직과 규률을 전제로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선 희망자들을 선발하고 기악과 성악, 화술배우들을 구분하여 조를 구성합시다. 물론 지휘성원들도 임명하고… 단장, 부단장들과 작곡가, 지휘자, 연출가 그리고 각 부문별로 조장, 파트장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장은 중대장으로 불리울거구 파트장은 소대장 또는 분대장이 될겝니다. 당장 이 일부터 시작합시다.》
수미가 은영에게 말했다.
《멋있을것 같애. 어때요, 은영씬?》
은영은 혼자소리같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바라던 일이… 끝내 시작됐군요.》
《그래?》하고 나서 수미는 별안간 깔깔 웃어대였다. 《겨우 협주단배우가 꿈이였다구?… 아니, 내가 은영씨라면 좀 더 큰걸 바랐겠는데… 예술계의 녀왕자리쯤!》
은영이 의아쩍어하며 쳐다보자 수미는 입을 비쭉거렸다.
《은영씨야말로 눈부신 성공의 길로만 걸어가리라고 봤기때문이지 뭐. 그것때문에 미워도 했구. 알고보니 괜히 미워했드랬지. 사랑에서도 그렇구 예술에서두… 제발 야지랑스러운 표정은 걷어치워요. 놀라는척 하면서… 한마디만 말해주겠어. 잘 들어봐요. 녀자들은 말이지 간혹 미친것처럼 놀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녀잔 미쳤어 하고 말하게 될 때 비로소 제 길을 가고있다는걸 알아야 해요.》
《?…》
수미는 잠시도 안정을 모르는 녀자이다. 은영이도 인제는 수미가 어떻게 돌변하든 놀라지 않는다. 어느새 수미는 은영이를 떠나 장내를 휘둘러보고있었다. 재빨리 그 누군가를 찾고있는 눈길이였다. 아마도

고종우를 찾고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데가 많았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접촉도 드물어졌다. 나날이 고종우는 수미에게서 멀어져갔는데 그럴수록 수미는 끈질기게도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어찌된 일일가. 갑자기 수미가 친절을 표하고 거드름을 부리는 까닭은 무엇때문일가?…

은영은 머리를 흔들었다. 더이상 보잘나위 없는 일들에 관심하고싶지 않았다. 마침 백영준이 그를 손짓하고있었다. 은영이 다가가자 그는 아버지와 동생들 그리고 림호에 대해서 이것저것 확인해보고나서 이렇게 넌지시 물었다.

《저 수미라는 녀동무하군 안지 오랬습니까?》

《예.》

《은영동무와 제일 가깝다지요?》

은영이 아무말없이 말끄러미 지켜보기만 하자 백영준은 소리없이 빙긋이 웃었다.

《그를 협주단에 받아들이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세요? 그리구 뭣때문이나요?》

《그러니 동문 찬성이군요?》

《예.》

《그럼 됐습니다. 은영동무가 그렇게 나오니 반갑습니다. 누구든 진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지 나쁠거야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동무?》

그가 불러주는 동무라는 말이 무척 친근하게 들렸다. 은영은 머리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같이 손잡고 잘해봅시다.》

그에게서 물러나자 수미가 쫓아왔다.

《그와 무슨 말을 했지? 혹시 나에 대해서 캐묻지 않았어요?》

수미야말로 수은주와 같이 예민한 감각을 가진 녀자였다.

《아니.》은영은 대수롭지 않게 잘랐다. 《나이랑, 고향이랑 그리구 학력이랑… 별치 않은것들을 묻더군요.》

《왜 별치 않은거겠어요?》 수미의 얼굴이 밝아졌다. 《두고봐요.

이제 은영씬 여기서도 쟁쟁하게 날릴거야. 말하자면 빅타불이 켜진다는거예요.》

빅타불이란 국제적인 콩클에서 1등을 할 때 켜지는 빨간 불을 말한다. 은영은 소리없이 웃고말았다.

이날부터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은 신속히, 정연하게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군복은 입지 않았다. 최고사령부의 지시라고 했다. 군사적편제를 가진 협주단이고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 예술단체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해방지역에서 사복을 입고 활동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본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것이 군대식이였고 내용상 그들은 군대예술인이였다. 백영준은 고문격으로 정치사업을 위주로 맡아하였고 단장으로는 박진이 임명되였다. 은영은 수미가 표현한대로 20여명으로 이루어진 녀성성악조의 조장, 다시말하여 중대장이 되였다.

×

서울에서는 많은 의용군부대들이 조직되여 전선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그무렵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은 그들을 위한 공연을 조직하였다. 공연이 진행되는 부민관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의용군병사들은 물론 그 가족들, 기자들, 협주단의 첫 공연에 커다란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공연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였다. 다음은 여적 부민관에서 불리운적이 없는 곡목들이 올랐다. 은영은 독창으로 《구국투쟁가》를 불렀다. 폭풍같은 박수갈채와 재청을 요구하는 웨침소리가 장내를 진동하였다. 그런데 은영이 막 재청을 받기 위해 다시 무대로 나섰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장내에서 째지는듯 한 휘파람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날아왔다. 시꺼먼 돌멩이같았다. 은영의 발치에 떨어지며 데그르 굴러가는데 현수막곁에서 다음차례를 기다리던 강상일이 고양이처럼 날래게 몸을 날려 그것을 잡는것과 동시에 무대옆의 창문으로 뿌려던졌다. 요란한 폭음이 울린것은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창유리는 물론 창턱과 벽이 부서지며 암갈색의 불길과 먼지타래를 몰아왔다. 수류탄이 창유리를 깨고 나가

며 터졌던것이다. 장내에서 비명소리가 터지고 모든 관중이 일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왁작하니 떠들기 시작했다.

은영은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해쓱해진 얼굴로 장내를 바라보고있을뿐이였다. 누가, 무엇때문에 수류탄을 뿌렸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그것도 자기 은영이를 향해 죽음의 폭음을 터뜨리려 한것이였다. 그것이 수류탄이라는것을 깨달은것은 폭발이 일어난 다음이였다. 미처 놀랄새도 없었다.

강상일이 제때에 그것을 뿌려던지지 않았더라면 은영은 형체도 없이 산산쪼각이 났을것이다.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가. 노래부르는 녀자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 리유를 무대에 나선 백영준고문이 말해주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그가 손을 쳐들며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그처럼 침착하고 태연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게 하였다.

《여러분.》 그는 높지 않게, 그러나 저력있게 말하기 시작했다.

《방금 보신것처럼 원쑤들은 간악합니다. 우리의 자랑높은 녀가수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녀가수가 공화국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기때문입니다. 그를 죽이거나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우리 예술인들은 물론 여기 모인 여러분모두가 공화국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것입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놈들이 제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전체 관중이 우렁찬 박수로써 그의 연설에 공감을 표시했다. 때를 맞추어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었다. 물결치는듯 한 현악기들의 선률이 폭발로 어수선해졌던 장내에 부드럽게, 아늑하게 흘러들었다. 《산으로 바다로 가자》의 전주음악이였다. 은영은 모두숨을 내뿜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바이올린, 비올라 등의 현악기들이 부드러운 물결처럼 흘러들고 그윽한 그 선률의 파도우에 은빛물보라처럼 아롱이는 플류트의 구을음소리가 뽀얗게 흩날렸다. 하여 은영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 림호와 함께 일생을 언약하며 부르려 했던 그 노

래를 또 시작하였다.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흰 물새 훨훨 파도우에 넘나들고
아득한 수평선엔 흰 돛이 아름다운
저기 저 바다로 우리 가자

눈물이 반짝이는 은영의 두눈은 아득히 두만강의 거센 흐름이 밀려가는 먼바다를 바라보고있었다. 희망찬 새생활을 약속하는 바다, 그 바다를 가슴에 안고 살게 된 기쁨과 행복이 그의 얼굴에 피여난 귀여운 미소로 일렁이였고 가슴속에서 솟구친 감격이 안개낀듯 부드러운 그 목소리에서 그리고 창공높이 날으다가도 별안간 넘실거리는 물결우에 소리없이 내려앉는 감정의 울림속에서 녹아흐르고있었다.

산에 가면 산새 물에 가면 물새
가는 곳마다 아 이쁜 우리 하늘일세

은영은 노래를 순수 목소리의 기교로써가 아니라 가슴속의 속삭임과 정열의 분출로 터치고있었다. 아버지와 림호를, 사랑하는 동생을 희망찬 바다로 부르며 눈물짓고 웃음지었다. 하여 노래가 끝나자 우뢰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재청!—》하고 부르짖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목청껏 웨쳐대는 사람들도 많았다. 해방의 기쁨을 맞아 눈물로 환호하던 서울시민들이, 전선으로 달려갈 의용군전사들이 목소리합쳐 은영을 부르고있었다.

몇곡이나 더 불렀는지 모른다. 거듭거듭 인사하고 막뒤로 들어섰을 때에야 두손으로 강상일의 목을 끌어안았다. 은영이 그럴줄은 짐작도 못하고있던 강상일이 깜짝 놀란 소리를 질렀다.

《아, 중대장동무. 이건 뭐요, 예? 도대체…》

《고마와요, 강동무. 거기만 아니였다면 정말… 어쩔번 했어요. 정말 고마와요!》

《강동무가 아니라 강투사라구 해야지.》 이렇게 말한것은 자청하

여 무대감독을 맡고있는 한기봉연출가였다. 그가 은영이를 제때에 잡아떼였다. 《아, 그럴새 없소. 강투사차례요.》

그는 강상일을 조명등이 휘황한 무대에로 떠밀었다.

이때부터 협주단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위문활동을 벌리기 시작했다. 화물자동차로, 기차로, 도보로 전선과 후방을 돌며 멀리 전라북도의 중요항구 군산의 해안방어부대에까지 나갈 때도 있었다. 때로는 바다가 모래불에서 모기와 싸우며 야숙을 하고 몇끼씩 굶기도 했다. 은영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야 어머니에게 맡긴 어린 딸을 생각하군 하였다. 그러면 마음이 구깃구깃해지면서 이상한 아픔에 목구멍이 꽉 메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다. 전선이 멀어져가고 행군길도 늘어만 갔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리도 가까이 보이던 승리의 날도 자꾸만 멀어져가고있었다. 아직은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있을뿐이였다.

4

맥아더의 대규모인천상륙작전이 벌어진 9월 중순이였다. 련사흘째 그속에서는 포성이 진동하고 무수한 비행기들이 하늘을 덮었다. 암갈색의 포연이 서울상공을 뒤덮고 태양도 꺼멓게 그슬리고있었다. 하늘을 메우며 밀려든 적기들이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로들을 맹폭격하고 소낙비처럼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너무도 급작스럽게 벌어진 사태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락동강전선에서 대구, 부산을 목표로 최후의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인민군대의 혁혁한 승리에 대해서만 들어오던 그들이였다. 방금 군산에서 돌아온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은 격전이 붙은 인천지구에 소편대를 파견하여 전투원들을 고무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여 박진단장은 말하였다.

《인천지구에 나갈 소편대를 조직하겠습니다. 자원성의 원칙입니다. 내가 소편대를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소편대에 나갈 동무들은 나서시오.》

그것은 마치 죽으러 나갈 동무들을 부르는것과 다름이 없었다. 모든 대원들이 일순 귀가 먼것처럼 입을 벌리고있었다. 은영이 역시 별안간 얼음물을 끼얹은듯 몸을 옴츠리지 않을수 없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일먼저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쑥 나선것은 강상일이였다. 부민관에서 있은 수류탄사건으로 《강투사》로 불리우기 시작한 테놀가수, 맑고 챙챙한 목소리처럼 날파람있고 견결한 사람이였다. 은영은 한순간 무수한 바늘침이 얼굴을 찔러대는듯 했다. 아버지와 림호, 일한이의 눈빛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히는것이였다. 그들앞에서 순간이나마 주저한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워 엷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까지 하였다.

《저도!…》

은영은 이 말밖에 할수 없었다. 앞으로 걸어나가며 비로소 가슴속에 꽉 들어차있던 숨을 활 내뿜었다. 뒤따라 여러 사람이 손을 들고 나서는것도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목소리만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짐작했을뿐이였다. 그들속엔 고종우도 끼여있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바리톤가수답게 부드럽고 웅근 목소리였다. 고종우, 훤칠한 키에 모든것이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자리잡은 미남자였다. 온화하고 점잖은 사람 아니, 보다 중요한것은 그가 언제 보나 깨끗하고 성실한 그것이였다.

얼마후엔 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성악을 기본으로 선동적인 화술배우 몇사람 그리고 콘드라바스를 비롯한 큰 악기들은 억지로 떼여놓고 악사들은 소편성으로 구성했다.

편대가 구성되자 사람들은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공포와 불안을 숨기지 못하던 그들이였으나 정작 화선으로 나가는 대렬이 짜지자 거기에 선발된것이 못내 자랑스러웠던것이다.

맨먼저 자동차에 오른 기악조의 트롬본수 주인걸이 밑에서 콘드라바스를 잡고 부러워 바라보는 자기 동료에게 소리쳤다.

《여, 켄바스! 자넨 집에 가서 혼자 속썩이는 녀편네궁둥이나 쓸어주게. 이 트롬본이 입자몫까지 다 불어줄테니까.》

《우쭐렁거리지 말라구.》 켄바스라고 악기명으로 불리운 사람이 투덜

거리는 말이였다. 《그까짓 돼지멱따는 소리나 내는 악기를 가지구.》
《뭐 돼지멱따는 소리? 하아— 이 사람아, 이게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라는걸 몰라?》
그때 은영은 남들에게 뒤질세라 화물자동차에 기여오르고있었다. 주인걸이 떠들어대는 소리도 놓치지 않았다.
《이 트롬본은 말이야. 장중하구 위엄있구… 그래서 옛날 유럽에서는 하느님의 목소리와 같다구 해서 교회음악 아니믄 절대 못쓰게 했던거야.》
그가 자기의 악기를 자랑하는 이 말을 한두번만 하지 않은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이, 특히 기악조의 사람들이 웃으며 그뒤를 달았다.
《그러던걸 베토벤이 처음 썼지.》
《옳아, 교향곡 5번 〈운명〉에 그 하느님의 목소리가 꼭 필요해서… 그렇지?》
그러자 주인걸이 걸걸하게 웃으며 으시대였다.
《알긴 아누만. 난 바로 이런 장중하고 위엄있는 소리로 미국놈들을 벌벌 떨게 한다는거야, 어때?!…》
유쾌한 웃음속에 은영은 생각했다. 그럼 나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전선으로, 격전장으로 나가고있는걸가?… 물론 그것은 사랑의 목소리이다. 애끓는 사랑의 목소리… 뜨겁게 사랑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목소리… 그런즉 내겐 하느님의 목소리가 필요없어!… 이렇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순간 은영은 자기쪽으로 머리를 돌리고있는 수미를 발견했다. 웃음짓는 은영이를 스쳐보며 그는 말했다.
《내게도 할몫이 있어. 난 겁쟁이도 아니니까!》
그것은 자기와 등을 돌려대고있는 고종우와 은영이 두사람이 들으라고 한 말이 분명했다. 어느새 올랐는가, 저 수미는?… 편대를 짤 때에는 그가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먼저 차에 오른것이 분명했다.
은영은 별안간 그를 끌어안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새 사람들이 달라졌다. 수미 역시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그리고 그가 말한것처럼 수미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다.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칼부림이라도 서슴지 않을 녀자라는것을 은영은 잘 알고있는것이다.

은영은 수미의 팔목을 꼭 잡았다.

《같이 가자요. 언제든지 같이…》

수미는 말없이 자기의 눈앞을 담벽처럼 막고있는 고종우의 넓은 잔등만 지그시 쏘아보고있었다.

화물자동차로 인천까지는 한시간 남짓이 걸린다. 도중에 차가 멎었다. 적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날아들고있었다. 운전사가 《빨리 내리뛰시오!》 하고 소리쳤다. 적재함우에 올라탔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내리뛰였다. 가까운 홈타기로, 폭탄구뎅이며 잡관목숲으로 달려가는데 적기들이 기총탄의 몰사격으로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다. 이어 주먹같은 폭탄이 줄지어 떨어져내리기 시작했다.

홈타기에 구겨박혔던 은영이가 눈을 떠보았을 때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는 이미 직탄을 맞고 형체도 없이 날려가버렸었다. 폭음소리도 멀어졌다. 적기들이 서울시상공으로 날아가고있는것이였다. 이윽고 도로우에는 쪼각쪼각 널려진 자동차잔해들이 여기저기서 불타고있을뿐이였다.

인원점검을 해보니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이 없었다. 한사람, 기악조의 바이올린수만이 시꺼먼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박살난 바이올린통이 들려있었다.

《이제 난 어쩌믄 좋소, 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서 악기는 곧 생활과 투쟁의 무기였던것이다. 누군가 그의 잔등을 툭툭 치는것으로 위안하고있었다.

박진단장이 도로에 나가 소로길에서 나온 인민군대자동차를 멈춰세웠다. 인천지구로 위문공연을 간다는 말에 맨 앞차에서 내린 인민군보병중대장이 어마지두 놀란 소리를 질렀다.

《공연을 간다구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 있습니까. 당장 돌아가시오. 지금 거기가 어떤지 알기나 하시오?》

박진단장도 어성을 높였다.

《난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 단장이요. 지금 사복을 하고있지만 중대장동무보다 상급이란 말이요. 군사칭호는 중좌, 알겠소?》

그러자 보병중대장은 재빨리 거수경례를 붙였다.

《중좌동지, 제가 그만…》

《아, 아!》 박진은 면구스러워하며 손을 내저었다. 《우리 동무들을 좀 태워주. ㅡ 군대예술단체인데 싸움터를 피하겠소?》

《글쎄 태워드리긴 하겠지만》 하고 중대장은 적재함우의 꽃같은 녀자들을 훔쳐보며 중얼거렸다. 《그런 사지판에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두 석대의 자동차가 부평에 들려 총포탄을 싣고 간다고 했다. 그들은 저마끔 차에 올라 부평으로 갔다. 인천이 가까왔으므로 무시무시한 폭음이 사람들의 가슴을 옥죄였다. 유쾌한 웃음속에 출발한 그들이였지만 전쟁은 역시 전쟁이여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매캐한 초연이 바람에 실려오고 요란한 폭발과 화재의 불기둥이 가까이 바라보였다. 하늘은 온통 타래치는 화염과 재개비로 뒤덮여있었다.

소편대는 부평에서 군인들을 도와 총포탄상자들을 실어주었다. 알고보니 부평은 일제가 패망한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동굴과 창고, 수백채의 건물을 짓고 보급기지로 만든 곳이였다. 《아미 써비스 코맨드(륙군보급사령부)》라는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아스콤》이라고 부르는데 미군이 버리고 간 총포탄 약 2천여톤이 그대로 저장되여있어 인천지구의 많은 방어부대들이 여기서 탄약을 실어간다고 보병중대장이 말해주었다.

그는 사실 지혜롭고 쾌활한 사람이였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박격포신같이 미끈하고 단단했다. 나리꽃같은 배우들때문에 머리털이 세겠다고 투덜거리며 한시도 안정을 몰랐다.

그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한시간후 인천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꺼멓게 질려 부들부들 몸을 떨지 않을수 없었다. 화염의 폭풍이 먼저 그들을 덮치고 번쩍거리는 섬광과 자지러진 총포탄소리에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하면서 무수한 예광탄의 불꼬리가 비수같이 서리차게 머리우를 썰었고 땅크발동기소리와 돌격의 웨침소리가 간단없이 터지군 하였다. 누가, 어데서, 어떻게 싸우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차츰 조용해지기 시작하였다. 적어도 소편대가 도착한 그 구역만은 총포성이 멎고 땅을 물어뜯던 땅크의 무한궤도소리도 멎었다. 격렬한 싸움의 울부짖음소리는 멀리 바다에 면한 곳에서만 계속되고있었다.

《저긴 108련대가 방어하는 구역인데…》 보병중대장이 어둠속을 살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니 놈들이… 그래, 아직 안벽을 넘진 못했어.》

그는 얼어붙은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소편대성원들을 돌아보며 큰소리로 웃어대였다.

《무서워마십시오. 한개 중대쯤 되는 적들이 우리쪽으로 달려들다가 도망쳤습니다. 이제 또 공격해오긴 하겠지만 놈들도 얼마간 숨을 돌려야 할테니 노래부를 시간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수만명의 적들이 인천상륙작전에 동원되였다고 한다. 상륙작전의 첫 단계로 인천항의 외항과 내항에 수백척의 상륙정, 보급함들을 들이밀어야겠으나 물목을 막고있던 월미도의 해안포중대가 사흘동안이나 상륙을 저지시켰으므로 이제야 겨우 내항으로 접근했는데 부두에 쌓은 안벽을 넘지 못해 발광을 한다는것이였다.

사실 인천시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응봉산(매봉이라고도 한다.) 비탈을 따라서 층층으로 거리가 이루어져있다. 항구는 륙지와 월미도간의 방파제, 월미도와 소월미도사이의 방파제 그리고 륙지로부터 사도를 거쳐 서남쪽으로 뻗은 남쪽 방파제가 있는데 그 안쪽을 내항, 바깥쪽을 외항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은영은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림호가 아지트를 가지고있던 여기 인천으로 자주 오면서도 그런것엔 거의나 무관심했었다. 이제야 비로소 보병중대장을 통하여 그 모든것에 주의를 돌리는것은 무슨 까닭일가?… 안벽은 해안의 방조제였다. 지금 협주단은 거기서 멀리 떨어진 동인천역가까이 있는것 같았다.

《자, 그럼》 하고 보병중대장이 말했다. 《여기서 몇곡 불러주고 돌아가십시오. 보시다싶이 싸움이 붙으면 몽땅 귀먹재가 되고맙니다. 괜히 아까운 희생만 내지 말고 제때에 돌아가는게 좋습니다. 마침 놈들도 입을 다물고있겠다 한바탕 울려봅시다!》

그러는 사이에 전체 중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모여앉았다. 깨여진 벽돌장들이 너저분했지만 2층이나 3층쯤 되였을 건물의 벽체가 앞을 막고있어 공연장소로는 안성맞춤이였다. 두런두런하는 말소리와 웃음소리들이 커가는 가운데 담배불들도 경쟁적으로 껌벅거렸다.

재빨리 조음을 했다. 박진단장이 직접 소개의 인사말을 하고 가수

들이 나와 주련이 서자 누군가 미리 가까이 끌어다놓은 자동차의 전조등을 켰다. 순간 《야―》 하는 탄성이 터졌다. 보병중대장이 나리꽃같다고 한 녀배우들의 모습에 순진한 병사들이 입을 딱 벌리는것이였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 요란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아직 노래도 시작하기 전이였지만 전사들은 격렬한 싸움터에까지 찾아온 배우들에게 열광적인 박수로 자기들의 기쁨과 감격을 표시하는것이였다.

먼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하였다. 소합창이였지만 어둠속을 파헤치는 그 울림은 예상외로 크고 장중하였다. 린접구분대들에서도 병사들이 달려왔다. 보병들은 물론 해병들과 포병, 자동차병, 땅크병들의 모습도 보였다. 많은 병사들이 적들의 있을수 있는 집중사격도 개의치 않고 무너진 건물의 벽체에까지 기여올랐다.

요란한 박수갈채속에 종목들이 바뀌였다. 《승리의 5월》, 《녀성의 노래》, 《밭갈이노래》, 《진군 또 진군》… 곡목이 끝날 때마다 《재청!―》 《재청!―》 하는 요란한 웨침소리가 전장을 뒤흔들었다. 치렬한 싸움이 계속되던 전장이 숨을 죽이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있었다. 적들도 귀를 기울이고있는듯 했다. 인제는 멀리서 울리던 격렬한 총성마저 그쳤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은영은 일본군사평론가 고지마 노보루의 《조선전쟁》이라는 두툼한 책을 통하여 바로 그날 소편대가 공연을 한 곳이 미제5해병련대의 공격전방이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은영이 다섯번째 재청곡을 부를 때였다. 전체 중대(아니, 그때엔 대대나 련대급이상의 군인들이 모여와있었다.)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부르는 가운데 수미가 보병중대장을 끌어내여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어느새 수미는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 알고보니 보병중대장은 전문훈련을 받은 배우 못지 않게 률동이 좋은 춤의 명수였다. 노래 3절을 잇기 전의 짧은 음악간주때 수미가 은영의 옆을 지나며 유쾌하게 소리쳤다.

《멋쟁이파트너지?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녔대!》

수미의 두눈에서 불꽃같이 타오르는 미소를 띠여본 은영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보병중대장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수미와 함께 왈쯔풍의 음악에 맞추는 억센 사나이의 모습이 연송 눈앞에서 언듯거렸다. 어느새 많은 군인들이 춤판에 뛰여들었다. 은영은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곳을 피흘리는 전장이라고 누가 믿을수 있으랴!… 자동차의 전조등빛이 껌벅거리며 은영이와 악사들, 춤추는 군인들과 녀배우들을 언듯언듯 비쳐주었다. 재미나는 자동차운전사였다. 마치 극장에서 조명등을 비쳐대듯 손으로 불빛을 막았다, 떼였다 하는것이였다.

노래가 끝나자 보병중대장이 은영이가 섰던 자리에 나섰다. 이제 그가 격동적인 연설을, 아니면 전투적인 구호를 웨칠것처럼 생각되였다. 한손을 권총집에 얹고 다른 손은 아직도 화염이 충천하고있는 밤하늘로 높이 쳐들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연설이 아니였다.

절망이 잦아든 이 거리에
별천지의 화원인양 화해에
불꽃이 나붓기고
재생의 열망을 휘끗어올리며
화광이 춤추는데

시를 읊고있는것이였다. 쾌남아 보병중대장이 조기천의 시를 읊고 있다.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짚고 웨치는 김대장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만세소리 집도 거리도 떨치고
화염을 따라 오르고올라
이 나라의 컴컴한 야공을
뒤흔든다 뒤울린다!

그것은 그저 시인것이 아니라 심장이 분출하는 피의 열정이였다. 은영은 많은 인민군병사들이 자기들의 수첩에 조기천의 시를 써가지고 다닌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오락회나 모임때마다 그의 시를 읊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글줄이 아니라 노래처럼 불리우는 시였다.

그러면 저 시를 쓴 시인은 어떤 사람일가, 열정의 시인 조기천은?!… 은영은 보병중대장이 돌따서자 그에게 나가 두손을 꼭 잡고 흔들었다.

《잘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은영은 자기가 녀가수로서 전투원들을 고무하러 왔지만 그 중대장에게서 더 큰 고무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고맙습니다.》 보병중대장의 말이였다. 《그런데 진짜 인사를 받아야 할분은 시인 조기천선생이지요.》

그가 말끝을 맺기 전에 수미가 달려와 중대장의 두볼에 거침없이 입을 맞추었다.

《야, 중대장동지, 정말 기막혀!》

수미는 중대장이 면구스러워하는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것이 또 만장의 요란한 박수를 불러일으켰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군인들이 앞으로 쓸어나와 감사의 인사말을 퍼부었다.

《고맙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배우동무들에게 경례를 드립니다!》

《다시 만납시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인젠 자리를 뜨십시오. 잘 가십시오!》

《승리의 날 다시 만납시다!》

쿠궁! 포성이 울렸다. 가까운 곳에서 폭발의 섬광이 눈을 때렸다. 불기둥이 치솟고 재개비가 흩날리였다. 마지막으로 보병중대장이

그들의 잔등을 떠밀며 인사말을 했다.

《내가 하고싶었던 말을 우리 동무들이 다했으니 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배우동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중대위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작별의 인사말은 않겠습니다.》

그는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드디여 죽음의 교향악이 시작되였다. 지동치는듯 한 폭음에 발밑의 땅이 움씰거렸다. 무수한 불꽃들이 란무하고 파편이 머리우에서 앙칼진 휘파람소리를 질렀다. 화염과 초연에 눈을 뜰수 없었다. 그러나 소편대는 연주를 계속했다. 기악조는 물론 가수들도 교대로 싸우는 전사들을 고무하여 노래를 불렀다.

전장에서 지동치는듯 한 폭음을 누를 소리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목소리는 결코 미약하지 않았다. 특히 녀가수들의 노래소리는 격렬한 총포성을 빛살처럼 뚫고나가군 했다.

보아라 피에 젖은 남조선땅을
우리 부모형제가 목숨걸고 싸우는 땅
일어나라 조국의 아들딸들아
조국의 운명이 우리 힘에 달렸다

보병중대장이 달려왔다. 극도로 흥분한 그여서 안면근육이 푸들푸들 떨리는것이 알렸다.

《동무들, 돌아가시오. 이러단 다 죽소. 모두 내 명령을 들으시오!》

그는 남자건 녀자건 사정없이 떠박지르며 돌려세웠다. 목터지게 웨치고 쥐여박기까지 하며 건물벽체뒤에서 몰아내였다. 박진단장도 어쩌지 못하고 빨리 철수하라고 소리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무시로 번뜩이는 섬광과 뒤따르는 어둠속에서 그들은 허둥거렸다. 그리하여 소편대는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는것이 그만 적땅크들이 돌진하는 전장으로 나아갔다. 기관총의 련발사격이 무너진 건물잔해를 소고치듯 맹렬히 두들겼다.

그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눈앞에서 적땅크의 무한궤도가 흙먼지

를 말아올리며 높이 쳐들리였던것이다. 너무도 돌발적인 일이여서 사람들은 몸서리치며 굳어져버렸다.

그 순간이였다. 한 전사가 달려나와 맨앞의 박진을 떠박지르며 반땅크수류탄을 뿌렸다. 폭발의 굉음!… 적땅크의 무한궤도사슬이 맥없이 풀리고 그 전사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그를 대신하여 누군가 뒤쪽에서 《동무들, 이쪽으로!》하고 소리쳤다. 모두 소리나는 그쪽으로 뛰여갔다. 이미 그들이 지나온 곳에 커다란 웅뎅이가 생긴것을 소스라치며 살펴보았다. 끄물끄물 연기를 피워올리는 그 웅뎅이를 뛰여넘는 사람이 있었다. 중대장이였다.

《날 따라!—》

이어 그는 어둠속을 향해 또 힘껏 소리쳤다.

《경기사수, 이쪽을 엄호하라!—》

아무것도 가려보지 못하며 그만을 따라갔다. 언제 담장을 길게 둘러친 건물뒤쪽을 빠졌는지도 알지 못했다.

《인젠 됐소. 저앞으로 빠지…》

중대장은 다음말을 잇지 못했다. 허리춤에서 반보병수류탄을 뽑아 힘껏 뿌렸다. 수류탄이 폭발할 때에야 은영은 골목길로 뛰여들던 적들이 담장을 허비며 나딩구는것을 보았다. 두번째로 수류탄을 뽑아 어깨우에 들던 중대장이 별안간 《윽—》 하면서 허리를 꺾고 쓰러졌다. 한손으로 가슴앞섶을 움켜쥐는데 그의 옆에는 방금 빼들었던 수류탄이 떨어져있었다.

《오지 마시오. 수류탄, 수류탄이!…》

그가 단말마의 힘을 짜내며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들은 황황히 그에게 몰켜들었다.

《중대장동무, 뭐라구요?》

《왜 그러세요, 예?》

순간의 일이였다. 그는 용을 쓰며 팔을 뻗쳐 수류탄을 그러잡더니 그우에 몸을 덮었다.

폭발!… 모든 사람이 아연실색하여 말뚝처럼 박혀버렸다. 은영은 그만 눈을 감고 전류에라도 감전된것처럼 와뜰 몸을 떨었다.

만신창이 된 시체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 쾌남아 보병중대장, 춤

과 시로 사람들을 격동케 하던 그 중대장이 죽은것이다. 소편대의 전체 성원들이 억이 막혀 부르르 몸을 떨고있을뿐이였다.

잠시후 수미가 나서며 그의 잔등을 건드리다가 그만 기겁하여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손바닥은 온통 피로 젖어있었다. 너울거리는 불빛이 그 처참한 정경을 얼추 비쳐주었다. 그러자 수미는 피에 젖은 손을 높이 쳐들고 부르짖었다.

《우린 왜 왔을가. 예?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지 뭐예요!》

누구 한사람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난데없는 울부짖음에 은영은 다시금 몸서리쳤다. 그 말은 옳다. 그렇지만 옳은것 같으면서도 다 옳은건 아니다. 오히려 그건 중대장을 모욕하는 말이다. 그가 우리때문에 죽은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을것이다. 그가 아니라 우리가 몰살되였더라면 그를 탓해야 하겠는가? 이제 내가 여기서 눈먼 총알에 맞아죽는다면 그것도 그 누구의탓이란 말인가?…

은영은 수미를 밀치고 중대장의 가슴에 손을 밀어넣었다. 뜨끈한 그리고 끈적끈적한 느낌에 몸서리쳤으나 그래도 한가닥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싶었다. 그러나 이미 심장은 멎어있었다.

은영은 피에 젖은 수첩만을 그의 품속에서 꺼낼수 있었다. 흐느끼듯 숨을 톺으며 그것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었다.

경기를 틀어쥔 병사가 달려온것은 그 순간의 일이였다. 저 앞쪽에서 언듯거리는 그림자들을 향하여 《개새끼들아!—》하고 울부짖으며 몰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 되여있었다.

마침내 그가 열어준 길로 일행은 빠져나갔다. 마지막까지 엄호해주는 그의 경기관총소리를 들으며, 쓰러진 중대장을 두고온 그 폐허쪽을 자꾸만 돌아보며 달려갔다. 수미는 아직도 헉—헉 토막숨을 내뿜으며 몸의 균형을 잃고 비칠거리군 하였다. 은영이 그를 부축해주었다.

《정신차려요, 수미!》

《아니야, 그게 아니야.》수미가 헐썩거리며 중얼거렸다. 《그게 아니란걸 알았어. 난!…》

《무슨 소릴 하는거예요?》

《알았어. 이제는 다 알았어!》

그때 수미의 머리에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고패치고있었는지 은영은 알수 없었다. 강상일이 도와주어 둘이서 수미를 질질 끌다싶이 하였다. 마지막까지 고종우는 눈에 띄지 않았다. 박진단장과 같이 맨앞에서 철뚝을 넘어서기까지 수미가 있는 뒤쪽은 한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수미의 약혼자 고종우,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혹시 점잖고 단정한 언행으로 자기를 감싼 위선자는 아닐가?…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잠간, 은영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르기 위해 숨이 턱에 닿도록 뛰여야 했다. 그래도 끝까지 보병중대장의 품에서 꺼낸 수첩만은 손에 꼭 쥐고있었다. 다음날 검붉은 피가 말라붙고있는 그 수첩에서 은영은 강상준이라는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가 사랑한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이 첫장부터 마감까지 빼곡이 씌여져있는것을 눈물속에 번져보았다.

5

그들은 다음날 밤에야 서울시에 이르렀다. 자동차로 달리면 한시간 남짓이 걸릴수 있는 거리를 옹근 하루 낮과 밤을 걸었던것이다. 그들이 걷고있는 사이에 피의 력사는 멀리 앞질러 씌여지고있었다. 어느새 적들은 부평을 지나 서울서남쪽의 영등포와 김포비행장에로 총공격을 감행하고있었다. 김포비행장의 동북쪽 향주와 영등포의 정면 안양천에서 그리고 금무봉에서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었다. 그러나 이제 적들은 하나의 작은 릉선, 시내물 하나도 수백수천에 달하는 주검을 내지 않고서는 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알리 없는 적들은 수많은 땅크와 대포들을 대도로에 들이밀었고 역시 정황을 알지 못하고있는 소편대는 도로를 피하여 격전이 붙고있는 언덕을 목표로 갔는가하면 논두렁에 머리를 박고 적들의 공격서렬을 피하기도 했다.

다행히 사복을 입은 일행이여서 적아간의 집중사격을 면하고 서울시내로 뚫고들어갈수 있었다. 은영이에게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룡산역에까지 나와 기다리고있던 백영준이 일행을 반겨맞았다. 그는 너

무도 기뻐 남녀를 가림없이 매 사람을 얼싸안기까지 하였다.
《살아있구만, 다들 살아왔어! 상일동무, 철호동무, 이건 기악조의 제1비올라!… 은영동무도!…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그새 협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전선지구경비사령부에서 그렇게 명령했다는것이다. 백영준은 대기시키고있던 자동차를 가리키며 어서 타라고 독촉했다. 평소에는 그리도 침착하고 조용하던 그였지만 기쁨에 겨워 눅거리고음가수처럼 뒤집힌 소리를 내지르기까지 했다.
《뭘 꾸물거리는거요, 빨리 타라는데!》
은영은 마른 풀대처럼 노그라진 수미를 자동차에 끌어올렸다. 역시 고종우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 우정 외면하고있다는것을 은영은 감촉하였다. 오히려 백영준과 재미나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있었다. 뒤늦게야 차에 오를 때에도 우정 반대쪽적재함문짝에 매달리는것이였다. 그러는 그의 행동에 은영은 가시처럼 뾰족한 적의가 목구멍을 찌르는것을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데 윈심을 쓸 겨를이 없었다.
서울시에서는 도처에 바리케트를 쌓고 로동자부대들이 결사전을 준비하고있었다. 룡산역을 떠나 륙군병원건물앞도로로 서울역까지, 거기에서 또 반도호텔앞의 을지로를 따라 경마장까지 달렸다. 그때에야 수미가 정신이 든듯 머리를 들며 가늘게 물었다.
《어디로 가는거예요, 우린?》
《안전한 곳으로 가요.》은영이 말해주었다. 《걱정말아요. 이제 다 잘될거예요.》
《안전한 곳?》수미가 소리쳤다. 《그런데가 어데 있어, 죄다 마사지구 죽어가는데!》
증이 나지 않을수 없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춤을 추며 생글거리던 수미가 지금은 또 판다른 녀자가 되여버린것이였다.
은영은 그를 눌러놓았다.
《잠자코 있어요!》
그러나 수미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녀자였다. 무분별한 도취와 절망의 사이를 쉴새없이 방황하는 녀자, 충동이 갈앉으면 또 쓰라린 공허에 몸부림치는 녀자였다.

《어데까지 왔어요?》
수미의 물음에 경마장을 지나 청량리역쪽으로 가는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수미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해, 아이는?》
《아이라니?》
은영은 수미가 늘 횡설수설하였으므로 또 그런것이 시작된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은영이!》수미가 그의 팔을 꽉 틀어잡으며 불같이 속삭이였다. 《한심하기란! 은영인 지금 어데로 가는거예요. 제 애기는 팽가치구?!》
《?!…》
뜻밖이였다.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리해되였다. 제 애기!… 어찌하여 은영은 사랑하는 딸의 생사를 먼저 생각하지 못했던가?!…
《저길 봐요!》 수미가 계속했다. 《미국비행기들이 폭격하는걸! 은영이 애기도 저속에 있겠지?》
두번째의 강타는 무거운 몽둥이로 호되게 후려치는듯 했다. 바로 저 불길속에 은영의 어린 딸 젖먹이가 있다. 어머니와 동생들모두가 저 불도가니속에 남아있다. 쇠꼬치로 찔러대는 모진 아픔에 신음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도 수미는 야살을 그만두지 않는다.
《어쩌면 은영씨가 그럴수 있어요? 제 피덩이를 버리구 가다니… 그래, 은영인 그런 모진 녀자였어요? 몰인정한, 얼음장같은?!…》
은영은 그만 《아!—》하는 신음소리를 지르며 두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제발 그만 그쳤으면 좋으련만 수미는 그의 손을 잡아떼며 다시 귀전에 랭혹하게 속삭이였다.
《은영인 지금 제정신이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있어요?… 이제라도 방도는 있어요. 알겠어요? 자, 늦지 않게 뛰여내려요, 빨리!… 가서 현순이를 살려내야지, 응?… 제가 낳은 딸자식을 내깔리다니. 아유, 끔찍해! 은영이가 미친년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요!》
귀가 먹먹했다. 눈앞에서 번쩍인것은 번개였던가, 폭발의 섬광이였던가!… 화염이 휩쓸고 돌가루며 흙먼지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덜컥 차가 멎어섰다. 사람들이 일시에 앞으로 확 쏠리며 비명을 질

렸다. 그러나 수미만은 은영이를 붙든채 놓아주지 않았다. 집게처럼 꽉 잡고 일으켜주기까지 하였다.

《마침 잘됐어. 빨리 내려요. 뭘 꾸물거리구있어, 응?!… 젖먹이애기를 팽가치구 간다면 일생 저주를 받을거야. 알겠어요? 천벌을 받는단 말예요. 자, 빨리 내리뛰여요!》

멎어선 자동차가 다시 부릉거렸다. 재채기하듯 괴롭게 탕탕거리며 용을 썼다. 그때 은영은 자기의 몸이 적재함너머로 기우뚱 쏠리는것을 느꼈다. 누가 차밑으로 밀어댔는지 아니면 혼란되여있던 그자신이 몸을 던지려 했는지 알수 없었다.

앞쪽에서 강상일이 《은영동무!》하고 소리쳤다. 《왜 그러우, 밥숟갈 놓을려구 그래?》

그 순간 은영은 이를 덜덜 떨며 머리를 돌렸다. 그것은 강상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였다, 사납게 이지러진 아버지의 성난 얼굴…

《어데로 간다구? 그따위 모지락스럽게 구는 년의 말을 들어?》

아버지의 그 얼굴우에 포개지는것은 누구인가?… 침울하고 슬픔에 잠긴듯 지켜보는 림호의 얼굴이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없다. 퍼릿해진 얼굴에 떠오른것은 고통에 모대기는 자취뿐… 왜 아무 말도 없는거예요, 예? 그 앤 당신의 딸이 아닌가요?!…

드디여 고장난것 같던 자동차가 움찍거렸다. 덜컹! 무엇인가 타고 넘더니 점차 속력을 내기 시작한다. 은영은 몸의 균형을 잃고 허공을 그러잡았다. 가만, 잠간만! 그럼 난 어떻게 하는가, 어찌해야 하는가?… 쓰러지는 은영을 수미가 붙안았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예요, 영영 죄를 씻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빨리 뛰여내려요, 내가 도와줄게. 제 자식을 버리는 녀자는 천벌을 면치 못해요!》

뻑뻑한 목의 경련으로 하여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그것은 어린 딸애때문만이 아니였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그 어린것의 생사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은영이였다. 그러나 지금 은영은 려행을 떠난것이 아니다. 다시는 자식의 생사를 걱정하지 않게 될 그날을 위해 싸우러 가는것이다. 어릴적부터 갈망해온 태양의 빛을 따라가고있다. 그 빛을 떠나선 은영이도, 은영이의 노래도 없기에 주저없이 달려가고있

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길에서 떨어지라고 꼬드기고있다. 수미가 열을 내며 충동질하고있다. 별안간 수미의 머리태를 거머쥐고 땅바닥에 마구 태질하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마침 뒤쪽에 웅크리고있던 고종우가 결연히 앞사람의 어깨를 잡으며 몸을 일으켰다.

《은영동무, 정신차리시오!》

그것은 은영이가 가슴을 허비는 수미의 어깨를 꽉 거머잡으려던 때였다. 그 순간 차가 깨여져나간 콩크리트바닥을 넘으며 세게 들추었다. 은영은 수미의 한손만을 겨우 붙잡을수 있었다. 세차게 흔들어대였다.

《상관하지 말아요. 내 일에 다신… 상관하지 말란 말예요!》

《아니, 이거 미치지 않았어요?》 수미가 소리쳤다. 《저를 위해주는 사람더러 뭐 어쨌다구?》

《난 내가 어데로 가야 하는지 알고있어요. 그러니 다시 나를 건드렸다간 알겠지?》

《옳소!》

고종우의 거쉰 목소리였다.

수미의 낯빛이 표표해졌다.

《오, 알만 해. 왜 그러는지 다 알만 해!》

그 녀자가 무엇을 알만 하다고 하는것인지 알수 없으나 파랗게 타오른 두눈의 살기와 바르르 떨리는 입술로 미루어 악에 받친 부르짖음이라는것만은 명백하였다.

《될대루 되라지. 다신 상관하지 않겠어!》

비로소 두 녀자에게로 머리를 돌린 사람들이 와작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어린 젖먹이가 불속에서 발버둥치며 울어대는 정상만이 눈앞에 바투 다가들뿐이였다. 하여 은영은 어쩔수없이 무너져내리며 《현순아!—》하고 숨이 멎는듯 부르짖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모진 아픔에 가슴이 찢기는것만 같았다.

밤하늘에는 검은구름이 아니, 화재의 화광과 초연이 무겁게 드리우고있었다. 서울이 불속에 잠기고있는것이였다. 앙칼진 비행기의 폭음만이 하늘을 제멋대로 마구 썰며 지옥의 교향악을 계속하고있었다.

얼마후 자동차는 서울시내를 멀리 벗어났다.

6

일행이 양주군 천마산기슭의 한 자그마한 부락에 도착했을 때에는 날이 밝고있었다. 전선지구경비사령부에서 협주단의 소개지로 정해준 곳이였다. 그곳에서 며칠간 대렬을 정비하고 새로운 임무를 기다려야 했다. 이제 얼마후이면 서울로 다시 돌아갈것이라고 믿어마지않았다. 락동강전선에서 인민군부대들이 싸우고있을 때 불의에 적들이 인천으로 상륙한것은 우연적이고 일시적인것으로 평가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식과 더불어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에 대한 명령이 전해졌다.

전류와도 같은 감각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스쳐갔다. 벌써 후퇴를 시작한 인민군부대들이 산발을 타고있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두번 세번 물어보았다. 그러면 인민군전사들은 하나같이 대답하군 하였다.

《말그대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입니다. 이제 곧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재진격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린 꼭 다시 옵니다. 믿으십시오.》

어찌 믿지 않을수 있으랴. 누구도 그것을 의심치 않았다.

백영준은 박진단장과 토론하고 미군과 괴뢰군이 서울－개성간도로를 따라 물밀듯이 밀려올라가는 조건에서 북쪽의 중요도로교차점인 의정부는 피하고 가평－춘천－화천을 거쳐 38도선을 넘은 다음 다시 서북방향으로 꺾어 평양에 이를 결심을 내렸다. 그 결심이 옳았다는것이 곧 증명되였으니 서울에서 후퇴하는 인민군부대들이 그리로 로정을 정했고 또 전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월북했었다는것이다.

간고한 행군이 시작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기 시작했다. 은영이 책임진 녀성성악조만 하여도 23명이던것이 17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상을 당했거나 병에 걸린 녀배우들을 가까운 민가에 맡기지 않을수 없었다.

끝없이 걷고 또 걸어야 했다. 밤이면 굶주림과 추위에 잠을 이룰수 없었다. 날을 따라 북풍이 몰아치고 황이 든 잎사귀들이 우수수 흩어져내렸다. 홑옷을 입고있는 사람들이여서 바람이 차질수록 다가오는 겨울에 대한 불안으로 몸을 떨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였다. 고향이 멀어져갈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발을 힘들게 옮기군 하였다.

한강을 두번째로 건늘 때였다. 그때 대오의 맨앞에는 부대와 떨어진 인민군병사들 여섯명이 있었다. 공병들이였는데 분대장이 자기 대원들은 물론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대오까지 이끌어갔다. 주걱턱에 얼굴이 거밋하고 침울해보이는 사람이였다. 그자신이 직접 강안을 정찰한 다음 협주단성원들을 향해 성이 난듯 말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적들이 숙영하고있습니다. 놈들의 경계가 이만저만 아닌데 모두 이런 차림들이니… 이거 야단이 아닙니까. 그러다간 당장 발각되고맙니다. 그러니 몽땅 옷을 벗고 강을 건너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만 합니까?》

녀배우들속에서 휘파람소리같은 흐느낌이 파도쳐나왔다.

《옷을 벗어요? 녀자들까지?》 누군가 바람새는 소리로 물었다. 《꼭 벗어야만 하나요?》

《싫으면 관두십시오. 그렇지만 옷을 벗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강물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놈들이 기관총으로 싹 쓸어버리라구요?》

기관총으로 쓸어버린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서로 곁눈질만 했다. 때를 기다리고있은듯 공병분대장이 말했다.

《녀자들은 뒤에 서십시오. 이제부턴 절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 남자들의 뒤를 따라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외로 돌리며 옷들을 벗었다. 그런데 공병분대장은 물러가지 않고 지켜서있었다. 녀배우들이 기겁한 소리를 질렀다.

《보지 마세요!》

《무슨 군대가 저럴가. 저 동무 지금 제정신이가?》

《돌아서세요, 당장!》

그러자 공병분대장은 몰풍스럽게 말했다.

《보지 않으니 걱정마시오, 적들이 달려들기 전에!》

그는 상대가 녀자들인것만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것 같았다.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강물우에선 알몸이 눈에 잘 띄우지 않습니다. 괜히 알락달락한 옷때문에 모두 몰살당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의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멀지 않은 곳에서 기관총이 뚜루룩거리고 수류탄이 폭발했다. 자지러진 총소리가 한바탕 건너편의 강기슭을 두들겨패더니 시작되던것처럼 뚝 그쳤다. 조용해졌다. 잘망스레 놀던 녀배우들도 입을 다물고 얌전해졌다.

강물우에서는 푸릿한 달빛이 아슴푸레했다. 차디찬 물속에 들어서자 온몸이 파다들었다. 물결이 가슴노리를 적실 때에는 이발이 떡떡마주쳤다. 그러나 한마디 신음소리도 흐느낌소리도 저어해야 했다. 돌연 가운데에서 한정애가 발을 헛디디여 첨벙! 물속에 빠졌다. 억눌린 아부재기!…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숨길을 딱 멈추었다. 멀리에서 기관총이 급작스레 울부짖었다. 눈먼 총질이였으나 여기저기 소경 막대기 짚듯 강물을 때리는데 세찬 물방울들이 머리에 뿌려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다못해 머리칼까지 아파날 지경이였다. 물속에서 헤덤비는 한정애를 누군가 잡아끌며 속삭이였다.

《제발 소리내지 말구… 자, 꼭 잡소.》

수미가 무엇때문인지 투덜대는것을 공병분대장이 억눌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다행히 적들은 사격을 멈추고 잠잠해졌다. 일행은 다시 구령도 없이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전진해갔다.

강을 건너 풀숲에 들어섰을 때 공병분대장이 우정 사과하러 녀배우들을 찾아왔다.

《미안합니다, 배우동지들. 아까는 제가 너무했던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금시 따스한 옷을 갈아입고 몸이 더워진 녀배우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꼬집어주었다.

《분대장동무, 우정 그런건 아니겠지요?》

《아깐 정말 미웠어.》

《막 때려주고싶더라니까!》

《어쨌든 좋은 사람이야, 이 분대장동문!》

《총각이겠지요? 분대장동무, 이름이 뭐예요?》
분대장이 급해맞아 도망치려는것을 은영이 붙들었다.
《분대장동무, 얄미운 사람! 우리랑 계속 같이 가겠지요?》
《아— 아닙니다. 우린 부대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 그럼 헤여진단 말예요?》
《우린 꼭 다시 만납니다.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공병분대장은 멋지게 거수경례를 하고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대원들에게로 뛰여갔다.
공병들과 헤여진 일행은 평양을 목표로 행군을 계속했다. 그러나 평양으로 들어갈수 없게 되였다. 드디여 수미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그날은 오고야말았다.
10월 20일인가, 21일인가 일행이 순천에 이르던 날이였다. 지칠대로 지친 일행은 어느 한 야산기슭에서 잠시 휴식하고있었다. 미처 가을하지 못한 뙈기논에서 거두어들인 벼이삭을 물통에 넣고 나무막대기로 쑤셔 벼깍지를 털어냈다. 오랜 시간을 신고하였어도 줌안에 드는것은 아직도 누긋누긋한 뉘가 섞인 벼알들이였다. 그것이나마 우적우적 씹느라면 허기진 배를 얼마간 달랠수 있다.
어느덧 낮 2시가 지났다. 다시 행군을 계속해야겠으나 몸을 일으킬 기력도 없었다. 백영준이 돌아다니며 중대장(조장)들을 달구고 중대장들은 가능한껏 죽은듯 쓰러진 대원들을 일으켜세우고있었다. 참변은 바로 그때에 일어났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릉우릉 하는 거센 동음이 파도쳐왔다. 수많은 적기들이 달려드는것이였다. 그러나 매일같이 머리우를 날아가는 적기들에 습관되여있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머리도 들지 않았다. 그들은 위장을 잘하고있었던것이다. 한 녀배우는 손으로 귀구멍을 틀어막기만 하였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하였다. 대기를 써는 앙칼진 쇠소리가 하늘에서 쏟아져내렸다. 비행기의 동음은 아니였다. 누군가 째지는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람의 소리라고는 믿을수 없는 기괴한 웨침이였다.
《포—폭탄이다— 아!—》
모두 일시에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시꺼먼 항아리들이 공

중에서 떨어져내리고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목이 칵 메이고 볼따귀의 살이 푸들푸들 떨리는것을 느꼈을뿐이였다.

요란한 폭음이 터진것은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지진과 같은 진동이 그들을 태질해버렸다. 뒤따라 무서운 굉음이 련속 터지기 시작했다. 주변의 산과 들이 온통 움씰거리며 몸부림쳤다. 뒤따라 로케트탄이 퍼부어지고 기총탄이 우박치듯 했다.

그들은 비록 직탄을 맞진 않았지만 사방이 온통 파헤쳐지고 뒤집히였다. 어데로 달아날데도 없었다. 번쩍거리는 섬광이 련속 눈을 때리고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무수한 파편이 나무가지를 중둥무이로 잘라버리며 아우성쳤다. 잠시후엔 불달린 소나무숲이 우ㅡ우 괴이한 비명소리와 함께 세찬 불길을 회오리처럼 말아올렸다. 숨막히는 초연속에서 덮치듯 밀려오는 불의습격엔 몸서리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누가 구령을 친것도 아닌데 악! 소리를 지르며 산밑으로 뛰여내렸다. 악ㅡ 악 웨치고 헤덤비며 지옥의 란무장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누가 누구를 생각할 새도 없었다. 동서남북을 가림없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며 뒤쪽에서 누군가 거센 불길에 휘말려 처참하게 울부짖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은영이도 그렇게 뛰였다. 어느 한 논머리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거의나 죽은듯이 쓰러져버렸다. 가슴속이 끄물끄물 타고있는듯 했다. 직탄에 맞더라도 불에 타죽는것보다는 낫지 않을가?… 형체없이 날아가버리면 그만인것을!… 그러나 죽어도 불에 타서 처참한 몰골로 죽고싶진 않았다. 이렇게 은영은 더이상 죽음을 피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절망적으로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녀성의 본능이, 녀배우의 특이한 감각이 불에 타는것을 더 무서워하게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논두렁에 머리를 틀어박고 아무것도 보고듣지 않으려고 애썼다.

화염의 질풍은 계속 머리우를 휩쓸고있었다. 급기야 한밤중처럼 어두워졌다. 불길과 초연이 하늘과 땅을 꽉 채워버린것이였다. 한시간, 두시간 계속 폭탄을 쏟아붓는것 같다. 땅이 흔들리며 태질을 했다. 머리우에서는 죽음의 휘파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그래도 살아있다. 살아야 한다!… 하여 그는 머리를 들었다.

이미 맹렬한 폭격이 끝나고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더 놀라운 일이

시꺼멓게 불타는 하늘가에서 벌어지고있었다. 수백수천을 헤아리는 흰 목화송이들과 거기에 매여달린 시꺼먼 형체들이 하늘에서 떨어져내리는것이였다. 폭탄이다!… 저도 모르게 또 머리를 틀어박으려 했다. 너무도 폭탄에 혼쭐이 빠진 나머지 하늘에서 눈이 내려도 폭탄으로 보일 지경이였다.

눈이 바로 서지 않았다. 모든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적들의 항공륙전대투하라는것을 깨닫기까지 또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하늘을 메우며 내리던 락하산병들이 급기야 지상에 대고 급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산에서 뛰여내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다시 산으로 올리뛰여야 했다. 은영이도 그렇게 정신없이 내달렸다. 적들의 목표로 될수 있다는것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때에야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였다. 그들은 은영이처럼 어느 논두렁 혹은 개울창에 박혀있었을것이다.

눈앞에서 한사람이 픽 쓰러졌다. 수수밭고랑에 얼굴을 틀어박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붙안고 뒤집어보던 은영은 소스라치며 벌떡 뛰쳐일어났다. 그의 가슴팍을 총탄이 뚫고나갔는데 금시 거기에서 살을 지지는것처럼 피가 뿜어나오고있었다. 그는 즉사하였다. 성악조의 최저음가수 김수길이였다. 산울림이라고 자기의 바스음역을 자랑하던 그가 어느새 숨이 져있다. 그는 죽어서도 웅글은 목소리를 짜내는듯 입을 벌리고있었다.

누군가 얼이 나간듯 서있는 은영을 향해 꽥 소리질렀다.

《뭘하구있소. 빨리 뛰오! 놈들이…》

그도 역시 말끝을 맺지 못하고 허공을 그러쥐며 나딩굴었다. 벌써 땅에 내려 락하산을 거두고있던 놈들이 이쪽으로 몰사격을 퍼부었던것이다. 은영이를 돌아보며 소리치다가 쓰러진 그 사람은 화술조의 채성호였다. …

수십년세월이 흐른 뒤에도 은영은 그때 있은 일들을 그 어느 세부 하나 빼놓지 않고 기억에 떠올리군 하였다. 그들은 전선에서 위훈떨친 영웅전사들이 아니였다. 그저 평범한 예술인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고생을 다하며 동요없이, 끝까지 어버이장군님을 찾아 멀고 먼 길을 헤쳐오다가 쓰러진것으로 하여 은영은 더욱더 못 잊어했다.

날이 어두울 때까지 하늘에서는 계속 무엇인가 떨어져내렸다. 은영은 먼 후날에 가서야 력사기록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것을 알게 되였는데 그날 적들은 순천과 숙천에 미 제187항공륙전대를 투하하여 전선서부에서 후퇴하는 인민군주력부대를 포위섬멸하고 렬차로 수송한다고 알려진 미군포로들을 구출하려고 했었다. 맥아더의 명령으로 이 항공륙전대작전에 약 4 000명의 장병과 39대의 찔차, 수십문의 105미리박격포와 90미리고사포, 600여톤의 탄약, 중형견인차와 화물자동차 42대를 투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주력부대의 후퇴를 보장하여 영유(평원)방면에 진을 치고있던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가 수차례의 야간돌격을 벌려 놈들의 기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맥아더가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직접 지휘한 항공륙전대작전은 완전히 참패를 당하였다. 그대신 놈들은 대규모공습으로 주변의 농가들을 불태우고 공교롭게도 그날 현장에서 휴식하던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알수 없는 원인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은 은영은 불타버린 과수원에 쓰러져있었다. 땅거미질무렵이였다. 진종일 폭음과 불길에 휩싸였던 해가 서산너머로 기울고 락조도 스러져갔다. 별안간 흐리마리한 의식속에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가까이에서 울려왔다. 은영은 다급히 허리를 펴며 그들을 소리쳐부르려 했다. 그러나 몸을 일으킬수도 소리를 지를수도 없었다. 쑤시는듯 한 아픔에 겨워 신음소리를 내질렀을뿐이였다.

남자와 녀자의 목소리가 계속되였다. 그들은 은영이의 신음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흥분되여있는듯 했다. 잠시 숨을 돌리고 귀를 강구어서야 그것이 바로 고종우와 수미라는것을, 그들이 은영이가 쓰러져있는 뒤쪽의 허리부러진 사과나무에 서있다는것을 알았다. 수미가 고종우를 잡아끄는것 같았다.

《가자요, 고종우씨. 나랑 같이 가자요!》

땅바닥에 밑둥을 잘리워 가지를 활 펴고 쓰러진 사과나무가 은영이와 그들을 가로막고있었다. 그들은 은영이를 볼수 없었다.

《고종우씨, 제발…》

《난 그 무슨 씨가 아니요. 동무! 동무라고 하오!》

고종우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어지간히 거칠었다.
《싫어요, 고종우씨.》 수미가 부르짖었다. 《당신도 보셨지요? 이 세상에 미국을 당할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일본도 미국에 망했지 뭐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데루 가는거예요, 예?!… 당신이야 기업가의 아들이 아니예요? 돈이 있구 재능이 있는데야 무얼 겁나하세요. 가자요. 당장 서울로 돌아가자요. 예? 내 이제 당신을…》
《듣기 싫소. 그따위 소린 집어치우오!》
《이게 마지막기회예요. 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것이 떨어져내렸나요. 당신도 다 보셨지요? 미국은 이 땅을 백번이라도 더 뒤집어엎을수 있다는걸 정말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신이 그걸 모르다니? 빨리 결심하세요!》
고종우의 씨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은영은 그가 이제 수미의 손목이라도 비틀어놓을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러나 역시 고종우는 칼물고 뜀질할 그런 격한 성격이 아니였다.
《난 이미 제가 갈 길을 선택한 사람이요.》 고종우는 가극 《춘향전》에서 사또역을 할 때처럼 굵고 거친 음성으로 말하였다. 《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소. 날 꼬드길 생각을랑 마오. 절대로 그렇게 안돼!》
《정의? 무엇이 정의란 말예요. 당신 아버지가 뭐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돈이 아니면…》
《듣기 싫소!》 고종우가 거칠게 그 녀자의 말을 잘랐다. 《난 아버지와 이미 갈라졌소. 돈밖에 모르는 그런 아버지가 이젠 나한테 없단 말이요!》
《당신은 딴 생각이 있어서 고집하는거지요? 어디 말해보세요. 누가 꼬드겼는지?…》
《꼬드긴다구? 난 내가 갈 길을 알고있는 사람이요. 일본에서 공부할 때부터 갖은 수모를 다 받아온 나였소. 왜놈들이 우리 조선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는 수미도 봤지? 그런데 미국놈들은 더 교활하구 잔인하다는걸 난 처음부터 알았소. 미국놈들이 우리 아버지 공장의 어린 처녀를 륜간하구 각을 떠서 하수도에 처넣었소. 그 사실을 안 로동자들이 들고일어나자 경찰을 내몰아 방망이로 치구 총검으로 찌

르구… 저들은 뒤에서 너털웃음을 치면서 말이요. 그걸 내 눈으로 봤단 말이요. 그 일을 모른척 하라구 강박하기때문에 아버지와 대판 싸움까지 했구… 어디 그뿐인줄 아오? 김구, 려운형암살의 주범도 미국놈들이라는거야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니요. 에익! 그런 소릴 다 해선 뭣하겠소. 그런데도 뭐 미국놈들편으로 넘어가자구? 안될소리!… 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편에 가겠소. 그들은 꼭 이겨. 우리가 만나본 인민군전사들을 생각해보오. 그들이 쉽사리 꺾일것 같소?…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아. 난 그걸 믿는단 말이요!》

《믿는다구요, 믿는다?…》 수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지만 새되고 싸늘하게 울리고있었다. 《나도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란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미국을 이길순 없단 말예요. 알겠어요?》

《에익!》 고종우가 신음하듯 했다. 《그럴줄 알았소. 수미란 녀자야 원래 저 하나밖에 모르는 녀자였으니 이편저편 가림없이 가붙는다구 해서 놀라울것도 없지. 안 그렇소?》

《뭐예요? 당신이나 똑바로 말해보세요. 나도 다 알아요. 당신이 뭣때메 그러는지 안단 말예요. 당신은 첨부터 은영이만을 넘겨다봤지요. 그래서 그년이 가자는데로 따라가는거지요?》

그 말을 듣자 은영은 또 신음하지 않을수 없었다. 불에 그슬린 가랑잎처럼 혀바닥이 배배 꼬이는듯싶었다. 마침 고종우가 은영이를 대신하여 부르짖고있었다.

《은영동문 결백한 녀자요. 예술을 하려면 그 녀자처럼 깨끗하구 성실해야 하는거요. 그래서 난 언제나 그를 존경하오. 그 동무에게서 배우고있단 말이요!》

《그것 보세요, 존경이요 뭐요 하지만…》

《닥치오. 그래도 은영동문 늘 수미라는 녀자를 좋게 말해줬소. 좋은 점만 찾아보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있었구. 그런데 뭐요, 당신은?… 그 동무가 수미에 대해 좋게 말해주어서 나도 한때 그 말을 믿구 당신과 약혼까지 했는데… 그새 당신은 얼마나 추하게 놀았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사람마다 유혹하구… 몸을 망치면서!… 내가 모르고있는줄 알았소? 그래, 말해보우. 그걸 다 까밝혀야 하겠는가 말이요!》

《고종우씨!》 수미의 목소리는 거의나 애원에 가까왔다. 《난 그저 심심풀이루 그랬어요. 당신이 멀어져갈 때마다 속이 상하구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 보복을 하구싶어서… 그저 그뿐이예요. 정말이예요. 난 언제나…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한테만!… 그런데두 당신은…》

《제발 우는소린 그만두— 듣기 싫소. 더럽소!》

《뭐, 뭐라구요?》

유리장을 긁어대는듯 한 수미의 목소리에 은영은 가슴이 졸아드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수미가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이제 망하지 않나 두구봐요! 다 망한 다음 날 찾아오지 않나 두구보란 말예요. 그년과 같이… 그렇지만 안될걸. 누구도 용서치 않을거예요. 더우기 미국사람들은!… 개처럼 목매달거란 말예요. 공화국편에 붙었던 사람들을 가만둘것 같애요?!》

《썩 사라져! 보기도 싫소. 어서 저 갈데루나 가오!》

은영은 더이상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뼈마디가 쑤시고 명치끝이 얼얼해났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이쪽의 인기척에 놀란 두사람이 피끗 머리를 돌려보는것이 알렸다.

《안돼요.》 은영은 부르짖었다. 《그래선 안돼요! 어데루 간다구 그러는거예요. 수미, 난 동물 보낼수 없어요!》

《옳지, 네년두 여기 있었구나!》 수미가 랭소하였다. 새파란 불이 이는 그 녀자의 약간 치째진 두눈이 바투 다가왔다. 《이 복새판에서 두 종우씨를 놓치지 않으려구?…》

《수미! 무슨 말을?…》

《내가 그 심뽈 모를줄 알구!… 그렇지만 인젠 마지막이야. 은영인 내 마지막부탁을 들어줘야 해. 알겠지? 은영이, 저 고종우씨를 나한테 돌려줘요. 나와 같이 서울로 돌아갈수 있게 말이지. 이건 은영이한테 달려있는거야!》

《아니, 그래선 안돼. 수민 지금…》

《대답해. 그리구 종우씨한테 말해줘!》

《그건 파멸의 길이야. 참된 삶을 버리구 가다니… 난 절대 수밀 놓아주지 않을테야.》

《참된 삶이 어데 있어, 어데?…》 수미가 발광하기 시작했다.

《나두 끝까지 믿어보려구 했어. 이북사회가 좋다는건 나두 알아. 허지만 미국은 못 당해. 다 망해뿌린판에 무얼 믿구 어데루 간다는거야. 난 가겠어. 그렇지만 저 미욱한 량반은 데리구가고파!》
《?!…》
은영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만졌다. 가슴속에서 끓어번진것은 사무친 증오가 아니였다. 분노와 증오를 쏟아붓기엔 그 녀자가 너무도 미욱한것처럼 느껴졌다. 쓰라린 련민의 정과 함께 막무가내로 울어대는 어린애를 보는것처럼 안타깝고 분한 마음이 화약가스처럼 가슴에 서리서리 엉켜들뿐이였다. 그 녀자를 리해시킬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자기가 그렇듯 무력하다는 느낌이 그를 더없이 아프게 했다. 하여 은영은 천천히, 마디마디를 찍어가며 말하였다.
《고종우동문 수미하구 달라.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고정한 사람. 수미는 그걸 리해하지 못할거야.》
《네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난 다 알구있어. 처음부터 바로 네년한테 반해서 그렇게 돼버렸던거야!》
드디여 고종우가 씨근벌떡거리며 앞으로 나서는것을 은영이 매달렸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자 찢기는듯 한 수미의 목소리가 그들을 향해 비수같이 날아왔다.
《두구보자. 칵 썩어문드러지지 않나! 후회하지 말아. 드러운 것들!…》
그리고는 몸을 홱 돌려 아래쪽으로 걸어갔다. 발치에 나딩구는 사과나무가지를 걷어차며 힝하니 사라져갔다.
《수미!—》
은영이 마지막으로 맥없이 부르짖었다.
《내깔려두시오.》 고종우가 고통스럽게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가야 할데를 갔으니…》
눈을 쓰리게 하는 매운 연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수미가 사라진 큰길쪽에서는 미군락하산병들이 총성으로 신호를 하며 어데론가 밀려가고있었고 뒤쪽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죽여가며 서로 찾고 부르고있었다. 그러나 두사람은 현악기의 금선처럼 떨며 가슴을 긁는 짜릿한 아픔에 겨워 한자리에 굳어진채 수미가 사라진 어둠속만을 바

라보고있었다.
은영은 벅찬 경련으로 하여 오무라진 입을 한껏 벌리고 매운 연기를, 차디찬 마파람을 들여마셨다. 그래도 속은 열리지 않는다. 무엇인가 끈적끈적한것이 목안에서 구토감을 일으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은영동무!—》
《중대장동무—》
그를 찾고있다. 여러 사람들이 멀리서 소리쳐부르고있다. 녀성성악조의 조련이도 찾고있다. 그다음 화술조의 배용덕, 기악조에서 이름대신에 불리우는 드람과 오보에, 무용조의 김영실, 황영희, 고종우를 찾는 목소리도 있다. 잃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것 같다. 박수미도 찾고있다, 수미를!… 그러나 그 녀자는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들과 영영 갈라져 가버렸다. 자기와 제일 가까왔을 두사람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고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랑과 행복을 갈구하였고 그것을 찾을수도 있었던 아니, 사랑과 행복의 고삐를 손에 쥐고있었으나 그것을 저절로 집어던진 녀자가 한순간에 판 다른 운명의 길로 가버린것이다. 이제 그 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운명은?…
《나때문에.》하고 고종우가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정말 일이 별나게 되였습니다. 언제든 이런 일이 있으리라구 짐작은 하구있었지만… 어쨌든 미안합니다.》
은영은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아— 아니, 지금은 아무 말도 마세요. 제발!…》
그들을 찾는 목소리가 멀어져가고있다.
《은영동무— 중대장동무!— 어데 있소?—》
《고종우동무!—》
은영은 어깨를 옹송그리며 머리를 돌렸다.
《가자요. 우릴 찾구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수미가 간 방향과는 정 반대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불타다 남은 가랑잎들이 발밑에서 와삭거렸다. 걸음마다 재티가 일며 바람에 흩날렸다. 달빛도 별빛도 없다. 아직은 모든것이 초연속에, 캄캄한 어둠속에 묻혀있을뿐이였다.

제5장

오 나의 태양

1

《은영동무, 나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한것은 백영준이였다. 《날씨가 찬데 든든히 차비하시오.》

12월의 맵짠 추위가 살을 에이고있었다. 북변의 압록강기슭 만포에서 국립예술극장 배우로 재진격하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위문공연을 준비하고있던 때였다. 은영은 밖에 나서자 강상일, 조련, 고종우 등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있는것을 보았다. 백영준이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소리내여 웃었다.

《문화선전상동지가 동무들을 만나보겠다고 하오. 자, 갑시다.》

문화선전상은 멀리 있지 않았다. 동기와를 얹은 외통형의 주택사랑채에 난로를 들여놓고 여러 사람들과 담화하고있다가 배우들이 도착했다는 말에 급히 마주 나왔다.

《반갑습니다. 문화선전상 허정숙입니다.》

몸매가 조화롭고 탄력이 있는 녀성이 군대식으로 걸어나오며 밝게 웃고있었다. 경쾌하고 활달한 걸음새였다. 그들은 차례로 머리를 숙이며 자기 소개를 했다. 맨 나중에 은영의 차례가 되자 허정숙은 례사롭게 손을 내밀었으나 웬일인지 입을 벌리며 애들처럼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런!…》

은영은 영문을 몰라 다시금 머리를 숙였다.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곁에 서있던 백영준이 덧붙였다.

《예, 일전에 말씀드린 그 독창가수입니다.》
허정숙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아, 김은영!… 동무였군요.》
허정숙은 포옹을 하듯이 은영의 어깨를 다정히 그러안았다.
《얘길 들었어요. 서울교향악단 독창가수였지요?》
《예, 한때…》 은영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상동지, 그건 전쟁전의 일이였습니다.》
《옳아요. 그담은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에서 노랠 불렀구… 정말 반가와요. 그런데… 참 놀랍군요!》
《예?》
《이렇게 예쁠줄은!… 가수치고는 너무 곱지 않아요?》
은영이 얼굴을 붉히자 그는 재미난듯 소리내여 웃었다.
《일없어요. 질투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나도 녀자지만 질투라는걸 몰라요. 그런건 이미 전쟁판에서 다 피와 땀으로 씻어버린걸요!》
은영은 그 역시 매력있는 녀성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광활한 중국의 광야를 말을 타고 달리며 항일전의 녀걸로 소문을 냈다는 허정숙, 우리 나라의 첫 녀성상인 그에게서는 청신한 기운과 함께 탄력있는 몸전체에서 현악기의 금선처럼 튕기면 챙챙 울릴것 같은 류다른 음향이 깃들어있었다. 하여 은영은 허물없이 한마디 했다.
《상동지도 매력있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말이지요.》
《아― 그래요? 그러니 엎음갚음이군요!》
이번엔 모든 사람이 소리내여 웃었다. 그 웃음으로 그들은 대뜸 오랜 지기들처럼 친숙해졌다.
허정숙은 그들을 난로불 가까이 자리잡고 앉도록 일일이 걸상을 권했다.
《동무들과 알게 되여 정말 반갑습니다.》 그가 여전히 미소를 그리며 하는 말이였다.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에서 잘 싸운 얘기를 들었어요. 단련도 부족한 동무들이 거의 2천리나 되는 길을 후퇴해왔으니… 정말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장군님만을 믿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장한 일이예요. 그래서 더 반갑

구 친근하게 생각되는군요.》
허정숙은 다심하기도 했다.
《참 조련동무, 왜 그렇게 떨어져앉았어요? 몸이 언것 같은데 불결에 다가앉으세요. 일없어요. 남동무들 걱정은 마세요. 녀성상이 녀자들만 돌본다고 의견을 가진대도 할수 없어요.》
그가 눈웃음치며 좌중을 둘러보자 백영준이 먼저 서둘러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웃고 떠들며 녀자들을 불가까이 밀어주었다. 이미 방안에 들어와있던 사람들(간부들 같았다.)은 성에불린 창문결으로 멀찍이 물러났으나 그들도 웃고있었다.
한순간 은영은 그 사람들속에 끼워 열심히 눈웃음을 보내는 한사람을 띠여보았다. 불시로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오학성… 서울에서 좌익계음악가동맹 부위원장을 하던 그가 사소한 의견상이때문에 결연히 문을 차고 나간이래 소식이 없다 했더니 북에 들어와 국립예술극장에서 부총장사업을 한다는것을 여기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 바로 그가 얼마전 남조선에서 들어온 배우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 담화했었다. 강상일이나 은영이와는 간단히 만났지만 날카로운 대화들이 오고갔었다. 그가 감때사나운 성미인 강상일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리유는 명백했지만 은영이에게 반감을 품을 까닭은 없었다. 담화를 하면서 그가 은영이에게 물은것은 단 두마디였다.
《고종우는 은영동무가 끌고 왔소?》
《아니요, 제발로 왔어요.》
《그럼 은영동무가 한사코 감싸주던 수미는 왜 도중에 떨어졌소? 은영동무가 떼여버린건 아니요?》
《아니요, 그도 역시 제발로 가버렸어요.》
《모를 소리!》 그는 실눈을 하고 묘하게 웃었다. 《여기엔 무슨 쪼간이 있는것 같소.》
《예?》
《동무가 말하지 않아도 난 다 짐작한단 말이요.》
그는 웃었고 은영은 혀끝을 깨물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차차 알게 될거요.》

소리도 없는 그의 미묘한 웃음이 은영이를 불안케 했다. 그 미소뒤에 숨은 의미까지는 다 알수 없었지만 그가 여전히 고종우며 수미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있다는것만은 명백했다. 그때문에 그들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은영이까지 경멸했을것이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옆에 앉은 안경낀 사람에게 무어라고 속삭이며 자꾸 은영이를 눈짓하고있다. 자기가 잘 아는 녀가수라고 자랑하는것 같다. 안경을 낀 사람은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다가 비로소 은영이를 눈여겨보았다. 단정한 양복차림에 넥타이까지 꽉 매였는데 어깨우엔 새까만 외투를 걸치고있었다. 도수높은 안경알속에서 내다보는 주의깊은 눈빛, 대번에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듯 찬찬히 여겨보는데 정찬 미소가 그 눈빛에서 사물거리는듯 했다.

별안간 은영은 혀가 말라드는것을 느꼈다. 마치 전류에라도 감전된듯 무엇인가 가슴을 뜨끔하니 스쳐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황황히 그의 눈길을 피하려 했으나 웬일인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 그 사람이 눈길을 옮겨 새로 온 가수들을 여겨보더니 머리를 수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다.

숨이 나갔다.

허정숙은 여전히 새로 온 사람들의 고향과 전직, 나이 등을 알아보며 수첩에 적고있었다. 은영이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차례가 되자 미소를 담은 눈빛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불렀다.

《강상일동무, 테놀가수라고 했지요?…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부민관에서 있은 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적들이 던진 수류탄을 맞받아뿌린 그 일 말이예요. 그 다음날인가 우리 〈로동신문〉에서도 기사를 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강상일은 게면쩍은 표정을 하고서 그가 묻는 말들에 겨우 혀아래소리로 대답하였다.

이어 고종우의 이름도 그렇게 문화선전상의 수첩에 적히였다. 바리톤가수, 나이며 학력, 고향… 허정숙은 이렇게 담화를 이끌어가면서도 뒤쪽에 앉은 안경을 낀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는 종이장에 가끔 눈길을 주군 하였다. 슬쩍 스쳐보고는 소리없이 웃군 하기에 은영이도 곁눈질로 그가 무엇을 쓰고있을가 하고 여겨보았다. 그 안

경낀 사람을 서기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자세히 살펴보니 종이장에 무슨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새로 온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 그리고있는것 같았다. 문화선전상이 간부들만 아니라 화가도 부른것이라고 은영은 생각하였다.

《이제부터.》하고 허정숙이 머리를 들며 말하였다. 《특별공연준비를 해야겠어요. 이제 며칠후 국립예술극장동무들이 중요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불렀어요. 오늘 모인 동무들은 다 남반부에서 들어온 가수들인데 공연에서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하도록 힘써주세요.》

그가 눈길을 돌리자 기다리고있었던듯 백영준이 손에 들고있던 종이장을 넘겨주었다. 공연종목이였다. 허정숙이 그것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좋아요.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하여… 세번째 종목은 첨 보는것 같군요. 아, 〈병사의 노래〉!… 김은영동무가 부를 노래지요?… 본인의 의향도 들어보세요. 그담… 무용 〈나는 정찰병〉, 중창 〈조국보위의 노래〉, 기악중주… 그런데 이건 뭐예요? 시와 합창 〈끝까지 싸우리라〉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는 백영준동무가 쓴거겠지요?》

백영준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조기천선생이 쓴 시입니다. 그 시에 새로 곡을 붙였는데 상동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래가 힘차구 기백이 넘치는데…》

허정숙은 그림을 그리는데만 정신을 팔고있는 그 안경낀 사람에게 미소어린 눈빛을 던졌다.

《조기천선생도 들어보셨어요?》

《?!…》

그는, 찌르는듯 한 눈빛을 가진 그 사람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머리를 들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것 같았다. 갑자기 텅둘한 표정을 하고있는 그의 모습에 허정숙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가벼운 웃음을 떠올리였다. 허나 그때 은영은 별안간 목이 꽉 메이는것을 느꼈다. 조기천선생!… 병사들이, 인민들이 사랑하는 열혈의 시인!… 화산의 분출과 같은 그의 시들을 병사

들이 얼마나 격조높이, 자랑차게 읊군 하였던가! 바로 그야말로 열정의 가수라고 부러워했던 은영이였다. 그런데 그를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그처럼 소박하고 천진하기까지 한 모습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그가 다부진 몸을 일으키며 어줍게 웃는것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그가 뭐라고 하자 웃음판이 터졌다. 사람들이 웃어대는 모습을 은영은 놀라서 멀거니 쳐다보고있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기에?… 그에게도 사람들을 웃기는 유모아가 있었던것일가. 그의 시들은 모두가 서리찬 장검같고 번뜩이는 섬광 아니면 거세찬 폭발과 같았는데?!…

허정숙이 또 말하고있다.

《공연종목은 후에 또 토론합시다. 무용은 무대조건을 고려하여 독무를 위주로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부총장동무생각엔 어떠세요?》

오학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재빨리 대답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허정숙은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다시 은영이에게로 미소어린 눈길을 주었다.

《은영동무랑 강상일, 고종우동무들과도 토론하세요. 최후승리에 대한 사상을 강조하면서도 예술공연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지요. 가수들에겐 다 자기의 창법에 맞는 곡이 있는 법이예요.》

이어서 그는 공연장소를 꾸리는 문제를 두고 어떤 간부와 또 오학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영은 여전히 시인 조기천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가 들고있는 종이장에는 어느새 남에서 온 배우들의 모상이 갖가지 형상으로 그려져있었다. 은영이며 조련이도 그려넣은것 같다. 그때문에 은영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애들같이 그림을 그리는데만 열중하고있는 그를 유명짜한 시인 조기천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서사시 《백두산》의 저자가 그처럼 수수하고 평범하다는것을 어찌 믿을수 있으랴.…

허정숙은 다시 은영이며 강상일, 조련, 고종우 등에게 공연준비를 잘해달라고 부탁하고있었다. 이윽고 조용히, 의미심장한 어조로 이렇

게 끝을 맺었다.

《그럼 동무들, 다시 만나요. 그날엔 동무들이 한생 바라고바라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거예요.》

한순간 은영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한 말의 의미를 다는 알수 없었지만 무엇인가 가슴을 치는 벅찬 느낌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

2

1950년 12월 23일, 그날은 조선전쟁사에 많은 비화들을 기록한 의미깊은 날이였다. 미국 워싱톤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회가 도처에서 벌어지고있었다.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조선전쟁을 주관하고있던 참모차장 릿치웨이중장도 그러한 연회중의 하나에 참가하고있었다. 연회가 한창 고조에 이르고있을 때 요란한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콜린즈참모총장이 릿치웨이를 찾는것이였다.

《죠니, 조선전선에서 죽은 8군사령관 워커중장의 후임으로 당신이 임명되였소. 빨리 차비하고 떠나시오.》

연회장에 있던 부인들이 별안간 해쓱해진 릿치웨이의 모습에 놀라며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릿치웨이의 대답을 들은 녀인 하나가 웃음보를 터뜨렸다.

《난 또 3차대전이라도 일어났는가 했군요.》

릿치웨이가 급히 려장을 꾸리고 비행기에 오르던 그 시각 도꾜의 하네다비행장에는 인민군적후전선부대들의 습격으로 황천객이 된 워커중장의 시체가 비행기에서 부리워지고있었다.

바로 그 시각 맥아더는 도꾜 다이이찌빌딩의 자기 사무실에서 태평양전쟁때부터 쓰고있던 낡은 군모를 쓰고 앉아 미 제10군단이 흥남에서 겨우 철수했다는 보고서를 읽고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방해를 없애려고 자기 방에 전화를 놓지 않았으므로 늘 구두 혹은 서면보고를 받군 하였는데 그 보고서야말로 미군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것

을 고발하는것이였다. 하여 그는 《이것은 미국력사상 최대의 참패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 시각 일본내각 관방장관의 방에서는 일본주재 남조선공사가 가져온 제의를 두고 심각한 론쟁을 벌리고있었다. 남조선당국은 그 공사를 통해 일본의 북부 규슈지방에 남조선인 100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땅을 빌려달라고 청했었다. 남조선당국은 인민군대의 재진격이 너무도 속도빨리 진행되여 더는 막아낼 방도가 없다고 판단했던것이다.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리승만이 서울을 내주고 피난할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있었다.

《미국의 벗들은 나에게 모든 비전투원들과 징병년령에 이르지 못한 남자들을 서울에서 철수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공산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고있다. 운명이 우리를 배신하고있다. …》

…

은영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것은 물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력사기록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히 알고있었으니 그것은 인민군대가 벌써 림진강남쪽으로 맹렬히 진격하고있고 최후승리의 그날도 머지않았다는 바로 그것이였다.

그날은 은영이에게 있어서도 한평생 잊지 못할 특기할 사변이 있은 날이였다. 력사적인 당 제3차전원회의가 자강도 장강군 향하리에서 진행되였던 12월 23일 은영은 처음으로 위대한 인민의 수령,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뵙게 되였던것이다.

갱도에 꾸려진 회의장이였다. 물기에 젖어 번들거리던 갱도벽, 나무로 만든 긴걸상들이 빼곡이 들어차있던 회의장,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이 먼저 들어와 자리잡고앉았다. 허정숙이 다가와서 이제 곧 장군님께서 나오시면 공연을 시작하라고, 그러되 너무 흥분하지 말고 공연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는것 같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강렬한 조명등의 불빛에 눈을 쪼프리며 이제나저제나 하고 가슴을 조이고있었다.

드디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오시였다. 은영은 객석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수를 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흑— 흐느끼고 두손

을 높이 쳐들었다. 뒤미처 터져나온 만세의 환호!… 별안간 갱도안에 눈부신 빛살이 비쳐든듯 하였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무엇인가 벅찬 느낌에 목이 꽉 메였다. 얼굴에 경련이 일고 입술은 사뭇 떨렸다. 언제 어떻게 만세의 환호성이 멎었는지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소개자가 앞으로 나설 때에야 저 혼자 박수를 치고있다는것을 깨닫고 눈시울을 떨었다.

공연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되였다. 은영은 합창대가운데에 서서 장군님께서 계신쪽에만 눈길을 주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불멸의 송가를 부르게 된것이 꿈만 같았다. 《오 나의 태양》을 눈물로 찾으며 곡절많은 길을 걸어온 은영이가 오늘은 태양의 품에 안겨 태양의 노래를 목메여 부르고있는것이다.

격앙된 감정이 장내를 휩쓸었다.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오군 하였다. 드디여 은영이 독창을 할 차례가 되였다. 첫곡으로는 《어뢰정의 노래》… 두눈을 때리는 조명등빛으로 하여 장군님의 모습은 잘 알리지 않았다. 후광에 싸인 좌석에서 웃고계시는듯, 아니면 싸우는 전사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남먼저 박수를 쳐주시는것만은 확연하였다. 요란한 박수갈채, 갱도벽이 통채로 울리는듯 했다. 간주음악이 울릴 때까지도 박수는 그치지 않았다. 두번째곡은 《바다의 노래》였다.

장군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무어라 말씀하시는듯 했다. 허정숙이 장군님 계신 곳으로 다가가 귀속말로 말씀드리고있었다. 무대를 향하여, 은영이를 손짓하며 무어라고 했는데 장군님께서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후에야 알게 되였지만 그때 장군님께서는 허정숙에게 처음 보는 가수인데 노래를 잘 부른다고, 목소리가 특이하고 아름답다고, 참 인상적인 가수라시며 어데서 온 동무인가고 물으시였다. 허정숙이 남반부에서 가수로 있다가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에 입대하여 활동하던중 후퇴를 맞아 죽을 고생을 다하며 들어온 김은영동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그런가, 아주 재능있는 인기가수가 왔다고, 저런 배우는 금을 주고도 찾기 힘들거라고 하시며 은영동무를 비롯하여 남반부에서 들어온 동무들을 잘 돌봐주라고, 자신께서도 한번

꼭 만나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허정숙이 직접 은영이를 불러 말해주었다. 전날처럼 난로를 들여놓은 개인주택의 사랑채 두번째 방에 두명의 문화선전성 간부들과 시인 조기천, 은영이를 데리고 온 백영준이 자리잡고있었다.

《은영동무.》 허정숙이 친자매처럼 은영이를 다정히 껴안으며 하는 말이였다. 《정말 노래를 잘 불렀어요. 장군님께서 얼마나 만족해하시던지 난 막 무대로 나가 동물 안아주고싶은걸 겨우 참았다니까! 정말이예요. 사실말이지 근래에 장군님께선 전선을 지휘하실래, 회의준비를 하실래 언제한번 눈도 붙여보지 못하셨는데 글쎄 그렇게 기뻐하시는것을 보니… 은영동무가 얼마나 사랑스럽구 대견하던지!…》

여러 사람들이 은영이를 축하해주었다. 그러나 은영은 아직 자기가 노래를 제대로 불렀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벅찬 흥분으로 하여 발성생리기관이 오무라들면서 울대위치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목에서 소리를 짜낸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밝고 선명하고 후련한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자책에 잠겨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 치하하신것은 처음 보시는 그리고 남반부에서 들어온 가수이므로 앞으로 잘하라고 고무하여주신것으로 보는것이 옳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은영이 이렇게 말하자 허정숙은 새삼스럽게 그를 눈여겨보았다.

《은영동무, 그렇다니 정말 맘에 들어요. 장군님께서 더 기뻐하시게 앞으로 잘해보자요.》

그날 은영은 국립예술극장 상급가수로 임명되였다.

허정숙은 간소한 점심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은영이를 놓아주지 않았다. 떠나올 때엔 자동차까지 내주려 했다. 그러는것을 은영이 사양하였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저 걷고싶다고, 걸어가며 생각해보고싶다고 했다.

그러자 시인 조기천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바래주겠습니다. 허락하시는지요?》

허정숙이 물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싶으세요?》

《아, 그거야 물론 상동지의 허락이지요.》

《아니예요, 조기천선생. 여기에 상동지는 아무 상관 없어요. 상동

지는 승인하거나 비준할뿐이예요.》

《그럼 비준해주십시오.》

《아, 시인선생이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허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비준이란건 문건에나 하는거지요. 그러지 말고 본인인 은영동무의 허락을 받으세요.》

조기천도 소리내여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은영동무, 제가 바래주는걸 허락하시지요?》

유쾌한 웃음속에 은영은 얼굴을 붉히며 저도 모르게 애들처럼 이발로 손톱여물을 썰고있었다.

눈이 부시도록 맑고 맵짠 날씨였다. 눈이 덮인 골안에서 하모니카소리가 울려나왔다. 새 솜옷을 입은 군인들이 분주히 돌아치며 점심을 준비하는듯 했다. 재진격의 길에 오른 군인들이 너무도 많아 부락의 집들도 그들을 다 들일수 없었던것이다. 솔가리 타는 냄새가 부락에 서리고 어느 집 지붕에서는 정신빠진 수닭이 목청을 돋구어 때아닌 기상구령을 웨치고있었다. 압록강에서는 얼음장 터지는 소리가 대포소리마냥 요란했다.

이슥토록 말없이 걸었다. 발밑에서 눈밟히는 소리만이 쉴새없이 빠그극거렸다. 앞서가는 조기천의 장화발이 더 소란스러웠다. 거침없이 얼어붙은 눈을 짓밟고 나무가지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아무 의미도 없이 발을 탕탕 굴러보기도 했다. 숲변두리로 뻗은 오솔길에 들어섰을 때에야 그가 뒤쪽을 돌아보았다. 안경알이 해빛을 반사하며 번뜩이였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은영은 서리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처음으로 뵈온 우리 장군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게 돼서 그런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일을…》

《…》

시인은 아무말없이 계속하기를 기다리는듯 했다.

《선생님, 왜 그랬을가요. 장군님께선 초상화에서 뵈옵던 그런 모습과는 어쩐지 좀… 다르게 생각되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럴겁니다.》 조기천이 말했다. 《우리 장군님의 모습은 그 어떤 화가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진사는 말할것도 없구요. 겉모습

은 담아낼지 모르지만 웅심깊은 내면이야!… 시인도 같습니다. 태양을 제대로 그려낼수 없듯이… 그때문에 나도 늘 고민하고있는걸요.》

《고민?!…》

은영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인천에서 만나본 보병중대장이 수첩에 써넣고 다니던 서사시 《백두산》의 구절들이 떠올랐다. 그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는 시인을 부러워하던 은영이였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민이 있다고 한다.

시인은 또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듯 했다. 무엇때문에 고민하고있는지 대답해야 한다는것을 잊고있는듯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생각에 잠긴 시인의 얼굴을 훔쳐보며 은영은 화선의 병사들이 읊던 시구절을, 자기의 마음속 격정도 그대로 옮긴것 같은 그의 서사시 《백두산》의 한구절을 상기하였다. 그리하여 저도 모르게 그 시구절을 나직이 외워보았다.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조기천이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그를 지켜보았다. 남조선에서 갓 들어온 녀가수가 그 시를 읊고있는것이 놀랍게 생각된듯 하였다.

은영은 계속하였다.

내 그때
이 나라 백성이 그렇게 그리던
나의 참된 아들—
나의 량심이고 나의 의지인
나의 신념이고 나의 희망인
나의 빨찌산
김대장을 맞이했다

조기천이 참다못해 어떻게 그 시를 외우고있는가고 물었다. 하여 은영은 인천에서 한 보병중대장이 그 시를 읊던 일이며 소편대에 닥쳐온 위험을 한몸으로 막아나섰던 그가 희생된 후 그의 품에서 피에 젖은 수첩을 꺼내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 수첩을 여태 제가 건사하고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데 있습니까?》

은영은 외투안주머니에 넣고있던 수첩을 꺼내였다. 시인이 그것을 빼앗다싶이 하고 흥분하여 한장한장 번지는것을 그윽한 감동속에 지켜보았다. 시인의 낯빛이 달라졌다. 장난삼아 그림을 그릴 때의 그는 간곳 없고 전혀 딴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피묻은 수첩을 번지고있는 그의 눈시울이 사뭇 실룩거리고 목에 경련이 이는듯 했다. 더부룩한 검은 눈섭이 미간으로 찌프러지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희생된 중대장의 피로 얼룩진 자기의 서사시를 읽고있는것이였다.

《부탁합니다. 이걸 내게 주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는 성급하게, 거칠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내심의 벅찬 흥분이 불길처럼 뿜어나오고있었다. 시로 노래하는 가수, 그는 한 인민군전사의 피로 물젖은 자기의 시를 눈으로 삼킬듯이 읽고있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은영은 크나큰 격동에 흉곽이 뻐근해지는것을 느꼈다. 다음순간엔 어인 일인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눈물이 솟구쳤다.

《내게 주시오.》 그가 눈길을 들며 빌다싶이 말했다. 《한생 내가 간수하게 해주시오, 예?!…》

은영은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수첩을 다시금 몇장 번져보고나서 품속에 고이 간수했다. 그다음부터 그들은 저마끔 생각에 잠겨 말없이 걸었다.

침묵은 오래 계속되였다.

이윽고 시인의 격동이 가라앉자 은영은 물었다.

《선생님! 그처럼 만사람의 가슴을 울려주는 시를 쓰신분이니 잘 아시겠는데… 전 어쨌으면 좋을가요? 이제 장군님을 모시고 또 공연을 하게 된다면 말이예요. 선생님, 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노래해야 할가요?》

《그걸 내게 묻습니까?》 조기천이 놀라와했다. 《나도 밤낮 그걸 생각하고있는데요.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거지요. 절세위인을 노래하는데… 완성이란 없습니다. 고민해야지요. 계속 고민하고 채찍질하면서 완성의 경지로 올라야지요!》

좋은 말이다. 시인다운 말이다. 그가 결코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것도 마음에 들었다. 그랬더라면 엄엄한 도사나 교수처럼 보일수는 있으되 다정한 인간적매력은 느끼지 못했으리라.

그들은 숲속으로 뻗은 작은 길을 따라 걷고있었다. 압록강의 얼음장들이 해빛에 번쩍이군 하였다. 하늘은 유리같이 투명한데 거기에 그려진 기묘한 무늬처럼 엷은 구름장들이 조화롭게, 솜털처럼 하얗게 떠서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별안간 조기천이 걸음을 멈추고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

《아, 사슴!》 그가 숲속을 가리켰다. 《봤습니까, 방금 사슴이 저쪽으로 사라지는걸!》

《예.》 은영은 웃었다. 《그런데 그건 사슴이 아니라 노루였어요.》

시인의 두눈이 커졌다.

《노루라구요? 천만에!… 사슴입니다. 내가 옴스크에서 사슴사냥을 한두번만 해봤다구요.》

《노루입니다, 선생님!》

《사슴이라니까.》

시인은 괴팍스러운 사내애처럼 우겨댔다.

《그것도 암사슴!… 글쎄 그놈이 나와 딱 눈을 맞추기까지 한걸요!》

《나도 봤는데 분명 노루였어요.》

《사슴이라니까!》

《노루였어요!》

시인은 두눈을 슴벅거렸다. 그들은 롱이 아니라 승벽을 부리는 애들마냥 다투고있었던것이다.

《아, 그럼 저기 그놈이 있던데로 가봅시다.》

시인은 그놈이 서있던 곳까지 은영이를 끌어갔다.

《자, 이것 보시오. 이 발자국!… 사슴의 발자국이 맞지요?》

《노루입니다.》

은영이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발자국같은것은 애당초 보려고도 안했다. 보았댔자 알수 없기때문이였다. 그러자 시인은 놀라서 은영이를 여겨보더니 안경을 벗어 입김을 후후 불며 닦기 시작했다.

《은영동무가 그렇게 고집이 센줄은 정말 몰랐군요.》

《그래서 노여우세요?》

《아ㅡ니.》

《선생님도 고집이 여간 아니신데요.》

은영이 웃기 시작하자 그 역시 안경을 끼더니 진정 유쾌하게, 소탈하게 웃어대기 시작했다.

《아니 은영동무, 고집스러운게 더 좋습니다. 사실 무턱대고 남들의 기분이나 맞춰주는건 속되고 천한 일이지요, 특히 녀성들의 경우엔!…》

그는 은영의 팔굽을 잡고 눈구뎅이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었다. 길에 나서자 그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발을 탕탕 구르며 신발에 묻은 눈을 털었다. 한순간에 그들은 지꿎은 장난꾸러기소년, 소녀시절로 되돌아간듯 한 기분이였다. 숲속에서 외투며 목도리에 묻혀가지고나온 솔잎이나 검불을 서로 털어주기까지 하였다.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어린시절로, 동심으로 돌아간다는것은!… 발을 털고 외투자락에서 무엇인가 또 뜯어내고나서 다시 마주보며 웃어댔다.

《은영동문 고향이 어뎁니까?》

시인이 물었다. 은영은 웃으며 노래처럼 대꾸했다.

《회령이예요.》

《뭐?》

《왜 그러세요?》

《정말입니까. 회령이 고향이라구요?… 나도 고향이 회령인데…》

이번엔 은영이 놀라서 한손을 입가에 가져갔다. 마치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는것을 막으려 한듯 했다.

《회령! 그러니 우린 한고향내기군요.》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둘 다 고집이 이만저만 아니였던것 같습니다.》

다시 유쾌하게 웃어댔다. 비록 두사람 다 어린시절에 고향을 떠났

지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꼭같았다. 가슴저릿한 향수에 잠겨 그들은 고향에 대한 추억을 더듬었다.

《예로부터》하고 시인이 말했다. 《회령은 함북명승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회령3미〉즉 세가지 아름다움이 유명한데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물론!》

《그럼 말해보십시오.》

《회령에서 유명한 3미는 녀미, 행미, 토미…》

조기천은 어린애들 모양으로 좋아하며 손벽을 쳤다.

《아! 알고있군요. 덕과 지성을 갖춘데다가 용모가 특별히 아름답다는 녀미!》

《꿀맛에 향기가 독특하고 약효가 높은 백살구! 다시말해서 살구행자를 쓰는 행미!》

《토질병도 침습 못한다는 회령백토, 옛날 왕궁에서도 그 백토로 만든 회령오지그릇을 써왔다는 유명한 토미!》

다시금 소리내여 웃지 않을수 없었다. 실로 자랑많은 회령이였다. 조기천은 시를 읊듯이 흥분하여 청을 돋구었다.

《예로부터 〈송도3절〉이 유명타 했지요. 화담 서경덕과 녀류시인 황진이, 박연폭포를 자랑하여 그렇게 불러왔어도 우리 고향 회령에야 뉘라서 감히 견주랴!》

은영이도 웃으며 노래의 후렴처럼 받았다.

《유명한 시인 조기천선생과 조선영화예술의 개척자 라운규선생도 회령이 배출했다오.》

《아니, 아니!》 별안간 조기천은 웃음을 거두고 은영을 여겨보았다. 《은영동문 아직 모르고있습니까? 내가 말하는건 그게 아니라 〈회령3미〉도 그렇거니와 뭐니뭐니해도 제일 큰 자랑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선생님?!》

《그러니 아직 모르고있었군요. 그럼 은영동무, 들어보십시오. 우리 고향 회령은 바로 유명한 항일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 나서자라신 고향이란 말입니다.》

《예?!…》

은영은 저도 모르게 두손을 가슴앞섶에 모두어쥐며 불같이 속삭이였다.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쿵쿵 뛰는 심장의 고동이 두손을 진동하는듯 했다. 벅찬 격동에 숨조차 쉬지 않는듯 했다. 《어쩌나, 여적 그런줄도 모르구…》

조기천이 말을 이었다.

《나도 처음 그분을 만나뵙고 고향이 회령이라고 하실 때 어쨌는줄 압니까. 이렇게 꼼짝하지 않고 서서 울고 웃었습니다. 기쁨에 울고 행복에 웃으면서!…》

얼마후에야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슥토록 한마디 말도 없이 천천히 걸었다. 고향에 대한 자랑과 기쁨이 가슴뿌듯하게 넘치여나고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뜨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눈굽을 저릿하게 했다. 시간의 흐름도, 맵짠 추위도 잊고있었다. 빠드득빠드득 발밑에서 눈밟히는 소리만을 듣고있었다.

갑자기 은영이 먼저 걸음을 멈추고 사위를 둘러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갔는가. 그리고 지금 어데까지 왔는가?… 알고보니 어느새 국립예술극장 배우들이 자리잡고있는 리민주선전실이 멀지 않았다.

헤여져야 했다. 시인은 주밋거리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곧 전선에 나갑니다.》

은영이 놀라는것을 보고 그가 물었다.

《왜 그럽니까?》

《저… 선생님도 꼭 전선에 나가셔야 합니까?》

《아 그것때문에?…》 시인은 소리내여 웃었다. 《싸우는 전사들속에 있어야 그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민군대는 38도선을 넘어 적들을 족치고있습니다. 림진강이남에서 서울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 격전을 벌린다는데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자칫하면 기차를 놓친 손님격이 되고말거던요.》

《저…》 은영이 숨가삐 말했다. 《몸조심하세요. 선생님은…》

그 다음말은 이을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우리 장군님께서 아끼시고 인민이 사랑하는 유명한 시인인데 더우기 몸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

고싶었으나 그것이 시인을 추어올리는, 따라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아첨하는 말로 들릴수도 있다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마침 시인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국립예술극장도 전선위문공연을 곧 떠난다는데 은영동무도 부디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또 만납시다.》

손을 잡고 꼭 쥐였다놓고나서 시인은 오던 길로 돌따서 갔다.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 곧추 걸어가고있었다.

3

은영이 두번째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게 된것은 이듬해 봄이였다. 1951년 4월 30일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은 5.1절기념경축공연에서 은영은 《고향의 어머니》에 이어 쏘련노래 《젊은 병사의 노래》를 독창으로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은영은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을 향해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를 올렸다. 이어 관람석에서 터져나온 요란한 박수갈채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맘에 들어하실가, 장군님께 마음다진대로 기쁨을 드렸을가? 하는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눈부신 조명등의 불빛으로 자세히 볼수는 없었지만 첫곡이 끝나자 제일선참으로 장군님께서 박수를 쳐주시던것만은 똑똑히 가려보았었다. 그런데 두번째 노래는?… 그것은 쏘련병사를 노래한것이였다. 전세계로동계급의 명절을 경축하는 공연이여서 외국손님들도 많이 참석하였으므로 그 쏘련곡도 선택되였던것이다.

잠시후 머리를 쳐든 은영은 눈앞에 나와선 한 인민군군관을 보았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전보대같이 막고 서있다.

《받으십시오.》 그 군관이 말했다. 《이 꽃다발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배우동무에게 보내신것입니다.》

《?…》

은영은 물속에서 들려오는듯 웅글게 울린 그 목소리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듯 두눈만 깜박거리고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그에게, 바로 김은영에게 친히 꽃다발을 보내주신것이다. 한순간 박수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오직 조명등에 비쳐진 그 꽃다발만이 현란한 금빛으로 확대되여 안겨들고있었다.

《자, 어서!》

군관이 독촉했다. 그제서야 은영은 그것을 받아안으며 다시금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천둥같은 박수소리가 다시 장내를 뒤흔들었다.

그 시각 수령님께서는 허정숙에게 저 김은영동무는 확실히 특기있는 가수라고, 저 가수는 새까만 눈에 정기가 돌고 동작도 몸에 익숙되여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장내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보시오. 저 쏘련사람들이 은영동무에게 완전히 매혹되였습니다. 은영동무가 부른 〈젊은 병사의 노래〉는 노비꼬브가 작곡한 노래인데 2차대전때 쏘련병사들이 전선으로 나가면서 자기 안해에게 꼭 승리하고 돌아오리라 약속한것을 잊지 않고 전투마다에서 용감하게 싸우면서 락관적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것을 은영동무가 특색있는 소리색갈과 률동적인 동작까지 배합하여 잘 형상하였기때문에 저 사람들이 감동되여 소리치고있는것입니다.

확실히 은영동무는 노래형상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꽃다발을 부관을 시켜 가져다주게 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그리시며 떠들썩한 장내의 환호에 맞추어 다시 박수를 쳐주시였다.

비록 이러한 사연은 후에 안 일이지만 그 시각 은영은 눈물을 머금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고있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을 모신것만도 분에 넘치는 일인데 친히 꽃다발까지 안겨주시니 무어라고 인사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윽고 다시 머리를 들었을 때 은영은 수령님께서 손을 들어 답례해주시는것을 보았다. 그러자 별안간 모든것이 눈부신 빛살에 가리워졌다.

령롱한 불빛만이 눈앞에서 펀뜩이고있었다. 수령님의 모습도 그 눈부신 빛에 가리워졌다. 아니, 눈부신 그 광망이 곧 수령님의 모습이였다!…

공연이 있은 다음날에야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올수 있었다. 수령님께서 친히 경축연회석상에까지 은영이와 주요배우들을 불러주셨던것이다.

《아, 김은영동무도 왔구만.》 수령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자 은영동무, 내옆에 와앉으시오.》

은영은 어떻게 자리에 앉았는지 알지 못했다.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이 일시에 눈길을 모으고있었다. 송구함과 벅찬 감격에 눈도 바로 들지 못하였다. 자기가 아직 **김일성**장군님께 인사의 말씀도 미처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그는 감감 잊고있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수령님 제일 가까이에 자기가 앉아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다. 불빛은 그리도 밝고 따스했고 연회상의 유리그릇들에서 반사되는 빛발 역시 그리도 현란하여 눈이 먼것만 같았다.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였다.

《자, 편히 앉으시오. 마음을 푹 놓고… 어제 동무가 노래를 잘 불렀기때문에 내가 부관을 시켜 꽃다발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 연회에 오게 했고… 제집처럼 생각하고 많이 드시오.》

수령님께서는 그의 앞으로 음식그릇도 당겨놓으시고 손수 갖가지 음식을 집어주기도 하시였다.

《그새 전선위문공연을 다녔다지. 고생이 많았겠소. 남반부에서 들어온 동무가 전쟁승리를 위해 한몫 하고있으니… 얼마나 좋소. 그래, 배우생활이 마음에 드오?》

《예, 장군님.》하고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처음으로 말씀드렸다.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앉소. 앉아서 얘기합시다. 참, 이 갓김치를 맛보시오. 온실에서 키운것인데도 참 별맛이요.》 수령님께서 갓김치가 담긴 그릇을 또 옮겨주시였다. 《어제 동무가 〈고향의 어머니〉를 부를 때 말이요. 정말 감동되였소. 그때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어머니 생각을 하였소.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머니를…》

수령님께서는 수저를 드신채 어머님에 대한 추억에 못이겨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어머닌 내가 갓김치를 좋아한다고 늘 터밭에 심고 가꾸시였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구만. 어느해인가 항일무장투쟁을 갓 시작했을 때였는데 어머님께서 몹시 앓으신다는 기별을 받고 집에 들린 일이 있었소. 그때 어머님께선 병환이 심했는데도 내가 오면 주려고 갓김치를 담그어놓고 기다리신게 아니겠소. 그날 어머님께서는 부녀회원들과 같이 갓김치물에 만 국수를 우리 동무들에게 대접했는데 정말 진수성찬 부럽지 않았소. 저저마끔 두그릇, 세그릇 곱배기를 해대는데 하— 그러다나니 그만 어머니와 부녀회원들은 맨 국수물만 잡숫게 되지 않았겠소!…》

수령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자 귀를 기울이고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벙글서하고 웃었다. 은영이만이 저가락을 입에 물고 수령님의 모습에 정신을 팔고있었다.

《그렇지만》하고 수령님께서는 정색하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김치국물만 마시면서도 어머닌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앓으시던것 같지 않게 노상 웃고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소. 정말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날이였지. 은영동무, 바로 동무가 어제 그처럼 절절한 심정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고향의 어머니〉란 노래에 담아 불러서 나도 가슴이 저릿해지더라니까. 그날의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말이요.》

수령님께서는 다시 은영에게 음식을 권하시였다.

《왜 구경만 하겠소? 어서 들라니까!》

수령님께서 막 저가락으로 집어주시는데 부관이 가까이 다가와 귀속말로 무엇인가 말씀드렸다. 좌중의 사람들모두가 긴장한 낯빛으로 수령님의 표정에 눈길을 모으고있었다. 전쟁은 경축연회장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부관의 보고에 머리를 끄덕이며 웃고계시였다.

《음— 그럴 때가 됐지.》 수령님께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였다. 《우린 바쁠게 없소. 정전담판이면 담판, 전쟁이면 전쟁!… 그렇지만 아직은 공식적인 제의가 없으니 여론따위엔 귀기울

일 필요가 없소. 남일총참모장에게 그렇게 말해주시오.》

바로 그때에야 은영은 자기가 너무 외람되게 앉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여기는 경축연회장이다. 그러므로 지금 **김일성**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고도 많을것이다. 외국손님들도 적지 않다. 그들모두가 나때문에, 은영이란 한 녀배우때문에 전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에 즈음하여,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축하의 인사를 올릴 기회를 찾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닐가?!…

아닐세라 여러 사람들이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있는것이 보였다.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님, 그럼 전…》

《아니, 왜 그렇게 빨리?…》

수령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는 외국대사들을 스쳐보시였다.

《음— 그럼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길 나눕시다. 내 이제 부르겠소.》

수령님께서는 금시 문을 열고 들어서는 부관을 가까이 부르시였다.

《연회에 참가한 김은영동무랑 예술인들을 오늘밤은 최고사령부에서 쉬게 하시오.》

×

최고사령부… 밤이였다.

어느 먼곳에서 탐조등의 광망이 밤하늘을 소리없이 가로세로 토막치며 휘딱거렸다. 그러나 이밤따라 아직 적기들은 나타나지 않고있다. 밝은 달빛이 골안의 집들이며 이끼덮인 바위들, 새순이 돋고있는 나무가지들을 선명하게 비쳐주었다. 실개울소리가 은밀한 속삭임처럼 아늑한 봄밤의 정서를 끝없이 주절거렸다.

허정숙이 은영이를 안내하였다. 회색코트를 어깨에 걸치신 수령님께서는 민족보위상 최용건과 함께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에 서계시였다. 무엇인가 전쟁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던중인듯싶었다. 은영이 목메인 소리로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 환히 미소를 그리시였다.

《아, 김은영동무가 왔구만!》

은영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나서 수령님께서는 뒤쪽의 최용건을 돌아보시였다.

《이 동무가 남반부에서 들어온 유명한 독창가수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때 처음 이 동무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 〈어뢰정의 노래〉와 쏘련노래 〈바다의 노래〉를 아주 멋있게 불렀습니다. 최용건동무, 생각나지 않습니까?》

최용건이 《예, 생각이 납니다. 장군님.》하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밝게 웃으시였다. 마침 통나무를 다듬어만든 걸상들이 바위들사이에 놓여있었다. 경위중대군인들이 만들어놓은 휴식장같았다. 수령님께서는 거기로 은영이를 이끄시였다.

《언제부터 동무를 만나보려 했지만 시간을 낼수 없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마주앉게 되였구만. 자, 편히 앉으시오. 아직 밤이면 날이 찬데 목수건도 감구… 가수들이야 목을 보호하는게 기본이지.》

은영은 수령님과 최용건의 사이에 앉고 허정숙은 맞은편 걸상의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멀찍이 샘물이 흘러내리는 곳에서는 은영이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던 그 부관이 발걸음소리를 죽이며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은영의 나이며 고향, 어떤 학교를 나왔고 노래는 언제부터 불렀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리하여 은영은 고향 회령에서 13살때 전국녀중생들의 성악콩클에 참가하던 일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러한 만단사연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고계시는 인민의 수령, 최고사령관동지께 과연 필요한것이였을가?… 은영은 알수 없었다. 아니, 불필요한, 전혀 무의미한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주의깊게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귀기울여 들어주시였다. 은영이 13살나이에 성악콩클에서 1등을 하던 대목에서는 혀를 차며 놀라움을 표시하셨는가 하면 김제식선생의 도움으로 리화녀대를 수료한것을 아시고는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시였다.

은영은 계속하여 서울에서 교향악단의 독창가수로 좌우익예술단체들에서 주최한 가극 《카르멘》, 《파우스트》, 《리고레또》와 《춘향전》, 쇼팡의 《리별의 곡》주인공역을 수행하고 독창가수로도

많이 출연했지만 그후 아버지와 동생, 미처 성례도 치르지 못한 남편이 적들에게 체포되여 무참히 학살된 후부터는 전적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무대에 나서 노래를 부른데 대하여, 그리하여 전쟁이 일어나 서울이 해방되자 곧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에 들어가 활동한 사연까지 죄다 말씀드렸다.

《음—》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런 가슴아픈 사연도 있었구만.》

《…》

은영은 아프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수령님께 가슴아픈 사연을 말씀드린것을 후회하지 않을수 없었다. 전선의 중하를 한몸에 안고계신 수령님께 자기가 근심을 끼쳐드린것이 죄스럽게만 느껴졌다. 하여 눈시울을 떨며 머리를 수그렸다.

《그래 둘째동생소식은 모르오?》 수령님께서 물으시였다. 《차한이라고 했던가?》

《예, 장군님. 차한입니다. 전쟁때 우연히 지리산빨찌산출신 한 사람을 만나 들었는데 그 앤 지리산빨찌산에 들어가 싸우다가 희생됐다고 합니다.》

어쩌는수없이 또 가슴아픈 사연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은영은 될수록 화제를 딴데로 돌리고싶었으나 수령님께서는 계속 물으시였다.

《그럼 어머니와 다른 동생들… 또 어린 딸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고있겠구만?》

《예.》

가느다란 대답.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기웃하시였다.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다가 눈길을 옮기시는것이였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였다. 민족보위상 최용건과 문화선전상 허정숙이 나무라는 눈빛으로 은영을 지켜보고있었다. 특히 최용건의 눈빛은 사뭇 준엄하였다. 과묵하고 묵직한 그의 성미로써는 장군님을 아프게 해드린 은영을 용서치 않을상싶었다. 하여 은영은 머리를 숙인채 저도 모르게 목에 감고있던 수건 한끝을 자근자근 이발로 짓씹고있었다.

이윽토록 무거운 생각에 잠겨계시던 수령님께서 부관을 부르시였다.

《아직 소식이 없소?》

《예, 장군님. 아직…》 부관이 힘들게 말씀드렸다. 《이제 소식이 오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중으로 전선을 넘어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늦어질줄은 몰랐구만.》

수령님께서는 시계를 보시였다. 팔을 들어 달빛에 비쳐보시는데 무척 어두운 안색이시였다.

달이 구름속을 하염없이 헤염쳐갔다. 그리도 밝게 비치던 달빛이 어느덧 골안의 숲과 샘터에 가끔 창백한 빛을 뿌리고는 곧 아슴푸레해지군 하였다. 나무잎의 설레임소리도 어느덧 목갈린 신음소리처럼 느껴졌다. 은영은 추위를 타는듯 몸을 떨었다. 내가 무슨 망녕된짓을 했단 말인가. 전쟁의 운명을 걸머지신 장군님께 어쩌면 그런 하찮은 일까지 말씀드릴수 있었던가?… 그때 자그마한 복슬개 한마리가 꼬리를 한들거리며 달려왔다. 달려와서는 앙증스럽게 수령님의 무릎아래를 감돌며 애무를 바라는듯 두발로 허비기 시작했다. 은영이 복슬개를 안으려 했다. 그러나 그놈은 발딱 뛰쳐달아났다가 또 수령님께 매달리는것이였다. 재색의 목덜미에 눈같이 하얀 점들이 찍힌 강아지였다. 수령님께서 그것을 안아 한동안 쓰다듬다가 은영이에게 넘겨주시였다. 그러자 그놈은 가르릉거리며 은영을 쳐다보았지만 다시 달아나지는 않았다. 드디여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였다.

《후퇴때엔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소, 그렇지?…》

《…》

《일없소, 얘길 마저 들읍시다.》

은영은 머리를 들었다. 불현듯 만포까지의 멀고먼 행군로정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특히 순천에서 적 락하산부대와 맞다들렸을 때의 일들… 하지만 이런것까지야 어찌 말씀드릴수 있으랴!… 그가 주저하는것을 보신 수령님께서 다시 일없다고, 오늘은 동무를 위해 우정 시간을 내지 않았는가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은영은 또 어렵던 그 나날들에 대하여, 박수미가 서울로 돌아가자고 꼬드기던 나머지 저혼자 달아나던 일에 이르기까지 죄다 말씀드렸다.

《수미, 박수미란 말이지…》 수령님께서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겨 뇌이시였다. 《누구나 신념과 량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법이요.

우리가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에도 보니 평상시에 변덕이 심하고 동지들과 한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영낙없이 어려울 때 변절의 길로 떨어지더구만. 박수미란 녀자도 모름지기 변덕쟁이거나 의리를 모르는 사람일거요. 어떻소, 그렇지 않소?》

《예, 장군님. 원래 변덕이 심했습니다.》

《보시오. 한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딴 길을 걷기마련이지. 이건 생활의 법칙이요. 그래서 신념과 량심이 중요한거요. 은영동무, 생각해보오.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랑을 위해서 산다고도 할수 있소. 그런데 동지들의 사랑, 부모처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도 잃으면 뭐가 되겠는가?… 사랑이란 곧 의리에 기초하고있는데 그마저 줴버리고나면 무엇이 남겠는가 말이요. 치욕밖엔 차례질게 없지, 치욕밖엔!…》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밤하늘가 멀리로 눈길을 주시였다. 은영이도 따라 일어섰다. 수령님께서 그를 돌아보시였다. 순간 그이의 안광에서 무엇인가 번득이는듯 했다.

《은영동무도 그새 곡절이 많았구만. 시련도 많이 겪었구… 그래서 당을 따르는 마음도 그만큼 굳세여진게 아니겠소. 정말 좋은 일이요. 아니, 장한 일이지. 동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은 그야말로 하나의 소설감이요, 소설감!…》

은영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무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알수 없었다. 평범한 녀가수의 이야기를 세세히, 주의깊게 들으시고 소설감이라고까지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 눈굽이 저릿저릿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은영동무.》 수령님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의 아버지나 동생들 그리고 남편되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당의 예술인으로 된 동무를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였는데 아깝게도 너무 일찌기 잃었구만.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 잘 싸운 애국적가정이 은영동무와 같이 결백하고 량심적인 예술인을 키운게 아니겠소. 다시말하지만 신념은 절로 생겨나는게 아니요. 량심의 토양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는 법이지. 그러니 은영동무, 언제든 애국의 길을 걸으며 인민을 위해 노래를 부르시오. 그래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시오.》

《장군님!》 은영은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쥐고있었다. 《장군님말씀을 언제든 명심하겠습니다. 꼭 인민의 사랑받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믿소, 꼭 그러리라고 난 믿소!》

비로소 수령님께서 밝게 웃으시였다. 구름속을 헤여나온 달이 다시금 은은한 빛으로 사위를 밝혔다. 잠풍한 골안의 밤은 깊어가고 어느덧 나무잎새들은 물기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여기서 전쟁을 상기케 하는것은 하나도 없는듯 했다. 그러나 전쟁은 잠시도 걸음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드디여 전쟁의 발동기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적기들이 하늘을 썰며 날아들고있었다.

먼저 최용건이 다가왔다. 허정숙은 머리를 들어 탐조등이 엇가로 번득이는 밤하늘을 불안스럽게 살피고있었다. 샘터에서 오락가락하던 부관도 황급히 달려왔다. 그러자 수령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였다.

《소식이 왔소?》

《…》

수령님의 신변이 념려되여 달려왔던 부관은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고 마치 못으로 박아놓은듯 그 자리에 멎어서있었다.

《빨리 소식이 있나 알아보시오.》

무엇인가 중대한 소식을 기다리고계시는것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전선에서 큰 사변이 있는것 같았다. 은영의 생각이였다.

적기들은 머리우를 날아 지나가고있었다. 탐조등의 불빛이 적기들을 포착하자 멀리서 고사포들이 짜당거렸다. 뒤미처 폭탄의 폭발소리가 울리고 불길이 솟구쳐올랐다. 벌거우리한 화광이 하늘가 한끝을 물들이며 퍼져갔다.

《평천쪽인것 같습니다.》

최용건이 묵직하게, 마치 돌멩이를 깨무는듯 사무친 증오를 짓씹으며 말씀드렸다.

《죽일놈들, 정전담판을 제의해오면서도 저 지랄이니… 아무래도 전선에서 한번 더 묵사발을 만들어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없이 화광이 비낀 하늘

가를 바라보고계시였다. 폭발의 굉음에 발밑의 땅이 부르르 떨렸다. 고사포들이 더욱더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고요한 봄밤, 평온하던 5.1절의 밤이 순시에 산산이 부서지고 깨여져나갔다. 하늘중천에서 조는듯마는듯 사물거리며 지상을 내려다보고있던 뭇별들도 빛을 잃었다. 달빛도 화광에 벌거우리해졌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수령님께서는 근엄하신 안색으로 수도의 하늘가에서 눈을 떼지 않고계시였다. 그리하여 은영은 가슴을 조이며 생각하였다. 과연 얼마나 아픔이 많으실가, 얼마나?!… 그리고 언제면, 진정 언제면 우리 장군님께서 마음속 아픔과 시름을 다 잊으실 그날이 오게 될것인가?…

그때였다. 부관이 발걸음소리도 요란히 달려왔다. 숨가삐 달려오더니 기쁨에 찬 목소리로 보고드렸다.

《장군님! 소식이 왔습니다.》

수령님께서 급히 마주가시였다.

《그래? 어떻게 됐소, 모두 무사하다오?》

《예. 장군님, 모두 무사히 전선을 넘었답니다.》

《음— 드디여 도착했구만.》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은영이를 돌아보시였다. 《잘됐소, 정말 다행이요!》

은영은 수령님께서 그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에 아무 까닭도 모르며 눈시울을 떨고있었다. 그 까닭을 굳이 알아선 무엇하랴. 아프신 그이의 마음을 덜어드리는 소식임에야!…

부관이 무엇인가 더 말씀드리고있었다. 그옆에 서있던 최용건은 머리를 끄덕이였고 허정숙은 가볍게 탄성을 지르고있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 은영을 부르시였다.

《은영동무, 어서 이리 오시오. 기쁜 소식이요!》 그이께서는 은영이 머밋거리며 다가서자 풀어진 목수건을 손수 다정히 바로 감아주시였다. 《동무의 어머니와 어린 딸 그리고 동생들모두를 데려왔소. 방금 전선을 넘어 차가 달리고있소, 평양으로 말이요!》

《예?!…》

별안간 입술이 타드는듯 했다. 눈앞이 뿌예지며 앞을 가려볼수 없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꿈을 꾸는듯싶었다.

《내가 오래전에 사람을 보냈는데》하고 수령님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제야 데려왔구만. 그새 놈들은 동무가 인민군대에 입대했다고 해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려 한것 같소. 그래서 부산에까지 가서 헤매였다는데 고생이 많았을거요. 그렇지만 인젠 됐소. 어머니가 동무의 딸까지 업고 무사히 도착했다니 정말 다행이요.》

비로소 은영은 그이께서 무엇때문에 자주 시계를 보시며 초조히 기다리셨는지 알게 되였다. 관자노리의 피줄들이 꿈틀거렸다.

《장군님!—》

목메인 흐느낌소리뿐… 심장이 사뭇 떨렸다. 무어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릴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목구멍 가득히 북받쳐오른것은 기쁨과 행복의 눈물만이였던가!…

새날이 멀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녀가수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이밤도 희여져가고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의 미광이 먼 동녘하늘에 선명해지기 시작할것이다. 이윽고 지평선 한끝에서는 누리를 밝히는 태양이 불끈 솟아오를것이고…

은영은 그 작열하는 태양을 보고있었다. 만물에 생을 주는 영원한 태양을 우러르고있었다. …

4

대동군 룡산면 소룡리.

정오였다. 국립예술극장의 소개지로 정해진 크지 않은 이 부락으로 두대의 야전승용차가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달려오고있었다. 위장을 한 그 차들이 동구밖에서 너무도 속도높이 달려오는통에 농립을 쓴 늙은이가 겁을 먹고 채찍을 휘둘러 사전에 달구지를 길섶에 비켜세웠다. 멍에를 메고있던 누렁소는 무슨 변이 났나 해서 휘휘 꼬리를 저으며 질풍같이 달려오는 차들을 머룩머룩한 눈으로 바라보고있었다.

은영이도 그쪽을 보고있었다. 국립예술극장의 중앙대(30명으로 구성된 행사공연대, 기타 극장성원들은 아직 신의주에 남아있었다.)

여러 동료들도 은영이를 따라 마중나와있었다. 먼지기둥이 물을 대기 시작한 논벌을 휩쓸며 구름처럼 밀려왔다.

드디여 차들이 멎자 앞차에서 뛰여내린 인민군군관이 차꽁무니를 따라 밀려온 먼지타래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차문을 열어주었다. 네댓살난 처녀애를 업은 어머니가 먼저 내렸다. 그다음 유한이가 먼저 굴듯이 뛰여오고 미영이도 은영이를 보자 와!— 하고 울며 달려들었다. 은영의 딸을 업은 어머니도 허둥거리며 달려왔다.

《은영아!—》

《언니야!》

《누나!—》

누가 누구를 먼저 얼싸안았는지 알지 못했다. 온 가족이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속에 정신없이 울부짖었다. 그새 동생들은 몰라보게 컸지만 뼈만 앙상한 몰골이였다.

《유한아, 네가 정말 유한이냐?…》

《누나, 누나가 보구싶었어.》

어머니는 어린애를 업고 한쪽에 밀려나고말았다. 한참 매달리고 부둥켜안던 동생들이 뒤늦게야 정신을 차린듯 일시에 머리를 돌려보았다. 어머니가 업고있는 어린것을 생각한것이였다.

《누나, 현순이야.》

유한이가 먼저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어린 딸을 내려놔주었다.

《현순아, 어머니다. 네 엄마야.》

은영은 허우적거리며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허리가 부러지고 무르팍이 꺾이운듯 휘청거리며 금시 앞으로 쓰러질듯 했다.

《현순아!—》

눈물의 속삭임, 팔을 벌리고 딸을 안으려 했다. 그러자 머루알같은 어린것의 두눈이 겁먹은듯 휘둥그래지는것을 보았다. 어린것이 뒤걸음쳤다. 코를 찡기고 입귀를 떨며 휘딱 돌아서더니 《엄마.》하면서 할머니품에 와락 안기는것이였다.

별안간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그래도 여전히 두팔을 벌리고있다.

《현순아, 내 딸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에 쓸어든 눈물이 거품처럼 끓었다. 《너 왜 그러니? 엄마야, 나를 모르겠니?》

그러나 어린것은 머리를 흔들며 자꾸만 할머니에게 파고들뿐이였다.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잡아 비틀며 돌아보지도 않았다. 은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말았다. 뜨거운 피가 머리속에 가득 들어찼다. 얻어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별안간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누구를 탓하랴. 전쟁전부터 거의 나어린 자식을 돌보지 못한 은영이였다. 광주지역에 선전활동을 나가있던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난 이후 언제 한번 딸애를 껴안고 잠든적도 없는 은영이였다. 하여 은영은 쓰라린 아픔에 못이겨 울었다. 림호를 그리며 울었고 사랑하는 딸애의 처량한 모습에 가슴아파 울었다.

어머니도 치마자락으로 눈굽을 훔치고있었다. 동생들이 쿨쩍거리고 모여섰던 동료들도 머리를 외로 돌리며 입을 싸쥐였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울고있는 모습이 어린것을 놀래운것 같았다.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뜨아한 표정으로 살피더니 할머니에게서 떨어져나왔다. 무엇이 그 애로 하여금 어머니를 알아보게 했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었으나 겁먹은듯 천천히 걸음을 옮겨오고있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있는 은영의 앞에 이르자 말끄러미 지켜보았다. 얼룩이 진 얼굴에서 잠시 새까만 두눈이 깜박도 안하고 보더니 그 애는 갑자기 입을 비쭉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잉— 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때국물이 오른 얼굴이 볼성모양이 되였다. 은영이 앞으로, 바로 어머니앞으로 한발작 더 내짚고는 《엄마!》하고 불러보는데 그 목소리도 눈물속에 잠겨들었다.

비로소 은영은 얼굴을 싸쥐고있던 손을 내렸다. 고사리같이 가늘고 어린 자기의 딸을 놀란듯 쳐다보았다. 그러자 어린것이 또 침이 흐르는 입을 벌리고 잉—잉 울어대는것이였다.

《엄마—》

다시금 핑— 쏟아지는 눈물에 은영은 눈앞이 뿌예졌다.

《현순아!—》

급기야 은영은 두팔을 벌려 어린것을 와락 껴안았다. 정신없이 허덕이며 어지러운 그 애의 얼굴에 볼을 비벼대였다. 하여 어린것의 두 볼에, 목덜미에 그리고 오래동안 빨래를 해보지 못한 람루한 옷깃에

뜨거운 눈물이 방울지어 떨어져내렸다. 어린 현순이도 가느다란 팔로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있었다.

《엄마—》

《현순아, 내 딸아!…》

다시 찾은 사랑 아니, 달리는 될수 없는 혈육의 사랑, 하염없이 눈물이 샘솟았다. 인제는 보는 사람들모두가 소리를 죽여가며 울고있었다. 동생들이 또 달려들고 어머니마저 한덩어리가 되여 울었다. 그들모두를 껴안고 은영은 머리를 쳐들었다.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목메여 부르짖었다.

《장군님, 저는 웁니다. 그저 울기만 합니다. 이 고마운 심정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 이 은정을 어떻게 다 갚을수 있겠는지… 정녕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만 있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장군님, 어릴적부터 늘 목메여 찾고부르던 나의 아버지, 나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

부락에서 사람들이 쓸어나오고있었다. 더벅머리 애들이 먼저 소리치며 달려왔다. 개들이 뒤따르며 왕왕 짖어대고 나무우에 앉아있던 새무리가 좌르르 자갈처럼 쏟아져내리더니 급기야 회오리치듯 하늘가로 날아올랐다.

그때 누군가 은영을 잡아끌었다. 길바닥에서 울지만 말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자는것이였다. 그제서야 한극장동료들이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게 되였다.

은영은 딸애를 안고 동생들과 앞서 걷고있었다.

뒤쪽에서 사람들이 어머니와 이런저런 소식을 주고받는 말가운데 수미의 이름이 불리워서야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뭐라구요, 어머니?》 은영이 물었다. 《수미를 만나봤어요?》

《그래, 그 앤 지금…》 뿌옇게 먼지오른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어머니가 말했다. 《골병든 환자꼴이더구나. 글쎄 어떤 놈팽이한테 시집을 갔다는데 밤낮 매를 맞고 팅팅 부어다니질 않겠니. 우리가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일이니 그담은 어찌됐는지…》

《시집을 갔다구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것은 고종우였다. 은영에게는 어쩐지 그의 목소리같이 들리지 않았다.

《무슨 영화감독이라던지…》 어머니의 대답이였다. 《난 그저 떠도는 소릴 들었을뿐이라우.》

은영은 고종우의 얼굴을 마주볼수 없었다. 수미의 이름이 불리울 때부터 별안간 명치끝이 얼얼해지는것 같았다. 사랑과 행복을 찾을수도 있었던 그 녀자를 끝까지 붙잡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누가 그를 붙들어둘수 있었으랴. 고종우가 말했듯이 갈데로 간것이라면!… 다행히 화제는 그 이상 더 번져지지 않았다. 서울에 남은 예술인들에 대하여 저저마끔 묻고있었지만 어머니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일행은 마을초입에 있는 초가집으로 들어섰다. 은영이의 가족을 차에 태우고 온 인민군군관이 리당위원장과 같이 부락에서 내준 그 집 토방우에 서서 일행을 기다리고있었다. 부엌문부터 활짝 열어젖히며 인민군군관은 개선장군처럼 웃고있었다.

《자ㅡ 이 집입니다, 어머니!》

제 6 장

사랑에 대한 연구

1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다. 전선은 기본적으로 고착되고 적아쌍방은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치렬한 공방전, 부단한 소모전과 더불어 쌍방간에 력량상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힘의 대결이 시작되는것이였다. 조선반도의 남북삼천리를 아래로, 우로 휩쓸던 전쟁의 거센 파도가 38도선을 경계로 밀썰물처럼 끊임없이 서로 맞부딪치기 시작했다. 나라의 총력을 집중한 힘겨루기였다.

매일같이 적기들의 폭격은 계속되였다. 지어 적들은 나물을 캐는 소녀나 한마리의 송아지도 목표삼아 내리꼰지며 기총탄을 우박처럼 퍼붓군 했다. 바다에서도 밤과 낮을 가림없이 함포탄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온통 페허로 된 거리와 마을들에서도 인민은 살아있었고 굴함없이 싸우고있었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삽과 곡괭이를 둘러메고 마사진 공장으로, 철도복구장으로 달려나갔고 늙은이, 어린이 할것없이 탄약과 식량을 이고지고 싸우는 고지로 줄지어갔다. 풀과 나무잎으로 위장을 한 농촌녀성들은 보잡이를 잡고 걸싸게 밭을 갈며 소궁둥짝에 채찍을 휘둘러댔다. 예술인들도 군용렬차나 혹은 자동차로, 아니면 수백리씩 걸으며 불타는 고지와 복구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의 어깨우에도 위장그물이 쳐있고 풀줄기가 꽂혀있었다.

은영이가 속한 전선위문공연편대는 철원, 세포, 이천지구를 돌아 고성과 통천에까지 나갔다. 인민군부대들과 중국인민지원군부대들에서 다음로정까지 자동차를 내주군 했는데 자동차행군이 얼마나 고되

고 지긋지긋해났던지 걸어서 다니자고 제기할 지경이였다. 유명한 첼로연주가 리영준의 표현을 빌면 《하루종일 얻어맞은 기분》이였다. 적기들의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온통 파헤쳐진 길을 몇시간씩 들추고나면 뼈마디들이 무너져내리고 어깨며 팔다리가 우적거렸다.

그날도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갔다. 새벽이였다. 불도 켜지 않은 두대의 군용차가 해안가로 뻗은 길을 달리고있었다. 편대를 소환하는 명령이 내려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편대에 속한 많은 가수, 기악연주가들이 중국방문예술단으로 떠나야 했다. 한편 베를린에서 진행되는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도 이름난 독연가들이 명단에 올라있다고 한다. 중앙에서는 그들을 《무조건 즉시 돌아올것!》이라고 명령하였다. 전시이니만큼 모든것이 명령으로만 통하는 때였다. 따라서 무조건 즉시 평양으로 가대려면 이제 고성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 고성에 이를 때까지는 별수없이 한시간이상 넌덜머리나는 자동차에서 들추지 않으면 안된다.

여름이 한창이였지만 바다가의 새벽은 시서늘하였다. 지동치는듯한 폭음과 파편의 울부짖음소리에 습관되여있던 그들이여서 이 새벽의 맑은 공기며 숨죽인 고요가 믿어지지 않았다. 하여 모두가 기슭을 적시는 바다의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은영이 역시 멀리 아득히 싯허연 물갈기를 일으키며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언젠가 림호가 말하던 거세찬 파도와 그우를 나는 갈매기를 생각하니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바다는 변함없이 숨쉬며 설레이고있건만 림호는 없다. 그가 이제 은영의 마음속에서까지 자취를 감춘다면?… 아니, 이 무슨 온당치 않은 생각이람! 절대로 그럴수 없다. 그는 영원히 마음속에, 심장속에 살아있을것이다!…

차츰 날이 밝기 시작했다. 산속으로 뻗은 길로 들어서기 전에 적함의 목표로 되지 말아야 했다. 차가 앙앙거리며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벌써 수평선 한끝에 바위처럼 드러나는 적함들이 바라보였다. 가슴조이는 분과 초들이 흘렀다. 밝아오는 아침을 무서워하기는 처음인것 같다.

그때 바다쪽에서 섬광이 번뜩이였다. 시뻘건 불줄기가 새벽하늘을

가르며 날아왔다. 거센 폭발의 굉음이 터진것은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또다시 함포사격이 시작되는것이다. 고요는 박살났다. 전쟁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고있었다. 해안포구분대가 있는 산중턱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어덴가 멀리 바다가마을에도 포탄이 날아갔다. 신작로가 뒤집히고 바위들이 부서졌다. 급정거를 하던 자동차가 다시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인제는 운전사에게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직탄을 맞으면 모든것이 끝장난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서로 부둥켜안고 한덩어리가 되였다. 죽더라도 함께 죽는다면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다는것이 인간의 보편적심리가 아닌지?… 도래굽이에서 눈부신 섬광이 번쩍이며 눈앞이 새까매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서 갔다. 또다시 벼락치는 굉음과 섬광!…

한순간 모두가 폭풍에 날려버렸다. 은영이도 그렇게 휘뿌려졌다. 무엇이, 어떤 힘이 어떻게 허궁 들어 내팽가쳤는지 알수 없었다. 어둠속을 날다가 모래불에 구겨박히던 그때 머리속에 피끗 이렇게 죽는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던 기억뿐이였다.

눈을 떴을 때는 한낮이였다. 은영은 어느 반토굴집에 누워있었다. 반나마 동굴속에 자리잡고있는 집이였으나 굴앞의 문창호지로는 밝은 해빛이 비쳐들고있었다. 안경을 낀 군관이 나어린 흰옷입은 처녀와 같이 그의 침대머리맡에 앉아있는것이 보였다. 밝은빛에 눈이 부시여 잘 알리지 않았으나 무엇때문인지 군관의 모습이 무던히도 낯익어보였다.

《정신을 차렸군요.》

하얀 위생복을 입은 처녀가 기쁨어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은영은 어벙벙해졌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것인가. 이 처녀는 간호원이 분명한데 그러면 병원에 실려왔는가?…

《어떻습니까. 아픈덴 없습니까?》

군관이 묻는 말이였다. 군의같지는 않았다. 위생복이 아닌 불에 그슬린 군복에 소좌의 견장을 달고 소리없이 웃고있다. 간호원처녀도 그와 같이 눈시울을 떨며 웃고있었다.

《타박상을 받았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소좌의 말이였다. 그 순간 은영은 두눈을 꾹 감았다가 다시 떴다. 손으로 밝은빛을 가리며 살펴보니 틀림없는 그 사람이였다. 은영은 급

기야 벌떡 몸을 일으키며 부르짖었다.

《선생님이?!…》

《예, 접니다. 조기천입니다!》

《어마나! 여기서 이렇게 만날줄은!…》 은영은 기쁨을 감출수 없어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쥐고 불같이 속삭이였다.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선생님. 그새 어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줄곧 전선에 나와있었지요. 종군작가로 말입니다. 그건 그렇구 몸은 좀 어떻습니까?》

《몸?…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인과 처녀간호원이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여 웃었다. 한바탕 웃고나서 시인이 눈을 끔쩍해보이자 처녀간호원이 생긋 웃으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제서야 은영은 자기의 몸을 살펴보았다. 머리에 감은 붕대만 아니라면 모든것이 성하였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는 분명 군대병원에 누워있는것이다. 그 리유를 조기천이 설명해주었다.

《그놈의 함포탄이 신통히도 쏘프라노가수들만 때렸더군요. 은영동무와 류선정, 한정애, 이렇게 세사람을 말입니다. 아마 쏘프라노가수들의 노래가 그놈들에겐 제일 귀아프게 들린가부지요?》

시인이 소리내여 웃어대고 은영이도 상긋 웃음을 떠올렸다. 다음순간 웃음을 가무리며 다급히 물었다.

《그럼 류선정, 한정애는?… 그 동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퇴원해나갔습니다. 은영동무처럼 모래불에 구겨박힌걸 파내여 실어왔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 아—아, 오—오 하면서 성대가 제대로 보존되여있는가 그것부터 알아보더군요.》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이렇게 시인을 만난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은영은 타박상을 입은 머리를 쓸어보고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우린 당장 평양으로 가야 하는데 기차를 놓치면…》

《아, 좀더 누워있어도 됩니다.》 조기천의 말이였다. 《기차는 밤이 되여야 출발합니다.》

《그럼 그새 우린 뭘 해야 합니까?…》

《꿈을 꾸십시오.》
《예?!…》
《꿈이 있는 한 인생은 즐거운 법입니다.》
《?…》
웬일인지 시인의 그 말이 가슴을 뜨끔하게 깨물었다. 그렇게 말하던 또 한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던것이다. 은영이에게 꿈을 꾸는듯 한 눈을 가지고있다고, 언제든 꿈을 잃지 말라고 말하던 사람, 그 역시 마음속에 시를 안고있던 사람이 아니였던가!…
림호를 생각하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기가 웃고있는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다. 은영은 그저 웃고있는것이 아니라 명성높은 한 시인에게 웃음을 날린것인지도 모른다. 별안간 가슴을 파고드는 어수선한 느낌에 눈보라를 삼킨듯 오한이 났다.
그때 간호원을 따라 편대동무들이 와 밀려들어왔다. 제일먼저 한정애가 은영의 목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정말… 다행이예요.》
사람들이 울고있는 한정애를 떼여내며 저저마끔 기쁨과 흥분에 겨워 떠들어댔다.
《콘데숀은 일없어요?》
《시험해봤어요?》
《아 아니, 믿을수 없소. 소릴 내보시오.》
《그래요, 들어봐야 해요!》
아마도 이들의 성화에 못이겨 류선정이나 한정애도 아—아, 오—오— 했을것이다. 은영이 마지못해 《저기 바다로…》하고 한두소절을 넘기자 녀동무들이 일시에 그의 목을 끌어안고 웃고 떠들었다. 그 이채로운 모습을 지켜보며 간호원처녀는 연신 손등으로 눈굽을 문지르고있었다.
잠시 조용해져서야 고종우가 말했다.
《조기천선생이 은영동무를 여기 병원에 실어왔소. 류선정동무와 저 한정애까지.》
그의 말에 의하면 조기천이 모터찌클을 타고 오다가 포탄벼락을 들쓴 자동차와 사람들을 발견하고 의식을 잃은 세사람을 먼저 가까운 련

대군의소에 실어왔다고 한다. 그는 해안포중대에서 전선신문사로 가던 길이였었다.

은영은 조기천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기천은 버릇처럼 안경을 벗어 입김을 불며 닦기 시작했다. 감사의 인사말에 거북해하는것 같았다.

《난 시간이 바빠서…》 마침내 그가 하는 말이였다. 《미안합니다만 동무들이 떠나는걸 바래주지 못할것 같습니다.》

순간 은영은 지난해 겨울 만포에서 있은 일을 상기했다. 즐거웠던 그 오솔길, 동요시절로 되돌아간듯싶던 숲속의 눈길, 그때엔 시인이 은영이를 자청하여 바래주었었다. 마치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생각해낸듯 은영은 불쑥 이렇게 말하였다.

《대신 제가 선생님을 바래드리지요.》

조기천이 안경을 끼였다.

《어데까지 말입니까?》

《문앞까지만!… 그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허락합니다.》

방안의 사람들이 모두 유쾌하게 웃었다. 그들은 조기천을 장령처럼 앞세우고 비좁은 반토굴집을 나섰다. 알고보니 련대군의소가 자리잡고있는 곳은 기묘한 협곡이였다. 높지 않은 야산들이 병풍처럼 사방을 막고있는데 골어귀까지 울창한 수림으로 덮여있고 그사이로 작은 시내물이 노래에서처럼 돌돌 흐르고있었다. 멀리에서 쿵—쿠궁! 울려오는 포성만 아니라면 동화의 세계에 들어선것이라고 느껴질것이다.

그들은 내물이 흐르는 길아닌 길을 따라 내려갔다. 골어귀까지는 100메터쯤 되였는데 그곳에서 련대군의소 병동까지는 무수한 바위투성이여서 걸어서 드나들어야 했다. 그리하여 시인은 골어귀의 초소막에 모터찌클을 맡겨두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어떻게 실신해있는 세 녀배우를 업고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한동안 아무말없이 걸었다. 별안간 은영은 이상한 예감에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뒤따르지 않는다는것을, 속이 엉큼한 사람들이 제때에 발걸음을 늦추어 떨어졌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조기천은 웃고말았지만 은영은 다시금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말벌에 쏘인것처럼 때끔거리는 아픔과 차디찬 오한에 금시 입귀에서 아물거리던 미소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대신 심장이 쿵쿵 울렸다. 께름직하고 아릿한 불안이 걷잡을길없이 엄습해오는것을 느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 들었습니다.》 마침내 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어린 딸애는 잘있겠지요?》

《예, 예…》

은영은 아무 까닭없이 비틀거렸다. 치마자락에 발을 걸채인것 같기도 하고 돌멩이를 걷어찬것 같기도 했다. 구깃구깃해진 마음속에 수치와 절망의 뾰족한 가시가 들어박히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무엇인가 잘못되였다. 결곡하고 감때사납던 한 사람에게 또 소탈하고 열정적인 이 시인에게 죄가 된다는것을 왜 미처 생각지 못했던가!…

《나는 이번에》하고 시인이 또 말했다. 《실로 많은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지 절감했다고 할가… 은영동무도 놈들이 정전담판을 정식 제의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테지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 피와 땀을 바쳐 앞당겨온 오늘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벅찬 느낌을 시에 담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은영은 불같이 속삭이였다. 《정말 들어보고싶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읊는 시를요!》

《좋습니다.》

시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발끝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숨결을 내뿜더니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이윽고 입을 열며 화염같은 시구절을 내뿜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
남북삼천리에 재더미만 남았다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이 타고있는 조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

속이 후두둑 뛰고 짜릿한 전률에 심장이 흠칫거렸다. 어느덧 시의 화염을 삼킨듯 목구멍이 쓰려났다. 전선길에서, 마을과 전야에서 은영이 본 페허의 잔해들이 눈앞에 삼삼하였다. 태양도 피갈이 타고 있는 조선!… 쓰라린 아픔과 분노의 불길이 그대로 시로 새겨지는듯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다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인민은 살며 싸운다
조선은 싸운다
…

은영은 잠자코 있었다. 시에서 받은 충격이 하도 커서만이 아니였다. 적막이 골안을 꽉 채우고있었다. 울퉁불퉁 돌과 바위들이 널린 길 아닌 길, 그밑을 감돌아흐르는 내물소리도 없다. 새들만이 열심히 날아예고있다.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하고 시인은 격앙되여 읊었으나 여기서는 뭇새들이 자유로이 삶을 야단스럽게 떠들고있다. 이렇듯 평온한 골안도 있다는것을, 온 나라의 숲에서 이제 새들이 마음껏 노래할 날이 꼭 오리라는것을 극성스럽게 지저귀는것만 같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시인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닙니까? 아니면…》

《아, 아니요.》

은영은 입을 벌리고 싱그러운 숲의 향취를 한껏 들여마셨다. 그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나직이 말했다.

《시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가수인데 왜 아직 자기의 목소리를 찾지 못했을가 하고 말이지요.》

《은영동무는 특이한 자기 목소릴 가지고있습니다. 그게 무언지 아직 모르고있는가요?》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시인은 대답을 서둘지 않았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은영이를 곁눈질해보고는 웅근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보나 은영동문 사랑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있습니다.》

《예?》

《사실 난 동무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걸 생각했습니다. 전선에 나와서도 늘 귀전에 쟁쟁 울리던 그 노래, 바로 그것은 깨끗하고 진실하고 사심없는 사랑의 노래라고 말입니다. 동무의 노래를 듣느라면 마치 사랑의 고백을 듣는것처럼 느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생활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심중의 열정에 넘친 고백을 말이지요. 흔히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면 속삭임소리로 생각될수도 있는데 동무는 그것을 그저 목소리로만 아니라 온몸의 넋을 다 쏟아붓는, 다시말하여 벅찬 호흡으로 노래한다고 할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청중이 그것을 느낀다는것은 가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가요?…》

별안간 은영은 숨이 막히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랑! 물론 사랑을 떠난 예술가는 없다. 예술가이자 곧 생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도록 심장에 호소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가수에게 있어서 자기의 노래에 사랑이 울리고있다는 평가야말로 얼마나 과분한 치하인것인가!…

사랑, 조기천은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었다.

사랑은 높은 젖가슴도
별같은 눈매도 아니다
사랑은 그 뿌리를
참된 인생의 봄에 두었다

하다면 은영은 그 인생의 봄에 뿌리를 둔 사랑을 노래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인생의 봄을 호소하는 가수!…

불현듯 조용히 울고싶은 심정이였다. 행복을 느낄새도 없이 어느새 쓰디쓴 회오에 마음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지금 은영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애달픈것인지 열정의 시인 조기천은 짐작조차 못하고있을것이다. 어찌해야 하는가?… 어쨌든 무엇인가 잘못되였다. 더 이상 끌어서는 안될 이성의 불협화음, 이성의 엇박자… 은영은 입술을 깨물며 두손을 맞잡고 비틀고있었다.

《왜,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조기천이 서운해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안색이 좋지 않군요.》

《아,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은영은 다시금 허우적거렸다. 《그저 고마워서… 언제든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침 초소막이 눈앞에 있었다. 따발총을 멘 녀성군인이 조기천을 향해 돌아서며 맵시나게 거수경례를 했다.

《선생님, 모터찌클을 다 닦아놓았습니다.》

《그건 왜?》

조기천이 의아해하자 녀성군인은 두볼의 보조개를 깊이 파며 귀인상스럽게 웃었다.

《조기천선생님이 타시는 모터찌클이 아닙니까!》

《그렇다?!》하고 시인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아무튼 수고했소. 고맙소, 처녀동무!》

초소막앞에 정히 닦아놓은 모터찌클이 있었다. 조기천은 그것을 잡고 앞으로 얼마간 밀고 나갔다. 여기서 도로는 지척이다. 풍을 친 자동차들이 질주해가고있었다.

《문밖까지 바래주겠다고 했지요?》 조기천이 이상하게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자, 다 왔습니다.》

웬일인지 그는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 망설이고있는듯 했다. 모터찌클을 멈춰세우고 잠시 부스대였다. 웃주머니에서 무엇인가 찾다가 찾지 못하고 대신 안경을 벗어 깐깐히 닦기 시작했다. 착잡한 생각에 잠길 때마다 닦군 하는 안경… 은영은 두려워났다. 시인이 무엇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잃고있는지 알수 없어 저도 모르게 숨결이 가빠졌다. 인제는 시인이 닦고있는 안경에 모든것이 달려있는상싶었다. 무던히도 오래 닦고있는것에는 진정 참을수 없을 지경이였다.

시인은 마침내 큰 숨을 내뿜었다. 안경을 다시 귀에 걸고나서야 입을 열었는데 웬일인지 눈길은 뒤쪽의 초소막에서 웃으며 지켜보고있는 녀병사에게로 가있었다.

《이제 평양에 돌아가면 아니, 내가 이제 돌아가면…》 말이 잘되지 않는듯 그는 억지로 웃음을 떠올리며 힘들게 이었다. 《여기 화선에서 쓴 시들을 또 읊어드리겠습니다. 은영동무 새로 준비한 노래를 부르고…》

《정말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부디 잘 가십시오.》

《안녕히…》

시인이 모터찌클의 발동을 걸었다. 우당탕탕!… 참고참아오던 격정이 배기가스로 뿜어나오는듯… 시인이 올라타는것과 동시에 모터찌클이 후닥닥 앞으로 튕기듯 달려나갔다.

《또 만납시다!》

시인의 웨침소리, 은영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불시에 눈굽이 쿡쑤시고 마음이 저릿저릿해졌다. 아니, 선생님, 우린 다시 만나지 않는것이 더 좋지 않을가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한다는걸 오늘 깨달았으니… 정말이지 난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 선생님! 이 못난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밖엔 할수 없는 저를… 그리고 부디 몸조심하세요. 부디, 부디… 행복하시기를!…

눈물이 앞을 가리고있었다. 아픔때문이거나 아쉬움때문만이 아니였다.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애수가 목구멍으로 치밀어오르고 뜨끔한 자책이 마음을 허비기때문이였다.

모터찌클은 먼 산굽이쪽으로 사라져갔다. 얼마후엔 구름처럼 날리는 먼지발을 남기고 산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은영은 오래도록 한자리에 못박힌채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2

1951년 7월 국립예술극장의 절대다수는 중국방문공연을 떠나고 은영은 베를린에서 진행되는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축전이 끝나면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나라들을 돌며 공연을 해야 한다. 그 나라들에서 싸우는 동방조선의 청년들을 보고싶고 조선의 노래를 듣고싶다고 벌써 축전참가자들을 초청했던것이다. 하여 인민군협주단과 여러 극장 및 예술단체들에서 뽑힌 청년배우들이 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백호산과 피아니스트 박미화도 있었다. 국립예술극장에서는 은영을 비롯하여 명가수들인 류선정, 조련, 황선희, 고종우 등이 뽑혀있었다. 제일 나어린 가수로서는 강순녀, 한정애가 있었다. 리면상, 김옥성, 안기영과 같은 작곡가들이 밤을 새워가며 새 곡목을 토론하고 편곡을 했다.

은영은 밤이 깊도록 련습을 하군 했다. 특히 외국노래들을 정확히 발음하는데 품을 많이 들였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 곡들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야만 하였던것이다. 한때 서울에서 가극 《리고레또》, 《동백꽃아가씨》, 《파우스트》와 쇼팡의 《리별의 곡》 녀주인공역을 맡아하면서 경험을 쌓았지만 그것은 주로 도이췰란드어로 불리운 노래들이였다. 지금은 쏘련과 뽈스까, 마쟈르, 체스꼬, 로므니아, 벌가리아의 곡들까지 준비해야 한다.

곡목중에서 가극의 아리아는 여전히 고종우가 은영의 상대역으로 정해져있었다. 운명은 그들을 끝까지 한무대에서 상대역이 되여 노래하도록 묶어세운것만 같았다.

밤이였다. 7월의 밤, 은영은 대동강기슭을 거닐며 새로 익힌 노래를 낮게 불러보고있었다. 멀지 않은 숲속에서는 합창 《법성포배노래》와 조기천의 《백두산》에 새로 곡을 붙인 교성곡 《압록강》을 련습하고있었다. 적기들의 폭격을 피하여 갱도속에서 하는것이 안

전하였지만 울림이 너무 심하여 날이 어둡기 바쁘게 모란봉이나 대동강기슭으로 밀려나오군 하였다. 비록 매끼 보리밥 한덩이를 씹으면서도 그들은 지칠줄을 몰랐다.

은영은 청류벽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부지중 애절하게 울리는 바이올린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둠에 싸인 숲속에서 백호산이 독주곡 《비둘기》를 연주하고있는것이였다.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정다운 비둘기, 전쟁의 불구름을 뚫고 맑고 푸른 하늘가로 나래를 편 그 새의 눈물어린 속삭임인가, 살랑거리던 나무잎새들도 그윽한 감동속에 젖어들었다. 대동강물결도 소리없이 기슭을 쓰다듬고있다. 별빛내린 물결우로 은은하게 파문지어가는 절절한 속삭임소리, 은영은 이슥토록 걸음을 떼지 못했다.

예술가들마다 자기의 독특한 주법이 있고 창법이 있다. 그것을 위하여 피나는 훈련을 거듭한다. 피아니스트들은 순간에 건반을 때리는 타치의 박력이 손가락으로 못을 때려박을 정도로 되였을 때,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온몸의 힘과 열정이 활에 집중되고 악기통을 울리게 될 때, 성악가수들은 배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리통이 굴뚝처럼 섰을 때 비로소 자기의 주법을, 자기의 창법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듯 아글타글하기에 얼마전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아 공연할 때 백호산은 못에 찔린 한손가락을 못쓰게 되자 세손가락만으로 연주하면서도 5청을 받았다.

완성의 경지, 시인 조기천이 말하던 완성의 경지란 과연 어떤것인가?…그날 조기천은 말했다.

《완성이란 없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채찍질하면서 완성의 경지로 올라야지요.》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화선에서 전사들과 담화하고있을가 아니면 병사들을 고무하는 시를 읊고있을가?…

문득 은영은 자기가 때없이 그 시인을 생각하고있음을 깨달았다. 그러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것 같은 느낌이였다. 놀랍게도 오늘밤 역시 시인을 생각하고있다. 매일같이 생각해온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나도 가수이고 그 역시 가수이다. 한편은 시어로, 다른 편은 선률로 노래하는 가수일뿐이다. 하기에 그의 말 한

마디한마디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변명하는 거짓된 웨침이라는것을 잘 알면서도 은영은 이렇게 어거지로 자신을 납득시키고있었다.

그때 고종우가 은영을 부르며 달려왔다. 숨이 차서 헐썩이며 기쁨에 넘쳐 그는 부르짖었다.

《은영동무, 조기천선생이 왔구만!》

《예?!》

《전선에서 방금 돌아오는 길이라오. 아, 그새 얼마나 달라졌는지!… 빨리 가보시오, 지금 동물 찾고있소.》

《저를요, 선생님이?》

목이 콱 메였다. 한생 이 시각을 기다려온것만 같았다. 기꺼운 흥분에 온몸을 떨며 두손을 가슴앞섶에 모두어쥐였다. 순간 바이올린소리가 더 크게, 격정에 넘쳐 절절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물결우에 고요히 내려앉던 별들이 흐트러졌다. 은영은 몸을 홱 돌리며 숲속으로 뻗은 오솔길, 백호산의 바이올린이 벅찬 선률로 불러주고있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뒤에서 고종우가 소리쳤다.

《아, 은영동무, 이쪽이요, 반대쪽!…》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반대쪽?… 갑자기 정신이 드는것 같다. 그는 반대쪽으로 가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온통 어둠뿐이다. 걸음을 옮기려 하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모든것이 넘실거리는 물결에 떠실려 가버린듯 했다. 대동강의 물결은 어제도 오늘도 소리없이 유유히 흐르고 또 흐른다. 밤에도 낮에도 흐르고흘러 바다로 간다, 사랑의 바다. 은영이 언제든 항로를 바꾸지 않으리라고 마음 다졌던 그 바다로 간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데로 가고있는것인가?!…

별안간 은영은 후려맞은것처럼 그 자리에 무너져버렸다. 무릎을 꿇고 돌바위를 그러안으며 소리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가슴이 미여지고 혀끝이 달달 말려들었다.

《왜 그러시오, 은영동무?》 고종우가 다가와 급히 묻는다. 《몸이 말째서 그러시오, 예?》

정직하고 대바른 고종우, 웅글고 부드러운 소리를 가진 바리톤가수답게 속궁냥도 깊고 인정도 많은 그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독신이다.

전쟁때문인지 모르나 오직 예술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곁눈 한번 팔지 않는다. 이런 사람한테는 그 무엇도 숨길 리유가 없을것이다. 하물며 은영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야!…

《은영동무.》 고종우가 그의 어깨에 손을 대려다가 주춤거리며 침울하게 말하였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혹시…》

《잠간만!…》 은영은 급히 눈굽을 찍고 몸을 일으켰다. 희뿌예진 눈으로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목이 잠긴듯 중얼거렸다. 《난… 갈수 없어요. 고종우동무, 가서 적당히… 말해주세요.》

《뭐요?》

《부탁이예요. 동무야 왜 그러는지 아실테지요. 그래요, 이제 내가 한걸음 더 나가면…아니, 그럴수 없어요. 절대 그럴수… 없어요.》

《그럴수 없다니, 도대체 무슨 소릴 하자는거요?》

은영은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쓰리던 가슴에 갑자기 설음이 꽉 들어차는것을 느꼈다.

《난… 그래선 안된다는걸… 알고있었어요. 고종우동무도 잘 아는것처럼 난 이미… 그래요. 우리 현순이 아버질 위해서도 그렇구 또… 그처럼 훌륭한분한테… 그처럼 결곡한분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기대를 품게 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순간이나마 흔들어놓는다면 저는 뭐가 되겠어요, 예? 말해보세요!》

고종우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음— 알만 하오, 무슨 말을 하자는건지. 그렇지만…》

《아니, 됐어요. 말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요, 난 동무가 이럴줄은 몰랐소. 정말 은영동무답지 않게… 어쩌문 그럴수 있소?》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예?!》

은영은 손등으로 눈굽을 씻으며 갑자기 낯빛이 해쓱해진 고종우를 놀라서 바라보았다.

《동문》하고 고종우는 씨근거렸다. 《동문 지금 먼저 간 그 사람을 모욕하구있소, 모욕하구있단 말이요!》

그는 소리치고있었다. 주먹을 꽉 부르쥐고 무섭게 노려보는것이 막 후려갈길 태세였다. 그처럼 분개하여 소리치는 그를 여태 본적이 없었다.

《그 사람, 림호라는 그 사람을 나는 물론 잘 모르오. 그렇지만 그가 희생되면서 노래를 부르는것을 보고 난 속으로 울었소. 저기 바다로 가자! 하고 노래하는걸 보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됐단 말이요. 나갈은건 발치에도 못 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은영동무가 그를 사랑한것이 너무도 응당하다고 생각했던거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구 오늘까지 잊지 못해하는데… 그렇듯 훌륭한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은영동무가 모욕하다니!… 그런 말 하기 부끄럽지 않소?… 그 사람의 진정도 모른다면 정말 동문 시시한 녀자요!》

《예?!…》

고종우는 팔을 홱 내젓고 다시 계속하였다.

《그가 바란게 무엇이겠소. 어째서 죽음을 앞두고 저기 바다로 가자! 하고 노래를 불렀겠는지 생각해봤소? 그 사람이나 동무의 아버지, 동생들이 바란게 무엇이겠는지 생각해봤나 말이요. 사실말이지 림호라는 그 사람은 남아요, 심장이 크고 뜨거운 남아!… 그가 지금 이 일을 안다면… 자기를 턱대고 온 나라가 사랑하는 시인 한분을 욕되게 하는줄 안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요, 절대!…》

은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고있었다. 전쟁판에서 화염을 삼켰을 때처럼 목이 타들어 견딜수 없었다. 가까스로 숨을 돌리며 속삭이였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예?!》

《내가 알게 뭐요?》

고종우는 그대로 가버리려 했으나 문득 무엇인가 한마디 더 못박으려고 생각한듯 하였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나서 가까스로 어성을 낮추는것이 알렸다.

《아마 조기천선생은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은영동무가 더없이 대견하구 자랑스러워 남달리 관심하고싶었을지도 모르오. 은영동무도 말했듯이 그도 시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요. 그래서 더 돕고싶구 진정 위해주고싶었는지… 그런데 동문 뭐요. 부탁하는데 제발 그분까지 욕되게 하진 마시오!》

《?!…》

부지중 은영은 몸을 떨었다. 놀라움도 컸거니와 감사의 념에 그를

다시 보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듯 사심없고 진실한 사람을 한때 오해했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진정 속이 좁은것은 은영이 자기였다. 고종우가 말했듯이 시시한 녀자였다. 조기천선생까지 욕되게 한다는 말이 무딘 칼날처럼 가슴을 우벼대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가시오.》 고종우가 지친듯 말했다. 《그리구 내가 소리친건 량해하시오.》

은영은 그가 언제 어둠속으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밤의 어둠속을 파헤치며 절절한 바이올린의 선률이 다시 계속되였다. 창공높이 날고있는 비둘기의 노래, 진정 생활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는것이다.

조기천이 마주왔다. 여전히 소좌견장을 달고있는 군복차림이다. 그에게서는 전쟁터의 화약가스냄새가 진하게 풍기고있었다. 군복은 허름해진것 같았으나 시인은 보다 젊어지고 싱싱해보였다.

《은영동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는 진정 반가와하며 어줍게 웃었다. 《축전에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차 떠난다지요?》

《예, 사흘후엔 떠난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말이 잘되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 그새 계속 전선에 계셨습니까?》

《싸웠지요, 전호속에서 시도 읊고 전투소보도 쓰구… 아, 또 있습니다. 은영동무에게 줄 선물도 마련했지요.》

《예?!》

《눈을 감으시오, 꼭!…》

시인은 언제보나 소탈하고 꾸밈이 없었다. 점잔을 빼지도 않았고 우정 유식한 말을 골라쓰지도 않았다.

은영은 눈을 감고 기다렸다. 시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어쩌자는걸가?… 뜨거운 숨결도 가까와왔다. 정말 어쩌자는걸가?… 가슴이 후둑거렸다. 호흡이 절박해지고 손끝까지 저려드는것을 견디기 어려웠다.

《보십시오.》

마침내 시인이 하는 말이였다. 가만히 눈을 떠보니 손바닥에 작은 탄알 하나가 놓여있었다. 반질반질 닦은것 같은 탄알, 흔히 보는 아주 작고도 보잘나위없는, 어찌보면 깜찍하기까지 한 탄알, 흔히 죽음의 선물로 일러진 이것을 부디 선물로 고른것은 무슨 까닭이란 말인

가?… 그 리유를 시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면바로 이 심장을 꿰뚫고 나가려고 했던겁니다. 그런데 내 군복안주머니에 있던 수첩이 막아주었습니다. 언젠가 은영동무가 준 그 피묻은 수첩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인민군보병중대장과 은영동무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었다고 할가요.》
《예?!》
시인은 품속에서 그 수첩을 꺼내였다. 총탄이 뚫다가 맥이 진하여 박혀버린 자욱이 생생한 수첩, 어마나! 이런 끔찍한 일도 있다니!… 은영은 소스라치며 수첩을 쥔 손을 떨었다. 무어라고 말해야 할지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얼마후에야 수첩을 꼭 껴안으며 속삭이였다.
《선생님,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제발 조심하세요.》
조기천은 빙긋이 웃었다.
《일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지켜주는 한 나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예요. 그러다가…》
《일없습니다.》 그는 정색하며 말하였다. 《이 수첩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하군 했습니다, 그 보병중대장과 은영동무를… 정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들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속에서 내가 살고있고 시를 쓰고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새삼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한때 나는 자신을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걸 이겨내려 무던히도 애썼지만 어쩔수 없더군요.》
그의 입가에 떠오르는 경멸의 미소를 바라보며 은영은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설핀 해빛이 시인의 안경알에서 번뜩이였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시인의 그 말에 은영은 재빨리 입술을 추기며 속삭이였다.
《어서 계속하세요. 전 듣고싶어요.》
《사실은》하고 그는 갑자기 서름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한 녀자가 조국을 버리고 로씨야로 돌아갔던겁니다. 무엇때문인지 나도 다는 알수 없지만 어릴적부터 몸에 익힌 빠다와 뽈까춤이 그리웠던것 같습니다. 조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투정질이 많아지더니 나한테 조르다못해 훌 가버린거지요. 그때 나는…》

쓰라린 추억이 그로 하여금 목구멍에 걸린것을 꿀꺽 삼키게 했다. 은영은 숨길을 딱 멈추었다. 열화같은 열정을 지닌 시인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있는줄은 몰랐었다. 그에게도 아픔이 있고 설음이 있으리라는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때 난…》 시인이 계속했다. 《불행했습니다. 아니, 불행하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말을 하기가 쑥스럽고 창피스럽지만 그때엔 진정 따뜻한 인정이, 사심없는 사랑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못 견디게 그리웠다고 할지… 정말이지 애달픈, 가슴 저린 그런 그리움, 사무치게 그리운 사랑의 정이였습니다.》

다음순간 그는 쓰디쓴 미소를 그리며 머리를 젓고나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그러나 서사시 〈백두산〉이 나에게 보다 큰 사랑을, 한 녀성의 사랑엔 비할바없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안겨주고있다는것을 나날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결국 나는 한 녀성의 사랑은 잃었지만 수령의 총애와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였던거지요. 진정 백두산처럼 크고 장려한 사랑을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걸음을 멈추고 서로 마주 서있게 되였는지 알지 못하고있었다. 은영은 격동되여있었다. 수령의 총애와 인민의 사랑!… 가슴이 뻐근해졌다.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리끝까지 아파날 지경이였다. 한 예술가로서 누릴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바로 그것이 아닐가?… 아버지가 말한 만사람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였다. 림호가 바란것도 바로 그처럼 큰 사랑을 받는 은영이였다. 그런데 은영은 사사로운 감정의 바오라기에 목이 매여있었다. 정말이지 시시한 녀자였다.

멀리서 합창으로 부르는 교성곡 《압록강》의 선률이 대해같은 폭과 깊이를 가지고 울려오고있었다.

이 나라 북변의 장강
칠백리 압록강 푸른 물에
저녁해 비꼈는데 황혼을 담아싣고
떼목이 내린다 떼목이 내린다
뉘의 눈물겨운 이야기
떼목우의 초막에 깃들었느냐

뉘의 한많은 평생 모닥불에 타서
한줄기 연기로 없어지느냐
…

작곡가 김옥성이 곡을 붙인 교성곡, 두사람은 저도 모르게 그 선률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항일의 애국전통이 거센 흐름을 이루어 굽이치는 압록강의 노래, 그 노래의 끝은 어디일가. 은영은 눈앞의 대동강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이 세상 모든 강들은 바다로 간다. 압록강과 더불어 지금 저 용용한 대동강의 물결도 바다로 간다. 한없이 크고 장려한 바다!— 그러나 모든 물줄기가 다 바다에 이르는것은 아니다. 땅속에 잦아들고 웅뎅이에 고여 썩기도 하고… 하다면 사랑의 노래는 어데서 끝나는걸가. 저 교성곡의 울림처럼 그 폭과 깊이를 다 헤아릴수 없는 그 노래의 끝은?…

그들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데로 무엇때문에 가고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조기천이 시계를 보았다. 은영이에게 너무 시간을 빼앗지 않았는가고, 인젠 가봐야 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은영은 머리를 저었다.

《아, 아니예요. 선생님! 일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천은 낮게, 감동에 겨워 말했다. 《은영동문 나에게 그리고 온 나라 인민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있습니다. 만사람이 노래를 안고살며 싸우도록 도와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은영동무를 만날 때마다…》

《?!…》

걸음을 멈추었다. 교성곡도 바이올린소리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은영은 숨구멍이 막힌듯 입을 벌리고 눈을 감고있었다. 뜨거운 피의 흐름이 가슴속으로 쓸어드는것을 느꼈다. 무얼 말하려는것일가, 왜 말을 멈추었을가? 웬일인지 그가 이제 할 말이 숨막히게 기다려졌다.

바로 그때 누군가 은영이를 부르며 뒤쫓아왔다. 나무가지사이로 언듯거리는 흰옷자락이 먼저 눈에 띄였다. 한정애였다. 처녀는 두사람을 보자 못박힌듯 멎어서며 주춤거렸다.

《정애, 왜 그래요?》 은영이 물었다.

《저… 안됐습니다, 선생님.》 정애는 안면있는 조기천에게 눈인사를 하고나서 잰말씨로 계속했다. 《언니, 부총장선생이 지금 막 야단을 하고있어요.》

《야단을, 그건 왜?》

《글쎄 합창이 끝나면 관현악과 맞추어야 하는데 어델 쏘다니는가구 하면서 빨리 찾아오라구 해서…》

부총장은 오학성이다. 그새 음악지휘를 영영 버리고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더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로와졌다. 그는 생활의 리듬까지도 박절기처럼 한초한초 재여가는것 같았다.

《알겠어요.》

은영의 맥풀린 대답이였다.

한정애가 어둠속으로 사라지자 조기천이 말했다.

《내가 그만 제일 바쁠 때 찾아와서… 정말 안됐습니다.》

《아―니, 일없습니다. 선생님, 우리야 늘 그런걸요. 바쁘지 않을때가 있나요.》

그렇다, 바쁘지 않을 때란 없다. 안삼불이 기다리고 관중이 기다린다. 보이지 않는 박절기가 재깍거리며 엄정한 시간준수를 요구하고있다.

잠시 그들은 덤덤히 마주보기만 했다. 끊어진 감정의 연줄을 이을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마침내 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리 말해두는데 축전에 가면 싸우는 조선의 노래를 온 세상에 힘껏 울려주십시오, 내 마음까지 합쳐서!》

《예,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인은 손을 내밀었고 은영은 그 손끝을 가까스로 잡았다.

《그럼 안녕히!》

《잘 가십시오.》

《축전에 갈 땐 꼭 역에 나가 바래주겠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시인은 몸을 돌려 떠나갔다.

은영은 눈을 꼭 감고있었다. 무엇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수 없었다. 점도록 한자리에 서있었다. 교성곡 《압록강》의 장려한 선률이 다시금 물결치듯 가슴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3

렬차는 광활한 씨비리대지를 꿰지르며 기세높이 달리고있었다. 차창너머에는 하이얀 옷을 팽팽히 조여입은 봊나무들이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고요한 명상에 잠긴듯 서있었다.

은영은 번거로운 상념속에 묻혀 레루이음짬을 타고 넘는 단조로운 차바퀴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끝없이 펼쳐진 수림의 바다를 점도록 내다보기도 했다.

재빛안개속엔 먼 수림이 잠들고
하늘 가린 밀림속을 달리는 개울물소리 들릴락말락
잎새우에 잠들은 바람 숨을 쉬는듯마는듯

사랑하는 자기의 조국을, 광활한 씨비리대지를 노래한 뿌슈낀의 시였다. 한때 우리의 시인 조기천도 여기서 꿈을 키우며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어느 한시 조국의 산천과 인민을 잊지 않았다.

고개뒤에 또 고개—
몇몇이나 있으련고?
넘어넘어 또 넘어도
기다린듯 다가만 서라!

만약 조기천이라면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그 골안의 싱그러운 소나무숲향기를 어떻게 노래할가?… 이렇게 은영의 생각은 또 잊을수 없는 그밤에로 이어져가고있었다. 그 잊을수 없는 밤으로부터 꿈같이 흘러온 날과 달들…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도 한 녀가수에 불과한 은영이를 잊지 않고계시였다고 한다. 허정숙문화선전상의 말에 의하면 얼마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부작전대앞에서 몸소 축전참가자명단을 보시며 은영이에 대하여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는것이다.

《축전참가자명단에 김은영동무도 있구만. 좋은 일이요.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들어온 동무를 축전명단에 넣은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 동문 애국적인 가정에서 나서자랐고 고생도 많이 했었지. … 우리 당을 따라 북에 들어와서도 늘 전선에 나가 살며 화선입당까지 했고… 이제 은영동무가 베를린축전에 가면 인기가 대단할것입니다. 특색있는 소리색갈로 노래를 부르는데다가 률동도 좋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맑고 명랑하게 표현하는 가수가 아닙니까. 싸우는 조선의 모습을, 미제와 싸워이기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잘 보여줄수 있을것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은영동무가 처음 국제무대에 나가는만큼 잘 돌봐주라고 재삼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수령님의 기대에 꼭 보답해야만 했다. 역두에 나왔던 조기천도 이렇게 말하였다.

《은영동무, 어련하겠소만 무대에 나설 때마다 먼저 우리의 영명하신 장군님을 그려보시오. 장군님께서 은영동무의 노래를 듣고계신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그러면 아마 온 세상이 동무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될겁니다. 내가 부탁하고싶은건 이것뿐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자, 그럼》 시인이 웃으며 말했다. 《태양의 가수답게 싸우는 조선의 기상을 떨치고 돌아오시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안녕!…》

이것이 전부였다. 심중에 간직된 하많은 당부와 약속은 서로 마주보는 정겨운 웃음속에 숨어있었다. 은영은 또 다른 사람들의 떠들썩한 인사말속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시인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전투영웅들과 굳은 약속을 하며 주고받는 말도 귀로 듣는것 같았다.

드디여 렬차의 기적소리가 울렸다. 호각소리가 울리고 축전에 가는 대표들, 체육인, 예술인들이 서둘러 차에 올랐다. 그때 은영은 시인

이 붐비는 사람들을 헤집고 이쪽으로 다가오는것을 보았다. 그러나 거센 증기발이 곧 시인을 휘감아버렸다. 차바퀴가 구을러가고 기적소리가 또 장쾌하게 울렸다. 증기발이 사라졌을 때 은영은 속도를 내고있는 기차를 따라서는 조기천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시인이 무어라고 소리쳤으나 알아들을수 없었다. 구름처럼 날리는 증기발과 차륜의 덜커덩소리, 배웅나온 사람들이 일시에 웨치는 목소리…

기차가 속도를 높였다. 시인은 우뚝 멎어섰으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손을 저으며 무어라고 목청껏 웨치고있었다. 은영은 시인의 모습이 아득히 멀어질 때까지 승강대에서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렬차가 멎는 역마다에서 쏘련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해주었다. 꽃보라가 뿌려지고 꽃다발이 가슴마다에 안겨지였다. 취주악대의 환영곡과 축하의 노래에 귀가 멍멍하였다.

만민의 후손들인 우리는 평화를 목적해
앞으로 나간다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전세계 각국에서 높은 산 바다건너
모이는 청년 높이 든 손길 대렬로 뭉쳐라

축전대표들은 거의다 전투영웅, 모범전투원들이였으므로 그들은 매번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였다. 목마에 태우고 공중에 들어올릴 때마다 앞가슴에 주렁이 단 훈장과 메달들이 해빛에 번쩍이였다.

친선가는 우렁차다 청년들 청년들 청년들
이 노래는 못 막으리 정녕코 없애지 못하리
온 세상은 우리와 함께 노래하니
이 노래는 못 막으리 정녕코 없애지 못하리

모스크바에서 3일간 체류하였다. 쏘련공청이 주최한 각종 행사들—상봉모임과 축하공연, 연회가 그칠줄 몰랐다. 그 모든 행사를 쓰

딸린이 직접 지시하여 조직하였다고 한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싸워 승리하는 조선, 영웅의 나라 청년들을 진심으로 경사롭게 맞고 환송하였다.

그러나 축전참가자들이 목마에 오르고 흩날리는 꽃보라에 싸여 베를린으로 달리고있을 때 조국의 수도 평양은 불바다로 화하고있었다.

그날 홍명희부수상은 전쟁 전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정부일지에 이렇게 썼다.

1951년 7월 30일

미국놈들 평양대폭격

오전 11시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새벽 4시) 그칠새없이 폭탄을 퍼붓고 로케트탄을 란사. 종일 시내는 불과 연기속에 잠겼다. 남일총참모장이 장군님께 보고드린데 의하면 적기 200여대가 와서 소이탄, 나팜탄, 시한탄 900개를 투하했다고 한다.

많은 사상자들이 났다. 초보적으로 사망 200명, 부상 570명, 행방불명 60명이 집계되였다.

날이 밝을녘에 시인 조기천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또 들어왔다. …

그 시각 은영은 모스크바를 떠나 베를린으로 가는 렬차에서 악보를 들여다보고있었다. 한쪽에서는 류선정, 조련, 한정애 등 녀가수들이 백호산의 거짓말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떠들고있었다. 백호산은 팔로군출신으로서 광활한 중국의 대지를 메주밟듯 하고 다닌 사람이다. 바이올린을 무기삼아 각지를 편답하며 기이한 인연도 많았고 별의별 일들도 많이 겪었다. 그 모든 사연을 글로 써내면 한달구지도 넘을것이라고 그는 장담했다. 그런데 아슬아슬한 모험담도 그는 꾸며낸 이야기처럼 우스개소리로 능청스럽게 펴놓군 하여 어디까지가 진담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그 누구도 분간하기 어려워했다.

은영은 악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백호산의 이야기에 자연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자 주덕총사령이》하고 백호산은 눈을 잔뜩 쪼프리며 말하였다. 《그 녀자한테 물었단 말이요. 〈내 목소린 중음이요, 저음이요?

난 남성고음(테놀)과 남성중음(바리톤), 남성저음(바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잘 모르겠거던.〉 하니까 그 장난꾸러기 녀동무가 뭐랬는지 아오? 〈총사령동지, 남성고음은 상급이 자기 부하에게 전화로 욕질할 때 내는 소리와 같고 남성저음은 욕을 먹는 부하가 상부에 발라맞출 때 내는 겸손한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 그러자 주덕총사령이 〈아, 이젠 알만해. 그러니 난 남성고음이구만. 밤낮 전화통에 대고 욕질만 하구있으니 말야.〉 하― 이러는게 아니겠소!…》

웃음이 터졌다. 은영이도 웃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그때 고종우가 차칸으로 들어왔다. 급히 덤벼치며 좌석마다 눈으로 훑고있었다. 비로소 은영이를 발견하자 헉―하고 숨길이 막힌듯 그 자리에 멎어섰다. 은영은 웃음을 지으며 그도 가까이 와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다. 그러나 고종우는 귀가 멘 사람같았다. 언제보나 단정하고 깨끗하던 그였으나 지금은 후려맞은 사람처럼 얼뜬해보였다.

《왜 그러세요?》 은영이 물었다. 《어데 갔더랬어요?》

《저기서…》 고종우가 허둥거리며 말했다. 《이제 방금…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입귀를 비틀며 숨이 찬듯 힘들게 말을 더듬는것을 보고 백호산이 웃으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기차에 불이라도 났소?》

《웃지 마시오, 제발!…》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고통에 모대기는 그의 퍼르끼레해진 얼굴에는 땀방울이 가득 돋아있었다. 그는 휘청거리며 다가와 은영이를 잡아끌었다.

《갑시다. 지금 저기서 보도를 듣고있는데…》

은영은 그한테 끌려가면서 벌써 가슴이 활랑거리는것을 느꼈다. 무엇인가 뜻하지 않던 일이 벌어진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여짜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백호산과 다른 녀가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다음차칸에 들어서자 두번째인가 세번째 좌석에서 라지오를 듣고있던 사람들, 부단장 백영준과 지휘자 김기영이 동시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침통한 표정이였다. 특히 백영준은 길쑴한 얼굴이 꺼

멓게 질려있었다. 은영은 묻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묻고싶었으나 무서운 대답이 나올가봐 숨소리조차 저어하였다.

백호산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부단장동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영준은 고종우에게 눈길을 주었다. 가서 말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이였다. 고종우가 눈귀를 떨며 외면하는것을 보자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이어 아무도 보지 않으며 갈린 음성으로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어제 미국놈들이 평양을 대폭격했는데… 그통에 조기천선생이 그만… 잘못됐다고 하오.》

《예?…》

누가 이렇게 부르짖었던지?… 은영은 물론 그를 따라온 사람들모두가 놀라서 굳어졌다. 백영준이 목단추를 벗기며 신음하였다. 시인이며 극작가이기도 한 백영준이여서 온 나라 인민이 사랑하던 시인 조기천의 희생을 두고 더더욱 통분함을 이기지 못해하는것이였다.

《그게…》하고 은영은 겨우내 목소리를 짜냈다. 《정말이세요? 잘못 듣지 않았습니까, 예?!》

《…》

대답을 못하는 백영준을 대신하여 김기영이 소란스럽게 한숨을 내뿜었다.

《동무들에겐 아직 알려주지 말가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을 굳게 먹는게 낫다고 보았소.》

은영은 비칠거렸다. 백호산과 류선정이 제때에 붙들어주었다. 그다음 무슨 일이 있었던지… 믿고싶지 않았다. 그처럼 불갈던 시인이 잘못되였다는것을 어떻게 믿을수 있으랴!…

백영준이 침통한 어조로 이번 축전에서 조기천의 작품들인 《압록강》과 《조선은 싸운다》,《문경고개》 등을 더잘 형상하여 시인의 피타는 웨침을 온 세상에 전하자고 말하고있었다. 그러니 그것은 사실이였다. 믿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 사실… 은영은 언제, 어떻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는지 알지 못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 어떤 우악스러운 손이 그의 가슴을 사정없이 찢어발기고있었다. 타는듯 한 아픔에 숨이 막히고 눈이 쓰

려 아무것도 바로볼수 없었다. 승강구의 창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며 비칠거렸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찌하여 매번 은영이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미국놈들의 총포탄에 맞아 희생되는것인가?… 어제는 아버지와 림호, 동생들인 일한이와 차한이가, 오늘은 또 불같은 심장을 지닌 시인 조기천이 곁을 떠나갔다. 그만을 남겨두고 모두 가버렸다. 쓰라린 아픔에 눈물도 나지 않았다. 은영은 오늘도 또 홀로 남았다. 파도를 헤가르는 갈매기라고 믿고있던 자신이 하나의 작은 새처럼 느껴졌다. 새로 준비한 곡목중에 들어있는 《작은 새》의 노래에서처럼…

내 그대를 사랑하는 붉은 마음
변함없이 영원하다고
내 정성을 다해 기다린다고
작은 새야 전하여다오

은영은 《내 정성을 다해 기다린다고》라는 노래구절을 다시 속으로 뇌이였다. 그러자 역두에서 손저어주던 조기천의 모습이 또 눈앞에 삼삼하였다. 그때 은영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긴 말은 무엇이였던가?…

마지막까지 그저 웃으며 헤여진 리별의 역두, 마침내 그를 휘감던 증기발, 그가 기차를 따라서며 소리친것은 무슨 말이였을가.

내 정성을 다해 기다린다고 웨친것은 아니였을가. 그런데 나는 왜 그 말을 듣지 못했던가? … 찢어진 목구멍에서는 신음소리만이 새여나왔다. 더는 지탱할수 없어 그만 창문에서 미끄러져내렸다.

누군가 그를 안아일으켰다.

《은영동무, 이러지 마시오.》 백영준이였다. 《동무야 여태껏 많은 고통과 슬픔을 이겨오지 않았소. 힘을 내시오. 슬픔을 이겨냅시다. 당장 축전이 시작되겠는데…》

그의 뒤에는 고종우와 백호산, 류선정과 조련, 한정애도 서있었다. 그들모두가 은영이 슬픔에 못이겨 성대를 상하게 될가봐 근심하는것 같았다. 당장 축전에서 독창을 해야 할 은영이였다.

백영준이 계속하였다.

《동무도 알겠지만 조기천선생은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시인이였소. 난 언젠가 최고사령부작전대앞에 조기천시집이 놓여있는것을 보았소. 전선을 지휘하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장군님께서 늘 조기천선생의 시를 읽고계셨단 말이요. 그처럼 선생을 사랑하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지 생각해보시오. 사실말이지 우리 장군님께선 이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겠소. 제일 사랑하시던 많은 전사들을 잃고 나라가 페허로 되고 인민이 고통을 겪고… 그래서 잠 못이루시는 밤이 얼마나 많겠는지 생각해보시오.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 슬픔에만 매울수 있겠나 말이요. 조기천선생이 역에서 마지막으로 은영동무에게 당부한 말도 그게 아니였겠소? 언제나 장군님을 생각하라고 하던 그 말!… 은영동무, 슬픔을 이겨냅시다. 꼭 이겨내야 합니다.》

은영은 목이 메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불현듯 목구멍을 가득 메우며 치밀어오른 뜨거운 눈물에 숨이 꺽 막혔다.

기적소리가 울렸다. 기차는 여전히 유럽의 대지를 흔들며 줄기차게 내달리고있었다. 또다시 울리는 기적소리, 피흘리며 싸워 승리하는 조선의 노래를 싣고 달리는 기차의 목갈린 웨침이였다.

그때부터 은영은 종일 아무말없이 생각에만 잠겨있었다. 그러나 일단 무대에 나설 때면 전혀 다른 은영으로 되였다. 밝고 청순한 웃음을 떠올린 녀가수가 만장의 환호를 받으며 노래를 시작하는것이였다. 열혈시인의 부탁대로 마음속깊이 장군님께 말씀올리며 노래하였다. 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는 모습만을 그려보았다. 유럽사람들이 미친듯 박수를 치고 재청을 웨치고 기념수표를 요구하며 뻐스와 호텔문앞에 구름처럼 둘러쌀 때에도 장군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려보고있었다.

승리한 초소에 봄이 돌아와
꾀꼴새 정다웁게 노래를 한다
봄바람은 고지에도 불어불어
내 맘같이 피여난 붉은 진달래
피로 지킨 나의 고지 불멸의 자랑
꾀꼴새야 전해달라 나의 고향에

쬐꼴새야 전해달라 나의 고향에

축전에서는 합창 《범성포배노래》와 교성곡 《압록강》, 백호산의 바이올린독주, 김은영의 독창, 녀성중창, 류선정과 조련의 콩클 등 많은 종목들이 1등을 하고 상을 받았다. 이어 3개월간의 유럽순회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중국에도 들렸다. 주은래총리가 직접 연회에 참가하여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성과와 중국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은영이에게 축배잔을 부어주며 조선의 노래가 그렇듯 아름답고 조선의 녀가수가 중국노래도 그처럼 잘 부르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자기의 흥분어린 심정을 토로하였다.

드디여 조국땅에 들어섰다.

조국은 여전히 전화의 불길속에 휩싸여있었다.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달리는 기차에서 네차례나 적기들의 습격을 받았다. 밤에도 적기들은 연통에서 쏠어나오는 불연기를 목표로 내리꼰지군 하였다. 기관사와 기관조사들이 젖은 가마니를 연통에 덮군 하였다. 불꽃이 날리지 않게 하려는것이였다. 자동차들은 전조등도 켜지 않고 도로를 달렸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이 철길을 복구하고 군수물자를 실어나르고있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시인 조기천이 격조높이 노래한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의 주인공들이라고 은영은 눈물을 머금고 생각하였다.

《치기영— 어기영— 치기영》
복구대는 일한다
시한탄을 끌어내친다
그러면 어둠속에서 호각소리 울리고
서리어린 화물차는 박는듯이 멎고
젊은 운전사의 목소리는
《길이 어떻소?》
그러면 어둠속에서 반기는
《길이 좋아요!》
처녀의 맑은 목소리를 뒤이어
다시 호각소리 출발을 울리는

천리길 그 많은 굽이굽이에서
밤마다 밤마다 죽음을 이기는
조선의 싸우는 후방!

바로 그 전선길에 오늘도 시인은 서있는것이 아닐가? 조국에 돌아온 은영이를 반겨맞으며 뜨겁게 속삭이고있는것만 같다.

《이들을 사랑하시오.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노래하시오. 그러면 온 나라 인민이 동무를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 수령의 총애도 받게 됩니다. 잊지 마시오. 바치는 사랑이 뜨거우면 더 큰 사랑이 오는 법입니다.》

날이 샐무렵 기차는 어느 산간역에 들어서고있었다. 기적소리가 무엇인가 소리쳐 묻는듯 련속 거세게 울부짖더니 드디여 기차는 거센 증기발을 내뿜으며 멎어섰다.

호각소리가 째지는듯 울렸다. 누군가 기관사를 부르며 잠간이면 된다고 소리치고있었다. 앞에서 복구대가 바삐 뛰여다니는것이 보였다. 도처에서 수십개의 불방망이들이 마지막어둠을 밀어내며 불똥을 뚝뚝 떨구고있었다. 여기서도 간밤에 적기들의 폭격으로 끊어진 철길 한구간을 복구하느라고 드바쁜것이였다. 또다시 산촌의 새벽공기를 찢는 호각소리, 목고를 메고 달리는 녀인들, 레루이음짬에 못을 박는 늙은이, 철길앞쪽에서는 빨간 수기를 든 처녀가 기관사에게 조금씩 전진하라고 신호를 보내고있었다. 그들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던 은영은 한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서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눈뿌리가 아득해졌다. 어떻게 승강구까지 나가고 거기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기관차에서 바닥으로 뛰여내렸는지 은영은 알지 못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있는 한사람의 모습만을 타는듯 한 눈길로 정신없이 쫓을뿐… 멀지 않은 둔덕우에서 시인 조기천이 홰불을 들고있는 처녀와 함께 커다란 종이말이를 펴들고있는것이였다. 한순간 그도 정신없이 달려오는 은영이를 보고 놀라는듯 했다.

《선생님!—》

목메인 웨침이였으나 입안에서만 뱅뱅 감돌았다. 은영은 허우적거리며 시인이 서있는 둔덕우로 헐금씨금 달려갔다.

《살아계셨군요. 선생님!—》

그것은 군복차림이 아니라 처음 만포에서 만났을 때와 같이 사복을 입고있는 시인의 모습이였다. 새까만 모직외투대신에 엷은 쥐색코트를 입고있을뿐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바라보던 그가 입을 쩍 벌리며 무어라고 소리쳤다. 뭐라고 하는가. 그저 너무 놀랍고 반가와서 소리쳐 부르는걸가?…

《은영동무!—》

그것은 차에서 동무들이 소리쳐 부르는 소리였다.

《은영동무, 어델 가오?》

《돌아서시오, 은영동무!—》

《정신있소, 은영동무?》

《어서 돌아오세요. 기차가 떠나요!》

기차야 떠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랴! 이렇게 살아계신 시인을 만나지 않았는가!… 그런즉 시인은 폭사한것이 아니라 중상을 입고 어느 병원에 실려가 오래동안 치료를 받은것이 분명했다. 전쟁판에서야 무슨 일인들 없겠는가. 그리고 사망통지서까지 냈던 사람들, 영영 죽은줄로만 알고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만난 일도 또 얼마나 많은가!…

시인도 마주왔다. 정신없이 허덕이며 금시 쓰러질것 같은 은영이를 부축하려는듯 손에 든 종이말이를 한껏 내젓기까지 했다. 그의 뒤를 따라 홰불을 든 처녀도 다가왔다.

《선생님!—》

그러자 마주오던 사람이 멎어서며 잠시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어 다급히 숨찬 소리로 물었다.

《혹시 내 제자가 아니요?… 동무 공대건축학부를 다녔지?》

순간 은영은 발밑의 땅이 심하게 흔들리는것을 느끼며 비칠거렸다.

별안간 목이 꺽 메이고 눈앞이 뿌예졌다. 두눈을 흐리던 땀방울들이 얼어붙으며 미간을 저미는듯 하였다.

《왜 그러오, 응?!…》 그 사람이 다우쳐물었다. 《많이 본것 같은데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아!—》

그것은 비명이였던가, 신음소리였던가?…

불똥을 뚝뚝 떨구던 홰불도 밝아오는 새벽빛에 스러져갔다. 영문을 몰라 어정쩡해진 그 사람이 또 무어라 물었으나 은영은 기신없이 뒤걸음쳐갔다. 아니다, 전혀 낯모를 사람이다. 시인과 같이 다부진 몸에 안경을 끼고있을뿐… 그가 은영을 부축하려고 다가왔다.

《혹시 리창숙이라고 하지 않는지. 교실 제일 뒤끝에 앉군 하던?…》

《?!…》

여전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무엇인가 골똘히 기억을 파헤치는 이 진지하면서도 덩둘해보이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 옳다고 할수도 없고 아니라고 하여 그마저 실망케 할수도 없었다.

은영은 그만 입으로 주먹을 가져갔다. 금시 오열이 터져나올것 같아 그 주먹을 정신없이 깨물었다. 벅차게 뛰던 심장이 설분과 모진 아픔에 갈가리 찢기는듯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쓰라린 아픔뒤끝에 시꺼먼 공허가 덮치듯 밀려들어 온몸을 소리없이 휘감는것을 의식했다.

때마침 뒤따라온 사람들, 한정애며 조련 그리고 또 누군가가 금시 휘청거리며 쓰러질것 같은 그를 붙안았다. 거센 기적소리가 대기를 찢으며 울려퍼졌다. 그러자 목터지게 웨치는 소리와 호각소리가 뒤따랐다. 호각을 물고있던 복구대처녀가 기관차를 따라가며 소리치는것이였다.

《기차를 세우세요, 세우라는데!》

《무슨 일이요. 왜 그래?》

《모르겠어요. 누가 차에서 떨어졌어요!》

《뭐—요?》

레루를 찢는듯 제동을 거는 소리가 아츠럽게 울리고 후더운 증기발이 구름처럼 밀려와 그들을 휘감고 태질을 했다. 어느덧 복구대원들까지 달려와 사람들에게 부축되여가는 은영이를 지켜보고있었다.

시인으로 잘못 본 그 사람이 따라와 기차에 오르는 은영이를 도우며 젖어든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런줄도 모르구… 배우동무, 언제든 믿고 기다리시오. 이제 꼭 좋은 소식이 있을겝니다, 꼭!》

호각소리, 이윽고 차바퀴는 다시 굴러가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살붙이라도 떠나보내는듯 기차를 따라섰다. 고마운 사람들이였다. 준엄한 전쟁은 만사람에게서 헤아릴수없이 많은 피와 눈물을 짜냈어도 그

들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후더워졌다. 은영은 손바닥으로 눈굽을 훔치며 자기에게 손저어주는 그 안경낀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또다시 목메여 웨치는 기관차의 기적소리, 하늘가를 물들이기 시작한 새벽빛도 흐릿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다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인민은 살며 싸운다
조선은 싸운다

시인 조기천이 웨치고있었다. 격양된 심정으로 거센 기적소리를 맞받아 한팔을 내뻗치며 부르짖고있었다.

천리길 그 많은 굽이굽이에서
밤마다 밤마다 죽음을 이기는
조선의 싸우는 후방!
…

원방신호기가 저 멀리서 쏜살같이 마주오더니 또 어느새 뒤쪽으로 멀어져갔다. 레루이음짬을 타고넘는 차바퀴소리가 소란스러웠다. 이름 모를 간이역을 그대로 통과한 기차는 또 폭탄구뎅이들이 숭숭한 들과 야산기슭을 따라 거침없이 달려갔다. 가슴저린 슬픔과 고통은 헤아릴수없이 많았어도 생활은 여전히 궤도를 따라 앞으로 앞으로 내닫고있는것이였다.

4

평양역두에 환영나온 사람들속엔 조기천이 없었다. 있을리가 없다는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꼭 그렇게 믿어야만

할 리유란 무엇인가?…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믿지 않으면서도 자꾸만 찾게 되는것은 또 어찌된것일가?… 또다시 핑— 눈물이 앞을 가렸다. 환영의 꽃다발과 축하의 인사말들도 기계적으로 받을뿐이였다.

무심코 한사람과 눈길이 마주쳤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같이 얼굴에 웃음을 담고 단장, 부단장들과 인사를 나누고있던 중년사나이였다. 그의 찌르는듯 한 눈길이 은영이로 하여금 그쪽에 머리를 돌리게 했는지 모른다. 주의깊고 예리한 눈길이였다. 입가엔 미소를 떠올리고있었으나 두눈만은 웃지 않았다. 은영이와 눈길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이 해쓱해진듯 했다. 은영이 역시 흠칫했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불길한 느낌을 받았는지는 알수 없었다.

어느덧 그 사람은 다시 웃음을 떠올리며 다가왔다.

《은영동무, 축전성과를 축하합니다. 유럽나라들에서 은영동무의 노래를 듣고 막 대단했다지요.》

《고맙습니다.》

가까스로 미소를 그리며 재빨리 그의 얼굴을 스쳐보았다. 분명 어데선가 만나본 사람, 그것도 상서롭지 못한 일로 만나본 일이 있는 사람이였으나 도저히 기억을 파낼수 없었다.

《왜 그러오?》 그 사람이 눈꼬리를 치뜨며 물었다. 《혹시 나를 어데서 본게 아니요?》

《아—니요, 전연 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분이여서…》

《음— 처음 본단 말이지.》 그는 말을 잇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는 오학성부총장을 돌아보았다. 《부총장동무, 마침 잘 왔소. 은영동무가 아직 나를 모르고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요?》

오학성이 면구스러워했다.

《내가 아직 말하지 않았던가?… 참 은영동무, 내각사무국에 계시는 라윤천참사동지요. 이전부터 은영동무를 잘 도우라고 내게 몇번이나 당부하였는데 내가 그만…》

라윤천이 간부답게 틀진 어조로 그를 나무랐다.

《내가 아니라 당에서 관심을 하는거지. 이름난 배우인데 생활에서 애로가 없도록 해야 할게 아니요.》

《고맙습니다.》
은영은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힘겨웠던지 코등에 땀방울이 돋고있는듯 했다. 어데서 봤던가?… 어쨌든 께름한 일이 있은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런데 왜 인상이…》 라윤천이 칼끝같은 눈빛을 견주며 말했다.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군요.》
은영은 당황하여 얼버무렸다.
《아니, 그저 너무 피곤하던 나머지… 미안합니다.》
마침 백영준과 마주서있던 문화선전성의 늙수그레한 부상이 그들에게로 가까이 왔다.
《은영동무!》
《아, 부상동지!》
구원의 기회였다.
《은영동무, 정말 수고했소.》 부상이 은영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하였다. 《축전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던지. …》
《고맙습니다, 부상동지.》
그저 고맙다는 한마디로 매 사람들의 인사에 대답하고있다는것을 그때 은영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부상이 이것저것 묻는 말에도 거의나 동닿지 않는 대답을 하군 했다. 줄곧 등뒤에 날아와 박히는 라윤천의 비수같은 시선에 온몸이 오싹해지군 했다. 어인 일인지 딱히 찍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눈가의 주름살이 스산하게 꿈틀거리는 그 거뭇한 사람 라윤천에게서 헤여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옥죄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부상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자 맥없이 우두커니 서있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또 갈마드는 추억… 이 역두에서 마지막으로 손저어주던 시인의 모습과 그가 기차를 따라 달려오며 웨치던것을 생각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 그는 무어라고 웨쳤을가. 그저 단순한 인사말이였을가, 아니면?!…
그의 마지막웨침소리를 듣지 못한것이 한스러웠다. 부지중 환영의 인사말과 노래소리로 떠들썩한 역구내가 텅 빈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라윤천의 일도 더는 그를 불안케 하지 않았다. 드디여 은영은 머리를 짓숙이고 남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나들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들과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저녁에야 무거운 허탈감에서 헤여날수 있었다. 눈부신 백광이 괴로움에 모대기던 은영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당중앙위원회회의실, 축전의 성과를 축하하는 연회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연회장에 나오시였다. 목메인 환호, 눈물의 환호, 수령님께서 거듭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주시였다. 이윽고 자리가 정돈되자 수령님께서는 축전의 성과를 축하하여 말씀하시였다.

은영은 터질것 같은 흥분에 잠겨 마치 구름우에 올라앉은듯 했다. 눈부신 해빛을 받으며 손에 들고있는 잔을 꽉 쥐고있었다. 지금껏 재생의 삶을 주신 어버이장군님께 고마운 인사말도 변변히 올리지 못했다는 그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마침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번 축전에서 독창가수들도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데 한몫하였습니다. 축전뿐만아니라 쏘련을 비롯한 인민민주주의나라들을 돌면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재능을 떨쳤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싸우는 조선사람들이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는것을 기록영화로 다 보았습니다.》

한순간 수령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그리시며 연회석상을 쭉 둘러보시였다.

《독창가수들이 저기 있구만!… 아, 김은영동무도 있구… 동무가 독창을 부를 때마다 연거퍼 재청을 요구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동문 우리 조국의 영예뿐만아니라 한 가수로서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왔습니다. 김은영동무, 축하합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영은 언제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섰는지, 어떻게 잔을 들고 앞으로 나갔는지 알지 못했다. 불시로 눈앞에서 무수한 별들이 아롱거렸다.

칠색무지개빛으로 빛나는 광휘에 싸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목메인 인사를 올렸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마음속에 새기고있던 그 많은 인사말들을 제대로 말씀올렸는지 도무지 가늠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주셨다고, 한생

장군님만을 모시며 그 노래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 그저 고맙다는 인사말만 거듭 뇌인것 같았다. 모든것이 꿈속에서처럼 아슴푸레했다. 크나큰 격정에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잔을 찧어주시였다.

《고맙소. 김은영동무, 한생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된 예술인으로 살며 싸워주시오.》

《장군님!—》

은영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곁을 떠나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합쳐 눈물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있었다. 축복받은 자기의 한생에 대한 고마움에 겨워 태양의 가수로 변치 않을 굳은 맹세를 담은 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있었다. …

제 7 장

보이지 않는 그림자

1

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새 무용수들이 극장에 왔다. 무용강사인 림현순은 훈련장에서 새로 온 처녀들의 기초훈련을 지도하고있었다. 보통걷기로부터 끄아걷기, 스쳐서걷기와 미끄러져걷기, 앞뒤로 잦은발걷기를 살피며 매 처녀들의 얼굴형은 물론 자세가 바른가, 호흡을 받쳐걷는가, 손과 발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흔히 손과 발이 크면 키도 크며 골반이 벌려져있으면 깊이앉기와 앞뒤차기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는것이 무용일반의 상식이다.

《자, 이번엔 조선춤가락을 보자요.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아래로 감기와 우로 메기부터!…》 장고를 두드리며 한사람씩 지적한다.

《앞줄 세번째, 동문 미영이라구 했지?… 자 보세요, 팔은 유연하게… 좋아요, 다시!… 호흡으로 춤추어야 한다는걸 잊지 마세요. … 우로 돌면서 굴신!… 수옥인 발목과 무릎마디들이 잘 풀리지 않아요. 다시 좌로 돌면서… 조선춤가락은 일체 곡선이라는걸 잊지 말아요.》

현순은 아까부터 머리에 백발을 얹은 한 녀인이 뒤구석 의자에 앉아 그윽한 눈길로 지켜보고있는것도 알지 못했다. 매 처녀들의 률동과 예술적감각을 료해하느라고 1시간이상이나 정신을 집중하고있었다.

《윤희, 축을 세우고 호흡을 받쳐서 다시!… 아니, 아니야. 장단을 타면서 내심의 감정을 가락으로 표현해야 해요. 가만!》 참다못해 앞으로 나가 시범동작을 해보였다. 《동무들, 명심하세요. 처음부터 얼굴이 곱고 몸매가 날씬한 무용수를 바라고 노력하는것과 인간의 감정을 춤가락으로 표현하는 무용수를 지향하는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의 동작도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현순은 제자리에 돌아올 때에야 반가운 미소를 떠올리고있는 한정애와 눈길이 마주쳤다.

《아이, 언제 오셨어요?》

《좀전에 왔어. 어서 계속해요.》

《그럼 조금만 더 앉아계셔요.》

시계를 보니 몸풀기기초훈련시간이 퍼그나 지났었다. 현순은 서둘러 훈련을 끝내고 백발의 녀인을 자기 방으로 이끌었다.

《현순인 꼭 어머니 그대로야.》 한정애가 웃으며 말했다. 《정열가구 요구성이 높구… 현순이가 훈련주는것을 보면서 난 처음 현순이 어머니한테서 발성훈련을 받던 일이 떠오르는게 아니겠어. 호흡이 기본이다, 배에서 소리가 나와야 한다, 허리에 힘을 주고 아래배는 집어넣고… 목이나 볼에서 소리가 나와선 안돼, 배에 굴뚝같은 소리통을 세우고 자기의 인생을 노래한다고 생각해봐, 저 높은 곳으로 연기를 뿜어올리듯이 자기의 감정을 소리로 뽑으라는데!… 하면서 얼마나 요구성을 높였는지 몰라.》

그는 웃었다. 비록 70을 퍼그나 넘겼지만 아직도 옛시절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고있는것이였다.

《참!》 현순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군요, 웃으시는것까지!》

그러자 한정애는 손을 내저었다.

《무슨 소릴! 김선생에 비하면야 난 다 늙은이지. 현순이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80고령인데두 아직 해맑은 모습에 목소리까지 챙챙하니 선녀로 태여나지 않은 이상 어디 그런 일이 있을수 있을가?…》

현순이도 웃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어머니야 늘 그런걸요. 아직도 아침마다 발성련습을 하고 화장을 곱게 하고… 꼭 무대에 나서는것처럼 몸과 마음을 가꾸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은가. 예술가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아름다와야

한다고 늘 말하군 했지. 그런데 김선생한테서 배운 나는 그렇지 못해.》
《그렇지만 우리 어머닌》하고 현순은 쓸쓸한 미소를 머금으며 나직이 말하였다. 《그러다 말았지요.》
《그건 무슨 소린가?》 한정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난 인민배우로까지 되였는데 어머닌 아무런 명예칭호도 없다는 그 말인가?》
《아니, 그저…》
현순은 보온병을 기울이다 말고 눈길을 떨구었다. 화제가 이렇게 번져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언제든 어머니의 화려한 성공과 쟁쟁하던 명성에 뒤따르는 어두운 그림자를 상기할 때마다 가슴속에 스며드는 날카로운 아픔을 견딜수 없었다. 하여 현순은 구깃구깃 구겨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참, 이렇게 극장에까지 오실줄은 몰랐어요. 우정 나한테 찾아오신건 아니겠지요?》
《극장에 왔던 길에 들려보았지. 현순이도 만나보구싶구.》
《저… 무슨 일루…》
《듣자니 현순이가 베이징에 가서 박수미의 딸을 만났다면서?… 현순이 어머니가 전화로 알려주더구만.》
《우리 어머니가요?… 아니,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글쎄 현순이한테야 무슨 큰일이겠냐만 우리한텐 그렇지 않아. 김선생은 물론이구 고종우나 강상일 같은분들도 그 녀자때문에 마음고생을 크게 했더랬지. 정말 무서운 녀자였어.》
《?…》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정애는 현순이 따라주는 차잔을 손에 든채 이윽토록 그것을 들여다보기만 했다. 마치 발가우리한 그 물우에 박수미의 환영이 비쳐지고있는듯 했다.
그때 한 처녀가 문을 열고 얼굴을 빠끔히 들이밀었다.
《강사동지, 우린 뭘 해야 합니까?》
《내 인츰 나가요.》
한정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쁜 시간에 안됐구만. 어서 가보라구. 저녁에 어머니랑 만나러 집에 가겠어. 김선생이 초청하더구만.》

《그래요?》

《응, 옛일도 추억할겸 한번 마주앉자는거야. 현순이도 꼭 알아야 할 일들이 있구.》

《?…》

현순은 말없이 로가수의 웃고있는 모습을 의아하여 지켜보았다. 내가 모르고있는것이 무엇이며 꼭 알아야 할 일이란 또 무엇일가. 어머니가 여태 딸에게까지 숨겨온 비밀의 과거사라도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런 일은 있을수 없다. 현순은 머리속에 스쳐간 의혹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저녁에 기다리겠어요. 꼭 오셔야 해요.》

《그러지.》

현순이 집에 들어섰을 때엔 벌써 로가수들인 어머니와 한정애가 피아노를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둘이서 피아노를 련탄하면서 옛시절의 추억깊은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피아노의 베달을 밟고 소리를 죽여가며 노래하는데 마치 꿈속에서 만나 조용히 속삭이고있는듯 했다.

초소의 깊은 밤 별들은 반짝이고
대지의 모든것 깊은 잠에 들어도
아 초병아
아름다운 아침의 고향을 간직하여라
초소를 지켜선 네 모습 장하여라
네 모습 장하여라

사람마다 사랑하는 노래가 있다. 늙은이들의 경우엔 자기의 흘러간 한생을 돌이켜보며 눈물짓게 하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사랑과 행복을 추억케 하는 노래도 있다. 그러나 전후에 나온 노래 《초병》은 저 로가수들에게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것일가. 저 노래가 한때 한정애가 애창하던 독창곡이여서 그 나날을 추억하고있는지도 모른다.

현순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참, 선생님.》 한정애가 말했다. 《전선위문공연때처럼 노래불러

보는게 어때요? 씩씩하고 발랄하게!》
《좋아요, 헌데 무슨 노랠 부른다?》
《〈간호원의 노래〉! 좋지요?》
《좋아!》
피아노의 건반이 경쾌한 노래의 전주를 울렸다.
어느덧 로인들은 처녀시절로 되돌아간듯 률동적으로 몸을 흔들며 노래를 시작했다.

별들이 반짝이는 깊은 밤에도
정성다해 간호한 보람이 있어
완쾌한 전사동무 총을 메고서
또다시 싸움터로 떠나간다네
아 우리의 가슴 설레인다오
간호원의 자랑은 끝이 없다오

노래가 끝나자 먼저 한정애가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나세요? 거 월비산에서 한 통신병이 김선생한테 달려나와 막 울면서 하던 말 말예요.》
《뭐라고 했더라?》
《아, 신통히 자기를 살려준 간호원처녀를 보는듯 하다면서 그 처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참, 그랬지. 처녀의 생사를 모른다구 안타까와하더니 어떻게 됐는지?… 후에라도 만났으면 좋으련만.》
《만났겠지요.》
《글쎄… 그랬으면!…》
로가수들은 잠시 침묵했다. 부지중 웃음은 사라지고 무엇인가 가슴을 치는 생각에 마음이 아릿해진것 같았다.
돌연 어머니가 먼저 이상한 기미를 느꼈는지 머리를 돌렸다.
《오, 네가 왔니?》
《예, 어머니.》 현순이 밝게 웃으며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한선생도 오신다기에 일찌감치 들어온다는게 그만 늦어졌군요.》

한정애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내가 너무 서둘러 온탓이지. 김선생이 만나자니 한시바삐 오고싶더라니까.》
현순은 서둘렀다.
《잠간만 기다리세요. 내 이제 제꺽…》
《아니, 그럴게 없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녁은 다 준비해놨다. 오래간만에 우리 둘이서 동자질을 좀 했지.》
《그러세요?…》
현순은 어머니의 서투른 음식솜씨를 너무도 잘 알고있으므로 고개를 기웃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우에 차려놓은것들을 재빨리 살펴보는데 한정애가 따라들어왔다.
《내 이미 말했지? 오늘은 추억의 밤이라구… 현순인 그저 어릴 때처럼 우리가 만든걸 맛이나 봐요.》
식탁우엔 화려한 상표를 나비넥타이마냥 목에 감은 인삼술병도 놓여있었다.
《어마나, 술까지 다!… 우리 어머닌 한방울도 못하시는데…》
현순이가 놀라와하자 한정애가 실눈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먹지. 혁철 아버진 출장을 갔다니 현순이가 동무해줘야겠어. 현순이야 원래 어릴 때부터 솜씨가 있잖아!》
《아이참, 또 그 얘길!…》
현순이도 웃지 않을수 없었다. 소리내여 웃으며 흘러간 먼 시절의 한가닥 추억을 떠올렸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1954년의 어느날 철모르는 현순이에게 술을 먹이고 춤판에 끌어내려고 어거지를 쓰던 기악조의 트롬본수 주인걸아저씨, 그날 단번에 8쌍의 결혼식이 벌어지던 모란봉지하극장의 어둑스레하던 무대, 춤과 노래, 웃음과 눈물, 기쁨과 설음이 뒤엉켜있던 잊을수 없는 그밤의 추억이였다.
진정 오늘도 모든것이 추억의 밤으로 준비되여있은것 같다. 어머니도 미소를 그리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어떠냐, 잘 차렸지?》
《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막 돌아요.》
《그럼 됐군요.》 한정애가 나서며 걸상을 당겨놓았다. 그리고는 옛

시절의 안내양들모양 무릎을 살짝 굽히며 식탁을 가리켰다. 《숙녀여러분, 어서 앉으세요.》

떠들썩 웃으며 자리잡고앉았다. 현순이 로가수들과 자기의 잔에 술을 부었다.

《자, 무엇을 위해 들가요?》

현순이는 물론 한정애도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늘게 입귀를 떨고있을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잔을 쥐고있는 손마저 알릴듯말듯 떨리고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정애도 자기의 첫 스승을 지켜보고있을뿐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현순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말자. 추억이란 굼니는 안개발마냥 고요히 심중에 흘러드는 야릇한 애수라고도 할수 있다. 하거늘 그 누가 서뿌른 한마디 말로 따사롭고 유정하게 또 저릿저릿하게 가슴에 파고드는 그 추억의 안개발을 함부로 휘저어놓을수 있으랴!…

2

그때 현순이는 7살이였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여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폭탄구뎅이를 메우고 재더미를 헤치며 벽돌을 파내는가 하면 측량기를 메고 뛰여다녔다. 현순은 어머니를 따라 자동차들이 부릉거리는 건설장을 에돌아 모란봉으로 또 거기에서 한창 공사가 벌어지는 건물(모란봉극장)을 돌아 어떤 굴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이 바로 전쟁 전기간 갖가지 행사와 공연이 벌어진 모란봉지하극장이였다는것을 후에야 알았다.

어둑스레한 계단을 끝없이 내려가던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동굴벽은 물기가 흘러내려 질벅거렸고 걸음마다 발자국소리가 메아리처럼 웅글게 쿵쿵 울렸다. 한사람이 어린 현순을 업어주었다.

《여기가 바로 네 어머니가 있는 곳이다.》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

계단을 다 내려가니 드넓은 극장이 눈앞에 열려졌다. 꼭같은 모양

의 나무결상들이 빼곡 들어차있고 무대에는 갖가지 색갈의 전등불이 현란했다. 무대에 서있던 사람들이 현순을 반겨맞았다.

국립예술극장의 소개지였던 대동군 소룡리에서 먼저 나와있던 중앙대의 사람들, 현순이와 안면이 있는 배우들은 볼을 두드려주거나 익살을 부리며 인사를 청했고 전후에야 신의주에서 나온 배우들은 김은영에게 이처럼 큰 딸이 있다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동무에게 이렇게 큰 딸이 있었소?》

《얘가 몇살이예요? 꽤나 여무지게 생겼군요!》

《배우가 될거야. 눈알이 반짝반짝하는걸 보지?!》

《은영동무, 우리 아들과 혼사를 정합시다. 예?》

어머니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누군가 혀를 차며 《어이구, 난 김동무가 아직 처년줄 알구 오늘중으로 청혼하려 했더니만!》하고 너스레를 떨 때에도 눈웃음으로 대답할뿐이였다.

어린 현순의 눈으로 보기에도 어머니는 눈에 띄게 단아하고 예뻤다. 하얀 살결은 티 한점 없는 조약돌같이 말쑥하였고 검푸른 빛으로 내다보는 두눈에서는 그윽한 미소가 불을 켜고있었다. 현순은 이날까지 할머니와만 살다보니 어머니를 자주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것도 후에 안 일이지만 베를린축전과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전선위문공연에 나갔고 이듬해에는 또 쏘련과 몽골에 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살자고 어머니는 말하였다. 남들처럼 국립예술극장자리의 골조만 남은 폐허에 움막을 짓고 극장에 다니자는것이였다. 그리하여 현순은 대동군의 초가집에서 나와 처음 극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것이였다.

그날 현순은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도 처음 들었다. 극장안을 꽉 채운 수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이 터질 지경으로 박수를 치고 《재청이요!―재청!―》하고 우뢰같은 함성을 터칠 때에는 너무도 벅차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시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불렀다. 그처럼 맑고 아릿다운 용모에 그리도 고운 목소리로 정답게, 챙챙하게 노래를 부를 때 현순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자랑으로 가슴이 뻐근해져서 《우리 어머니야!》하고 소리치고싶은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공연이 끝난 다음 무대우에서는 8쌍의 결혼식이 있게 된다고 했다. 그 말에 어린 현순이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구경온 사람들은 다 빠졌는데 무슨 결혼식을 무대우에서 한다는걸가?… 그가 묻는 말에 사람들은 웃어댔다.

《너 잔치하는거 봤니?… 이제 잘 봐두어라. 이담 네 결혼식두 무대우에서 하자꾸나.》

현순은 그런 롱질에 질색이였다. 마침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고있는 고종우에게 달려가 어머니가 왜 보이지 않는가고 물었다.

《이제 온다.》 고종우가 말했다. 《저기서 정애아지미하구 무슨 얘길 하구있어.》

무엇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침통했다. 시꺼먼 눈섭이 아래로 처지고 이마우를 엇비듬히 파고 지나간 주름살이 꿈틀거렸다.

《가지 말아, 얘.》

그가 잡아끌었지만 현순은 한사코 어둑스레한 환등막뒤쪽으로 다가갔다. 한순간 걸음을 멈추고 눈귀를 가늘게 쪼프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쪽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언니, 제발 날 용서해줘요. 언니에게 죄되는것만 같아서… 여태 말하지 못했어요.》

흐느껴 울고있는 한정애의 목소리였다.

《난 알구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도 웬일인지 갈린듯 했다.

《알고있었어요?》

《그래, 주인걸동무와 사랑한다는걸.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이 벌써 다 말해주는 법이지.》

《언니! 그러면서도 모르는척 하고있었군요. 그러자니, 그러자니 내가 막 미웠지요?… 언니, 언닌 나에게 친어머니와 다름없는데 제발 솔직히 말해주세요. 언니도 아직 홀로 살고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어요. 게다가 내가 차한동무를 배반했다구… 욕많이 했겠지요, 예?》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 사실 우리 차한일 기다린다는건… 북과 남이 갈라져있고 죽었다고 알려져있

는 차한일 한정없이 기다리다니, 그럴순 없어, 다만 난… 정애가 차한이를 언제든 잊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뿐이야. 잊지 않는다는게 뭐겠니. 나도 오늘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만 그건 그들의 뜻을 버리지 않는게 아닐가? 그들의 뜻대로, 그들처럼 사는것이 바로 그들을 잊지 않는것이라고 난 생각해왔어.》

《언니, 언닌 정말!…》

《사실 트롬본수인 주인결동무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니. 익살군이구 정열가인데다가 마음씨도 곱구… 난 정애가 그와 행복하길 바랄뿐이야.》

《언니!…》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있는것 같았다. 나어린 현순이여서 그들이 무엇때문에 울며불며하는지 다는 알수 없었지만 웬일인지 마음이 쓸쓸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특히 한정애가 《언니도 아직 홀로 살고있는데…》라고 한 말이 가슴에 옹이처럼 박혀있었다.

그때 누구인가 무대에 다 모이라고 소리쳤다. 어머니와 한정애도 환등막뒤에서 나왔다. 어머니는 우두커니 서있는 현순이를 발견하고 잠시 주춤했으나 곧 웃음을 띄우며 물었다.

《넌 왜 울상이 됐니?》

《아니야.》

《아니라는건?》

《난 울지 않아.》

그때 무엇때문에 어머니한테 골을 냈던지?… 처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졌기때문인지, 아니면 또…

전체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 섰다. 어머니를 따라 현순이도 그들속에 끼워 괜히 벙글거리는 남자들과 수집음을 머금고 눈길을 깔고있는 녀자들을 마뜩지 않게 둘러보았다.

《동무들.》 누군가 앞에 나서서 헛기침소리를 내더니 청을 높여 말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의 포화속에서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의 전투장에서 정을 나누고 언약을 맺은 8쌍의 청춘남녀들의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전쟁때에는 생각도 못했고 전후에 와서도 오늘까지 움막집조차

마련할수 없어 미루어오던 혼사를 한꺼번에 치르게 됩니다. 지금 많은 동무들에겐 부모친척도 없고 례장이나 결혼선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지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우리의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이 무대에서 동지들의 축복속에 식을 합시다. 그럼 먼저 8쌍의 신랑신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름을 부르는 차례로 신랑신부들이 나가 섰다. 떠들썩한 웃음속에 서로 짝을 맞추어 나가설 때마다 축하의 꽃다발이 안겨지군했다. 그들중엔 한정애와 트롬본수 주인걸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속에 어머니만은 없었다. 아직 결혼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는 알수 없었지만 현순은 그것이 불만스러웠다. 바로 이 무대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꽃다발을 받던 어머니가 지금은 한정애와 주인걸에게 아까 자기가 받았던 꽃다발을 안겨주며 무어라고 속삭이는것을 커다란 슬픔속에 바라보고있었다.

축하의 인사말들이 잇달았다. 기악조가 환영곡을 연주하고 요란한 박수가 계속되였다. 신랑신부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어머니가 현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현순아, 어때, 다들 곱지?》

《?…》

현순은 머리를 젖히고 어머니를 말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머니는 즐거운듯 웃고있었지만 입에서는 흐느낌소리같은것이 새여나오군 하였다. 분명 어머니는 괴로와하고있었다. 알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어머니의 마음을 비틀어짜고있었다. 조명등빛에 번뜩인것은 또 무엇이였던가?…

술잔이 돌아갈 때엔 남들처럼 단숨에 잔을 비우기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소리내여 웃었다.

《춤을 추자요!》

이렇게 먼저 소리친것도 어머니였다. 현순이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춤을 추는것을 보았다.

흥겨운 반주에 맞추어 노들강변의 춤가락으로부터 다쁘춤으로까지 넘어갔다.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며 야단이였다. 무용수들도 혀를 빼물었다.

현순은 한정애가 남몰래 쥐여준 닭알도 먹을념을 못했다. 장난꾸러기 주인걸아저씨가 술잔을 입에 물렸을 때에도 정신없이 한모금 들이켰다가 왁— 하고 내불었다. 강굴머리를 길게 기른 한 멋쟁이가 현순이의 얼굴에 술내를 확 풍기며 고아댄것은 바로 그때였다.

《얘, 넌 아버지가 없지? 내가 아버지가 되여줄가.… 엄마한테 말해봐. 나랑 같이 살자구 말야.》

《?…》

현순은 그 사람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사실 현순은 어릴 때부터 그저 온순한 애가 아니였다. 감때사나운 아버지의 걸쭉한 피가 그의 몸에서도 맹렬히 뛰고있어 독이 오르면 무섭게 변모되군 했다. 더우기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소리는 그에게 가장 참을수 없는 모욕이였다.

《자, 어서 대답해 봐, 잉?》

강굴머리가 손으로 현순의 턱을 쳐들었다.

《싫어요!》

현순은 그 사람을 뿌리치고 멀찍이 물러났다. 그러자 그는 으하하… 하고 웃어대며 또 야질거렸다.

《왜 싫다는거야. 아버지가 되여주겠다는데!》

더는 참을수 없었던 현순은 그 사나이의 면상에 손에 들고있던 닭알을 쥐여뿌렸다. 눈두덩이에서 닭알이 박산나며 그의 얼굴을 누렇게 매닥질했다. 뜻밖의 봉변을 당한 강굴머리가 눈을 흡뜨며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왁자하니 떠들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굳어졌다.

어머니가 달려온것은 그 순간이였다. 미끄러지듯 달려와서는 급기야 무릎을 꿇고 딸앞에 주저앉았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현순의 머리를 쓸어보더니 두팔을 벌려 와락 끌어안았다.

《내가 잘못했다, 현순아…》 눈물의 속삭임이였다. 어머니는 소리없이 흐느끼고있었다. 《너를 버려두구 혼자서 좋아했구나. 내 다신 안 그럴게, 응?…》

비록 현순이는 어머니가 좋아서 춤추며 돌아간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지만 그때엔 모든것이 얄밉고 증이 났다. 하여 자기를 안고있는 어머니마저 사정없이 뿌리쳤다.

《싫어, 다 보기 싫어!》

《현순아, 너 왜 그러니, 응?…》

《나한테두 아버지가 있어!》 하고 현순은 급기야 째지는듯 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할머니가 말했어. 아버지를 찾아갈테야!》

현순은 몸을 홱 돌려 달아났다. 무대바닥에 주저앉아 울고있는 어머니조차 돌아보지 않았다. 어데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그만 어두운 벽에 부딪쳤다. 무쇠방망이에 머리를 되게 얻어맞은것 같았다. 모진 아픔과 더불어 사무친 한이 부글부글 끓었다. 아버지에 대하여 여적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 지금까지 자기를 업신여기던 사람들모두가 증오스러웠다.

《현순아!—》

어머니가 부르짖고 몇사람이 달려왔다. 맘씨고운 고종우아저씨와 강굴머리 그리고 또 누군가가 뒤를 쫓아와 현순을 일으켰다.

《얘, 현순아. 우리가 잘못했다.》

현순은 발버둥쳤다.

《싫어, 싫어! 아버지한테 갈테야!》

고종우가 억센 힘으로 부둥켜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저씨도 울고있는것 같았다. 옆에 서있는 강굴머리에게 황소울음소리처럼 을러메고있었다.

《동문 언제 가야 그 버릇을 고치겠소! 그 실없는 소리때문에 이 어린것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 말이요. 그걸 이제 무슨 수로 어떻게 다 씻어줄수 있겠소, 응?… 이 애뿐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또 어떻게 하구?…》

《내가 잘못했수다. 그저 노느라구 한노릇이…》

그때에야 비로소 현순은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자기를 대신하여 강굴머리를 홍달구는 고종우아저씨가 고마왔고 목놓아우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견딜수 없어 울었다. 그리고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그리워 울었다.

그날 밤 현순은 어머니와 같이 극장객석에서 군대모포 한장을 덮고 잤다. 그렇게 자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혼식을 한 8쌍의 남녀를 위해 합숙방들을 내준것이였다.

다음날 아침 8쌍의 남녀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또 떠들썩했다. 어

제 밤 어떻게 잤는가고, 안고 잤는가, 안겨 잤는가 하고 지꿎게 따져 묻고 녀자들은 부끄러워 달아나고 남자들은 게면쩍어 킁킁 코를 울리고 모두가 일시에 한바탕 웃어대고는 자동차에 올랐다. 미리 짜놓은 편대별로 중요단위 복구건설장들을 찾아 공연을 간다고 했다.

모두가 현순이도 데리고 가자고 우겼다. 지난밤 결혼식을 한 8쌍의 남녀들이 더 극성이였다. 아버지를 잃은 현순이에게 동정이 가고 괴악스러운 그 성미도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였다. 그리하여 현순은 자동차를 타고 황철까지, 거기서 기차를 타고 또 여러 탄전과 광산, 기관구를 돌며 보름이라는 나날을 무대감독의 조수로 보냈다.

그때부터 현순이는 음악에 눈뜨고 률동을 몸에 익혔다. 무대에서는 조감독이였고 생활에서는 편대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애였던 현순이를 저저마끔 끌고다니며 누구는 청음을, 누구는 화술을 또 누구는 률동을 배워주었다.

그는 총명하고 청음이 밝았다. 7살까지는 절대음감을 가진다고 한다. 많은 고전음악가들이 7살전에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을 하였다며 기악연주가들은 이제 현순이도 빠가니니나 리스트 못지 않은 바이올린 혹은 피아노연주가 또는 유능한 작곡가로 될것이라고 예언했다.

지금도 현순이는 그때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쓰디쓴 미소를 떠올리군 한다. 원하기만 했더라면 피아니스트로 될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것이 달리되였다. 그는 비록 한생 음악을 사랑해왔고 청음과 시창은 물론 피아노연주에서 그 누구에게도 짝지지 않았지만 차츰 무용에 더 애착을 느꼈다. 그것은 현순이 음악무용대학에 입학할무렵 마침내 무대에서 버림받은 어머니의 암울한 처지가 음악에로의 길을 한사코 거부하게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먼 후날에 가서야 있게 될 일이다.

먼저 어머니가 소환되였다. 평양에서 김은영을 급히 올려보내라는 련락이 왔다. 어머니를 태우려 차가 온다고 한다. 현순은 그 차를 타고 자기도 가고싶었으나 사람들이 막았다.

《우리도 래일모레면 평양으로 돌아가게 돼. 그때 우리랑 같이 가자. 어머닌 행사공연때문에 먼저 불렀을거야.》

사람들이 나어린 조감독 현순이를 한사코 붙들었다. 그러나 이틀후 평양으로 돌아가던 로상에서 뜻하지 않던 사고가 났다. 평양을 가까

이 했을 때 자동차운전사가 졸다가 그만 차를 굴렸던것이다.

한밤중이였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차가 개굴창에 뒤집히고 적재함우에서 졸고있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고스란히 논판에 쏟아졌다. 갓 써레질을 한 논판에 구겨박힌 사람들이 신음하며 엉기엉기 기여나오는데 고종우가 부르짖었다.

《현순이가 어데 갔어, 응?! 현순이가 없소!―》

현순은 운전칸에 타고있었다. 운전사는 조향륜을 잡은채로 앞창유리에 이마를 쪼아 깨뜨렸는데 문짝이 열려지고 현순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현순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뒤집히는 차에서 뿌리워나갔는지 알지 못했다. 무엇인가 어깨죽지를 세게 때리던것과 허궁 뿌려지며 옷을 찢고 옆구리가 째지는것 같던 지독한 아픔만이 기억에 남았다.

잠시 의식이 몽롱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윽고 사람들이 벅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지척에서, 발밑에서 현순을 찾고 부르는 웨침소리였다. 그러나 그는 대답할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목줄띠를 꽉 조여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그는 교수대에 매달린것처럼 발이 허궁 들려있는것을 알았다. 자동차가 들이받아 거의나 쓸어뜨린 가로수가지에 옷이 걸렸던것이다.

《여기 있어요!―》 마침내 그를 발견한 녀배우가 소리쳤다. 《여기, 여기 오세요!―》

현순은 땅에서 제 키보다도 높지 않은 나무가지에 매달려있었다. 누군가 달려와 그를 잡아내렸다.

《현순아, 일없니, 응? 살아있어?!》

고종우가 부르짖고있었다. 옷을 헤쳐보고 찢어진 옆구리에 손을 대더니 뜨끈한 피에 와뜰 놀라는것이 알렸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피에 젖은 그의 손을 보고 몸서리쳤다.

《뭘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요!》

《차를 부르오!》

《이밤중에 차가 어데 있어, 제―길! 내게 업혀주오!》

결국 현순을 업은것은 고종우였다. 내의를 찢어 대충 상처를 싸매고는 둘쳐업고 뛰였다. 몇사람이 따라나섰다. 그때에야 비로소 현순은 옆구리에서 살을 우적우적 써는것 같은 아픔에 신음소리를 터쳤다.

《일없어, 조금만 참으면 돼.》 고종우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상처가 심하지 않으니 다—다행이야.》

고종우의 잔등은 어느새 화락하니 젖어들었다. 얼마나 달렸는지… 마침 지나가는 차를 붙들었다. 건설용세멘트를 가득 퍼실은 차여서 운전칸엔 고종우와 현순이만이 오를수 있었다.

《걱정말구 돌아가오.》 고종우가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말했다. 《병원에 가서 처치받고 인차 뒤따라 가겠소.》

얼마후 그들은 중화군병원에 들어갔다. 고종우가 어찌나 급한 소리를 쳤던지 직일의사와 간호원, 간병원들까지 눈을 비비며 달려나왔다.

찢어진 옆구리를 소독하고 꿰매는데 1시간나마 걸렸다. 그동안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키고있는 현순이를 보고 의사선생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독한 애로군요. 딸애가 참 용합니다.》

고종우를 아버지로 알고 하는 의사의 말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를 닮았지요.》

의사는 자기자신을 과찬하는것 같은 그 말에 눈을 쪼프리며 고종우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때 현순은 모진 아픔과 마취약, 극도의 피로에 지쳐 솔곳이 잠들고있었다.

이튿날 아침에야 현순은 고종우의 등에 업혀 병원문을 나섰다. 맑게 개인 날씨였다. 논벌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였다. 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더니 멎어섰다.

《애가 상했수?》 채찍을 든 늙은이가 물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애를 여기 태우구려.》

《아니, 고맙습니다만 이제 차가 옵니다.》

고종우의 대답이였다. 정말 차가 오게 되여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고종우는 현순이를 내려놓고싶지 않은것 같았다. 무던하고 선량한 아저씨, 현순은 그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아저씨.》하고 현순이 물었다. 《아저씬 집이 없나요?》

《집?… 난 합숙에서 산다.》

《혼자서요?》

《응.》

《왜 혼자 사나요?》
일순 아저씨는 할 말을 찾지 못해 바재이는것 같았다.
《전쟁때문에… 미국놈들때문에 다 갈라졌다.》
《그럼 아저씬 고아나요?》
《음, 그쯤된다. 그런데 고아란건 애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그럼 뭐라구 하나요?》
《홀아비라구 하지. 혼자 사는 아버지라는 뜻이다.》
혼자 사는 아버지!… 현순은 그가 가엾게 여겨졌다.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저씨에게는 아이들이 없다. 같이 사는 어머니도 없다.
《아저씬 불쌍하구만요.》 현순이 말했다. 《그래두 울진 마세요. 울면 남들이 숫봐요.》
《그－래?!》
《예, 그래서 난 동네애들이 아버지없는 애라구 하면 막 때려줬어요. 사내애들두 나한텐 끔짝 못해요.》
《저런! 대단한데… 하지만 쌈질하면 안돼.》
《때려줘야 해요!》
《그러면 안된다는데.》
《아저씬 쌈할줄 모르는가부지요?》
《쌈하는건 좋지 않아!》
《때려줘야 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도 남한테 지지 않았대요.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구 했어요.》
《그럼! 용감하구 훌륭한 사람이였지. 그렇지만 자기 동무들과 싸운 일은 없었어, 미국놈들과 반동놈들과 싸웠지.》
《아저씨도 우리 아버질 아시나요?》
《안다. 알아도 잘 알지. 현순이 아버진 정말 대단한 사람이였다. 미국놈들한테 잡혔어두…》
별안간 그는 말끝을 흐렸다. 소란스럽게 한숨을 내뿜고나서 잠시 현순이의 동정을 살피는듯 했다.
《그래서요?》
《음－ 그런데 너 정말 모르니?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현순은 나직이 속삭이였다. 《할머닌 후담에 말해주겠

다구 했어요, 내가 다 큰담에… 그래두 난 알구파. 아저씨, 말해주세요. 예? 미국놈들한테 왜 잡혔나요?》

《응— 그건…》

아저씨가 어깨를 흠칫거렸다. 세찬 전률이 파도쳐오는것을 느꼈다. 잠시 멎어섰던 아저씨가 다시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겼다. 하릅송아지 한마리가 그들의 뒤를 자꾸만 따라왔다. 길 저쪽에서 풀을 뜯고 있던 누렁소가 《음메!—》하고 소리쳐 불러서야 꼬리를 저으며 떨어졌다. 하늘에서는 따스한 볕이 내려쪼이고 바람은 먼지오른 가로수들을 가볍게 어루쓸었다. 좋은 날씨였다. 아저씨의 잔등은 넓고 든든했고 학교로 가는 애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맑고도 쟁쟁했다. 그러나 아저씨의 이야기는 어린 현순을 차츰 흥분에 떨게 했다. 입술을 꽉 옥물고 아저씨의 어깨를, 검은색줄무늬양복천을 손톱으로 박박 긁기 시작했다.

《현순아.》 아저씨가 물었다. 《너 울구있는게 아니니?》

《아니요.》 현순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난, 난… 울지 않아요.》

《용타. 현순아, 울어선 안돼.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지. 이제부터 공부랑 하자. 학교에 들어갈 때까진 내가 배워주마, 응? 그렇게 하지?》

《…》

현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아저씨가 말해준 아버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였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른 《저기 바다로 가자》라는 노래의 의미도 생각해보았다. 비록 그 의미를 다 알순 없으나 그 노래를 현순이도 일생 사랑할것만 같았다.

《우리 아버지도 배우였나요?》 마침내 현순이 물었다. 《아저씨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아니다. 현순이 아버진 혁명가였다.》

《혁명가?》

《그래,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싸웠지.》

《그런데 왜 노랠 불렀나요?》

《언제?》

《아저씨가 말해주지 않았나요. 사형장에서…》

《오!—》 아저씨는 이상해진 목소리로 말해주었다. 《너의 아버진

노래를 무척 사랑했단다. 좋은 세상을 위해 싸운분이니 좋은 래일을 노래하는… 참, 뭐라구 설명할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꿈이 많은 사람이지. 현순이랑 아무 근심걱정없이 잘살게 될 래일을 꿈꾸었다구 할가. … 그래서 남보다 더 용감하게 싸운거지.》
《나두 꿈을 꾸군 했어요.》
《그래! 꿈을 꿔야지. 이제 현순이 크면 배우가 되겠지?》
《아니요. 아버지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 그래! 그래야 하구 말구.》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용드레로 논판에 물을 퍼넘기는 사람이 수건으로 땀흐르는 얼굴을 닦으며 그들에게로 눈길을 돌리고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풍을 친 승용차 한대가 먼지발을 일구며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열려진 차창에서 누군가 머리를 내밀고 소리치고있었다.
아저씨가 멎어섰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오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의 목소리는 웬일인지 떨리고있는것 같았다. 그 리유를 현순은 차가 급정거를 하고 문짝이 열리며 어머니가 황황히 뛰여내렸을 때에야 알았다. 구름처럼 휘감는 먼지발속에서 고종우가 현순이를 업은채 컹컹 기침을 깇고나서 어줍게 말했다.
《은영동무, 내가 그만 현순일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됐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현순이에게 팔을 내뻗치며 비틀거렸다.
《현순아!—》
아저씨가 현순이를 내려놓았으나 그는 어머니의 팔에 안기지 않았다. 무엇때문인지 어머니의 목멘 웨침도 반갑지 않았다. 그는 아저씨의 팔소매를 쥐여당기며 눈살을 찌프렸다.
《아저씬 좋은 사람이야.》
느닷없이 내뱉은 그 말에 어머니와 아저씨 두사람이 동시에 놀라서 마주보았다. 그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하는 의미같았다.
《아저씬 미안하지 않아.》하고 현순은 두번째로 동에 닿지 않는 말을 내뱉았다. 《나때문에 혼이 났는데 뭐.》
비로소 어머니는 현순이가 무엇때문에 볼이 부었는지 알아차린 모

양이였다. 고종우에게 눈길을 옮기며 어머니는 말했다.
《얘길 다 들었어요. 종우동무, 고마워요.》
《…》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두눈만 슴벅거리고있었다. 희멀끔하던 아저씨의 잘생긴 얼굴이 별안간 누렇게 뜨고 시들어버린듯 했다. 그것은 수면부족과 극도의 피로로 지칠대로 지쳐버린 사람의 김빠진 모습이였다. 어머니를 외면하며 그는 또 한동안 괴롭게 기침을 깇었다.
그때 현순은 컹컹거리는 그의 기침소리며 찡그린 얼굴이 경련적으로 푸들거리는것을 보고 숨을 죽였다. 갑자기 아저씨가 울것만 같은 생각에 더럭 겁이 나던 일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불쌍한 아저씨!… 그처럼 맘씨곱고 잘생긴 아저씨가 무척 외롭고 불쌍하다는 생각에 현순은 부지중 입귀를 비틀며 아저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3

이틀전 은영이를 소개한것은 라윤천이였다. 부총장인 오학성이 그와 자리를 같이하고있었다.
모란봉지하극장의 곰팡이냄새가 밴 비좁은 사무실이였다. 불빛도 어두웠다. 탁상등을 마주하고앉은 오학성의 얼굴은 주독이 오른것처럼 벌거우리했다. 무엇때문인지 그는 은영이의 인사에도 대답없이 무덤굴에서 나온 사람처럼 해쓱한 낯색으로 까딱하지 않고있었다. 뒤쪽의 해여진 고급쏘파에 앉아있던 라윤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래간만이요, 은영동무. 그새 고생이 많았겠구만.》
《?…》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불빛을 피하려는듯 어둑시그레한 구석에 앉아있는 그의 강마른 모습에 벌써 께름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때에야 오학성이 몸을 움쭉거리며 참고참던 불만을 터놓는듯 망가진 걸상소리부터 삐걱거렸다.
《우린 은영동무한테 몇가지 알아볼게 있어서 불렀소. 미리 말해두는데…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다 말해주시오.》

이건 또 뭔가, 저 사람이 날 심문하려는게 아닌가?… 여전히 아무 말없이 은영은 탁상등을 마주하고앉아있는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첫째.》 오학성이 쟁쟁 울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은영동문 자기의 첫번째 남편을 누가 고발했는지 알고있소?》

《예? 첫번째 뭐라구요?》

《림호동지 말이요. 그를 경찰에 고발해서 체포되게 한자가 누군지 알고있는가 말이요.》

《누구예요?》 은영은 바람소리처럼 가늘게 내뿜었다.

《그걸 알고있어요? 부총장동진 그걸 알고있으면서도 여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 알고있소. 그렇지만… 그건 차차 말하기루 하구 둘째!… 동무와 고종우는 어떤 사이요? 혹시 둘이서 몰래 일생을 약속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소? 저… 전쟁전 서울에 있을 때 아니면 후퇴하면서 그랬을수도 있지 않소.》

《?…》

너무도 뜻밖의 물음이였다. 더우기 한 남자로서 한 녀성의 마음속 구석까지 뒤지려드는 그의 무례하고도 몰강스러운 언사에는 숨이 막힐 지경이였다. 비렬한자들만이 녀자들의 사생활을 파고들며 흠을 들추기를 즐겨하는것이다. 그런데 오학성이 그렇게 나오리라고야 어찌 생각인들 했으랴.

은영은 금시 매서운 말 한마디로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앙갚음을 하고싶었으나 웬일인지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학성이 계속했다.

《이건 심중한 문제요. 오죽했으면 내각참사동지까지 나오셨겠소!》

《너절해요!》 마침내 은영은 부르짖었다. 《첫번째 남편이요, 고종우요 하면서!… 그런 모욕이나 주자구 편대공연을 하는 나를 불러왔어요?》

오학성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곧 뒤쪽의 라윤천을 돌아보며 마지못해 분노를 참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세번째!… 동문 박수미와 왜 갈라졌소? 한땐 그 녀자를 두둔하지 못해 안달이더니 왜 갈라졌나 말이요?》

《?…》

그때에야 은영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직감하였다. 하여 그는 혐오와 증오에 타는 눈빛으로 오학성을 쏘아보며 말했다.

《여기에 박수미는 또 무슨 상관이예요. 그가 어쨌단 말인가요?》

《바로 그 녀자가 방송에 대고 계속 불어대고있단 말이요! 그가 뭐라구 하는지 알기나 해?》

그가 가늘고 긴 팔을 내뻗치며 은영이를 창끝처럼 찌르려는 순간 라윤천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리치지 마오, 부총장!》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틀진 위엄이 슴배여있었다.

《제기된 문제를 료해해보라구 했는데 마치 심문하듯이 하거던. 은영동무야 당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수인데 그러면 되겠소? 우선 믿고 담화를 해야지.》

그는 자리를 옮겨 은영이를 자세히 볼수 있도록 다가왔으나 여전히 탁상등빛만은 피하는 자세였다.

《은영동무, 안됐소. 사실 박수미란 녀자가 대북방송에 나와 허튼소리를 많이 하는데 은영동무나 고종우와 관련된 심중한 문제들도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그래서 좀 료해해보려는거요. 헌데 부총장이 곤대짓부터 해댔으니 일도 참 별나게 됐구만.》

은영은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그린듯이 서있었다. 라윤천이 뜨거운 입김을 내불며 친절한 어조로 계속하였다.

《오늘은 우선 좀 쉬시오. 제기된 문제가 심상치 않지만 우리가 있지 않소. 내가 돕겠소.》

《아니.》 은영은 머리를 저었다. 《난 알아야겠어요. 저의 남편을 고발한자가 누군지 지금 당장 알아야겠어요.》

라윤천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러나 성냥을 켜주는 오학성을 손으로 막으며 듣기에도 오싹해지는 싸늘한 어조로 으름장을 놓았다.

《이제 다 알게 돼. 박수미라는 녀자가 한 소리를 들으면 아마 소름이 끼칠거요.》

《?…》

은영은 차겁게 번뜩이는 그의 눈빛에 그만 기가 질렸다. 분명 어데선가 저 매서운 눈빛을 보았다는 느낌에 다시금 굳어지면서 오한이 난

것처럼 흐느끼였다. 그러나 라윤천은 어느새 소리없는 미소를 입가에 그리며 은영의 잔등을 다정히 두드렸다.

《걱정마오. 내가 도와준다니까. 우선 지금은 좀 쉬시오. 저녁 6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 그리 알고 기다리시오. 내가 동무를 데리러 오겠소.》

그는 중요한 행사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곱게 단장하시오. 아, 무대분장은 필요없구… 그저 화장만 하구 기다리시오.》

×

은영은 분장실거울앞에 앉아있었다. 박수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생활에 뛰여들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리라고 누가 생각했던가. 그런데 《첫남편》을 누가 고발했고 또 고종우와는 어떤 사이인가 하는 물음의 리면엔 도대체 어떤 험구가 숨어있는것일가. 도대체 고종우는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다는걸가?…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끈질긴 불안과 의혹심을 털어버리려고 깐깐히 화장을 하면서 이제 극장에서 공연하게 될 가극 《콩쥐팥쥐》의 노래형상을 연구하는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무엇때문에 화장을 하고있는가?… 어수선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에 대한 답도 애써 찾아보았다.

배우는 모든것이 아름다와야 한다. 매일 수백수천명의 관객앞에 나서는 배우에게 있어서 미는 선차적인 요구인것이다. 그러면 가수의 미는 어디에 있는것일가?… 물론 무대에 나서는 녀가수는 고운 목소리와 함께 얼굴과 몸매도 아름다울수록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음악이다. 일찌기 로맹 롤랑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화성과 대위법중에서 어느것이 음악에 더 중요한가?…)

이러한 물음에 매 사람은 화성이다, 대위법이다 하고 대답하기마련이다. 그러나 그자신은 이렇게 말하였다.

《음악이 중요하다.》

그에게 녀가수의 미모와 목소리중에서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고 묻는다면 역시 《음악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할것이다.

시간은 살같이 달렸다. 날이 어둡기 시작했을 때 뽀베다승용차가 은영을 태우러 왔다. 차에 타고온 라윤천이 은영의 모습에 눈이 부신듯 황홀해하며 신음하듯이 말했다.

《아— 선녀같은게… 정말 기막히오.》

은영은 머리를 외로 돌리고 뒤구석에 자리잡았다. 그를 대할 때마다 언제든 웃지 않는 그 눈빛에 소름이 끼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수도의 거리들은 복구건설로 들끓었다. 목고를 멘 청년들, 군인들이 뛰여다니고 자동차들이 부릉거리며 배기가스를 세차게 내뿜었다. 건설장 곳곳에서 외등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승용차는 자주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호각소리가 울리고 아름드리 인발판이 길을 막으며 끌려갔다. 신호기를 든 처녀가 멎어선 승용차에 미안하다는 의미로 머리숙여 인사했다. 그러자 질통을 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그 처녀가 승용차의 시창에 이마를 맞대고 내다보는 은영이를 보고 인사했다고 놀려대는것 같았다. 은영은 얼굴을 붉히며 좌석등받이로 몸을 젖히였다. 그 다음부터는 밖을 내다보는것도 조심해야 했다.

문득 머리속에 스쳐가는 뜨아한 생각을 붙잡았다. 나는 지금 어데로 가고있는가. 고급승용차로 혼자 불리워간적은 한번도 없지 않는가?…

그때 승용차는 가루개를 넘어 담장을 높이 둘러친 어느 벽돌집으로 들어서고있었다. 사슬에 매여있던 개가 컹컹 짖어댔다. 사냥개처럼 늘씬하고 털이 부르르한 놈이였는데 두귀가 척 늘어져있는것이 무척 음험해보였다.

라윤천이 휘파람을 불자 개는 공손해져서 꼬리를 흔들었다. 그가 이 집에 자주 드나들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집안에서는 떠들썩한 웃음소리가운데 축음기소리도 울려나오고있었다. 지난 20년대에 류행가처럼 가사를 바꾸어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하고 불러온 《두나이강의 파도》의 애잔한 선률이였다.

라윤천이 제집처럼 현관문을 열어제끼며 말했다.

《자, 들어갑시다.》

은영은 주춤거렸다. 무엇인가 어스러지고있는듯 한 생각이 그를 주저하게 하였다. 그때 복도쪽에서 메마른 목소리가 울렸다.

《누가 왔다구?… 아, 미인가수 김은영동무가!…》

라윤천이 재빨리 귀띔했다.
《인사하시오. 박창호부수상동지이시오.》
박창호는 흔히 얼마우재라고 하는 사람이였다. 중키에 다부진 몸매를 가진 중년의 사나이로서 시꺼먼 눈시울을 자주 흠칫거리는것이 세상만사를 마뜩지 않게 보는것 같았다. 그가 은영을 응접실로 안내하며 로씨야식억양이 드러나는 말투로 점잖게 말했다.
《이렇게 와줘서 정말 반갑소. 오늘이 바로 내 생일인데… 은영동무까지 와주니 매우 기쁘오.》
《예?…》
《왜 놀라시오?》
《전 아무것도 모르구…》 은영은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이런 좌석에 제가 어떻게 감히?…》
《아, 은영동무야말로 초대받을만 하지. 명가수니까. 자, 어서!…》
응접실엔 낯익은 무용수와 피아니스트도 있었다. 누구인가 축하연의 참가자들을 단출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고른것 같았다. 은영은 죄스러운듯 한 미소를 띄우고 허리를 잔뜩 굽히며 방안에 들어서는 라윤천을 증오와 멸시에 찬 눈길로 쏘아보고있었다.
부수상의 서기가 매 사람에게 좌석을 눈짓했다.
《은영동문 여기 와 앉으십시오.》
은영은 못박힌듯 움직이지 못했다. 매운 연기를 삼킨것처럼 숨이 막혔다. 박창호가 부수상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면 당장 문을 차고 뛰쳐나가고싶었다.
서기가 직접 은영이를 손잡아 자리에 이끌며 아주 소탈하게, 무던히도 상냥하게 말했다.
《은영동무, 오늘이 부수상동지의 생일인데 일이 안될라니 어제 장인되시는분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랑 급히 친정에 갔으니 대신 우리가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아무런 구속없이 밤새껏 즐겨도 된다는 명백한 암시였다.
박부수상이 먼저 자리에 앉으며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은영이에게 넌지시 말했다.
《나라형편이 어렵고 안사람도 없는 때여서 다른 사람들에겐 알리

지 않았소. 부수상이라고 요란스럽게 생일을 쇠여서야 되겠소. 가족끼리 모인셈치고 별로 차린건 없지만 많이들 드시오.》

그의 말처럼 눈앞에 차려놓은 음식상은 저으기 간소한편이였다. 로씨야제 워드까와 둥근빵, 빠다, 칼파스와 닭알부침, 사과 그리고 남새료리가 전부였다. 다혈질인 박부수상이 오늘은 세상에 알려진 격한 성미와는 달리 아주 점잖게 처신하고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인상이 은영이로 하여금 마지못해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축하의 인사말들이 있었다. 라윤천이 말하고 서기도 일어섰다. 축하의 말끝마다 잔을 쪼아대는데 한시바삐 취기가 올라 분위기가 흥거로와지기를 재촉하는듯싶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은영이가 들어서면서 잠시 멎어있던 축음기가 다시 돌아가고있었다. 《푸른 초원》, 《눈처녀》, 《삼두역마차》… 챠이꼽스끼와 림스끼－ 꼬르싸꼬브 등의 음악들이였다. 로씨야의 눈덮인 광야를 달리는 삼두마차의 채찍소리와 방울소리가 은은히 울려오는듯 했다. 그러나 음악은 그들의 주위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하나의 양념일뿐이였다. 음악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박부수상과 그의 두 충복은 열심히 마셔대기 시작했다.

《은영동문 왜 안 드시오?》 박창호가 물었다. 《이런 좌석에서야 뭐 허물할게 있소?》

《미안합니다. 전 술을 마실줄 모릅니다.》

《알아야 하오. 술이란게 왜 생겨났겠소. 고달픈 인생을 잊고 마음을 돋구기 위해서란 말이요. 그래서 노래와 춤도 있는거구 술도 있는거요. 그렇지 않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발라맞추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부수상동지.》

《술이란 인생을 고무하지요.》

《그래서 반잔술에 눈물나고 한잔술엔 웃음난다 하는가부지요?》

《정말 술이란 얼마나 좋아!》

몸매 날씬한 무용수와 피아니스트까지 껴드는것을 보며 은영은 속이 메슥메슥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느새 박부수상은 취기가 올라 은영의 입에 억지로 술잔을 쏟는가

하면 부지중 로씨야와 우즈베끼스딴의 추억에 목이 메여 눈물을 머금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조국의 어려운 형편과 밤이 지나면 산더미같은 일감을 안고 동분서주해야만 하는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력설하기도 했다.

《그래서 날 위해주러 찾아온 님자네들과 아가씨들이 고맙기만 해. 자, 또 들자구!》

잠시 분위기를 살피던 라윤천이 부수상에게 귀띔했다.

《부수상동지, 노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노래? 라참사가 노래하겠다는건가?》

《아니지요, 부수상동지. 여기 김은영동무가 축하의 노래를 불러드리겠다는겁니다.》

《은영동문 손님으로 온거야.》 뜻밖에도 박창호는 라윤천에게 매서운 눈길을 던졌다. 《여기가 뭐 에스뜨라다인줄 아는가? 지금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섰는데 부수상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일놀이에 명가수를 청해다 노래를 시키면서 떠들썩해봐. 그럼 우린 뭐가 되는가, 응?…》

《예, 예. 부수상동지, 제가 그만… 생각이 짧았습니다.》

《두라크 (바보)!》

박창호는 주독이 오른듯 시뻘건 코를 손바닥으로 비벼대였고 라윤천은 황송스러운듯 머리를 수그렸다. 그러나 그 순간 차디찬 눈빛이 번뜩이는것을 은영은 알아보았다. 상급들의 비위를 맞추고있으나 속에서는 무서운 독기가 뱀의 혀바닥처럼 날름거리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박창호는 다시 서기에게로 돌아앉아 래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은영은 남몰래 한숨을 내그었다. 어쨌든 가슴을 조이게 하던 불안이, 마음에 없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괴로운 일이 지나간것이다. 그러나 자리를 뜰 기회는 아직 오지 않은것 같았다. 박창호는 또 라윤천에게 뭐라고 실무적인 지시를 주고있었다. 부수상이라는 중책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이였다. 교태를 부리던 무용수까지 샐쭉해질 지경이였다. 그때 피아노소리가 울렸다. 누가 시켰는가?… 피아니스트가 조용히 왈쯔곡을 타고있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목소

리》였다.

《그래, 그게 좋아!》 박창호가 술에 젖은 거쉰 소리로 말했다. 《그것두 챠이꼽스끼의 곡이지?》

《예, 옳습니다. 부수상동지!》

라윤천이 기다렸던듯 제꺽 대답하였다. 두사람의 엉너리 재담에 은영은 처음으로 조용히, 쓰겁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을 달리 리해한 박창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은영의 팔을 잡아끌었다.

《사업얘기만 해서 미안하오. 자, 춤이나 춥시다.》

별안간 은영은 물속에라도 잠겨든듯 했다. 마비된듯 한 적막에 귀가 징징 울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리라는 예감에 가슴이 졸아들어 견딜수 없었다. 피아노소리가 커졌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목소리》가 그들을 유혹하며 가슴을 마구 휘젓고있는것이였다.

박창호는 든든한 팔로 은영의 허리를 휘감고 천천히 주단을 밟으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라윤천이 무용수를 껴안고 무어라고 소곤거리고있었다. 그들은 이런 밤을 한두번만 보내지 않은것 같았다.

차츰 은영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자꾸만 발을 헛디디였다. 목구멍에서는 금시 신음소리가 새여나오려 했다. 박부수상의 뜨거운 숨결이 얼굴에 퍼부어지는것이였다. 그 순간 눈앞이 새까매졌다. 먹물속같은 어둠속에서 유령들이 허우적거렸다.

《정전인가?》 거쉰 목소리.

《예, 부수상동지. 정전입니다.》 라윤천의 대답.

피아노가 광란적으로 떨고 유령들도 《봄의 목소리》에 취한것처럼 시꺼먼 그림자를 어룽거렸다. 은영은 역한 술내를 피하려 머리를 젖히고 한손을 가슴앞에 벋치며 안깐힘을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마어마한 직무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과 자존심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으려는 필사의 노력이였다.

《은영이.》 박창호가 거쉰 소리를 짜냈다. 《우린 너무 늦게야 만났구만. 그래도 일없어. 봉창하면 되니까, 응?》

굵다란 팔로 꽉 껴안고 역한 술내를 입가로 뿜어대였다. 불에 달군것 같이 뜨거워진 손바닥은 자꾸만 꼬무작거리고 무엇인가를 찾아 더듬었다.

《아니, 아니?…》
아무리 뻗대여도 당할수 없는 사나이의 완력과 미친듯 한 충동에 은영은 헛되이 모지름을 썼다.
《가만 있어, 가만!…》
새까만 어둠속에서 봄의 목소리만이 속절없이 흐느끼였다. 그래도 유령같은 그림자들은 가쁘게 호흡하며 돌아가고있다. 그렇게 돌아가던 하나의 유령이 벽에 머리를 짓쪼으며 신음했다.
은영이 낮게 부르짖었다.
《불을 켜요!》
《무슨 일이요?》 서기가 묻는 소리.
《왜 그래?》 라윤천이 덩달아 소리쳤다.
《불을 켜지 못하겠어요?》
잠시후 피아노소리가 멎고 불이 켜졌다. 은영은 피아니스트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서있었다. 벽에 머리를 쪼은 박창호가 수치와 분노에 못이겨 이를 악물고있는것이 모두의 눈에 띄였다. 시꺼먼 눈섭이 이마우에서 푸들거리고있었다.
《아니, 부수상동지?!…》
그를 지켜보던 라윤천이 살인이라도 칠것처럼 이발을 사려물었다. 그의 이마우를 엇비듬히 가로 질러간 가느다란 주름살들이 경련적으로 흠칫거렸다. 모두가 은영이에게 찌르는듯 한 눈길을 던졌다.
《빌어먹을!》 마침내 박창호가 이발을 사려물며 거쉰 소리를 짜냈다. 《어따대구 감히… 노래나 부르는 녀자가 그래 당에서 아껴준다구 해서 감히 부수상까지 멸시하는건가?》
《아니요.》 은영이 저고리를 여미며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전 저자신을 멸시합니다. 이런덴줄 모르구 끌려온 저를요. …》
《뭐가 어쨌어?》
라윤천이 나섰다. 벌려진 입귀에서 싸늘한 미소가 독가스처럼 피여나고있었다.
《방자스럽기란!… 제가 도대체 뭐라구.》
은영은 그를 외면하고 분노에 질려 시꺼매진 박창호를 향하여 숨찬 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전 아직 사교춤을 배우지 못했구 또 바쁜 일도 있구

해서… 이만 실례하겠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라윤천은 높은 직급에 있는 상관에게 눈길을 돌렸고 서기는 너무도 심한 충격에 입이 얼어붙은것 같았다. 무용수와 피아니스트도 구석에 물러가 두손을 가슴에 얹고있을뿐… 분노와 멸시의 찬바람이 회오리처럼 방안을 휩쓸었다.
은영은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섰다. 그때까지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뒤늦게야 현관밖으로 따라나온것은 라윤천이였다. 험악해진 기상으로 은영을 막아서며 그는 두볼을 푸들푸들 떨었다.
《네가 감히 부수상동질 모욕해? 이게 어따대구 삿대질이야?!…》
은영은 경멸에 찬 눈길로 잠시 그를 쏘아보았다. 권력의 문지기, 세력가의 방자, 웃사람들의 배꼽이나 긁어주는 치사한 노복!…
《비켜요!》 은영은 가늘게 부르짖었다. 《비키지 못하겠어요? 치사하고 너절한 사람!》
《뭐, 뭐이라구?》
라윤천이 풀떡거리자 사슬에 매여있던 개도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차안에서 졸고있던 운전사가 급히 문짝을 열고 내다보았다.
《가만두지 않겠어!》 라윤천이 주먹을 부르쥐고 으시시 몸을 떨며 목갈린 소리를 질렀다.
《네가 아직 내 솜씨를 보지 못했구나. 그러니 잘망스럽게 놀수밖에!… 아까는 내가 다 말하지 않았지만 알아둬. 박수미란 녀자가 뭐라고 폭로했는지 알기나 해? 고종우가 림호를 경찰에 고발해서 죽게하구 네년과 같이 북으로 달아났다는거야. 말하자면 둘이서 공모한거나 같다는 말인데 이게 뭐 간단한 일인가?!》
《뭐—예요?!…》
별안간 쇠몽둥이에 머리를 얻어맞은듯 했다. 눈앞에서 무수한 불찌들이 아물거렸다. 박수미가 뭐 어쨌다구, 고종우가 림호를 고발했다구?… 다음순간 은영은 두손을 맞잡아 비틀며 입술을 악물었다. 미친년의 허튼소리, 아니면 저것들이 누구를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고 우정 꾸며낸 소리이다!…
《그래도 난》 하고 라윤천이 악문 이새로 사납게 부르짖었다. 《너를 도와주려구 했어. 너를 아깝게 생각해서 돕자구 했는데 뭐가

어쨌어? 똑똑히 알아둬. 난 용서가 없는 사람이야. 네년이 맘편히 살도록 가만히 놔둘 내가 아니야!》

사슬에 매인 개도 왕왕 짖으며 달려들었다. 은영은 저도 모르게 또 뒤걸음치며 귀를 막았다. 목사리가 끊어질듯 사납게 달려들며 울부짖는 그 소리에 머리칼이 곤두섰다.

《이제라도 들어가 용서를 빌어!》

라윤천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나운 개도 극성스레 짖어댔다. 겁에 질린 섬약한 녀자를 물어메치지 못하여 발광이 나있다.

《말해봐, 용서를 안 빌테야?》

절컥거리는 사슬소리와 미친듯 한 개의 울부짖음소리. 언젠가 리채옥선생을 추격하며 울부짖던 왜놈의 개들도 그렇게 짖어대였었다. 그리고는 갈기갈기 물어뜯고 피를 뿌리며 날뛰였고…

《어서 들어가!》

라윤천이 은영의 팔을 거머쥐려고 했다.

순간 은영은 그를 세차게 뿌리쳤다.

《다치지 말아!》

《이년이?…》

은영은 홱 몸을 돌려 대문쪽으로 걸어나갔다. 개짖는 소리와 라윤천이 이발을 사려물고 미친듯 고아대는 웨침소리가 돌멩이처럼 날아왔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고보자, 이년! 이 쌍년, 두고보자!…》

대문밖에서는 건설의 교향곡이 계속되고있었다. 오고가는 차들이 밝은 전조등의 불빛으로 정신없이 걷고있는 은영이를 비쳐주고있었다. 째지는듯 한 호각소리와 노래소리, 웨침소리와 웃음소리, 《치기영— 어기영》의 가락맞는 목도군들의 소리… 그것은 시인 조기천이 싸우는 전선길에서 격조높이 읊던 시의 한구절이 아니던가?!

《치기영— 어기영— 치기영》
복구대는 일한다
시한탄을 끌어내친다
그러면 어둠속에서 호각소리 울리고
서리어린 화물차는 박는듯이 멎고

그렇다, 조선은 지금도 싸우고있는것이다.

은영은 바삐 걸었다. 주위세계는 온통 소리로 차있다. 살아 숨쉬는 모든것이 소리를 내고있다. 그 모든 소리가 들끓는 삶의 노래로, 건설의 교향곡으로 화음을 이루고있다. 여기서는 시시한 잡음이 끼일 자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영은 어수선한 구석에 앉아 거품처럼 잦아드는 잡음에 귀를 기울이고있었고 라윤천의 허튼소리에 얻어맞은것처럼 비틀거리고있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은영은 정신나간 녀자처럼 건설장 한복판을 꿰질러나갔다. 타는듯 한 아픔이 줄곧 가슴을 옥죄이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데로 가고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동무, 비키오!》

갑자기 성난 목소리가 돌멩이처럼 날아왔다. 따찌까를 밀며 바람같이 달려오던 청년이 소리친것이였다. 그러나 은영은 따찌까바퀴가 굴러오는 널판자우에서 내려설념도 못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입을 벌리고 굳어져있었다. 충돌은 피할수 없게 되였다.

《아!ㅡ》

누가 먼저 부르짖었는지… 널판자우에서 미끄러진 청년이 따찌까와 함께 기우뚱하더니 한옆으로 나딩굴었다. 그 서슬에 장대기에 매달린 외등이 세차게 흔들거렸다. 흔들거릴 때마다 불빛도 사납게 껌벅거렸다.

《넨장!》 청년이 벌떡 뛰쳐일어나면서 눈의 흰자위를 사납게 굴렸다. 《이건 뭐요, 눈이 멀었소?》

《미안해요. 제가 그만…》

청년은 은영의 말에 흥! 하고 씨근거리더니 색날은 군모를 벗어 온몸에 들씌워진 세멘트가루를 털었다. 그것도 잠간, 제대군인인듯 한 그 청년은 어느새 바닥에 쏟아버린 세멘트를 두손으로 쓸어모으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은영은 그에게로 다가가 서슴없이 손으로 땅바닥의 세멘트를 모았다.

《비키오!》 청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몰풍스러웠다. 《어서 저 갈데루나 가보우, 분내만 풍기지 말구.》

《?!…》

은영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 어떤 욕설이라도 좋았다. 분내나 풍기는 녀자, 여기 건설장에서는 하등 쓸모가 없는 녀자였다. 차라리 그

가 사정없이 욕질하고 매질이라도 했으면 속이 후련할것 같았다.
《동무!》 제대군인청년이 은영이를 밀막았다. 《그만두— 그러다 옷이 험해지겠소.》
어느새 너누룩해진 그의 얼굴을 스쳐보며 은영은 머리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를 더 욕해주세요.》
《챠! 이런…》
한동안 그들은 아무말없이 널려진 세멘트를 따찌까에 담았다. 사뭇 껌벅이던 외등도 어느덧 분을 삭인듯 더이상 높뛰지 않고 따스한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따찌까를 밀며 오고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여겨보며 웃고 떠들군 했다.
《저 친구 병수 아니야? 어데서 저런 멋쟁이 미인을 채왔어?》
《옳구만, 리병수 그 친구야. 챠! 저 얌전데기가 벌써?…》
《여, 병수, 거기서 이마를 맞대구 뭘 수군거리나?》
《아, 아, 떠들지 말라구. 모른척 하구있다가 국수나 먹읍세!》
리병수라고 불리운 그 제대군인청년은 동료들이 시까슬고있는 소리엔 아무 대꾸도 없이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목에 걸고있던 수건을 은영이에게 내밀었다.
《손을 닦으십시오. 괜히 나때문에…》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은영은 수건을 받았다. 그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욕으로 여겨질수도 있다.
《헌데.》 하고 리병수가 물었다. 《여긴 왜 왔습니까. 누굴 만나려구요?》
《아니요. 그저 제 생각에만 옴해있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리병수는 믿어지지 않는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런 옷차림을 하구 이 험한델 들어오다니요. 어쨌든 제가 소리친건 량해하십시오.》
《아니예요. 전 오히려 동무가 소리친걸 고맙게 여기는걸요. 하마트면 허튼 길에 들어설번 한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않았나요.》
제대군인청년이 은영의 그 말을 곧이 들을리는 만무였다.
《원, 무슨 말씀을… 헌데 목소리도 참!… 은방울 굴리는 소리라더

니 혹시 배우가 아닙니까? 어쩐지…》
《예, 옳아요, 성악배우.》
《아!》 리병수가 탄성을 질렀다. 《그렇군요. 우리 건설장에 배우동무가 찾아왔군요. 그런것두 모르구… 배우동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아니, 난…》
그러나 리병수는 어느새 사람들을 부르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색날은 군모를 벗어 흔들며 배우동무가 찾아왔다고 어서 빨리 모이라고 기쁨에 넘쳐 웨쳐대는것이였다.
일은 딱하게 되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적동색얼굴에 땀이 번들거리는 사나이가 허리를 굽석하며 인사를 했고 몸이 갱핏한 어떤 젊은이는 군대식으로 멋지게 거수경례까지 했다.
《배우동지, 우리 건설자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등주위에 둘러앉는 사람들앞에서 은영은 어찌할바를 몰랐다.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편성의 악대는 고사하고 손풍금반주조차 없다. 그렇다고 구실을 대여 달아난다면 그것은 곧 이 수수한 사람들을 모욕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자, 자. 조용하시오.》 누군가 팔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입방아만 찧지 말구 모처럼 우릴 찾아온 배우동무를 축하해줘야 할게 아닌가!》
《옳수다. 반장동무, 축하해줍시다.》
《그런데 꽃다발이 없구만, 응?!》
《목마를 태웁시다, 목마를!》
에그머니! 녀배우인 자기를 목마에 태운다는 소리에 은영은 뒤걸음치기까지 했다. 다행히 누군가 《자, 박수!》 하고 웨치자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손바닥이 터질 지경으로 박수를 쳤다. 그러는 가운데 몸매가 둥실한 녀인이 째지는 소리로 웨쳤다.
《아유, 예쁘기두 해라. 이름이나 좀 압시다레!》
많은 사람들이 목청을 합쳤다.
《옳소, 소개를 좀 해주시우.》
《이름부터 들어봅시다!》
웬일인지 눈굽이 쿡 쑤시는것을 느꼈다. 그들모두를 향해 머리숙여

인사하려니 두눈에서 눈물이 흟기 시작했다. 방금 지체높은 간부댁에서 모욕을 받고 나온 은영이였다. 칼끌같은 독설과 위협을 받으며 발길 당는대로 정처없이 헤매던 은영이였다.

은영은 머리를 들었다.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국립예술극장 성악배우 김은영입니다. 요즘 공연되는 민족가극 〈견우직녀〉에서 직녀역을 맡은…》

다음말을 이을수 없었다. 《야!—》 하는 탄성과 수군대는 소리가 마른 잔디밭에 달린 불길처럼 번져가더니 또다시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은영은 진정 감사의 정에 겨워 눈시울을 떨며 계속하였다. 《아무런 준비없이 저 혼자 와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먼저 해방전에 부르던 노래 한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 부는 들길로 정처없이 헤매이던 한 처녀에 대한 노래입니다. …》

건설자들모두가 숨을 죽이고있었다. 은영은 그들중에서 류달리 목이 상큼한 처녀를 눈여겨보며 음정을 더듬었다. 아니, 고향의 강기슭, 쌍바위기슭을 뛰여가던 어린시절의 자기자신을 그려보았다. 모래불에 찍히던 작은 발자국, 그 발자국마다에 고이던 물… 그것은 그저 흐려진 강물이였던가?…

하늘을 지붕삼고 떠도는 신세
동서남북 바람결에 갈곳이 없어
찬이슬 잔디우에 쓰러져 울면
어머님의 옛 사랑이 다시 그립다

배우는 언제 어느때건 관객의 분위기를 읽을줄 알아야 한다. 특히 성악가수는 관객의 숨결을 타고 노래부를줄 알아야 한다. 멋진 소리만 뽑으려 해서는 그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한다. 그들자신이 마음속으로 같이 노래를 부를수 있게 호흡을 같이 해야만 한다.

비오고 바람부는 하늘밑에서
팔베개로 꿈을 꾸는 집없는 천사

운다고 옛 사랑이 다시 올소냐
설음맺힌 가슴에도 희망은 있다

목이 상큼한 처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것을 은영은 보았다. 그 처녀도 노래 《집없는 천사》의 애어린 녀주인공처럼 수난에 찬 시절을 보냈으리라. 하여 은영은 노래의 여운처럼 이렇게 나직이 말하였다.

《노래에도 있듯이 설음맺힌 처녀의 가슴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끝내는 밝은 해님이 비쳐주는 새날을 맞고 행복한 고향의 밤을 노래불렀습니다.》

안개낀 모란봉에 둥근달 솟아올라
잔잔한 대동강에 저녁이 오니
금물결 은물결에 실버들 춤추네
사랑하는 내 고향이여 나의 요람이여
아름다운 고향의 밤이여
어디라 먼길 가도 잊을수 있으리오
정다운 그 모습 나의 고향이여

요란한 박수가 뒤따랐다. 재청 또 재청!… 어느덧 은영은 라윤천이며 박부수상따위는 까맣게 잊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든 인민을 위해 노래하라고,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를 부르며 인민의 사랑받는 가수가 되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비로소 깨닫는듯싶었다.

몇곡이나 더 불렀는지 모른다. 나중엔 전체 건설자들과 함께 노래했다.

터전을 다진다 힘차게 다져라
원쑤들이 불사른 내 고향 폐허에
용광로 굴뚝과 아담한 집 세워
부강한 우리의 조국을 건설하세
…

사람들은 끝없이 노래를 듣고싶어했지만 밤이 깊었으므로 녀가수가 무리해선 안된다고 념려하는것도 잊지 않았다. 합창이 끝나자 모두 일시에 밀려나와 은영이를 둘러쌌다. 다음번에 오면 제일 크고 화려한 꽃다발을 준비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건설지휘부의 일군인듯 한 사람은 은영의 두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다.

《오늘 배우동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아시오? 사실 우리 건설자들은 극장에 다닐 짬도 내지 못하지요. 건설이 바쁘다고 맞교대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고성기에서 나오는 노래나 듣는게 고작이였는데 이렇게 배우동무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니 얼마나 좋아들 합니까. 앞으로 종종 찾아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했다.

《또 오십시오. 배우동무, 아무때나 와서 노랠 불러주시오.》

《부탁합니다, 배우동무!》

은영은 웃으며 건설자들이 저저마끔 내미는 손을 잡아주군 하였다.

《약속해요, 정말이예요. 꼭 오겠어요. 자주 오겠어요!》

은영이를 노래부르게 한 리병수가 마지막까지 바래주는 역을 맡았다. 녀왕님을 모시듯이 걸음마다 조심하라고 일러주는가 하면 손을 잡아 흙무지우로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큰길에까지 나섰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것도 꼭 와달라는것이였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배우동지!》

그러나 은영은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고종우가 특히 반대하였다. 당장 제5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가야겠는데 그럴새가 있는가. 그리고 늦은밤이면 발성생리기관에 무리가 가는데 그러다 목이 상하면 그 후과를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것이였다.

강상일을 찾아서 야간예술선동을 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는 침울해진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은영동무, 난 사실 동무가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다고 보았으나 일이 좀 별나게 됐소. 부총장이 뭐라는지 아오?… 동무가 전날 건설장에 나가 류행가를 불렀다는거요. 사람들의 머리를 흐리게 했다면서 막야단이란 말이요.》

《뭐, 류행가를요?》 은영은 손가락마디를 딱딱 꺾으며 숨찬 소리

를 내뿜었다. 《내가 사람들의 머리를 흐리게 했다구요?》

《그날 무슨 노랠 불렀소?》

《아, 거야 처음 〈집없는 천사〉 그담 〈고향의 밤〉 그리구 새로 나온 노래들인…》

《그러니 〈집없는 천사〉가 문제로구만.》

《그 노래가 어째서요? 해방전에 우리가…》

강상일은 은영이가 더 말을 잇지 못하게 팔을 홱 내저었다.

《부총장은 동물 무대에 내세워 검토하겠다고 을러대는데… 어쨌든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겠소.》

은영은 숨도 쉬지 못하는듯 허덕이였다. 강상일이 우려하는것처럼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류행가는 물론 《류행가조》라는 말만 나와도 입에 게거품을 물고 달려드는것이였다. 해방전에 나온 계몽기가요들을 류행가라는 웅뎅이에 집어넣고 퇴페적이고 반동적인 음악으로 짓뭉개던 때였다.

4

일은 터지고야말았다. 배우들의 주총화모임이 열리고 오학성은 건설장에서 있은 일을 두고 은영이를 호되게 족치기 시작했다.

《은영동무, 어디 솔직히 말해보오. 남몰래 건설장에 나가서 썩어빠진 류행가를 부른 목적이 뭐나 말이요, 에?… 그래 동문 류행가의 비애에 찬 선률이 사람들을 애수와 염세에 물젖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는걸 모르는가. 그런 퇴페적이고 반동적인 노래를 퍼뜨리는것을 과연 용서할수 있겠는가?…》

은영은 물론 듣고있던 사람들모두가 눈보라를 들쓴듯 했다. 어깨를 옴츠리고 눈길조차 들지 못하고있었다. 비록 오학성은 어성을 돋구어 고함치지 않았지만 마디마디가 채찍으로 후려치는듯 했다.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우리의 혁명적인 예술인대오에 이런 독소가 나온것이 우연이겠는가. 저 동무 한사람에 한한 문제이겠는가?… 벌써 이 문제가 우에도 반영되였소. 그저 간단히 스쳐버릴 문제가 아

니란 말이요. 나는 은영동무가 제5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고사하고 우리 예술단에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보오. 혹독한 말같지만 어쩌겠소. 우린 원칙을 떠날수 없소. 그럼 말해보시오. 어떻게 하면 저 동물 구원하겠는가. 오래전부터 같이 있던 동무들부터 말하시오.》
무엇때문인지 오학성은 한정애부터 지명했다.
《정애동문 저 은영동무를 친언니처럼 따랐지. 그렇지만 알아두오. 제기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만큼 원칙을 양보해선 안된다는걸!…》
한정애는 머리도 들지 못하고있었다. 오학성이 재차 불러서야 힘들게, 소리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총장동지, 전… 전…》
《일없소. 동무생각을 말하면 돼.》
《…》
모두가 기다렸다. 은영이 역시 숨을 죽이고있었다.
《어서 말하라는데!》
그러자 한정애는 얼굴을 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음섞인 목소리가 애처롭게 새여나왔다.
《부총장동지, 전… 무섭습니다. 은영언니가 이렇게 되리라군…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거요. 좀 똑바로 말하오!》
아마도 오학성은 사전에 한정애를 비롯한 몇사람을 준비시킨것 같았다. 그렇게 준비시킨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상부에 제기하는것으로 은영의 문제를 처리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하여 오학성은 지금 그 대답을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어서 말하오!》
《난… 난…》 한정애는 울기 시작했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마 그렇게는…》
《뭐요?》
그 순간 강상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부총장동문 너무합니다!》
그는 격하여 다음말을 잇지 못하고 풀무처럼 씩씩— 단김만 내뿜고있었다. 오학성이 눈끄리를 치뜨며 쏘아붙였다.
《뭐가 너무하다는거요. 그래 동문 은영동물 두둔하자는건가?》

《모르겠소.》
강상일은 다시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것이 오학성을 더더욱 분노케 했다.
《모르겠다는건 또 뭐요. 동문 언제 보나 비뚤어진 소리만 탕탕 하는데 명백히 말하오. 그래 반동적인 노래를 퍼뜨려도 좋다는거요, 그걸 묵인하자는거요? 그러니 동무도 같은 립장이라는거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강상일은 다시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날카로운 그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귀전에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그럼 말합시다. 내가 모르겠다는건 어째서 은영동무를 반동분자처럼 취급하는가 하는겁니다. 우린 은영동무를 너무도 잘 압니다. 부총장동무도 그렇지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부총장동무가 아닙니까. 원쑤놈들에게 아버지와 동생들을 잃고 애인마저 잃고 싸움의 길에 나선 은영동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버이수령님께서도 각별히 아껴주시는데… 그래 꼭 그렇게 감투를 씌우지 못해 안달아하는건 뭣때문입니까?》
《뭐?… 아니, 저 동무가?》
《내가 알아보니 은영동무가 그날 〈집없는 천사〉를 부른건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눈물겹던 어린시절과 피흘리던 지난날을 두고 오늘의 행복과 결부하여 노래부르려고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놓고 고마운 조국을 노래했던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이 복구건설에 더 힘껏 떨쳐나서게 고무해주었습니다.》
《동무!》 오학성이 맵짜게 쏘았다. 《동기야 어떻든 류행가를 부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선전을 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강상일은 조금 맥빠진 어조였다. 《그 노래가 어떻게 반동적인것인지. …》
《저것 보란 말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자 강상일은, 강투사로 소문난 그는 다시 격해졌다.
《어쨌든 반동이요, 뭐요 하는 소린 싹 걷어치우시오!… 은영동무가 남다 쉬는 야밤에 건설장을 찾아가 노랠 부른거야 좋은 일이지 나쁠거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

까?》
오학성이 탁자를 두드렸다.
《앉소. 동무문제는 따로 봐야겠소. 결국 은영동물 꼬드긴건 동무라는 소리인데… 어쨌든 당위원회에도 제기해서 문제를 단단히 세워야겠소. 그때 가서 뭐라고 또 하는지 들어봅시다. 그럼 고종우동무, 동무가 말해보오. 동문 물론 은영동무를 지지하겠지?…오래전부터 끼리끼리 감싸왔으니까.》
강상일은 더이상 참을수 없는듯 했다. 고종우에 앞서 다시금 벌떡 일어나면서 기관총련발사격처럼 내쏘았다.
《끼리끼리라는건 뭡니까. 그래 부총장동무 눈엔 우리가 모두 반동분자로 보인다는겁니까?》
《앉소.》 오학성은 반대로 더더욱 침착해지고 틀져보였다. 《난 고종우동무한테 물었소. 고종우동무, 말해보시오. 모든 사람들이 듣는데서 자기 립장을 밝히란 말이요.》
그러나 고종우는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격렬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졸고있는듯 했다. 오학성이 두번, 세번 독촉해서야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표정은 담담했다.
《난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바리톤가수답게 웅근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은영동무의 일로 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좋소.》 오학성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제야 솔직하게 나오누만. 어서 계속하오.》
《사실 전 은영동무가 야간예술선동을 같이하자고 할 때 반대했습니다. 당장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둔 때 무리하다가 목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말해놓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은영동무를 따라서 밤이건 낮이건 건설장에 나가 노랠 불러야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 수령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말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은영은 고종우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그가 고마왔고 더없이 미덥게 여겨졌다. 그러나 기대했던 말을 듣지 못한 오학성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었다.
《인젠 다 알만 하오, 알만해. 동무들이 이렇게 나오는게 우연하지

않소. 사실 여기서 공개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가지만 말해주겠소. 지금 동무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제기되는지 알기나 하오. 이제 보안서에서 사람이 나올거요. 류행가문제때문만이 아니요. 두고봅시다.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요. 난 동무들을 생각해서 애써 변명했지만 더는 상관하지 않겠소. 될대로 되라지.》

그의 말대로 다음날 보안서에서 사람이 왔다. 은영을 찾아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는데 박수미와 관련되는것들이 많았다. 고종우, 강상일의 출신도 따졌다.

일이 심상치 않았다. 그무렵 수미는 대북방송프로에 거의 매일이다싶이 출연하여 고종우와 김은영의 치정관계며 고종우가 그 누구를 고발하여 학살케 했다느니, 그네들이 북으로 달아난건 죄악을 숨기기 위한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였다. 또 강상일을 비롯한 옛시절의 동료들을 한사람한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공산군에 강제로 끌려간 그들의 운명을 우려하고 한탄하면서 서울로 돌아오라고, 본인들만 바란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마련될것이라고 했다.

보안서에서 나온 사람은 이 문제를 확인하려고 했다. 은영에게는 그가 어쩐지 그 누구의 지시를 받고 특히 고종우를 먼저 꽁지려 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검은구름이 그들의 머리우에 드리우고있었다. 그러나 제5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당장 눈앞에 다가왔으므로 불쾌한 담화는 뒤로 미루어졌다. 어떤 연고에서인지 류행가문제도 더이상 꺼들지 않았다. 은영은 그것도 인차 머리속에서 지워버렸다. 오직 예술만을 생각하였고 그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 습관되여있는 그였다.

하지만 건설자들과 한 약속만은 언제든 잊지 않고있었다. 리병수며 목이 상큼하고 약간 병색이 도는듯 하던 처녀의 얼굴이 한시도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은영이를 두고 나무라고 지어 멸시하는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 울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

축전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은영은 전날의 그 건설장으로 달려가보

았다. 그러나 그새 그 일대에는 새 아빠트들이 일떠서있었다. 리병수라는 제대군인청년이며 이름도 알지 못하는 목이 상큼한 처녀는 그 어데서도 찾을수 없었다. 지금 그들이 그 어느 건설장에서 일하고있는지 알만 한 사람도 없었다.

강상일이 물었다.

《그 사람들을 꼭 찾아야만 하겠소?》

《난 그들과 약속했어요, 꼭 다시 오마구.》

고종우는 말했다.

《우리가 건설장들을 찾아 노래를 부르노라면 만나게 되겠지.》

《옳소.》 강상일이 덧붙였다. 《약속대로 해봅시다. 어쨌든 건설자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느덧 가을이 오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문예총에서 일하는 백영준이 은영이를 찾아왔다.

《갑시다. 상동지가 은영동물 부르시오.》

《상동지?!》

《음— 심중한 문제인가 보오.》

은영은 심중한 문제란 무엇일가 하고 생각해보았으나 짐작되는것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은영이와 고종우를 모함하려 한치한치 그들의 발밑에 구뎅이를 파들어가고있다는것을 상상하지도 못하고있었다.

문화선전상 허정숙은 여느때처럼 은영이를 반갑게, 다정히 얼싸안았다. 비록 높은 직급에서 일하는 그였지만 여전히 틀을 차림이 없이 활달하고 친절하였다.

《은영동무 여전히 매혹적이군요.》 허정숙이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지금 나이가 몇이던가요?》

《서른두살입니다.》

《뭐예요?》 허정숙은 깜짝 놀라는것 같았다. 《벌써?… 아직도 선녀같이 해말쑥한데… 참, 그 비결이 어데 있는지 나한테만 좀 대주지 않겠어요? 나도 녀성이니만치 고와지는걸 좋아하거던요.》

《그러세요?》 하고 은영은 기꺼이 롱으로 받았다. 《좀 비싸긴 하지만 상동지부탁인데야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몰래 비방을 대드리지요.》

그들은 소리내여 웃었다.

얼마후 허정숙이 정색하여 물었다.

《축전에 가기 전에 예술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던데… 〈집없는 천사〉를 불렀다면서요?》

은영이를 대신하여 백영준이 《집없는 천사》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말했다. 조령출작사의 그 노래구절들을 인용하며 무작정 류행가라며 반동시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견해를 질시하였다. 그 노래들이 시대적인 제한성은 있으나 당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였고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서 긍정적인 역할도 많았다고, 그래서 왜놈들이 많은 노래들에 금곡령까지 내리지 않았는가고 말하자 허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나도 알고있어요. 그래서 제기된 문제를 우리 수령님께 보고도 드렸구요. 그건 그렇고… 은영동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은영동무의 뒤를 캐고있다는데 알고있어요?》

《저를 말입니까?》

《그러니 모르고있군요.》

《아니, 짐작이 갑니다. 언젠가 보안서에서…》

《개의치 마세요.》 허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와졌다. 《은영동문 당에서 아끼는, 우리 수령님께서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가수라는걸 언제든 잊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던!》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은영동무랑 극장에서 공연도 하는 한편 밤이면 수도의 건설장들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러준다는데 아주 좋은 일이예요.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여 은영동물 꼭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별안간 은영은 눈굽이 저릿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벌써 수십차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였고 공연때마다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받은 그였지만 전후복구건설로 그처럼 분망하신 수령님께서 또다시 만나주시겠다고 하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

어슬무렵 은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허

정숙이 그와 함께 차를 달렸다. 불타는 저녁노을이 대동강물결우에 붉은 비단필을 쭉 깔아놓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양각도를 등진 강기슭의 둔덕우에서 새로 일떠세우는 거리의 형성안을 보아주고계시였다. 설계도면을 펴들고있는 일군들의 설명을 들으시며 두손을 허리에 짚고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뵈옵자 은영은 터질것 같은 흥분에 몸을 떨며 한달음에 달려갔다.

《아, 김은영동무가 왔구만!》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며 반겨주시였다. 《오래간만이요. 축전에 갔다오자바람으로 새 민족가극을 공연한다지. 밤에도 수도의 건설장들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러 고무해준다는 얘길 들었소. 그렇게 하기에 힘들지 않소?》

《힘들지 않습니다, 수령님! 건설자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배우는것도 많습니다.》

《음― 그럴테지. 난 동무가 늘 건설자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소. 누구든 우리 인민들속에서 그들과 기쁨도 시련도 함께 나눈다는 말을 들을 때 제일 기쁘거던. 예술인이라고 례외는 아니지. 그래서 동물 꼭 만나서 감사를 드리고싶었던거요.》

《?!…》

불시로 목이 꽉 메여 아무 말씀도 올릴수 없었다. 수령님께서 한 녀배우에 불과한 저에게 감사를 주시다니!… 자신께서는 신발에 묻은 진흙도 터실새가 없으시면서… 은영은 수령님의 축가신 모습과 옷이며 신발우에 한격지 올라있는 먼지를 눈물없이는 볼수 없었다. 하여 자기 목소리같지 않게 겨우 이렇게 말씀올렸다.

《수령님! 전쟁을 이기신 수령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편히 쉬실새없이 고생만 하시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생이라… 고생만 한단 말이지. 하지만 아직 고생을 더 해야지. 자, 보라구. 이렇게 새집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고 우리 인민이 남들이 부러워하게 잘살 때까진 고생을 해야 하지 않겠소. 먼저 인민들이 움막집에서 나와 새 아빠트에 들게 한 다음 극장들도 번듯하게 짓자는거요. 은영동무랑 마음껏 노래부를수 있는 극장을 말이요.》

수령님께서는 역전방향으로 손을 들어 가리키며 은영이에게 새로 일떠세울 건물들에 대하여 친히 설명해주시였다.

《은영동무 가족은 아직 촌에 있다지?… 일없소. 인차 새집들이를 하

게 될테니까. 미국놈들은 우리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했지만… 보시오. 벌써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고있지 않는가!…》

불타는 락조가 수령님의 안면을 불그레한 빛으로 물들이고있었다. 대동강수면에서는 물오리들이 붉은 물결을 소리없이 헤가르며 열심히 자맥질을 하고있었다. 만조때여서 기슭에 우거진 버드나무들이 반나마 물에 잠겼다.

《그런데》 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문득 생각나신듯 말씀하시였다. 《은영동문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는데 홀로 살기 힘들지 않소?》

《힘들지 않습니다, 수령님! 계속 공연을 하고 련습을 하느라고 언제 그런 생각까지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순간 은영은 수령님의 안색이 흐려지시는것을 보았다.

《그럴 겨를이 없다?… 아니, 그래선 안되오. 우리가 피흘리며 싸워온것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하는것도 다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인데 겨를이 없다니.… 동무가 공연을 하고 련습을 하고 또 밤이면 건설장에 나가면서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모른다면… 내 맘이 편하겠소?… 우리가 잘 돕지 못했소. 인민들을 위해 더 많은 노래를 부르라고만 했지 이름난 가수의 생활상 문제는 풀려고도 못했으니 말이요.》

《수령님!》

무슨 말씀을 더 올릴수 있으랴. 은영이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느라고 피가 날 지경으로 입술을 깨물고있었다.

《잘 생각해보오, 응?!…》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은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였다. 《내가 동무와 같은 예술인들을 아끼는건 바로 동무들이 우리의 투쟁을 노래로써 힘있게 고무해주고있기때문이요. 그래서 가정사에까지 관심하는것이지. 그건 그렇고… 은영동무, 일부 사람들이 동무를 모해하려 한다는데 언제든 당만 믿으면 돼.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꺾이지 마오. 언제든 예술가는 인민의 사랑을 제일 큰 표창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요,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수령님! 수령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생 인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살겠습니다.》

은영은 눈시울을 사뭇 떨뿐 더이상 말씀을 올릴수 없었다. 아, 아버지, 나의 태양, 나의 아버지!…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마음

껏 울고싶었다. 다심하신 어버이의 그 사랑과 은정에 목메인 심정을 달리는 표현할길 없는것이 안타까와 몸부림치고싶었다.
허정숙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꼭 그러안았다. 불타는 락조도 스러져가기 시작했다. 땅거미가 깃드는 대동강기슭은 고요한 꿈속에 잠겨들 차비를 하고있었다. 밝은 태양아래 뜨겁게 달아오른 대지가 좋은 꿈을 기다리고있는것이다. 꿈을 꾸자. 꿈을 잃지 않는 한 생은 고달프지 않다. 꿈이란 곧 희망이고 사랑이다!…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하셔야 할일이 많으신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은영이에게 다시 만나자고, 앓지 말라고 하시고는 가까이에서 기다리고있는 설계일군들에게로 눈길을 옮기시였다. 은영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며 흙으로 매닥질이 된 수령님의 신발을 물기어린 눈빛으로 보고있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허정숙이 지나가는 말처럼 박수미란 어떤 녀자인가고 물었다. 전쟁때 은영이 최고사령부에서 후퇴때 수미와 갈라지던 일을 어버이수령님께 자상히 말씀드렸으므로 그는 그저 어떤 경력을 가진 녀자인가 하는것만 관심하였다. 은영이 간단히 설명하자 그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수미는 다시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은영은 그때부터 줄곧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잊지 않고있었다.

5

며칠후 민족가극 《콩쥐팥쥐》의 공연이 끝난 뒤였다. 가극의 녀주인공인 콩쥐역은 은영이와 류선정이 1역과 2역을 맡고 교대로 공연하였다.
은영은 공연이 끝나기 바쁘게 분장을 지우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울속에 나타나는 한 사나이의 모습에 소스라치듯 놀랐다. 녀배우들의 분장실에 허락도 없이 뛰여든 그의 얼굴은 금시 살인이라도 치고난 사람같았다.

강상일이였다. 본래 창백하던 그의 얼굴이 재빛으로 꺼멓게 죽었고 돌덩이같이 부르쥔 주먹은 경련이 일듯 후들거렸다.
《은영동무, 나 좀 봅시다.》
거침없이 이 한마디 말을 내던지고 그는 힝하니 밖으로 나갔다. 은영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급히 옷차림을 하고 따라나갔다. 강상일은 새로 축조한 돌계단우에 서있었다. 7월이여서 아직도 서쪽하늘에 비낀 락조의 잔광이 극장앞의 느티나무밑에 서있는 그를 불그레하게 비쳐주고있었다.
《얘길 들었소?》 그가 성급히 묻는 말이였다. 《동무와 고종우가 후퇴때 수미라는 녀자를 서울로 빼돌렸다는거요.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가고 캐묻고있소.》
성급하고 격한 강상일이였다. 악문 이새로 거친 숨소리가 새여나왔다. 은영은 너무도 급작스러운 말에 잠시 어리둥절해있다가 나직이 물었다.
《누가 그래요?》
《라윤천이란 내각참사. 내 그 사람한테 단단히 오금을 박았소. 우릴 어떻게 알고 그러는가, 함부로 걸고들었다간 가만있지 않겠다! 하고 말이요. 그런데 그 라가가 벌써 고종우동무를 두번씩이나 만나 담화했다누만. 은영동문 아직 그것두 모르고있었소?》
은영은 머리를 저었다. 라윤천이라는 이름이 불리우자 별안간 날카로운 이발이 가슴을 뜨끔하니 물어뜯는것 같았다.
《고종우동무는요, 그는 뭐라구 했어요?》
《그 영국신사같은게!》 하고 강상일은 소리쳤다. 《왜 한바탕 해보지 못하는지, 넨장!… 저 혼자 끙끙 앓기만 하면서…》
《?…》
은영은 으시시하게 몸을 떨었다. 라윤천이 그들을 모함하려는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얼음물을 들쓴것 같았다.
강상일이 계속했다.
《요즘도 박수미가 방송에 대고 우리 사람들을 자꾸 꺼드는 모양이요. 그런데 그 새앙쥐같은게 고동무와 은영동무가 오래전부터 무슨 치정관계를 가지구있었다느니 또 누구를 고발해서 죽게 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싸작거린다는게 아니겠소. 더러운것!》

《그게 다예요?》 은영은 가까스로 물었다. 《그따위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아니요? 라윤천인지 하는 사람이 놈들이 불어대는 소리나 가지고 우릴 따지고들다니, 넨장!》

《아니, 그 사람은 나를 모함하자구 하는거예요.》

은영의 말에 강상일은 성급히 머리를 저었다.

《아니, 그럴수 없소. 은영동무를 모함하다니! 은영동무야 미국놈들에게 아버지와 동생을 잃구 또…》

《아, 됐어요. 그 얘긴 후에 하자요.》

영문을 모르는 강상일에게 라윤천에 대하여, 그 비렬한 사람과 결부된 일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은영은 숨을 돌리고나서 조용히 지금 고종우가 어데 있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강상일은 소문난 강투사답게 분노에 질려 씨근거리며 지금 고종우가 벌레씹은상이 되여 산밑에서 어슬렁거린다고, 그 알량한 영국신사때문에 은영이까지 허물을 쓸것 같다고 고아대였다.

은영은 아무말없이 자리를 떴다. 강상일이 어데로 가는가고 소리쳤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점잖고 례절바른 고종우,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고싶었고 또 그가 걱정되였다.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고종우라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은영이였다. 인생은 오래전에 벌써 그들의 운명을 하나의 동아줄로 얽어매놓았다. 지난날도 그러했거니와 지금도 역시 그는 평소에나 무대에서나 은영이와 떼여놓을수 없는 상대역이였다. 오늘도 그는 《콩쥐팥쥐》에서 왕역을 맡아했다. 무대에서는 엄엄한 왕이지만 분장을 지우고 의상을 벗기면 절제있고 단정한 사나이로 돌아오는 사람, 그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은영이였다.

흔히 사람들은 목소리에 따라 그의 성격을 알수 있다고 한다. 얼굴에 드러나는 인상보다 목소리가 더 많은것을 말해준다고도 한다. 고종우가 바로 그러했다. 두성공명을 바탕으로 한 바리톤가수인 그는 웅글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처럼 인정이 후덥고 깊이도 있으나 생활에서는 그것이 때로 어리무던하고 유약한 성격으로 보이기도 한다. 선량한 사나이로 치하받기는 하나 너무도 덩둘한탓에 먹물을 들써도 어쩌지 못한다.

고종우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새 대동강물결우에는 어둠의 장막

이 내려앉았다. 검은구름장들이 남쪽으로부터 랭기를 뿜으며 하늘 전폭을 뒤덮고있는것이였다. 앞머리가 산악같이 우중충한 비구름이 어둠을 몰며 덮치듯 밀려오고있었다.

은영은 서둘렀다. 어느덧 사위가 어둠속에 잠겨버렸다. 그래도 다시 한바퀴 청류벽가까이까지 돌았다. 축전참가자로 선발된 고종우가 벌써 독신자들의 합숙으로 갔으리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이 어수선해진 그가 오늘 밤의 련습을 포기하고 합숙으로 갔다면… 합숙? 별안간 머리를 스치는 뜨아한 생각에 은영은 걸음을 멈추었다. 어찌된 일일가. 그는 지금도 독신으로 있다. 많은 처녀들이 눈총을 쏘며 자기의 속내를 알아주지 않는 의젓한 미남자 고종우때문에 속을 썩이고 입술을 옥물고있건만 그는 그 어떤 녀자도 돌아보지 않는다. 무엇때문일가?…

드디여 하늘에서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져내리기 시작했다. 잎새무성한 나무숲이 소란스럽게 한숨을 내질렀다. 거센 바람이 불어치고 비줄기가 굵어지고있었다. 은영은 가까이 있는 나루터로, 배사공의 초막을 향해 달려갔다. 멀리 대동교로 돌아다니기 불편해하는 동평양사람들이 매일 이곳 나루배를 타고 오가는것이다. 기슭의 모래불에 나루배가 매여있는것으로 미루어 사공도 일찌기 집에 돌아간것 같다. 은영은 세찬 비바람에 떠밀려 거적문도 없는 초막안으로 뛰여들었다.

다음순간 기절할듯이 놀라며 《악!》 하고 부르짖었다. 초막안에 곰같이 웅크리고있던 사람을 지르밟았던것이다. 그 사람도 깜짝 놀라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누구요?》

《?…》

숨이 막히고 가슴이 뻐근해져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은영동무가?…》

고종우였다. 은영은 불시로 무너지듯 했다. 비좁은 초막이여서 고종우의 무르팍에 부딪치면서 소란스럽게 한숨을 내그었다.

《여기 있었군요. …》

고종우가 흠칠하며 몸을 옹송그렸다. 은영이로서는 어쩐지 생소하고 부자연스러운 거동이였다.

《예서 뭘하세요?》

《나 말이요? 저…》
그 다음말은 들을수 없었다. 눈부신 섬광이 파랗게 어둠을 불사르며 사위를 확 밝혔다. 이어 시꺼먼 어둠과 소란스러운 비소리가 덮쳐들었다. 무시무시한 천둥소리가 터진것은 다음순간이였다. 꽈르릉!— 하늘과 땅을 갈가리 찢어발기는것 같은 굉음에 은영은 몸서리쳤다.
《벼락을 치는군. …》
고종우가 하는 말이였다. 마음속 괴로움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그 굉음에 기뻐하는듯 했다. 그제서야 은영은 머리를 돌려 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흠칫하며 그의 무릎에서 조금 물러나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은영은 세찬 비소리를 들으며 그가 무엇이든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예서 뭘하고있느냐고 물을 필요는 없었다. 시꺼먼 고뇌에 잠긴 고종우의 얼굴이 모든것을 다 말해주고있었던것이다.
고통스러운 침묵속에서 비줄기는 밑창없이 쏟아져내리고 마음속에서는 애달픈 추억과 오뇌가 줄지어 흘렀다.
《얘길 다 들은 모양인데.》 하고 고종우가 마침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건 다 나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요. 그래서 난 결심하였소. 어떤 일이 있어도 은영동무에게만은 루를 끼치지 않게 하자고 말이요.》
마치 자살을 결심한 사람처럼 그는 말하고있었다. 은영은 급히 숨을 몰아쉬였다.
《내게 루를 끼친다구요? 우리가 뭐 죄를 짓기라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요. 사실 난… 수미란 녀자가 무엇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는지 잘 알고있지만 그따위 말이나 듣고 제 사람을 잡지 못해하는 라가란 사람을 도대체 리해할수가 없소. 그래서 난 생각하기를 나를 미끼로 그 사람이 노리고있는게 은영동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단 말이요.》
《무서울게 없어요. 누가 뭐라든 우린 예술로써 인민을 위해 복무하면 되는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다르오. 무서운 흑심을 품고있는게 분명하오.》
《걱정마세요, 일없다니까요!》
고종우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비바람이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대

줄기같이 쏟아져내리는 비방울이 모래불을 세차게 두들겨댔다. 물결우에서도 비방울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소란을 피웠다.

웬일인지 소연한 그 비소리에 은영은 마음이 쓸쓸해지는것을 느꼈다. 라가의 모함같은것은 무섭지 않았으나 그때문에 어혈이 든것 같은 고종우를 보는것이 더 가슴아팠다. 지금 고종우는 분장도 채 지우지 않고있다. 언제보나 단정하던 그가 지금은 왕으로 분장했던 시꺼먼 눈섭을 그대로 붙인채 어둑서니처럼 웅크리고있다.

《고종우동무.》 은영은 비물에 젖은 치마자락으로 무릎을 감싸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우린 벌써 10년이나 사귀여온 벗이지요? 동문 나를 잘 알고 나 역시 동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사실 동문 내게 있어서 친오빠나 다름없었지요. 아니, 친오빠인들 그보다 더하겠어요? 언제 어느때든 사심없이, 변함이 없이…》

고종우가 신음소리를 내였다.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긴 왜 꺼내는거요?》

《그건… 그건 사실…》 은영은 등뒤로 쓸어드는 물보라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사실 동문 외로운 사람… 그래요, 외로운 사람이지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알고싶어요. 동문 왜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고있어요? 수미때문이나요?》

고종우가 움씰했다.

《그가 나하구 무슨 상관이요?》

그렇다, 아무 상관도 없다는것을 은영은 알고있다. 그와 병적인 수미간에 있은 불미스러운 과거는 은영이의탓도 없지 않다. 그리고 지금 온갖 희망을 잃고 미래가 없는 수미는 고종우와 은영이에게까지 오물을 들씌우려 하고있다. 한때 수미는 고종우와 은영이의 곁을 떠나면서 벌써 독살스럽게 후회할 때가 있을거라고 침을 놓고 달아났던것이다.

《그럼》 하고 은영이 또 입을 열었다. 《무엇때문이세요, 아직까지 홀로 외롭게 지내는 까닭은요?》

고종우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금시 하늘을 쫙 찢으며 번쩍인 번개불에 푸들거리는 그의 두볼이 드러났다. 아직 그처럼 흥분한 고종우를 은영은 본적이 없었다. 그는 말보다 앞서 이마언저리로 굵게 그려진 왕의 눈섭을 손바닥으로 문질러댔다. 때를 기다리고있은듯 천둥소

리가 땅!— 하고 터졌다. 이마빡에 시꺼먼 도랑(분장용기름분)을 문질러놓아 험악해진 고종우가 눈살을 찌프리며 말했다.

《그러니 은영동무도 나를 불쌍하게 여긴단 말이군요.》

그 침통한 어조가 은영이로 하여금 눈길을 돌리게 했다. 아니, 은영은 그를 아프게 하려는것이 아니였다. 값싼 동정으로 그의 인격에 먹칠을 하려는것도 아니였다.

《용서하세요.》 하고 은영은 낮게 속삭이였다. 《제가 말하자는건…》

《아, 알고있소. 안다니까!》

그는 다시금 손바닥으로 눈가를 힘주어 문질렀다. 그다음 앞으로 바싹 다가앉더니 갑자기 은영의 어깨를 그러잡았다. 크고 두툼한 손바닥이 은영이를 바스라뜨릴것처럼 움켜쥐고는 불같은 입김을 내뿜었다.

《말합시다. 다 말하겠소. 사실 난…》

은영은 질겁을 했다.

《난 기다렸소.》 고종우가 계속했다. 《은영동무가 혼례를 치르고 가정을 이루기를 기다려왔소. 왜 그랬던지. … 어쨌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소. 헌데 어찌된 판인지 뜻하지 않던 불행이 계속 동무를 따라다니는것을 볼 때 난… 가슴이 아파서 견딜수 없었소. 정말이요. 동무가 행복하기를 기다려왔고 진심으로 그걸 바랐건만 매번 일은 반대로만 되였으니…》

그는 움켜잡았던 손을 맥없이 놓았다. 그 손으로 다시 얼굴을 힘껏 문지르고나서 오한이 나는듯 몸을 떨었다.

《아니, 더 할말이 없소. 난 다 말했소. 이날 이때까지 동무의 행복을 기다려왔다는… 그저 그것뿐이요.》

《왜요?》 은영은 숨찬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저의 행복을 뭣때문에 기다렸어요, 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영이를 주시하는 그의 눈에서 한점 불빛이 흔들리였다. 말없이 보고 또 보다가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은영이 미처 어쩔새도 없이 억수로 퍼붓는 비속으로 힝하니 나가버렸다.

비바람이 태질했다. 어느 먼곳에서 소리도 없는 번개불이 펑끗거렸다. 순간 무엇인가 은영의 가슴을 파고드는 예리한 느낌이 있었다. 비로소 모든것이 석연해졌다. 그는, 의젓하고 착한 미남자 고종우는 처

음부터 은영이를 사랑해왔던것이다. 변함없이 진정을 다해 사랑해왔다. 하여 자기를 다 바쳐 은영이를 아껴주고 지켜주려고 했다. 단지 그것을 숨겨왔을뿐이였다. 왜, 무엇때문에?…

바치는 마음이 크고 뜨거울수록 요구는 작아진다. 진실한 사랑만이 온갖 희생을 무릅쓰는 법이다.

눈물이 쏟아졌다. 저도 모르게 초막밖으로 달려나갔다. 눈이 먼 사람처럼 어둠속을 허우적거렸다. 하마트면 나루배를 비끄러맨 바줄에 걸려 모래불에 나딩굴번 하였다. 후더운 비줄기가 삽시에 온몸을 적시며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숲이 설레이며 쏴—아— 울부짖었다. 비에 젖고 눈물에 젖은 그의 얼굴을 세찬 비줄기가 거침없이 후려갈겼다. 그토록 진실한 사람을 아프게 허빈것이 뼈저린 아픔으로 심신을 옥죄이고있었다. 종우동무, 용서하세요. 제가 그만 동무를 아프게 허볐군요. 용서하세요!…

고종우는 보이지 않았다. 어데로 갔는지 알수가 없다. 은영은 물에 젖은 팔소매를 손바닥으로 훑으며 망연히 서있었다. 고종우가 쏟아놓은 심중의 고백이 그의 마음을 짓이겨놓았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얼마나 먼길을 우리는 같이 걸어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영은 그의 마음속에서 끓어번진 진실한 사랑과 말없는 헌신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었다. 언제, 어느때건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친절을 다해준 그를 알아주지 못하였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겨왔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 사나이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여있던 진정을 10년세월이 흘러간 오늘에야 알게 되였으니?!…

다시 걸음을 옮기자 신발속에서 비물이 쿨쩍거렸다. 목덜미로, 등뒤로 흘러내린 비물이 그리로 내물처럼 쓸어들고있었다.

별안간 또 걸음을 멈춘다. 모란봉극장앞의 외등밑에 서있는 고종우가 눈에 띄였던것이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다. 허리를 굽히더니 누군가를 꼭 끌어안았다.

《현순아, 이 밤중에 왜 나왔니. 응?》

《나 집에 혼자 있기 싫어.》

《그래도 비를 맞으며 나오다니. 좀더 기다리면 될걸 가지구… 이것 봐, 몽땅 젖었구나.》

《아저씨, 나 배고파. 우리 엄만 어데 갔나요?》

《저기 있다. 곧 여기로 온다.》

은영이 다가서자 크고작은 두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돌렸다. 비에 젖어 까시시해진 그들 두사람의 모습은 처량하였다. 따뜻한 인정과 보살핌을 모르고 사는 크고작은 두사람, 은영은 허둥지둥 달려가 물참봉이 된 어린 딸애를 힘껏 다그어안았다.

《현순아, 네가 이 엄마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가자, 배고프다지?… 어디 가까운 식당으로 가자.》

《그럼 아저씬?》 현순이 물었다. 《아저씨도 같이 가요, 예?》

고종우는 대답을 못했다. 불현듯 어린것의 정찬 목소리에 목이 꽉 멘것 같았다. 입으로 쓸어드는 비물을 삼키며 그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관자노리에까지 도랑을 매닥질해놓은 그의 얼굴은 사뭇 고통스러운듯 이지러지고있었다.

《아저씨!》 현순이가 매달렸다. 《아저씨도 배고프지요? 나랑 엄마랑 같이 가자요, 예?》

《아니, 난…》

고종우는 은영의 얼굴을 피끗 쳐다보고나서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은영이 딸애의 말대로 하자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후의 일은 모두 달리 되였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은영은 비에 젖은 몸을 부르르 떨고있을뿐 입을 열수가 없었다. 어린것의 청대로 그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한사코 거부하기도 했다. 자기의 내심에서 끓고있는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종잡을수 없었고 또 알고싶지도 않았다.

고종우가 몸을 돌렸다. 그의 어깨와 잔등에 세찬 비줄기가 뿌려지고 물보라가 뽀얗게 이는것이 외등빛에 드러났다. 그는 한걸음한걸음을 천근만근 무거운듯이 옮겨갔다.

《아저씨!》

현순이가 어머니품에서 빠져나가 그한테로 달려갔다. 재빨리 그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며 가냘픈 목소리로 울먹거렸다.

《아저씨, 우리랑 같이 가자요. 예?!… 난 아저씨랑 같이 있는게 제일 좋아요.》

어린이들은 가식을 모른다. 어린이들의 속삭임이야말로 자연의

언어처럼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다.
고종우는 비물에 흠씬 젖은 그 애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주고있었다. 그는 울고있는듯 했다. 사나이가 울고있는 모습을 아직 은영은 본적이 없다. 그것이 험한 상처에 소금물을 치는듯 그토록 마음을 쓰리게 할줄은 몰랐다. 두볼에서 번들거리는것은 비물인가, 눈물인가. 고종우의 눈가에서 초물처럼 진하게 흐르는것을 바라보며 은영은 불시로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마비된듯이 꼼짝하지 못하고있었다.

6

봄이 왔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끝나가던 그해의 봄은 류달리 따스했다. 그날 현순의 남편 로한식은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린 초청강의에 출연하고 늦게야 집에 들어왔다. 그는 집에 아무도 없는것을 보고 기분이 언짢았던것 같다.
이방저방 문을 벌컥벌컥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때까지 현순은 남편이 들어선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흔히 남자들은 언제든 집에서 안해가 반겨맞기를 바란다. 때맞춰 준비해놓은 고뿌와 안주까지 있으면 더욱 좋아한다. 하루일의 피곤이 바로 안해의 반겨맞는 미소와 간소하나 정성을 들인 접대로 말끔히 풀린다고 믿고있는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종일 직장일과 가정다반사로 들볶이는 안해의 수고같은것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반대로 어떤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 늦어지는 안해를 대신하여 제 속옷을 빨고 저녁까지 준비한다고 하면 멸시에 찬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것이다. 그렇게 버릇을 굳히면 가장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들은 놀라와한다.
물론 로한식은 그렇게 속통이 비좁고 마음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 어머니의 다심한 보살핌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어머니나 누이들이 못다 준 사랑을 대신하는, 모성애라고도 여겨지는 안해의 정찬 미소와 살뜰한 보살핌을 언제나 몸가까이 느끼기를 바랐다. 단 하루만 안해가 늦어져도 은근히 트집을

걸며 화를 내군 하였다. 비록 학계에서는 권위있는 박사 로한식이였지만 가정에 들어와서는 다 큰 아들들과 더불어 큰애기에 불과했던것이다.

이방저방 문이 여닫기고있을 때 현순은 가물거리는 초불아래에서 어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펴놓고있었다. 남편이 집에 들어선것도 모르고 연신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다대고있었다.

남편이 담벽의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켜졌다.

《당신 여기서 뭣하오?》

《예?》 현순은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서며 눈굽을 훔쳤다. 《아이, 오셨군요?!》

《오셨군요?… 그건 뭐 남편이 왔다는 소리요, 아니면 전기가 오셨다는 소리요?…》

《아이참, 성미두!…》

《초불이나 끄오.》

《참, 난 아직도 정전인가 했군요.》 현순은 초불을 불어 끄며 괜히 기분이 상해진 남편을 돌아보았다. 《이것 보세요. 당신은 아시지요, 이 사람이 누군지?…》

현순은 사진첩에서 한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로한식은 사진첩을 피끗 보고(실은 보는척 했을뿐이다.)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알게 뭐요.》

《아이참.》 현순은 웃었다. 《잘 보세요. 어머니가 5차축전때 찍은 사진들인데 이건 축전에서 1등을 한 독창장면의 사진, 이건 고 종우아저씨와 같이 로씨니의 가극 〈세빌랴의 리발사〉에 나오는 혼성2중창…》

그러나 로한식은 여전히 시쁘둥한 낯빛이였다.

《빨리 저녁이나 차리오!》

《예, 잠간이면 돼요.》

현순이 부엌으로 나갈 때에야 남편은 조금 누그러진 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어데 가셨소?》

《예, 야간전투에요!》

남편은 안해가 보던 사진첩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고있었다.

《늙으신 어머니가 야간전투는 또 뭐요?》

《로병예술선동대지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중요생산전투를 벌린다나봐요.》

《그렇다 해도 80고령에 다리까지 잘못 쓰는 어머니가 원!… 당신이 좀 말리구려!》

현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 대답할 말도 없었다.

사실 어머니는 예술을, 노래를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어머니더러 노래를 그만두라고 한다는것은 곧 생명의 문을 닫으라고 하는것과 같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현순이다. 예술은 인생을 깨끗이 정화시킨다고 어머니는 말하군 했다. 그가 누구든 일상생활에서 노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마음도 아름다와진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현순은 인기의 절정에서 소리없이, 자취없이 묻혀버린 어머니의 한생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방금 남편이 들어온것도 모르고 어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뒤적거리고있었다. 고진아라는 녀자가 나타난 때로부터 거의 매일 그 사진첩을 펴들고 어머니의 곡절많은 과거사를 더듬군 하였다.

식사를 차리자 로한식은 사진첩을 들고 나타났다.

《당신 어느 사진을 보면서 울었다구?》

뜻밖의 물음이였다.

《울다니요, 내가 언제?…》

《그러지 마오. 내가 모를줄 알구? 당신이 보고있은게 이 사진이지?》

남편은 가극 《금란의 달》의 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손끝으로 눌렀다. 그 사진에서 울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리키고있다. 가극에서 지하공작원역을 맡아한 고종우가 바로 어머니곁에서 뭐라고 노래하고있다.

《아니요.》 현순은 머리를 저었다. 《난 그저 어머니의 한생을 생각했어요. 불쌍한 어머니의 한생을…》

《또 그 소리요?》

《됐어요. 어서 식사나 하세요.》

로한식은 아무말없이 사진첩을 덮고 식사를 시작했다. 가끔 어처구니없이 트집도 잡고 큰소리도 치군 하지만 제때에 안해의 기분에 맞추어 입을 다물줄도 아는 현명한 남편이였다.

현순은 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턱을 고이고있었다. 식사가 끝날 때

까지 귀밑머리가 희슥해지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지켜보고있었다. 어느덧 남편도 로년기에 들어서고있다. 처음 만나 사랑의 서정시를 엮을 때만 하여도 늘씬한 키에 피아니스트처럼 손가락이 긴 애젊은 총각이였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학생으로서 글뒤주로 보일 정도로 늘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사람,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처녀들처럼 숫저워하던 그가 음악무용대학의 유명한 독설쟁이였던 림현순을 따라다닌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였다.

많은 동급생처녀들이 그만 나타나면 입을 모아 떠들군 했다.

《저것 봐, 저 학자님이 또 왔구나!》

《어쩌자구 저러니? 따벌같은 우리 현순동무한테서 아직도 침을 덜 맞은것 같구나, 얘!》

《현순동무, 당장 나가서 따끔하게 쏴줘. 덴겁을 하게!》

《아니야, 그럴 필요없어. 의젓한 미남잔데 뭐.》

현순은 처녀들의 떠들썩한 응원소리에 떠밀리듯 정문으로 나가군 했다. 그러나 창가에 가득 붙어 내다보는 처녀들의 예상과는 달리 따벌처럼 쏘지도 않았고 교만의 미소를 그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런 식으로 묻군 했다.

《동문 나에게서 무얼 바래요?》

《저…》 로한식은 손끝으로 귀밑을 긁군 하였다. 《뭐 바란다기보다… 그저 가까이 알고 지내고싶어서…》

《그담은요?》

《그담?… 뭐 어떻게 되겠지요.》

《그럼 또 하나 묻자요. 동문 날 어떻게 알았어요?》

《아, 거야 동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5.1절 경축야회때 같이 춤을 추고서두…》

《그게 다예요?》

《아니, 또 있습니다. 난 동무가 거의 매일 국립도서관에 다니는걸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용을 전문하는 동무가 많은 책들을 읽고있는 그것이…》

이런 청년을 따벌처럼 쏘며 모욕을 줄 리유는 없었다. 현순이

도 그가 마음에 들었다. 단정하고 소박한 품성, 진지하고 학구적인 태도, 겉으로는 녀자처럼 부끄럼을 타지만 속에서는 숯불같은 정의감이 이글거리는 청년, 그러한 로한식이였기에 어머니가 불행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더 가슴아파하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나섰던것이다.

현순은 남편이 수저를 놓을 때에야 생각에서 깨여났다.

《애들은 왜 늦어지오?》

로한식이 묻는 말이였다.

《늘쌍 그런걸요. 오늘도 학습당에서 참고서를 뒤지고있겠지요.》

《음…》 로한식은 현순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것을 손으로 막았다. 《베이징에서 만났던 고진아란 녀인한테 편지를 보냈소?》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건 왜? 그처럼 간절히 부탁하더라면서…》

《…》

현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는 그 녀자, 흘러간 세월의 만단사연을 알고싶어하는 그 녀자에게 간단하고도 명백하게 대답을 줄 방도가 없었으므로 마음이 걸려있었다.

《편지를 쓰오, 죄다 사실대로 말이요.》

《참, 당신두… 인젠 어머니보다 더 극성이군요. 밤낮 박수미, 고진아 하면서 말예요.》

그러자 로한식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해외동포영접국에 말해서 그가 조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 어떨가?》

《누구 말예요?》

《고진아 말이요.》

그야말로 가장다운 생각이다. 그보다 더 좋은 방도는 없을것 같다. 하지만 현순은 증을 내는척 했다.

《또 고진아소리예요? 난 그럴새가 없어요. 집안일이야 당신이 다 주관하는데 그 일도 맡아하시지요.》

《음―》 로한식은 사진첩을 들고 서재쪽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어쨌든 어머니와 토론해보구…》

현순은 문이 닫길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뒤모습을 보고

있었다. 언제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이 더없이 고마왔다. 그리고 80고령에 이른 오늘까지 애틋한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불쌍한 어머니를 끝까지 위해주는 남편이 고마와 눈굽이 저려드는 마음이였다.

7

전후 나라의 곳곳에서는 대오에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들, 다시말하여 간첩, 파괴암해분자들, 자수하지 않고 정체를 숨긴 《치안대》가담자, 악질적인 반동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렸다. 그리하여 가면을 쓰고있던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어둠속에 숨어있던 많은 반동분자들이 적발되였다. 그러나 이 투쟁과정에 일부 편협한 사람들과 불순분자들로 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오명을 쓰거나 몰리해로 고통을 겪는 일도 없지 않았다.

문화예술부문의 지도사업은 내각참사인 라윤천이 맡아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함에 걸려들었는데 그들중에는 고종우와 강상일, 은영이도 있었다. 그러나 라윤천은 서뿔리 은영이를 매장하려 하지 않았다. 나날이 명성을 떨치는 녀가수 김은영을 서서히, 소리없이 인기의 절정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은영은 비록 한 녀가수였지만 당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명배우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였으므로 조심하여야 했던것이다. 하여 출신과 경력에서 허물이 있는 고종우와 강상일 등을 먼저 조겨대여 죄상을 만들고 그러한 그물에 은영이도 걸려들게 하려고 했었다. 소문없이 목조르기를 하려는것이였다. 격한 성미인 강상일을 사소한 리유로 후려치는것 역시 주되는 목표인 김은영을 매장하기 위한 수단이였다. 라윤천이 얼마나 그를 증오하고 무섭게 이를 갈고있었는지 알았더라면 은영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소스라쳤을것이다.

그러나 은영은 알지 못했다.

그날 은영은 중국인민지원군을 환송하는 축하공연에서 《신강호》를 비롯한 중국노래들을 불러 만장의 환호를 받았다. 이번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은영동무가 멋들어진 춤가락을 배합하여 노래를 잘 불렀다고, 역시 자랑할만 한 명가수라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다.

인기의 절정은 곧 행복의 절정이였다. 터질것 같은 흥분에 겨워 은영은 한정애와 같이 수도의 밤거리를 걸어 새로 배정받은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다. 여느때 같으면 뻐스를 타고 총총히 갔으련만 오늘은 은영이도 한정애도 가벼운 걸음으로 새로 일떠선 아빠트들을 지나갔다. 뻐스를 타면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방에서 쑥덕거리는 소리와 뭇사람들의 선망어린 눈길이 집중되여 거북스럽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불길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훔쳐보다못해 시까스르는 사내들로 하여 고달프기도 한것이다.

《언니, 오늘은 걸어서 가자요.》

《그래.》

걷는것이 좋았다. 5.1절행사때의 명예위병들처럼 곧추 줄지어 늘어선 가로등밑을 걸으며 수령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춤추듯 걷는것이 한없이 즐거웠다.

한무리의 청년들이 맥주집에서 쏠어나오며 왁작거렸다. 장대재의 공원에서는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은영이가 직녀, 고종우가 옥황상제역을 맡고있는 가극 《견우직녀》에 나오는 직녀의 아리아였다.

날개옷 어디 갔나 탐내여 가져갔나
오늘로 올라가야 래일부터 베를 짜지
바람에 불려갔나 백학이 물어갔나
이 일을 어이하랴 옥황님 난 못 가요

은영은 부지중 그들의 노래를 속으로 따라불렀다. 《옥황님 난 못 가요》하는 대목에서는 집에서 기다릴 현순이를 생각하며 《옥황님, 나는 늦어요.》 하고 웃으며 속삭이였다.

《옥황님?》 한정애가 무엇때문인지 놀란 눈빛으로 그를 여겨보았다. 《언닌 방금 누군가 생각했지요?》

《누구라니?》

《이자 그러지 않았어요, 〈옥황님, 나는 늦어요.〉 라구…》

은영은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랬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현순이를 옥황님이라 불렀으니… 가극의 옥황님이야 고종우가 아닌가?…

한정애도 걸음을 멈추었다. 무엇인가 입을 열려다 말고 말끄러미 지켜보기만 했다. 한동안 은영은 후두둑 뛰는 심장의 박동에 허덕이고 있었다. 고종우를 생각하자 또다시 가슴노리를 에이는듯 한 아픔에 견디기 어려웠던것이다.

《언니.》 한정애가 속삭이였다. 《정말 모르겠어요. 언닌 왜 그를 그리도 몰라주어요? 오랜 세월 언니만을 생각해온 그 사람을…》

《?!…》

《그도 외롭구 언니도 그렇구… 오늘은 말 좀 해야겠어요. 언니, 언닌 다 모르지만 난… 오래전부터 알고있었어요. 무던하고 성실한 그 고종우오빠가 언니만을 생각해왔다는걸 말예요, 서울에서부터… 그런데도 언닌 노상 그를 괴롭히기만 하니…》

《?…》

《생각해보세요. 현순이는 또 그를 얼마나 따르나요. 그도 역시 친아버지처럼 현순이를 사랑하구. 그런데도 언닌 계속 눈을 감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예?!》

《그만해.》

《아니, 안예요!》 한정애는 거의나 울상이 되였다. 《언닌 자기 나이도 생각해봐야 했어요. 아픈 소리이긴 하지만 인젠 현순이도 10살이 썩 넘었어요!》

은영은 부지중 어깨를 옴츠렸다. 현순이는 11살, 자기도 어언 30고개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것을 생각했던것이다. 어야나! 어느새 벌써?… 세월의 무정함이 이렇듯 사무치게 느껴지기도 처음이였다.

어인 일인가 내 마음 내 몰라라
그 병사 가르치는 활 붙잡으면 부끄러워라

이것도 역시 은영이 주인공역을, 고종우가 지하공작원역을 맡고있는 가극 《금란의 달》에 나오는 달미의 아리아이다. 거의 매일이다싶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렇듯 가슴이 저려난 일은 아직 없었다.

내 손길 어이 떨리는고
내 마음 어이 설레는고
지심도 울리는 우뢰가 운들
고요한 내 마음 흔들리지 않은것을
비바람 사나웁게 불어세여도
잔잔한 내 마음 설레이지 않은것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음이 쓸쓸했으므로 주위세계가 온통 어둠에 잠긴것처럼 여겨졌다. 한정애가 그를 붙들었다.

《언니, 내가 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부지요? 사실 그러자구 한 말은 아니였어요. 난 그저…》

《알아, 나도 다 알아.》 하고 은영은 가냘픈 미소를 떠올리며 힘겹게 속삭이였다. 《내가 정애를 잘 아는것처럼 정애만큼 날 잘 아는 사람도 아마 없을거야. 고종우동무에 대해서도 그렇구. … 그러니 나도 좀 생각해보겠어.》

《정말이예요?》

《응.》

《언니!…》

불현듯 한정애의 눈가에 맺히는 한방울 눈물을 보자 은영은 웬일인지 마음이 떨리는것을 느꼈다.

《그럼 난 탁아소에 들렸다 가겠어요.》 한정애가 울음섞인 목소리로 급히 말했다. 《가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은영은 그가 달려가는 모습을 점도록 지켜보고있었다. 어느덧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 된 정애, 그런줄도 모르고있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것 같다.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던가!…

꽃신 한짝 남기고 사라진 그대
가신 곳이 어데뇨 은별방인가

한 어린애가 엄마손을 잡고 가며 노래하고있었다. 가극 《콩쥐팥

쥐》에서 나오는 노래였다.

홍모란이 붉게 타는 반월궁에서
그대 모습 사라지니 해가 저문듯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점들에서 내비치는 갖가지 현란한 불빛에 그 애의 얼굴은 홍모란마냥 붉었다. 저 어린것이 과연 노래의 뜻을 알기나 하고 부르는것일가?… 애어머니도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밝게 웃고있다. 오늘따라 모든 사람이 은영이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것만 같다.

은별은별 그대는 나의 희망 그대는 나의 행복
이 몸 혼자 남기고
어데로 어데로 사라졌나 은별이여

바로 그때 상점에서 나오던 애젊은 녀인이 은영이를 소리쳐불렀다.
《선생님!》
낯익은 녀자였다. 은영이와 이름도 비슷한 리연영, 전쟁전 서울에서 살 때부터 은영이의 열렬한 숭배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와 처음 만난것은 모스크바에서였다. 볼쇼이극장에서 은영이의 노래를 듣고 너무도 감동되여 스스로 통역을 맡아하고 공연일정을 빠짐없이 따라다니던 처녀, 그때엔 처녀였었는데 그새 머리모양이 달라져있다.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건강하셨어요?》
《아, 리연영! 언제 귀국했어요?》
《예, 지난해에요.》
모스크바국립아까데미야 의학과학원의 연구생인 연영이는 무용수처럼 날씬한 몸매에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누구나 예술인으로 보기 쉽다. 발랄한 성격을 지닌 연영이는 잰 말씨로 숨쉴틈도 없이 천리마운동이 고조에 이른 조국의 눈부신 변모와 은영의 공연을 본 감상에 대하여 노래처럼 시내물처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새 〈견우직녀〉와 〈금란의 달〉을 두번씩이나 봤어요. 아, 얼마나 기쁘던지… 글쎄 관중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김선생이 출연

하는 날만 골라서 구경을 간다질 않겠어요. 내 동생도 김선생의 노래를 듣기 위해 벌써 몇번씩이나 구경을 갔다나요. 학과토론회도 뚜꺼먹으면서 말이예요. 제2역을 맡은 배우가 들으면 섭섭해하겠지만 어쩌겠어요. 누구나 맘에 드는 노래를 듣기마련인걸요. 맘에 들지 않는 노래를 억지로 들을수야 없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야 벌써 예술이 아니라 처세술이라 해야지요. 아이참, 제가 뭘 안다구 명가수앞에서… 미안해요. 선생님, 정말 이렇게 만나리라군 생각 못했어요. 한번 집구경이라도 오세요. 우리 집은요… 저기 새로 지은 아빠트 5현관 3층인데요…》

《결혼했나부지?》

《예, 벌써 두달째 됐는데요 뭐.》

《그래?…》

《꼭 들리세요, 예?!》

《그러지.》

연영이와 헤여진 후엔 걸음을 빨리하였다. 지나온 장대재의 공원에서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도 차츰 멀어져갔다.

×

다음날 아침 극장으로 출근하던 은영은 급히 마주오는 고종우를 보았다. 무엇때문인지 은영이를 기다리다못해 서둘러 마주오는 것 같았다. 은영이만을 보면서 발을 걸채여 비틀거리기도 했다.

은영은 걸음을 멈추고 《웬일이세요?》 하고 물으려 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한데가 있었다. 어깨를 스치지 않으면 어길수 없을 지경으로 비좁은 골목길임에도 고종우는 은영이와 정면으로 마주치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것이였다. 어느덧 놀라서 굳어져버린 은영이를 지나 여전히 터벌터벌 걸어가고있었다.

《이보세요!》

가늘게 불러보았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은영은 급히 달려가 그를 멈춰세웠다.

《어찌된 일이예요, 지금 어데 가세요?》

《아, 은영동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어수선했다. 《지금 또

오라고 하는구만. 라무언지 하는 그 사람 말이요.》

《아침부터? 뭣때문에요?》

《글쎄… 뭐 또 같은 소리겠지. 왜놈들을 위해 남방전선에까지 나가 노래불렀다는게 사실인가, 누굴 고발했는가, 반동단체에 가담한 일은 없는가? 하면서…》

《도대체 뭣때문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예요, 예?》

《어쨌든 거기서 하는 소린데… 그들은 오늘 강상일동무를 어느 촌구석에 추방하겠다고 내놓고 떠들어댔소.》

《아니, 뭐 강투사까지?… 그가 어떤 동무이게 감히 그런단 말이예요. 우리 수령님께서 그가 감기를 앓는다고 자신의 외투목도리까지 풀어 목에 감아주신 동무가 아닌가요?!…》

《라가라는 작자가 왜 그렇게 악착한지 모르겠소.》

《그것도 라윤천이예요?》

《그렇소.》

고종우의 두볼이 실룩거렸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오. 아무리 그래봐야 안될걸!… 어쨌든 미안하오. 나때문에 은영동무가…》

《나때문에? 또 그 소리예요?》 은영이 부르짖었다. 《그게 어째 동무때문이겠어요?》

《미안하오.》

《?…》

숨막히는 불안이 가슴을 우벼냈지만 은영은 머리를 저었다. 언젠가 허정숙이 하던 말을 생각했다. 누가 뭐라든 수령님만을 믿고 살라고 하던 그 고무적인 말을…

《일없어요.》 은영은 수면부족으로 충혈진 그의 두눈을 보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누구도 우릴 모함하지 못해요. 우리 수령님께서 믿어주시지 않나요. 그거면 그만이지요. 그렇지요?》

《그래, 아 알겠소.》

그는 돌아섰다. 그러나 가지 못하고 바재이고있었다. 그는 마치 천근만근 무거워진 발을 떼지 못해 몸부림치는듯 하였다. 가로수의 우듬지에서 까치가 깍깍거리며 가느다란 가지를 꺾어 떨어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왜 그러세요?》 은영이 물었다.

그 한마디 물음이 그에게 용기를 되살려주었다. 몸을 홱 돌리더니 은영이를 쳐다보며 빙긋이 웃었다. 여느때처럼 말끔히 면도를 한 얼굴에 떠올린 웃음이였지만 웬일인지 애처롭게 보였다.

《은영동무, 난 오래 생각한 끝에》 그는 목에 가시가 걸린듯 미간을 찡기며 이상한 소리를 짜냈다. 《드디여 결심했소, 이제 더는 은영동무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자고 말이요.》

《아니, 그건?…》

《가만, 내 말을 마저 들어주시오. 사실 오래전부터… 아니, 지난해부터 어느 양복점 재단사를 하는 녀자 집에서 혼사말을 내군 했는데… 두루 생각하다가 동의해버렸소.》

《그러니 결혼을?…》

은영은 그가 대답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급기야 머리속으로 쓸어드는 공허에 귀가 멍해진듯 했다.

《난 사실…》 하고 고종우가 눈길을 돌리며 힘들게 말을 잇고있었다. 《더이상 기다릴수도 없었고…》

《아, 그거야 잘된 일이지요.》 은영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급히 말라드는 혀를 추기며 계속했다. 《축하해요. 벌써 그랬어야지요. 그럼요, 계속 외롭게 홀로 살수야 없지 않나요.》

고종우는 침통한 표정이였다.

《고맙소,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소. 사실 은영동무에게도 루가 미치지 않게 하자니… 달리는 할수 없었소.》

《?…》

은영은 비로소 그가 하는 말뜻을 깨달았다. 뭐 나를 위해서? 내게 루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목구멍에서 금시 고함소리가 터져나올것 같았다. 거칠게 숨결을 내뿜으며 눈앞의 애어린 가로수가지를 끄당겨 정신없이 잎사귀를 뜯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진 마세요.》 숨이 차올라 말을 잇기가 힘들었다. 《난… 그런걸 바란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직 한번도…》

《알고있소. 하지만 난…》

《그럼 됐어요. 부디 행복하기를 바래요.》

《은영동무!》

《한마디만 더하자요. 고종우동무, 사랑이란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지요. 보상도 아니구요. 사랑이란 필경 두 심장이 함께 울리는 2중창이라 할가요. 그러니 진심으로 그를, 언약을 나눈 그 녀자를 아무런 사심없이 아껴주고 위해주세요. 부탁해요!》

《…》

머리우에서 까치가 다시금 깍깍거렸다. 그것이 아침부터 부산을 떨어온것은 바로 이 뜻하지 않던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였던가?…

차도를 달리는 뻐스도 경적소리를 울렸다. 그러자 고종우가 또 뭐라고 했다. 은영은 줌안에 들어찬 나무잎사귀를 떨구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가보세요. 그네들이 야단치기 전에!》

고종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길을 떨구고 지친듯이 한숨을 내긋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공연에 늦지 않도록 빨리 돌아오세요.》

《…》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머리를 짓숙인채 허둥거리며 걷고있는 그의 모습이 오래도록 은영의 눈길을 아프게 끌었다.

그날 그는 극장에 돌아오지 못했다. …

은영은 밤새 궁싯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

다음날 강상일과 한정애가 은영이를 잡아끌었다.

《고종우한테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니요?》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갑시다, 우리 다같이 가서 그를 보증합시다!》

은영은 머리를 숙이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있었다. 고종우를 보증할수 있는것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를 도와야 했다. 고종우가 오랜 세월 자기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왔던것만큼 한몸바쳐 그를 지켜주어야 했다. 더우기 그는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다.

《아니, 나 혼자 가겠어요.》

동무들이 반대했지만 억지로 그들을 떼여놓고 정류소로 달려갔다.

라윤천은 문예총건물의 어느 한 방을 차지하고있었다. 누군가 들어

가 오래 지체하는것이 심각한 담화가 있는것 같았다. 한시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라윤천은 은영이가 들어서자 무척 놀라는 표정이였다.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서며 《은영동무가?!》하더니 문득 생각이 난듯 창가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고는 창가림을 당겨 빛을 막았다. 그것이 이상하였으나 은영은 그런 일에까지 머리를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정말 오래간만이구만.》 드디여 자기 자리로 돌아온 라윤천이 천연스레 말했다. 《그래 어떻게 오셨소? 아, 알만 해. 고종우때문이겠지?》

《예, 그래요.》

《그런 일에 은영동무가 나서다니. 그래선 안되겠는데… 하지만 고종우동문 극장에서 공연에 지장이 있다고 자꾸 우는소릴 해서 아까 보냈소.》

그러니 길이 어긋난 모양이였다. 한숨 나갔으나 내친김에 은영은 한숨을 내그으며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로 여태 그 사람을 붙들어놓고있었어요?》

《허-》 라윤천이 사무럽게 눈알을 굴렸다.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제쪽에서 오히려 큰소리군.》

《도적이라니요?》 은영은 차츰 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애써 자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말해보세요, 고종우동무가 뭐 죄인인가요?》

은영이 따지고들자 라윤천은 가까스로 분노를 참는듯 했다.

《동무가 뭐길래 감히 따지고드는거요, 응?…》

《난 그를 보증하러 왔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요. 상관하지 마시오. 그건 그렇구 고종우는 뭘 좀 쓰느라구 늦어졌소.》

그는 아직 자리를 권하지 않고있었다. 은영이 먼저 자리에 앉았다.

《참사동지, 다시말하지만 고종우동문 내가 잘 압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보증할수 있어요.》

《그건 안돼!》 그가 낮고도 매섭게 쏘아붙였다. 《우리 사업엔 엄격한 제도와 질서가 있단 말이요. 동무가 간참할 일이 아니야!》

《그래 죄상이 뭐예요?》 은영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잡도리였

다. 《고종우동무가 무슨 죄목으로 심문받고있는지 난 알아야겠어요. 그거야 말해줄수 있겠지요?》
《이 동무가?》
어느덧 라윤천의 얼굴근육이 움씰거리기 시작했다.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급히 주머니를 뒤져 담배와 성냥을 꺼내는데 그 손이 후들후들 떨리고있는것이 알렸다.
《매우 도전적이구만, 김은영동지.》 그의 목소리는 철판을 긁는듯 아츠러웠다. 《당에서 아껴준다구 해서 오만해졌거던. 동무! 알아두시오, 우린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지기 위해서 일하고있소. 고종우동무도 명가수인데 어지러운 과거를 깨끗이 씻어주어야 할게 아닌가!… 그가 하루밤을 설쳤다구 야단인데 우린 열흘밤, 스무밤을 새우며 일한단 말이요!》
《어지러운 과거란 어떤거예요? 그래서 참사동진 박수미란 녀자를 자꾸 꺼들어들이는가요?… 알아두세요, 우리들의 경력은 수령님께서도 다 알고계신다는걸 말예요.》
라윤천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퍼르데데한 그의 얼굴이 사납게 이지러졌다.
《수령님의 함자는 함부로 입에 올리는게 아니야! 내 지금껏 묻어두고있었는데 동무도 한때 미국놈들을 위해 노래한적이 있었지? 정신을 차리는게 좋아!》
《뭐예요?》
은영이도 일어섰다. 마주보는 눈길이 불꽃방전을 일으켰다. 매서운 눈빛과 증오와 멸시로 번뜩이는 눈빛… 책상우에 담배재들이 떨어져내렸다. 라윤천이 손에 들고있는 담배대를 연신 털어대고있는것이다. 두번째손가락으로 담배대를 재빨리 두드려대는 그 류다른 손놀림 그리고 또 있다. 은영은 별안간 목구멍을 졸라매는것 같았다. 라윤천의 그 손끝이 모지라진것을 띄여보았던것이다. 예리한 칼날로 손톱눈가장자리까지 뭉청 잘라버린것 같은 그 모지라진 손끝… 번개불처럼 머리속에 펀뜩이는 하나의 기억에 은영은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아!—》
봉천에서 떠난 기차에서 림호와 만나 서로 끄집고 야유하던 한경세

형사, 림호에게 《다시 만나지 않는게 좋아!》하고 으름장을 놓던 바로 그자였다. 중국 동북에서 왜놈들을 도와 조선사람들의 피로 두손을 물들인 악질형사가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있었던것이다.

《한경세?!…》

부지불식간에 새여나온 속삭임이였다. 모기소리보다도 약한 그 목소리에 라윤천은 몸서리쳤다.

《뭐?!》

서리발치는 도끼눈이 은영의 코앞으로 다가들었다. 은영은 금시 눈알을 빼간듯 허우적거렸다. 어떻게 걸상을 자빠뜨리며 어떻게 비틀거렸는지 알지 못했다. 라윤천이 다가들며 아귀센 손으로 틀어잡았을 때에는 버둥거리지도 못하였다. 그자가 손으로 목을 눌러 죽인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무서운 일격에 모든 감각이 마비된듯 하였다. 풀자루처럼 늘어지며 허우적거린다. 반항은커녕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였다.

그때 무슨 소리인가 났다. 어찌된 일인가?… 라윤천이 그를 일으켜 친절하게 걸상에 앉혀주고있었다.

《들어오시오.》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던것 같다. 잠시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 은영동무!》 오학성부총장의 목소리였다. 《공연준비는 하지 않고 여기 와서 뭘하고있…》

별안간 그는 말끝도 맺지 못하고 은영이 앉은 걸상에로 달려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엉?…》

《아, 너무 흥분한탓이요.》 어느새 본래의 랭혹한 침착성을 되찾은 라윤천 아니, 한경세가 하는 말이였다. 《제기된 문제가 심각하니만큼 사전에 흥분하지 말라고 일렀는데도… 참, 예술인들이란 그저 신경만 곤두서가지구…》

은영은 오학성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없겠소?》 오학성이 숨소리도 거칠게 물었다. 《아, 뭣때메 이런 일에 끼여들면서… 동무도 참!》

라윤천이 다가와 그를 밀치며 은영의 두눈을 근심스러운듯이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가늘게 좁혀뜬 그자의 두눈에서 랭혹한 서리발이 펀뜩이고있는것을 은영은 알아보았다. 또다시 으시시하게 몸을 떨지 않을수 없었다.

《안되겠소.》 그자가 어성을 높였다. 《병원에 전화를 걸테니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소, 당장!》

《아니, 일없어…》 은영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안깐힘을 쓰면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가야 해, 극장에…》

아무것도 모르는 오학성이 반갑게 소리쳤다.

《그럼 됐소. 갑시다, 공연시간이 다 됐는데…》

그는 라윤천에게 량해를 구하는것도 잊지 않았다.

《참사동지, 그럼 우린 가보겠습니다. 예,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처하겠습니다.》

더이상 막을 구실이 없게 된 라윤천은 오학성이 모르게 악문 이새로 씨벌거렸다.

《은영동무, 한가지만은 명심하시오. 내 이미 말했지만 우린 고종우동무랑 잘 돕자는거요, 허물이 가지 않게… 이자 동문 무슨 옛 친구 이름을 불러대는것 같던데 옛 친구는 도와주지 못해도 우린 끝까지 도울수 있소, 끝까지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 알고 가보시오.》

절친하게 부축해주는 그자의 손길이 옆구리에 닿자 은영은 면도날로 어이는듯 소스라쳤다. 한걸음한걸음을 마치 구름우로 걷는듯했다. 어떻게 방을 나섰고 계단을 밟고 내렸는지도 알지 못했다. 머리속에서는 13년전의 표독스럽던 한경세형사의 얼굴만이 언듯거릴뿐이였다. 비로소 그를 알아내였다. 그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줄곧 기억을 짜냈지만 알수 없었던 모든것이 확연해졌다. 무엇때문에 은영이를 두려워하고 오물을 씌우지 못해하였는지 이제야 알게되였다. 이전 박창호부수상의 생일연회때 그자가 노린것도 바로 그것이였다. 오물을 들씌워 공손하게 입을 다물고있게 하든가 아니면 소리없이 처치해버리려고 변함없이 기회를 노려왔을것이다.

밖에서는 삼복철의 따가운 해빛이 대기를 달구고있었다. 오학성이 타고온 차에 오르자 이번엔 또 한증칸에 몸을 잠근듯 입안이 말라들고 가슴이 타들어 견디기 어려웠다. 사무친 증오와 고통이 그를 사정없이 짓누르고있었다. 오학성이 뭐라고 화를 내며 끝없이 푸념을 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그날 밤 은영은 해당 부문에 신고를 하러 가던중 건설장을 지나다

가 별안간 달려든 한 사나이와 맞다들었다. 전지불이 얼굴에 비쳐지고 《네가 김은영이지?》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번개불이 번쩍하였다. 무서운 타격에 비명소리도 지를새없이 나딩굴자 사나이는 창끝같은 철골들이 삐죽삐죽 내밀린 기초구뎅이에 그를 처넣고 사라져버렸다. …

날개옷이 없구서야 하늘로 어이 가리
날 두고 가는 선녀 말이나 전해주
날개옷 잃은 이 몸 외로이 지낸다구
은하수 그리워 울면서 지낸다구
아

기중기의 불빛이 기초구뎅이우에서 언듯거리군 했다. 잠시 불빛이 한자리에 멎어서면 호각소리가 울리고 공중에서 흔들리던 기중기바가지에서 몰탈이 구뎅이에 쏟아져내렸다. 다시 불빛이 언듯거리며 지나가고 그다음은 운전공처녀가 부르는 노래소리만이 어둠을 파헤치며 날아왔다.

다감하고 목소리도 쟁쟁한 처녀였다. 밑에서 신호기를 흔들고있는 제대군인총각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듯 끝없이 노래를 이어가고있었다.

이 일을 어이하랴 옥황님 난 못 가요

호각소리가 째지게 울렸다. 신호기를 든 제대군인총각이 은영이 쓰러져있는 구뎅이우에 서있었다. 그런데 그는 구뎅이를 등지고 기중기만을 올려다보고있었다. 그 역시 유쾌하고 담찬 총각이였다. 싸움판에서 돌격구령을 웨칠 때처럼 목소리도 쩡쩡했다.

《왼쪽으로 좀더, 좀더!… 옥실동무, 잘 쏟아야 해!》

좌우로 언듯거리던 불빛이 허공에서 멎으며 흔들거렸다. 그리하여 피치 못할 그 순간이 왔다. 구뎅이속에 의식잃고 쓰러져있는 녀가수 김은영을 콩크리트속에 영영 묻어버릴 그 순간이…

제 8 장

노래는 어떻게 끝나는가

1

그것은 현순이가 12살나던 해의 어느 한 여름밤이였다. 지금처럼 곤히 잠들고있는데 사람들이 벅적 떠들어댔다. 오학성과 강상일, 고종우아저씨들이 울고있는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유한외삼촌과 현순이까지 두들겨깨웠다.

날도 밝기 전이였다. 뒤늦게야 현순은 지난밤 어머니가 중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다는것을 알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건설장의 기초구뎅이에 빠져 실신해있는것을 기중기운전공처녀가 몰탈바가지를 막 쏟아부으려던찰나 우연히 발견했다는것이다. 마침 날파람있는 제대군인총각이 곁에 있어서 어머니를 끌어내여 가까운 병원으로 업고갔다고 한다.

다들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다. 마침 수술실에서 담가에 실려나오는 어머니를 보았다. 목과 어깨에, 특히 한쪽다리에 붕대를 칭칭 돌려감은 어머니가 기신없이 누워있는것을 보자 현순은 기절할번 하였다. 수술실에서 뒤따라나온 의사가 욱 밀려드는 사람들을 바삐 가로막았다.

《아, 이러지 마십시오. 아무 일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기초구뎅이의 철골에 다리가 찔리워 피를 많이 흘렸는데 수술을 하고 수혈도 했으니 인차 의식을 차릴겁니다. 제발 떠들지 마시오!》

현순은 피가 내배고있는 붕대를 어루쓸며 어머니를 따라갔다. 겁에 질려 울지도 못하면서 《엄마, 엄마!》하고 목메여 부르기만 했다. 극장에서 온 아저씨들이 머리엔 상처가 없는가, 성대는 보존되는가 하는것부터 묻고있는것도 알지 못했다. 붕대를 물들인

새빨간 피가 어린 현순이의 가슴을 칼로 우벼내는듯 하였다. 사랑하는 딸이 손잡고있는것도 모르고 잠든듯 누워있는 어머니가 불쌍하여 견딜수 없었다.

줄곧 현순은 어머니의 침대에 붙어있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치지 않을수 없다. 하마트면 땅땅 굳어지는 기초콩크리트속에 영원히 묻혀버릴번 했던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지… 별안간 현순이 맞잡고있는 그 손에서 전류와도 같은것이 파동쳐왔다.

《엄마!》 현순이 겁에 질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엄마, 왜 그래. 응? 엄마!—》

사람들이 일시에 몸을 떨었다. 무서운 예감에 소스라치며 침대머리맡에 모여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눈을 떴다. 놀란듯 현순이를, 모여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가느다란 입김처럼 속삭이였다.

《현순아—》

《엄마!—》

불시로 목구멍을 가득 메우며 솟구치는 눈물에 현순은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가슴우에 쓰러지며 처음으로 왕왕 소리쳐 울었다.

지금도 울고있다. 잠자리에 누워 그때 일을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있다.

누군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것을 그때에야 알게 되였다. 밤중에 달려들어 전지불로 비쳐보고 강한 일격을 가한 사나이를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누구의 작간인가는 명백히 짐작하고있었다. 강상일이나 고종우아저씨들도 꼭같은 생각이였던것 같다. 그들은 의사, 간호원들의 성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사흘후 오학성부총장이 무슨 서류를 안고 어머니를 찾아왔다.

《은영동무, 여기 동무가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부문에서 회신이 왔소. 내가 읽을게 들어보시오.》

그것은 현순이 알지 못하는 라윤천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정이였는데 지금까지 현순은 그 내용을 거의나 말짱 기억하고있다.

…라윤천동무는 강원도 고산군의 빈농출신으로서 소년시절부터 품팔이군으로 일하였다. 그후 부두에서 짐군으로 일했고 원산부두로동자

들의 총파업에 앞장서 참가했으며 6년간의 감옥생활경력도 가지고있다. 혁명적원칙성이 강하고 전개력이 있는 좋은 일군으로 알려져있다. 한고향사람들과 감옥시절의 동료들이 그를 보증하였다. 신원확인문건에는 보증자들의 이름과 현 직장직위는 물론 지장들이 있음. …

이런 내용의 서류를 읽고나서 오학성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신원확인문건들은 나도 보았소. 은영동무, 사람을 헛갈린것 갈소. 손끝이 잘리고 모지라졌다든가 담배재를 터는 습관이 어떻다든가 하는것만으로는 누굴 확인할수 없지 않소. 부탁하는데 너무 외곬으로만 생각하지 마오. 타격을 받은 후과로 신경과민이 되여 그럴수도 있다고 보지만 자칫하다가는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단 말이요. 이 신원확인내용을 동무가 퇴원한 후에 알려줄수도 있었지만 속을 태우며 기다릴것 같아서 제창 찾아왔소. 그리 알고 병치료나 잘하시오.》
그때 어머니는 경련이 이는듯 두볼을 실룩이고있었다. 타는듯 한 눈빛으로 이윽토록 부총장을 마주보더니 아예 눈을 감고말았다.
《무서운 일이구나!…》
눈을 감고 모지름을 쓰며 한 말이였다.
오학성이란 사람이 또 뭐라고 길게 말했으나 아무 대답없이 돌아누워버렸다. 그때 어머니는 라윤천이라는자의 뒤에 힘있는 비호자들이 있다는것을 통감하고 치미는 분노와 고통에 모지름쓰고있었을것이다.
돌아갈 때가 되여 부총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어머니도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러나 잘 가라는 인사말이 아니라 마음속 아픔과 련민이 슴배여나오는 목소리로 이렇게 절절하게 말했다.
《오동지, 부탁하는데 제발 눈을 뜨세요. 그러지 않다간 구렁텅이에 빠져 헤여나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오학성의 구붓한 눈섭이 벌레처럼 꿈틀거렸다. 《누굴 위협하는거요?》
어머니는 잠시 눈길을 떨구었다가 결연히 그를 마주보았다. 아련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그처럼 변모되는것을 현순은 그때 처음 보았다.
《그럼 말하지요, 생각하는대로 다!…》 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고있었다. 《우린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인데 뭘 숨박곡질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동문 눈이 멀어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믿지 않기때문이지요. 그러니 가까운 동무도 하나 없구… 물론 동문 언제나 자기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니예요, 동무야말로 모든 일에 해가 되는 사람이예요. 그래요, 해를 주고있어요. 언제보나 사람들을 홍달구고 불안하게 하고 가슴을 허비고… 가만 계셔요. 마저 들어주세요. 동무한텐 인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실이 아닌가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지요. 오직 출세만을 생각하면서…》

오학성은 비칠거렸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으로 꽃병이 놓인 원탁모서리를 박박 긁어대였다. 창백해진 두볼과 귀방울이 떨고 원탁우의 꽃병도 부르르 떨었다.

《동무가》하고 마침내 그는 악문 이새로 내뱉았다. 《환자만 아니라면… 가만두지 않았을거요.》

《알아두세요.》 어머니는 오히려 더 침착해진듯 했다. 《환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동무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학대병환자!…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세요. 눈을 뜨세요!》

오학성은, 어린 현순의 눈으로 보기에도 지팡막대기같이 꼿꼿하고 메마른 그 사람은 눈의 흰자위를 번뜩일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끝내는 숨결도 가쁘게 헐떡이더니 급기야 반쯤 열려진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어머니가 그를 다시 만난것은 그로부터 6년세월이 흘러간 뒤 순회공연을 다니던 어느 산간역에서였다고 한다. 라윤천(한경세)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와 결탁한자들이 오라를 지고 끌려간 다음 그 역시 어느 산간역의 선로반원으로 내려갔던것이다.

누빈 솜옷을 입고 괭이를 메고 가던 사람이 어머니의 소편대일행과 마주치자 별안간 얼어붙고말았다. 어깨우에 메고있던 괭이가 떨어져내린것은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누구도 그가 전날의 엄격하던 부총장이라는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은영동무!》하고 목쉰소리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앞을 지나쳐버렸으리라고 한다.

어머니가 먼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여겨보았다. 어마지두 놀라며 《아니, 이게 누구세요?》하고 부르짖었다. 그처럼 그는 몰라보게 변해있었다. 전날 사람들과 인생을 지휘하자고 하던 사람이 코물이 흐르는 수염을 손바닥으로 훔치며 어벙벙해서 마주보고있었던것이다.

그날 어머니일행은 그를 끌고 역전식당에 들어가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술잔을 기울이고있는 오학성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찔끔거리고 비틀린 입에서는 줄곧 가슴아픈 추억과 분개의 넉두리가 도랑물처럼 쏟아져나왔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를 회상할 때마다 재능이 없는 예술가, 예술가 아닌 예술가의 허울을 쓴 사람들이 가끔 예술계에 발을 들여놓고 재능있는 사람들을 질시하고 짓밟으며 권력을 배경으로 출세의 길만을 모색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데 대하여 쓸쓸하게 말하군 했다.

《오학성이란 그 사람도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던거야. 아니, 너무도 자기를 몰랐다고 할가.… 차라리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더라면 어떠했을지… 바다에선, 배사람들속에선 그런 막대기같은 초당분자들이 견뎌배기지 못할테니까.》

이렇게 어머니는 언제든 바다를 희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여겼다. 한생토록 어머니는 바다를 사랑하였다. 바로 현순이 자기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하여 어머니는 넓고넓은 바다, 지칠줄 모르며 설레이는 바다의 거센 풍랑과 그 장려한 음악을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소편대가 오호쯔크해에까지 이르는 먼바다어로선단에 찾아갈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선참으로 나서군 했었다.

어머니가 수도의 극장무대를 내려 전국각지의 공장과 농어촌, 탄광과 광산, 림산마을들을 순회하는 소편대에 돌려진것은 라윤천의 정체가 적발되기 이전에 있은 일이였다. 국립교향악단의 독창가수로서 고종우와 새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오명운, 손기원 그리고 이름난 바이올리니스트 백호산 등이 편대를 무어 아직 텔레비죤도 도입되지 않았고 예술선전대활동도 시작되기 이전의 전국각지를 돌고 또 돌았다. 봄철에 공연을 떠나면 겨울이 되여서야 돌아오는 일이 뜨문하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인차 자기의 무대로 돌아갔지만 어머니만은 여전히 순회공연편대를 지켰다. 끊임없이 기차로, 자동차로, 어선을 타고 조국의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현순은 어릴 때부터 대학을 나올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밤이 거의나 없었다. 마침내 라윤천의 정체가 밝혀졌지만 이미 어머니는 자기의 화려한 전성기를 벗어나고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다친 다리의 상처가 자주 도져 더는 나비같은 모습으로 무대에 나서기도 어려웠다.

어머니는 자기의 동료들은 물론 어제날의 제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도 순회공연길에서 듣는 때가 많

았다고 한다.

지금도 현순은 한정애가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던 그날에 있은 일을 잊을수 없다. 그무렵 나이 50을 퍼그나 넘긴 어머니는 마침내 무대를 내려 성악강사로 돌아앉았다. 가수로서의 쟁쟁한 시절은 추억으로만 남고 귀밑머리 희슥해진지도 오랬다. 건강도 좋지 못했다.

그날 현순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한정애에게 인민배우칭호가 수여된 소식을 알게 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현순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다. 자연히 어머니의 한생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소식을 어떻게 대할가 하는 생각에 걸음이 떠지고있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자기의 제자가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은데 대하여 기뻐하는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두고 괴로와할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다.

불쌍한 어머니, 어머니는 영광의 절정에서 갑자기 소리없이 사라져버렸다. 일생 애틋한 사랑도 모르고 오로지 예술만을 추구해왔지만 그 모든 피나는 노력도 허사로 되고말았다. 남은것은 무엇인가? 이 딸자식을 제외한다면 진정 무엇이 남았단 말인가?… 불쌍한 어머니, 련민의 정없이는 차마 마주볼수 없는 어머니였다. 하기에 현순은 한정애의 소식을 어머니가 몰랐으면 하고 바랐다. 다시는 어머니의 가슴이 아픔에 찢기지 않기를 바랐다.

현순은 집으로 걸어서 갔다. 걷고걸으며 불행한 어머니를 두고 가슴을 졸이였다.

별안간 눈앞에서 멎은 뻐스를 보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뻐스에서 춤추듯 뛰여내리는 한정애의 모습에 명치끝이 쿡 쑤시는것을 느꼈다. 왜 여기서 내리는걸가. 혹시 우리 집으로, 어머니를 찾아서 오는것이 아닐가?…

한정애도 현순이를 알아보았다. 반갑게 달려오며 손을 내젓는것이였다.

《현순이! 마침 만났구만. 어머니 집에 계실테지?》

《예.》 현순은 떠듬거렸다. 《아마… 있을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한정애는, 자기의 기쁨에 취한 녀가수는 깔깔 웃었다.

《모란봉예술단에 전활 걸었댔어. 오늘은 토요일이여서 제시간에 퇴근했다고 하더구만.》

《예, 그래요?》

하는수없이 현순은 그가 팔을 끼고 잡아끄는대로 움직이지 않을수 없

었다. 숨쉬기가 편치 않았다. 그를 축하해주어야 한다는것도 잊고있었다.
《오늘 말이지 현순이 어머니를 만나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니를 만나 인사를 해야 할 일이.》
《예— 알고있어요.》
《현순이도 알고있어?》
《그럼요. 축하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정애는 여전히 현순이를 끼고 예술인아빠트로 꺾어들었다. 걸음도 빨랐다. 세찬 격동에 쿵쿵 뛰는 심장의 박동도 격렬했다. 그것이 현순이를 더더욱 참을수 없게 했다. 어느덧 현관앞에까지 이르렀다.
《저…》 현순이 먼저 걸음을 멈추었다. 《미안하지만 오늘 어머니는 몹시 건강이 나쁘신데…》
《어머니가? 김선생이 앓는다고?…》
《아니, 그런게 아니라…》 현순은 입술을 깨물고나서 힘겹게 말을 이었다. 《부탁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어머닐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제발 오늘만이라도 그냥 돌아가주세요.》
《?!…》
비로소 한정애는 현순이의 괴로와하는 표정에서 모든것을 다 읽은듯 했다. 머리를 세게 흔들고 한발자국 물러서기까지 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마침내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난 김선생이… 제자들이 잘되면 제일로 기뻐하는것만 보았더랬는데… 그래서 더더욱 존경해왔기에 아무 생각없이 달려왔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도 녀성이예요. 눈물도 있고 마음도 여린 녀성이란 말이예요. 이 딸이 그걸 모르겠어요? 물론 한선생을 만나면 기뻐서 부둥켜안고… 무슨 축하의 말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러는 어머니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는지 생각해보셨어요? 아무런 명예칭호도 없이 인제는 무대에서까지 밀려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생각해보셨는가 말이예요. 어머니의 마음속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딸로서,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눈물을 너무도 잘 아는 나로서는 이렇게 부탁하는수밖에 없어요. 한선생님, 돌아가주세요. 어머니가 스스로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줄 때까지,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지요?!》

《알겠어.》 한정애가 이상해진 목소리로 속삭이였다. 《그렇게 하지. 알겠어.》

현순은 그가 돌아가는것을 보지 않았다. 발자국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자리에 얼어붙은듯 서있었다. 현관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리는것도,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것도 알지 못했다. 옆집의 쌍까풀눈을 가진 소녀가 엄마손에 끌려가며 《어디 아프나요?》하고 물었을 때에야 펀뜻 눈길을 들며 가까스로 미소를 지어보였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급히 나왔다.

《난 또 정애가 오나 했구나.》

《?!…》

현순의 놀라는 표정에 어머니는 소리없이 웃었다.

《넌 소식을 못 들었니? 정애가 인민배우칭호를 받았구나. 정말 기특하지. 이악쟁이 그 애가 인젠 큰사람이 되였거던!》

현순은 까딱하지 않고 어머니를 지켜보고있었다.

《너 왜 그러니?》

《어머니.》 현순은 젖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렇게 기쁘세요?》

《그건 무슨 소리냐?…》

《어머니, 난 그를 돌려보냈어요. 이자 방금 저아래에서…》

《뭐?…》

《그럴수밖에 없었어요. 난 그가…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할가봐 할수없이… 말해줬어요, 제발 돌아가달라구요.》

《어쩌믄, 네가 어쩌믄?!…》

어머니는 비틀거렸다. 가슴을 움켜쥐며 벽쪽으로 돌아서는데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손을 내젓고있었다.

《어머니!》

현순이가 붙들자 어머니는 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그 눈빛이 싸늘했다. 마치 전혀 낯모를 녀자를 바라보듯이 보고있었다. 차고 공허한 그 눈빛에 현순은 가슴이 조여드는것을 느꼈다.

《엄마, 왜 그래요. 예? 내가 어쨌다구… 엄마를 생각해서 그랬는데…》

《뭐, 엄마를 생각해서?》

어머니의 손이 번쩍했다. 분노에 질려 철썩! 딸의 뺨을 후려쳤다. 순간 현순은 난생처음 겪는 일에 고드름처럼 얼어붙고말았다.

《엄마?!…》

《넌 이 에미를 모욕하구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맑고 부드럽지 않았다. 아니, 싸늘하였다. 《넌 나를 모욕하구있어. 네가 이렇게까지 유치하구 졸렬한줄 미처 몰랐구나. 늘 이 에미를 불쌍한 녀자라고 생각하는줄은 짐작했다만 그렇게까지 가엾게 보는줄은 몰랐어, 버림받은 녀자처럼 보는줄은!…》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이 에민 불쌍한 녀자가 아니야. 버림받은 녀자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잘못 생각하구있어.》

비로소 현순은 자기를 되찾았다. 인제는 말할 때가 온것 같았다. 몸부림쳐 울며 소리쳐 말하고싶었다.

《그럼 어머니의 눈물은 뭐나요. 이 딸이 어머니가 남몰래 울고있는것도 모르는줄 아세요? 그걸 볼 때마다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아세요? 그럼 말해보세요, 어머니. 말이 난김에 속시원히 말해주어요. 어머닌 자기 처지때문에 괴로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소리없이 울고있지 않았나요? 왜 그걸 숨기려 하세요. 친딸에게까지 숨겨야 할 리유가 뭐나 말예요, 예?!…》

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꺾었다. 그렇듯 쇠약해진 어머니를 현순은 지금까지 본 일이 없었다. 장판바닥에 쪼그리고 앉더니 어머니는 손으로 눈굽을 문질렀다.

《왜 눈물이 없겠니? 있다, 눈물도 있구 아픔도 있구… 그렇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때문만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가련하구 불쌍한 에미가 아니야. 너도 그걸 알 때가 있다. 다만… 너한테 하고싶은 말은 이 에미에게도 긍지가 있구 자랑이 있다는거다. 난 지난 과거를 불행한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행복이 더 많았어. 너의 눈에는 이 에미가 한평생 사랑도 모르고 살아온 불쌍하기 그지없는 녀자로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걸 알 때가 온다. 더 큰 사랑을 나는 알고있다. 이 세상 제일 큰 사랑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눈물로 속삭인 노래와도 같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있은 일을 상기할 때마다 현순은 가슴이 저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은 그저 아픔만이 아니였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현순이를 딸로서만 아니라 한 녀성으로 대하고 같은 녀성으로서 마음속 진정을 터놓았던것이다. 어머니의 그 말속엔 많은 의미

가 들어있었고 아직도 현순이 다 알지 못하는 사연이 들어있었다. …
이렇게 현순은 눈을 감고, 눈물을 머금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따르릉거리는 자명종소리가 그를 눈뜨게 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데 습관된 남편 로한식이 소리치고있다.
《이건 뭐요, 7시가 지났는데!》
현순은 재빨리 눈굽을 닦고 웃어보였다.
《오늘이야 일요일 안예요.》
《일요일이 뭐요. 난 오늘 인민대학습당에 나가 초청강의에 출연해야 한단 말이요.》
《일없어요, 박사선생님. 인민대학습당은 9시가 되여야 문을 연답니다.》
《그래도 미리 강의준비를 해놔야 할게 아니요!》
《준비하세요. 그러느라면 아침식사가 다 되니까요.》
그때 맞은편 방문이 열리며 아들 혁철이 볼부은 소리를 내질렀다.
《난 오늘 학부별 롱구경기에 나가야 해요!》
《그래서?》
《야— 어머니, 그래서라니요?… 뭘 좀 특별히 싸가지구 나가야 할게 아니예요!》
이번에도 현순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니 혁철이가 롱구에서 지구 이기구 하는게 어머니한테 달렸구나!》
남편도 덩달아 소리쳤다.
《나도 롱질할새가 없소! 정말 바쁘단 말이요!》
《아이참!》
하는수없이 따스한 이불속에서 기지개도 켤새가 없이 기여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이하랴. 사실 직장일과 가정일에 부대끼는 녀성들은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맘편히 바쁘게 돌아치지 않고 잠자리에서 궁싯거리며 늦잠는것이 하나의 락이기도 하건만 이 집 식구들은 그런것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다.
서둘러야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실 제일 바쁜 사람은 어머니였다. 일요일이건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들을 위한 로병예술선동대공연이 계획되여있었던것이다. 서둘러 차비하는 어머니를 보고 현순이가 물어서야 그는 말했다.
《발전소로동자들은 일요일도 없이 전투를 벌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나가 고무해주기로 했다.》

남편은 혀를 찼지만 현순이는 어머니를 도와 차비해주고 궤도정류소까지 모셔가기로 했다. 인제는 어머니가 지팽이 없이는 제대로 걷기 힘들어하기때문이였다.

그들은 팔을 끼고 다정히 걸었다. 태양이 솟아올라 따스한 볕으로 고층건물들이 들어찬 거리를 비치고있었다.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가지들마다 밤색의 싹들이 봉긋봉긋 부풀었고 꽃밭들에는 비닐을 씌운 꽃들이 이슬에 젖어있었다. 태양절 4월 15일에 활짝 피여날 꽃나무들이였다.

얼마간 말없이 걷다가 문득 생각난듯이 현순이 말했다.

《어머니, 이번 4월의 봄축전에 고진아란 녀자도 온다는 말이 있어요.》

《뭐?…》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니?》

《아직 확실한건 아니예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어요.》

《그래?… 오면 얼마나 반가울가!》

《?!…》

현순은 다시 어머니의 팔을 끼며 걸음을 옮겼다. 정말 그렇게 반가울가. 어머닌 무엇때문에 그처럼 고진아란 녀성의 일로 마음쓰는것일가?… 그것을 알고싶었다. 박수미라는 녀자는 어머니를 무섭게 증오하고 저주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난 그 애가》하고 어머니가 말하였다. 《제 어머니 박수미처럼 될가봐 그게 걱정이구나, 불쌍한 수미처럼.》

《어머니, 박수미란 녀자야 일생 어머니를 괴롭혀오지 않았어요. 그런 녀자인데도 불쌍하다니…》

《아니, 불쌍해. 예술이 몸에 배여있은 녀자인데… 불행하겐 됐어. 한때 자기가 택한 길에서 탈선되지만 않았어두 참!…》

그리하여 그들은 또다시 수미를 화제에 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

은영이 수미에 대한 소식을 들은것은 1970년대초의 어느날이였다. 순회공연도중 영화촬영을 위해 백무고원에 나와있던 박진을 만났다. 은영은 성악계에서, 박진은 영화계에서 활동하고있었으므로 그들은 자주 만날 기회가 얼마 없었다.

반가운 상봉끝에 문득 생각난듯이 박진은 말하였다.

《참 내가 듣건대 은영동무랑 고종우동무가 박수미라는 녀자때문에

의심을 받았다는데 사실이요?》
그에게서 수미의 이름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므로 은영은 잠시 대답을 못하고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내 수미에 대해 쓴 글을 보았소.》 박진이 하는 말이였다.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더구만.》
《수미에 대한 글을요?》
《아, 그건 외국출장길에서 출판물들을 두루 훑어보댔는데 아 글쎄 〈녀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수미의 운명을 취급한 글이 나있는게 아니겠소.》
《그래서요, 그래 수미가 어떻게 됐어요?》
《수미가 흥행단을 따라다니던 시절부터 나있더구만. 막간가수로부터 이후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리철사장의 〈오케〉레코드사에서 있었던 련애담이며 해방후 김해송이나 리란영과 같이 우익예술단체에 속했다가 좌익으로 넘어간 얘기랑 또 북행길에서 도망치던 일도 자세히 썼더라니까!… 고종우동무나 은영동무, 강상일의 이름도 나오구. 하― 글쎄 내 이름도 몇군데 있더구만. 이 박진이 백영준동무와 같이 박수미를 강제로 끌어가려구 했다나.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그 필자가 아주 그럴듯하게 꾸몄더라니까!》
그후 수미는 적들의 리용물이 되여 전쟁시기 북으로 들어간 동료배우들을 목표로 대북방송에 열을 올렸었다. 그것은 이미 은영이도 알고있고 그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도 입었던것이다. 격한 성격인 강상일도 가슴아픈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문제는 박수미가 그처럼 앙앙불락했어도 평생 바라던 사랑과 예술의 성공은 차례지지 않았다는 그것이였다. 북행길에서 남으로 도주한 후 영화감독 조용수와 결혼했으나 곧 그의 버림을 받았다. 후에는 남편 조용수의 조카인 젊은 영화배우 리민우와 치정관계를 계속하며 세태영화들에도 많이 출연했지만 탕녀적인 생활과 아편중독으로 몸을 망치게 되자 1968년 어느날 비관끝에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살했던것이다.
다음날 신문에는 《왕년의 다재다능한 인기배우 박수미(52)씨가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26자택에서 오랜 신병끝에 신경쇠약으로 사망》라고 발표했으나 책의 필자는 이웃사람들과의 담화를 통해 그녀의 머리맡에 양재물이 담긴 병과 아편주사암풀이 딩굴고있었던것으로 미루어 자살로 확인할수 있었노라고 썼다.

그 몇해전엔 《목포의 눈물》로 일약 인기가수로 등장하여 파란많은 예술계를 풍미하던 리란영이 꼭같은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리란영의 전철을 밟은 박수미,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것은 무엇이였을가. 눈물의 회한이였을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희망의 길을 버리고 도주한 자신에 대한 비탄과 저주였을가?…

은영은 가늘게 한숨을 내그으며 말하였다.

《그가 뭣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악담을 퍼부었는지 알게 되는것 같군요. 그는 자기처럼 우리도 비참해졌으면 하고 바랐던거예요. 무서운 시기심과 절망에 빠진 녀자의 마지막몸부림이였지요.》

박진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두 제도, 두 인생!… 얼마나 대조적이요!》

박진은 그이상 더 말을 잇지 않았다.

…

현순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궤도전차정류소엔 일요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았다. 만경대유희장으로 가는 학생들까지 줄을 지어 서있었다.

《어머니.》 현순이 나직이 물었다. 《이제 고진아란 녀자가 오면 어머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다니?》 어머니는 놀라와했다. 《친딸처럼 맞아주지.》

《그렇지만 그 녀자가 저 고종우아저씨의…》

현순이는 그 녀자가 고종우의 친딸이라는 증거는 없지 않는가고 말하려 했었다. 그러나 어쩐지 거북스러워 입을 다물고말았다. 마침 어머니가 현순이 못다한 말뜻을 알아차린듯 조용히 미소를 그렸다.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우리 장군님께서 북과 남,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아주시는데!… 생각해보렴. 사사로운 감정을 끼워서야 어떻게 가슴을 헤쳐놓구 큰일을 론하겠니. 우리 장군님께선 한때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 늦게나마 나라와 겨레를 위한 길에 돌아선다면 허물없이 안아주시는데 그 크나큰 뜻을 잊지 말아야지.》

《참!》 현순은 경탄이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언제 보나 어머닌 꼭 천사같애요.》

《원, 무슨 소릴…》

《정말이야, 엄마!》

《넌 언제 보나 애기같구나!》

모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것도 꺼리지 않고 소리높이 웃어대였다. 때마침 앞에 와 멎어선 궤도전차의 문짝들이 활짝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내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또 련이어 오르기 시작했다. 현순이는 한순간 결심하고 어머니와 같이 전차에 올랐다. 오늘은 어머니와 전투현장까지 함께 가려는것이였다.

2

노래에는 끝이 없다.

…

그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전투현장에서 있은 로병들의 시와 노래는 로동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사람들은 80고령의 김은영이 그처럼 밝게 그리고 아름답게 노래하는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공장직맹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소개말을 하였다.

《동무들은 아마 다 모를것입니다. 이분은 전쟁때 서울에서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에 입대하여 싸우는 전선과 후방을 다니며 전투적인 노래로 병사들과 인민들을 고무하여준 로병가수일뿐아니라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나라들에서 우리 인민의 기상을 노래로 떨친 명가수입니다. 혹시 나이많은분들은 아실수 있는데 전후 가극들인 〈콩쥐팥쥐〉와 〈견우직녀〉, 〈금란의 달〉과 같은 작품들에서 주인공역을 맡아하면서 그때엔 소문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비록 80고령에 이르렀지만 우리 발전소로동계급을 위해 불편한 몸도 무릅쓰고 찾아와 노래를 불러주고있습니다. 동무들이 바란다면 열번, 스무번이라도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합니다.》

직맹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우뢰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이많은 로동자들 두셋이 나와서 이제야 생각난다고, 한창나이때 극장에서 많이 본 명가수가 옳다고 감동에 겨워 말하였다. 기중기운전공처녀가 빨간 꽃송이를 들고 내려온것은 그때였다.

《할머니! 아니, 저…》 처녀는 은영이를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지 몰라 얼굴을 붉혔다. 《꽃다발이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건 기중기운전실

에서 키운 꽃인데 어제 피여났어요. 아직 채 피진 못했지만 받으십시오.》
은영은 불시로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네가 바로 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송이가 내게 정겨운 미소를 보내주고있구나!… 하지만 말은 달리하였다.
《고마워요.》 갓 망울을 터친 빨간 꽃송이를 받아안고 은영은 그 향기를 맡고있었다. 《처녀의 그 마음이 내겐 더 큰 표창이지. 정말 고마워요.》
은영의 그 말도 요란한 박수속에 묻혀버렸다.
여섯번이나 재청을 받았다. 그래도 요란한 박수와 재청을 요구하는 웨침은 그치지 않았다. 직맹위원장이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어 제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은영은 너무 시간을 끌어 교대준비에 지장을 주는것이라고, 그때문에 직맹위원장이 재청을 막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은영이를 기다리고있었다. 현순이가 달려오더니 그의 귀전에 급히 속삭이는것이였다.
《어머니, 당중앙위원회에서 어머니를 찾는다고 해요.》
은영은 여전히 미소를 그린채로 머리를 저었다.
《무슨 소릴! 잘못 들었겠지.》
《안예요. 어머니! 아까부터 한 일군이 와서 기다리고있는걸요, 노래가 끝나지 않아서…》
그때 가까이 오는 한 일군의 모습이 눈에 띄였다. 무던히도 낯익은 모습이였다. 어마나, 차동무가?!… 그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차동무였다. 제3차, 5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때만 해도 애리애리한 총각이였었다. 그가 당에서 일하기 시작해서부터 만나본지 오랜 옛지기이다.
《김은영동무.》 그가 웃으며 두손을 맞잡았다.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전투현장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군요.》
그는 은영이 반가운 인사말도 꺼낼새없이 서둘러 귀띔했다.
《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가면서 말합시다.》
로병예술선동대는 마감종목인 시와 합창 《높이 들자 붉은기》를 시작하고있었다.
은영은 현순이의 부축을 받으며 차부부장을 따라갔다. 직장철문을 나서니 분홍꽃아카시아나무밑에 승용차가 대기하고있었다.

×

은영은 현순이와 같이 부부장을 따라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들어섰다. 비서가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은영동무, 반갑습니다. 지금 기다리고있던중입니다.》

《?…》

비서는 웃음을 담고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은영은 무엇때문에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자기를 찾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아 숨소리도 없이 밝게 웃는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은영동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은영동무를 회고하시며 뜻깊은 은정의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예?…》

꿈을 꾸는듯 했다. 한순간 눈부신 해빛이 눈을 때려 아무것도 분간할수 없었다. 벅찬 충격에 오무라든 입술사이로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옆에 붙어서있던 현순이 역시 뜻밖의 격정에 흐느끼듯 숨을 톺으며 그에게 매달렸다. 처음 한동안은 비서의 말소리도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였다. …바로 그 전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멀리 동해기슭의 한 인민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밤이 깊어서야 수도로 돌아오시였다. 급히 비준을 기다리고있는 문건들을 보시며 한편으로는 텔레비죤도 켜시였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불현듯 그이께서는 텔레비죤에 나오는 로병예술선동대활동에 주의를 돌리시였다. 낯익은 모습이, 로가수 김은영의 모습이 그이의 눈길을 끈것이였다. 그이께서 중학시절에 보신 가극들의 주인공역을 맡아하였고 행사공연들에서 독창가수로 어버이수령님의 치하를 받군 하였던 로가수가 지금도 대중의 절찬속에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였다. 화면은 오래 끌지 않았지만 그이께서는 줄곧 기억을 더듬으시였다.

가극 《견우직녀》와 《금란의 달》을 보시며 학생들에게 저 배우는 소리색갈과 형상이 남다르다고, 확실히 관록있는 배우인데 어째서 아무 명예칭호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공연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가극을 본 감상을 물으시고나서 지금 우리의 가극은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고,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우리 인민에게는 보다 혁명적인 가극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던 그 시절에 대한 추

억이였다. 특히 파제예브의 《청년근위대》를 각색한 가극에서 김은영이 류바(무용배우)역을 맡아하는것을 보신 후에는 노래는 물론 률동과 연기형상도 능란한 저런 배우가 외국작품대신에 우리의 혁명적인 가극에 출연하고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무척 아쉬워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흘러간 그 먼 시절의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전화로 비서를 찾으시였다.

《비서동무입니까.》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방금 텔레비죤에 로병예술선동대활동이 잠간 비쳤는데 거기서 한 낯익은 배우를 보았습니다. 이름은 김은영, 오랜 배우입니다.… 아, 비서동무도 알고있습니까?… 좋습니다. 한때 그처럼 이름을 날리던 그가 어떻게 되여 아무 소식도 없다가 백발이 되여서야 로병들과 같이 예술선동을 하고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시오. 아무때건 좋으니 내게 직접 알려주시오.》

얼마후 보고가 왔다. 한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명가수 김은영은 나쁜 놈들의 작간으로 국가적인 무대가 아닌 지방순회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소편대에 밀려나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끝내는 모란봉예술단의 성악지도원으로 돌려졌다고 한다. 70년대부터는 혁명가극의 주단역배우들을 지도하며 소문없이, 아무런 명예칭호도 없이 일하던중 나이가 많아 자택에 들어갔으나 80돐생일을 눈앞에 둔 오늘도 로병예술선동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는 내용이였다.

그이께서는 이윽토록 말씀이 없으시였다. 송화구로는 격하신 심정의 분출인듯 불같은 숨결만이 흘러들고있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마침내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사랑하시던 녀가수를 그렇게 밀어던지다니… 이제 무엇으로 그가 잃어버린 수십년세월을 되찾아주며 무엇으로 그의 마음에 생긴 공백을 채워줄수가 있겠습니까!…》

잠시후 그이께서는 김은영의 80돐생일이 언제인가고 알아보시였다.

《여든돐생일을 당에서 차려줍시다. 오랜 세월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노래를 불러온 그의 값높은 한생을 당에서 축복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해줄수 있겠는지 생각해봅시다.… 한생을 예술로써 당을 받들어온 그를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참, 내 생각엔 80돐독창회도 마련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80돐독창회를 하게 되면 그자체가 대단한 파문을 일으킬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난 가수들도 80고령에 노래를 부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는 지금도 특색있게 노래를 잘 부를것입니다. 수십년세월 변함없이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노래를 부르며 인민의 사랑을 받아온 명가수가 아닙니까. 독창회를 열면 모두 록음하여 나에게 보내주시오. 내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은영은 당중앙위원회 비서로부터 이러한 사연을 전달받고있었다. 두손을 꼭 맞잡고 그린듯이 서있었다. 숨도 쉬지 않는듯 했다. 불시로 치밀어오르는 뜨거운 눈물에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사뭇 떨렸다.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

한순간 이렇게 목메여 속삭이고는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그렇다, 어느 누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다 알수 있으며 어느 누가 그 모든것을 다 맛보았다고 자신할수 있으랴!… 눈부신 해빛이 창문으로 홍수처럼 밀려들고있었다. 태양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곧 사랑이다. 하기에 인생의 노래는 언제든 멎지 않으며 끝나지도 않는다. 사랑의 노래는 끝을 모른다!…

딸 림현순을 붙안고 소리없이 흐느끼는 은영의 자태가 하얀 벽면에 그림같이 찍혔다. 비서도 부부장도 아무말없이 은영이모녀가 눈굽을 닦을 때까지 기다리고있었다. 이런 때엔 말보다도 눈물이 더 많은것을 말해주기때문이였다.

3

눈부신 4월의 해빛은 고도 2만메터상공을 날고있는 비행기의 기창에도 아낌없이 흘러들고있었다. 기창옆에 앉아있는 고진아의 얼굴은 그 해빛을 받아 더더욱 밝고 산뜻해졌다. 그 녀자는 《로동신문》을 펴들고있었다. 바로 지난해 베이징에서 만났던 공훈예술가 림현순이 편지와 함께 보내준 신문이였다. 인제는 거의나 뜬금으로 외울수 있을 정도로 읽고 또 읽은것이지만 한시도 거기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다.

신문을 보내면서 림현순은 이렇게 썼다.

《고진아앞.

나는 당신에게 먼저 우리 어머니(김은영)와 가족모두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이 알고싶어하는 부모들의 과거사는 여기에 동봉해보내는 〈로동신문〉에 다 씌여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조국은 언제든 당신을 반겨 맞이할것입니다.

상봉의 날을 기다리면서…

림현순》

고진아는 북조선의 《로동신문》이 당보이며 가장 공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기사들만 싣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것은 요란스러운 광고나 살인, 절도, 강간따위의 범죄,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개별적정치평론가들의 편견에 찬 론평이나 가지가지의 잡스러운 흥미본위적인 세태풍속과 일화들이 끼울 자리가 없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신문이였다. 바로 거기에 로가수 김은영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살아온 자랑스러운 한생에 대한 이야기가 옹근 한면에 걸쳐 실려있는것이다.

그것은 《심장으로 부르는 그리움의 송가》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였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80고령의 녀가수가 독창회를 준비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살고있는 집을 찾았다.

대동강반의 고층살림집구역에 들어서니 고음가수의 절절한 노래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맑은 음색, 창공으로 나래치는 새처럼 거세차고 거침없이 울려퍼지는 풍부한 성량, 섬세하면서도 열정이 끓고있는 형상세계…

한편의 노래에도 력사와 시대가 비낀다. 우리 인민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겼던 왕년의 가극배우 김은영은 비록 머리엔 은발을 얹고있지만 밝고 산뜻한 미소를 담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

이렇게 시작된 기사는 《태양의 품을 찾아서》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소제목들로 나뉘여있었다. 고진아는 그 글줄들을 눈으로 삼킬듯이 읽고 또 읽었다.

은영의 한생이 집약되여있는 기사, 거기엔 고진아의 어머니 박수미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있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김은영과 고종

우를 설유하던 끝에 남으로, 서울로 도주하던 이야기, 그리하여 갈라진 두 녀배우의 운명… 그에 대하여 신문의 기사는 이렇게 쓰고있었다.

한번 택한 길에서 물러나면 인생의 락오자가 되기마련이다. 오직 굴함없이 곧바로 변함없이 걸어갈 때에만 비로소 참된 인생의 절정에 오를수 있는것이다. …

그렇다,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고진아의 어머니는 파멸의 길로 굴러내렸고 변함없이 빛을 따라간 김은영은 빛나는 생의 절정에까지 오르게 되였다. 실로 판이한 두 인생이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했던가. 그처럼 진실한 벗들을 배신하고도 얼마나 모질게 헐뜯었던가!… 말년에는 아편주사까지 맞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머니, 아편과 탕녀적인 생활로 몸을 망치고 정신마저 비뚤어진 어머니가 자살을 결심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때 어머니가 미국에 살고있던 딸 진아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는 이런 말들로 끝을 맺고있었다.
《나는 그네들을 일생 저주해왔다. 그네들이 나에게서 모든것을 다 빼앗아갔구나. 이제 나한테 남은게 뭐니. 버림받은 운명… 너마저도 이 에미를 미워하고있지. 저주하고있다는걸 난 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 이 에민 평생 고독하구 불행했다. 하느님이 날 버렸어. 예술과 사랑이 날 배신했던거야. 내가 버린건 아니야. 난 미칠지경으로 그걸 바랐지만 그것들은 걸음마다 날 차던지구말았어. 너마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니 난 외롭게 생을 마칠수밖에 없구나. 부탁하는데 내 죽은 다음이라도 북에 간 그네들을 좀 알아봐주렴. 고종우를 찾아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아라. 무던하구 착한 그 사람이 무어라구 하겠는지… 아직 너한테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정확히 대주지 못한 이 에미를 용서해다오. 나는 간다. 나를 버린 하느님한테로 엎드려 기면서라도 가련다. 그럴수밖에 없는 이 에미를… 용서해다오. 진아야, 나를 버린 사람들도 이제 와선 다 나를 용서해주기를 바라며 빌고 또 빈다. 눈물로 속죄하는 이 마음을… 내 딸아, 너만이라도 알아주렴, 너만이라도!…》

그 마지막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였다. 《나를 버린 사람들도 이제 와선 다 나를 용서해주기를》 빈다고 한것은 어머니가 그들을 배신했었다는 고백이였다. 신문에 난 기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는것이다.

안내원이 들어와 비행기가 조국의 상공에 들어섰다고, 이제 30분후이면 조국의 수도 평양에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조국!…》

진아는 불시로 뜨거운 속삭임에 목이 메이는것을 느꼈다. 반세기가 넘어서야 비로소 찾아오는 조국, 50살이 넘어서야 찾게 되는 내 나라, 내 땅이였다. 기창아래는 흰구름들이 한폭의 대형그림처럼 널려져있었다. 산봉우리같이 우중충하게 솟아오른것도 있고 밭고랑처럼 길게 뻗어간것들도 있다. 기암절벽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골처럼 패운것도 있다. 그 구름장들사이로 해빛을 받아 파랗게 펼쳐진 산천이 아득히 내려다보였다. 하늘엔 하얀 구름의 산천이 펼쳐져있고 땅우엔 파란 전야와 수림, 강과 호수들이 수려하게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고진아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어 땅우에 움직이는 모든것들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창밖을 내려다보고있었다.

4

김은영의 80돐독창회에는 오랜 옛지기들과 함께 인민배우, 공훈배우로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제자들은 물론 전후복구건설의 벅찬 시기부터 그를 알고있는 사람들, 작가들과 기자들, 새 세대 예술인들도 수많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고진아는 비행장에서 곧장 여기로 차를 달려왔다. 마중나왔던 림현순이 오늘이 바로 어머니의 80돐독창회를 하는 날이라고 하기에 다른 일정은 다 뒤로 미루기로 한것이였다. 미리 정해놓은듯 한 좌석에 자리잡고 앉자 림현순이 객석의 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소개해주었다. 로가수 김은영의 제자들인 인민배우 아무개, 공훈배우들인 누구누구 하고 불러댔으나 고진아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다.

고진아도 잘 아는 사람들, 한때 어머니가 자주 입에 올리던 조련과 한정애를 비롯한 로가수들부터 차례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늘 독창회의 주인공 김은영의 친척들중에서는 누가 왔는가 하는것에도 흥미를 가졌다. 그러나 진아가 어머니 박수미의 회상속에서 익힌 사람들은 얼마 없었다. 친척들중에서도 김은영의 막내동생만이 와있었다. 누

이와 같이 성악가수로 자라나 인민군협주단에서 가수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영화 및 방송음악단에서 노래하고있다 한다. 전쟁전에 아버지와 같이 학살당한 김일한과 김차한이처럼(이런 사연은 《로동신문》에 상세히 소개되여있었다.) 남달리 특이한 목청을 타고난 그도 인제는 6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라고 한다. 그들의 부모는 많은 자식을 낳아 키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남은것은 주인공인 김은영이와 김유한 두 남매뿐이였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고진아는 여기에 자기 아버지 고종우와 어머니 박수미도 있었더라면 어떤 극적장면이 벌어졌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알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였다. 갈라진 강토와 갈라진 민족의 아픔이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무대였다. 진정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속에 흘러간 세월이였던가!…그새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 역시 눈을 감았으니 여기에 진아와 혈연적으로 이어진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는셈이였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갔다. 얼마간 시간이 또 흘렀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뒤늦게야 차를 타고온 사람들속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로연출가인 박진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저분이예요.》 림현순이 다부진 체격에 키가 크지 않은 로인을 가리키며 소곤거렸다. 《신문기사에서 봤지요?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 단장을 하던분 말이예요.》

《아, 저분?!》 진아는 어머니가 하던 말을 상기하며 나직이 말하였다. 《백영준이란 사람하구 박진, 그 두분얘길 참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서…》

그때 박진은 초대석을 마다하고 무대뒤쪽으로 가고있었다. 백발의 로인답게 천천히 걸어가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가 여기서도 무대지휘를 하려는가고 이상해하는것이였다. 그런데 그는 사회를 맡고있는 녀성방송원을 붙들고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엇을 말했고 무슨 약속을 받아냈는지는 알수 없으나 서둘러 자리에 내려서는것을 보면 곧 독창회가 시작될것 같았다.

드디여 객석의 불이 서서히 꺼지고 진달래꽃을 수놓은 무대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관현악단이 나타났다. 고진아는 재빨리 맨 뒤쪽의 드람수로부터 피아니스트는 물론 바이올린과 첼로연주가들모두를 훑어보았다. 저들속에도 어머니 박수미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가.…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 그들이 이 자리에 있을수 없다는것

을 잘 알면서도 웬일인지 모두가 불행한 자기 어머니를 알고있는듯이 생각되는것이였다.

사회를 맡은 방송원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나라없는 민족의 설음을 안고 13살 어린 나이에 인생을 빛내줄 밝은 태양을 목메여 부르며 무대에 나선이래 장장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태양의 노래를 불러온 김은영선생의 80돐독창회를 가지게 됩니다. 곡절도 많은 한생에 눈물로 불러온 노래는 그 얼마며 밝은 희망과 환희에 넘쳐 심장으로 부른 노래는 또 그 얼마이겠습니까!… 그럼 오늘의 뜻깊은 독창회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이해에 흘러간 세월의 자취를 더듬으며 사연많은 노래를 안고 나오는 김은영선생입니다!…》

폭풍같은 박수가 터졌다. 조명등의 불빛이 무대에로 나서는 주인공을 휘감고 촬영가들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사진기의 섬광들이 번쩍이였다. 고진아는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쥐고 무대에 나서는 김은영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80고령에 그처럼 밝고 순수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한때 심하게 다친 후과로 한손에 짚고있는 지팽이만 아니라면 여전히 선녀같은 자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문득 수십년전에 눈을 감은 어머니의 비참한 정상과 대비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편중독으로 흐리마리해진 두눈에 초물같은 눈물만 찔끔거리고있었을 어머니…

관현악이 울리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야 마음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이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안겨주신 참된 삶과 행복을 터치는 랑만적인 노래의 선률이 그의 가슴에도 물결처럼 흘러들기 시작하였다.

봄이 와서 이 강산에 꽃이 피는가
하늘맑아 우리 기쁨 넘쳐나는가
아 수령님품속에서
이 행복 이 기쁨이 넘쳐흐르네

사회자가 말했듯이 로가수는 자기가 부를 곡목들을 흘러간 세월의 발자취를 더듬어 선택한듯 하였다. 이 나라의 남녀로소 그 누구나 잘

아는 《봉선화》의 애절한 흐느낌이 파동쳐올 때 고진아는 비참한 어머니의 운명을 생각하며 다시금 눈굽이 저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어머니가 남긴 사진들속엔 저 로가수와 박수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적지 않다. 한때엔 서로 껴안고 눈물을 뿌리던 그들의 운명은 얼마나 판이하게 되였는가?!…

어언간에 여름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락화로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로가수는 불우했던 이 나라 녀인들의 운명을 담아 흐느끼고있었다. 아직 고진아는 이 노래를 이렇듯 가슴저미는 눈물속에 들은 기억이 없었다. 그것은 그대로 어머니의 비참한 한생에 대한 노래인듯이 여겨졌다.
림현순이 울고있는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서로의 체온과 뜨거운 피의 흐름이 마주잡은 그 손을 통하여 전해졌다. 그것이 또 고진아를 눈물짓게 하였다. 아무런 혈연도 없는 그들이였지만 이 시각 그들은 눈물의 노래속에 서로의 마음을 잇게 되였다.
《봉선화》가 끝나자 사회자는 김은영선생이 한때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에서 전쟁승리를 위하여 헌신한 로병이라고, 그가 어떻게 우리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당을 따라 사선의 고비를 헤쳐왔는가를 박진동지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자고 했다. 그러자 기다리고있던 박진이 나섰다.
백발의 그는 역시 백발을 얹고있는 로가수와 수십년만에 만난 벗들처럼 뜨겁게 인사를 나누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독창회무대에 오른 옛 전우를 보니 감회가 깊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전쟁시기 한 녀배우가 남으로 가자고 꾀드겼지만 기어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를 찾아오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고진아의 어머니 박수미에 대한 이야기였다. 김은영이며 고종우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버린것이 아니라 어머니자신이 자기의 희망과 미

래를 버리고 달아난 이야기,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미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하여 만단사연을 알고있었지만 고진아는 머리를 떨구고 옷고름만 쥐여뜯고있었다. 아아, 어머니, 한순간에 의리를 저버리고 희망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 어머니! 자신마저 버렸으니 이후에 차례진 비참한 운명은 너무도 당연한것이였다.

…

노래는 계속되였다. 삶과 로동, 사랑과 행복에 대한 노래들이였다.

천년을 만년을 번영할 내 나라
인민들의 념원이 아름답게 꽃피네
사람마다 화목하고 서로서로 이끌어나가니
아 내 고향 행복의 노래소리 정다운
예가 바로 살기 좋은 나의 고향 사회주의락원일세

가수는 가극 《견우직녀》와 《금란의 달》의 아리아들도 불렀다. 흘러간 시대와 년대들을 뜨겁게 추억케 하는 노래들이였다.

매 곡목이 끝날 때마다 우뢰같은 박수가 터지고 꽃다발을 든 옛지기들, 제자들이 달려나가 가수를 부둥켜안으며 축하를 했다. 어언 70고개에 올라선 리연영(한때 모스크바연수생이였던 녀성이라고 현순이 귀띔했다.)이도 꽃다발을 안고 달려나갔다. 축하의 인사말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로가수의 귀전에 무어라 속삭이고 내려온 리연영은 림현순의 옆자리에 앉더니 눈굽을 찍으며 말했다.

《내가 왜 우는지 아세요? 저 김은영선생을 보면서 한때 쏘련에서 유명하던 녀가수 아부호바를 생각했어요. 그의 70돐독창회가 오페라극장에서 열렸는데 노래가 시작되여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그만 장내는 울음바다가 돼버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듯 명성높고 사랑받던 녀가수가 나이와 함께 조락하여 옛날 그리도 맑고 우아하게 노래부르던 그 녀가수가 옳긴 옳은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불쌍하여 울었어요. 인간의 힘으로써는 어찌할수 없는 세월의 무정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할가.… 그러나 나는 지금 너무도 기쁘고 황홀해서 또 눈물이 나는군요. 현순이, 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밝고 생신하고 귀엽기까지 한가!…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이 이처럼 고령의 가수도 청춘으로 다시 내세워주셨으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수 있겠어요. 진정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 안예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룰수 있는 기적이라고 할가. …》

그때 로가수는 조기천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 《휘파람》을 부르고 있었다. 80고령에 수줍음타는 처녀들의 기쁨과 행복을 그리도 방불하게 재현하는데는 만장이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폭풍같은 박수가 터지고 허리굽혀 거듭 인사를 하고난 끝에 김은영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주세요.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참되고 복된 삶을 노래합시다. 저는 한생 노래를 불러온 한 예술가로서 오늘 세상에 대고 웨치고싶습니다. 이 세상에 명성높은 예술가들은 많고 또 많습니다. 이름을 날리고 꽃다발과 박수갈채에 묻혀산 예술가들은 많아도 위대한 수령의 총애와 인민의 사랑을 받은 예술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 제일 큰 사랑을 안고사는 예술가, 가수입니다. 한때 저를 두고 예술에서도 사랑에서도 불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고 태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를 보십시오. 태양의 가수로 사는것이상 더 큰 행복이 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되게 살아온 저의 한생을 노래합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라고 노래불러 자랑하고있는것입니다!》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고있다. 그러자 만장이 또 열렬한 박수로 화답해주었다. 다시 관현악이 울린다. 처음부터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며 흐르는 그 음악에 벌써 로가수는 눈물이 글썽해지고있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전체 관중이 노래를 따라불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지금 이 시각에도 멀고먼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을 그리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기 바쁘게 무대로 걸어나가는 한 로인이 있었다. 꽃다발을 안고 조명등의 밝은 불빛에 눈이 먼 사람처럼 나가고있었다. 사

회를 맡은 방송원은 물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오직 무대우의 주인공만이 그를 얼싸안을듯 앞으로 나섰다.

두사람은 잠시 아무말없이 마주서있다가 뜨겁게 두손을 맞잡았다.

《여러분!》 드디여 로인이 객석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비전향장기수 한광수입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만장이 술렁거리자 그는 눈물로 젖는 얼굴에 애써 웃음을 떠올렸다.

《한때 저는 이 김은영선생과 함께 서울 한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었습니다. 전 력사교원이였구 김선생은 음악교원으로 말이지요. 그때 일들에 대하여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시간도 제한되여있겠구… 그래서 한가지만 말하자고 합니다. 우린 전쟁과 함께 갈라져 반세기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동안 저는 철창속에서 한생의 거의 전부를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청춘도 사랑도 다 잃었다고 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자 김선생도 말했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한생보다 더 큰 자랑과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선생은 우리의 이 마음을 노래불러주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고넘치는 하많은 사연을 다 노래로 불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터지는 폭풍같은 박수속에 그는 무대를 내렸다. 절절한 관현악의 울림이 그가 못다한 말을 풍만한 화음으로 이어주고있었다.

이렇게 독창회의 시간은 흘러갔다. 노래와 함께 흘러간 세월을 더듬고 래일을 내다보며 모든 사람이 시간의 흐름을 감감 잊고있는듯싶었다.

고진아가 자리에서 일어선것은 마지막곡목을 앞둔 때였다. 그 녀자의 옷차림이 먼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의혹을 자아냈다. 사회를 맡은 녀방송원은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었으므로 마이크앞에서 굳어져있었다. 장내엔 숨소리 하나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고진아는 무대우로 오르자 갑자기 못박혀버리고말았다. 로가수에게로 향한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번뜩이고있었다. 무엇인가 소리치고싶으나 목이 콱 메여 모지름쓰는것 같았다. 침묵… 그것이 무던히도 오래 계속되는듯 했다.

《축하드려요.》 이윽고 고진아가 눈물로 속삭인 말이였다. 《전… 고진아예요. 저의 축하도… 받아주시겠지요?》

《진아!》 김은영의 목소리도 젖어들고있었다. 《그런데 어째 그러구 서있지?… 어서 와야지, 진아!》
《선생님!》
고진아가 꽃다발을 안은채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로가수가 장년의 녀인을 부둥켜안자 장내가 떠나갈듯 다시 박수가 터졌다. 비록 그들―김은영과 고진아의 눈물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나 흘러간 세월과 더불어 남달리 뜨거운 사연이 있으리라는것만은 누구나 다 짐작하였던것이다. 고진아가 말했다.
《선생님, 다 들었어요. 늦었지만… 인젠 다 알게 됐어요. 선생님, 이제부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그래, 그래야지.》 은영은 진아를 껴안고 그의 눈물에 젖은 두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이였다.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진아, 늦었지만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태양을 떠나 우린 못살아!…》
조명등의 불빛들이 껌벅거리고 다시 시작된 관현악의 선률도 목메인 흐느낌소리처럼 울렸다. 제자들인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이 또 무대로 달려나왔다. 그들모두가 한덩어리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품고있는 생각도 모두다 말을 하고
움터나는 희망도 터놓습니다
하늘처럼 믿고삽니다 장군님을 믿고삽니다
천년세월 흐른대도 **김정일**장군님만을

한생은 길지 않다. 그리고 짧지도 않다.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영원히 이어지기도 한다. 그 한생이 길었던가 짧았던가, 행복했던가 불행했던가를 가르는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모르는 삶은 허무하고 비참하나 끝까지 사랑을 바치고 사랑을 안고산 사람은 행복하다. 참된 삶과 복된 삶은 오직 진실한 사랑에서만 온다.

하늘처럼 믿고삽니다 장군님을 믿고삽니다
천년세월 흐른대도 **김정일**장군님만을

이것은 독창회의 마지막곡목이였다. 다난스러운 한생을 걸어온 녀가수 김은영이 인생의 총화로 선택한 노래였다. …